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한국의 국익공간으로서 유라시아 탐색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19일(토)
장소 :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국제사회교육원 연구동

프로그램

2016년 11월 18일

개회식 307호

14:00–14:20 개회사 – 홍완석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회장)
환영사 – 김현택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소장)

14:20–16:00

I 세션 (문학 세션 1) 러시아 및 체코 문학의 전통과 그 의미 **307호**

사회: 김규진(한국외대)

3	밀란 쿤데라의 『열쇠의 주인들 *Majitelé klíčů*』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유선비(한국외대)
13	러시아 자화상 전통과 푸슈킨의 자화상	심지은(한양대)
	유아용 애니메이션 『마샤와 곰』에 나타난 문화의 전승 양상(준비단계)	박선영(충북대)
	토론: 김규진(한국외대), 서광진(서울대), 김윤영(서울대)	

II 세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세션 1)
러시아 인문공간의 제한성과 잠재력(I) **411호**

사회: 황성우(한국외대)

37	동북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GTI의 신현실주의적 분석: 전망이론의 상대적 손실을 중심으로	김선래(한국외대)
51	1920년대 소련 원동고려문단의 초기 형성과정 (고려인 한글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배은경(한국외대)
59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 · 경제적 변화와 특성	최우익(한국외대)
	토론: 변현섭(한양대), 김혜진(한국외대), 김상철(한국외대)	

III 세션 (동유럽 외국인 교수 세션) **205호**

사회: Piotr Horbatowski(한국외대)

73	How to describe the Czech verbal aspect?	Milan Hrdlicka(한국외대)
79	Reflection of Russia’s Imperial Policies in the Works of Taras Shevchenko	Olena Shegal(한국외대)
93	The Image of Women in the Ukrainian and Korean Cultures: An Ethnographical Aspect	Irina Zbyr(한국외대)

IV 세션 (한국외대 대학원생 세션 1)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대외정책 **301-1호**

사회: 정세진(한양대)

111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trochemical industri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김서이
133	1차~4차 북핵실험을 통해 본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 고찰	김준현
135	사하공화국-한국 간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전망	아르촘 예고로프
	토론: 제성훈(한국외대)	

16:00-16:20 Coffee Break

16:20-18:00

V 세션 (문학 세션 2) 러시아 문학 테마 및 예술 철학 **307호**

사회: 박혜경(한림대)

139	아이와 형제의 테마: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스메르댜코프	윤새라(울산과기원)
151	M.A. 불가코프의 초기 소품 「도시 키예프」(Киев-город)읽기: 1920년대의 문학적 경험에 비추어	강수경(부산대)
155	파벨 플로렌스키의 예술철학 연구: '역원근법'과 '이코노 스타스'를 중심으로	장혜진(한국외대)
	토론: 김민아(서울대), 조규연(단국대), 신혜조(성균관대)	

VI 세션 (러시아 외국인 교수 세션 1) **205호**

사회: Юшина Л.Ю.(한양대)

171	Субстантивная номинация как сред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ерсонажа (на материале романа М.А. Булгакова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Юшина Л.Ю.(한양대)
191	МЫ и ОНИ в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Полухина Е.Н.(배재대)
195	Современные языковые модификации: за и против	Свинцова И.Ю.(한국외대)
201	Образ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семантических полей	Поспелова М.С.(수원대)

VII 세션 (중앙아시아 외국인 교수 세션) **301-3호**

사회: Piotr Horbatowski(한국외국어대)

213	Об изменениях фор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а как объекта обучени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аудитории	Aliya Kuryshzhan (한국외대)
217	THE DISTORTION OF MEMORIES IN KRISZTIÁN GRECSÓ'S NOVEL MELLETTEM ELFÉRSZ	Karisz Krisztina (한국외대)

VIII 세션 (통번역 세션) **411호**

사회: 방교영(한국외대)

231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에 대한 러시아 수신자 반응 연구 - 번역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서유경(한국외대)
249	근대 러시아 문학 번역과 번역가들 - 1930~1940년대를 중심으로	유정화(한국외대)
257	희곡번역 과정 연구: ANT를 중심으로	윤현숙(한국외대)
	토론: 정혜린(한국외대), 한현희(경희대), 조준래(한국외대)	

IX 세션 (한국외대 대학원생 세션 2)

러시아 역사 및 교육 담론, 그리고 경제협력 — 301-1호

사회: 강윤희(국민대)

269	극동에서 러-중 경제협력의 동인: 푸틴시대를 중심으로	정두호
301	2차대전 당시 소련 소수민족의 전쟁참여: 훈장 수훈자와 민족부대 분석	양성민
315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개혁 정책에 관한 소고 대통령 연례교서와 주요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조성연
	토론: 김성진(덕성여대)	

18:00–19:00 만찬

19:00–20:30 축하행사

2016년 11월 19일

09:00–10:00 조찬

10:20–12:00

X 세션 (지역학 세션) **대러 제재 하 한 · 러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 307호

사회: 홍완석(한국 외대)

339	한 · 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 방안: 외교안보적 관점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원)
353	한 · 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 방안: 경제협력 및 사회교류 관점	이상준(국민대)
365	러 · 일 관계의 최근 변화 동향과 한반도에의 함의	김정기(한양대)
	토론: 장덕준(국민대), 변현섭(한양대), 김성진(덕성여대), 정세진(한양대), 강명구(산업은행), 윤성학(고려대)	

XI 세션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HK세션 2)

러시아 인문공간의 제한성과 잠재력(II) — 411호

사회: 송준서(한국외대)

385	마리 디아스포라의 이중신앙	김혜진(한국외대)
395	러시아 제7기 국가두마 선거와 선거제도 개편의 제도효과	장세호(한국외대)
397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북극 신화	라승도(한국외대)
	토론: 황성우(한국외대), 김선래(한국외대), 김준석(한국외대)	

XII 세션 (러시아 외국인 교수 세션 2) — 205호

사회: Баллод Ж.О.(서경대)

401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ащим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Баллод Ж.О.(서경대)
411	Из опыта редакторской работы	Депонян К.А.(수원대) & Кулькова Р.А.(상명대)

419	ОБЩИЙ СЛОВАРНЫЙ ФОНД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СТАНСТВАХ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Виноградова Н.В. (부산대)
12:00–12:20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총회	
12:20–13:00	오찬	
13:00–16:30	트래킹	
16:30	석찬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307호

I 세션 (문학 세션 1)

러시아 및 체코 문학의 전통과 그 의미

사회: 김규진(한국외대)

≫ 발표 1

밀란 쿤데라의 『열쇠의 주인들 *Majitelé klíčů*』 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유선비(한국외대)

≫ 발표 2

러시아 자화상 전통과 푸슈킨의 자화상

심지은(한양대)

≫ 발표 3

유아용 애니메이션 『마샤와 곰』에 나타난 문화의 전승 양상(준비단계)

박선영(충북대)

밀란 쿤데라의 『열쇠의 주인들 *Majitelé klíčů*』에 나타난 오브제의 특성

유선비(한국외대)

1. 들어가는 말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는 20세기 후반부터 체코문학가로서는 가장 주목 받는 작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왔으며 꾸준히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저 소설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시, 희곡, 에세이 등 많은 장르의 작품을 저술했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희곡들은 체코와 유럽에서는 현재에도 꾸준한 상연과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적인 작가로 이름을 알린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과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많은 학자들이 희곡과 연극들을 기호학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극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파리기호학이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극기호학의 기초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바로 프라하학파를 중심으로 했던 학자들이다. 20세기 초반에 활발히 활동을 했던 프라하학파의 의미와 업적은 후대에 알려지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물론 얀 무카르조프스키(Jan Mukařovský)나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 등을 중심으로 하는 프라하학파의 구조주의는 언어학 부분에서 상당히 알려지고 연구된 바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프라하학파의 연극기호학에 대한 부분은 알려진 바가 적고 그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밀란 쿤데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의 작품들 중에서 희곡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밀란 쿤데라의 소설들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연구가 되어왔지만 희곡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호의 특성을 잘 살린 그의 초기 희곡 작품들을 프라하학파의 연극기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밀란 쿤데라의 희곡, 특히 최초의 희곡으로 알려진 『열쇠의 주인공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1961년 완성되어 극예술 잡지인 *Divadlo*에 실렸으며, 1962년 책으로 출

판되었으며 같은 해에 상연되었다. 이 희곡 속에서 오브제들이 어떻게 기호화되고 있으며 이런 오브제들이 기호로써 혹은 인물들이나 공간들과 연관하여 하나의 구조 안에서 어떤 특성과 기능을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2. 본론

무대 위에 있는 사물들은 주로 소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 무대나 배우를 장식하거나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 물건들을 나타낸다. 프라하 연극기호학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벨트루스키(J. Veltruský)의 소품에 대한 정의는 주목할 만하다.

> Rekvizita bývá obvykle označována jako pasivní nástroj hercova aktivního jednání. To však nevystihuje plně její podstatu. Rekvizita není vždy pasivní. Je v ní síla(označili jsme ji jako akční sílu), která k ní přitahuje určité jednání. Jakmile se objeví jistá rekvizita na scéně, navozuje v nás tato její síla očekávání příslušného jednání. Tak pevně je s ním spjata, že její použití k jinému jednání pociťujeme jako scénickou metonymii.[1)]

> 소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우의 능동적인 행위의 수동적인 도구로써 표시된다. 하지만 이 말은 그 근본을 나타내지 못한다. 소품은 항상 수동적이지 않다. 그 안에 특정한 행위를 끌어당기는 힘이(우리는 이것을 능동적인 힘으로써 나타냈는데) 있다. 장면에 분명한 소품이 등장하자마자 우리는 이 힘을 해당되는 행위에 대한 기대감과 연결시킨다. 이처럼 강하게 연결되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행동에 대한 이 소품의 사용을 장면적 환유처럼 느끼게 한다.

벨트루스키의 말처럼 무대에 소품이 등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소품의 의미를 공간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무대에 부엌칼이나 냄비들이 있다면 무대의 장소가 부엌이라고 여기게 되고 침대가 있다면 실내이면서 침실이라고 여길 확률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무대가 분명 거실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펜싱용 칼이나 사냥총 등이 놓여있다면 그 소품과 이 공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소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소품과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한 의미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사냥총이 걸려있는 무대를 들어보자. 무대에 이 사물이 등장하면 관객들

1) J. Veltruský, Člověk a předmět na divadle, in: *Příspěvky k teorii divdla*, p. 47.

은 바로 이 사물이 지니는 의미해석을 시도한다. 특히 등장인물과 관계해서, 이 사람이 사냥을 좋아하거나 직업일 수 있겠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사냥총이 거실에 계속 걸려있고 어떤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과도 연관하지 않는다면 이 총은 말 그대로 무의미한 사물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사물이 무대에 그냥 놓여있거나 장식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 이 사물은 거실의 주인이 사냥을 좋아했건 선물을 받았건 아니면 장소의 기능을 나타내건 어떤 형태로든 극과 연관하게 되어있다. 만일 이 총이 등장인물들의 행위와 연관한다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한 남자가 무대에서 이 총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면 이 총은 작품의 플롯과 강하게 연관하는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 이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조용한 공간이 아니라 갑자기 살인의 공간으로 변형된다. 벨트루스키가 "무대 위의 모든 것은 기호다.(Všechno, co je na scéně, je znakem.)" 라고 말했듯이 무대 위의 사물은 하나의 기호이며 다른 기호들과 만나면서 다층적인 기호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공간의 특성을 환유적으로 규명하거나 다른 의미의 공간으로 변형되게 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열쇠의 주인공들』의 경우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작품의 중심에 '열쇠'라는 사물이 놓여있다. 이 사물이 극에서 지니는 상징성은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함께 몇몇 인물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대략 제 2차 세계대전 후 독일 지배하에 있던 시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공간은 체코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한쪽 방에는 주인공 이르지(Jiří)와 그의 부인 알레나(Alena)가 살고 바로 옆방에는 알레나의 부모가 살고 있다. 두 방은 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이르지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열쇠 꾸러미 두 개를 지니고 나가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체코의 경우 밖에서 열쇠로 잠그면 안에서도 열쇠로만 열 수가 있다.) 이로 인해 부인 알레나가 발레연습을 하러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는 무척이나 화가 난다. 돌아온 그에게 그녀는 화를 내고, 여기에 장인 크루타(Krůta)도 원래 주인인 자신에게 열쇠꾸러미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 열쇠꾸러미는 이르지가 결혼할 때 장인이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화가 난 알레나, 그녀의 부모와 이르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주인공의 예전 애인이자 좌파운동가인 베라(Věra)가 나타나 잠시 몸을 숨겨달라고 한다.

위의 줄거리에서 볼 때 열쇠는 자물쇠를 잠그고 여는 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공간과 연관하고 있으며,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그 열쇠가 상관하는 공간의 주인임을 상징한다. 이 말은 바로 열쇠가 그 공간의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일련의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예전에 좌파 운동에 몸담았던 이르지가 이를 모두 잊고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려와 어여쁜 부인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장인으로부터 하나의 열쇠꾸러미를 넘겨받으며 그는 이 작은 공간의 주인이 된다. 이 공간에서 그는 과거와는 다른 완연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공간은 '소시민적 삶'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주인공 이르지가 "이건은 나의 세계(To je můj svět)"라고 한 것처럼 그의 세상이다. 그가 열쇠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한 보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공간에 그의 과거의 여인이 나타난다.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린 건물관리인이 그녀를 게슈타포에게 넘기려하자 그는 문진으로 그를 살해하고 황급하게 소파 밑에 숨긴다. 이처럼 우연히 찾아온 옛 동지이자 애인인 베라를 돕기 위한 우발적인 행동은 그가 주인이었던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가 이 공간을 떠나는 최후의 순간에 그는 자신으로부터 열쇠를 요구하던 장인에게 마지막으로 열쇠꾸러미를 넘긴다. 즉 공간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열쇠는 열쇠 이상의 것이지(Klíče jsou více než klíče)"라고 외치던 장인은 열쇠를 넘겨받고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하며 기뻐한다. 다시 이 공간의 주인은 장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간의 주인은 살인과 연관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복잡한 관계는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도 모르게 역사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쿤데라의 후기 소설작품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우연'과 '완전한 실패'와 같은 모티브들이다. 우연히 일어난 사소한 사건이 인물의 삶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거나 절대적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모티브들은 『농담 *Žert*』,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Nesnesitelná lehkost bytí*』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이 외에도 이 작품에서는 창문, 시계, 거울과 같은 사물들이 중요한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나의 공간을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창문은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지니는 성격 혹은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오브제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창문을 항상 닫도록 요구한다. 체제를 찬양하는 행사가 벌어지곤 하는 바깥세상은 시끄럽고 그가 차단하고 싶어 하는 세계임으로 이와의 통로가 되는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거부한다. 이에 반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가정주부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부인 알레나는 계속 창문을 열고자 한다.

2) 『농담』의 경우는 주인공이 우연히 농담처럼 쓴 엽서의 한 문구가 문제가 되면서 인생이 바뀌는 내용이다.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해 복수를 하기위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옛 친구의 부인을 유혹한다. 하지만 그녀를 유혹하는데 성공했을 때 그의 복수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혼했고 그 친구는 부인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기 때문이다. '우연'에 대한 모티브는 쿤데라의 여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도 역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주인공 토마쉬(Tomáš)가 시골마을에서 우연히 테레사(Tereza)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고, 여기에도 '완전한 실패'의 상징이 나타난다. 테레사는 토마쉬의 성적인 자유로움, 가벼움에 지치고 서로 대치하면서 갈등이 고조된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 시골로 내려간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영유하리라고 보지만 차사고로 죽음을 맞이한다.

V prvním pokoji leží Jíří ještě na rozestlaném gauči, z něhož Alena, jeho žena, právě vstala. Zvenku otevřeným oknem zaznívají sborově bubínky a píšťaly.

Jiří (znechucen tím rámusem) Svět je dotěrný. (Vstává a jde k oknu)
Kruůta (směrem k oknu ve svém pokoji) Lumpi.
Jiří (zavírá okno) Tak. (Hluk se ztiší a doléhá již jen zcela vzdáleně)
Krůta Odevšad je ženou, ale praráda musí být.
Jiří (vrací se do postele) Svět je naštěstí jak lampa, která se dá zhasnout. (Slastně znovu uléhá) Stačí zavřít okno a zavřít oči. p. 17

첫 번째 방에는 펼쳐진 소파형 침대에 이르지가 여전히 누워있고, 그의 부인 아레나는 막 일어났다.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밖으로부터 북과 관악기들의 합주소리가 울린다.

이르지 (이 소음으로 짜증이 난다) 세상이 끝이로군.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간다)
크루타 (자기 방 창문 쪽으로 간다) 불한당들.
이르지 (창문을 닫는다) 그래. (소음이 잦아들고 이젠 거의 멀게만 들린다)
크루타 여기저기서 몰아붙이는군, 그렇지만 퍼레이드는 있어야만 하지.
이르지 (침대로 돌아온다) 세상은 다행이도 끌 수 있는 램프와 같단 말이야. (더없이 행복하게 다시 눕는다) 창문을 닫고 눈을 감으면 충분하거든.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르지는 '창문을 닫음'으로써 세상과의 단절을 희망한다. 과거 파시즘에 맞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그는 그의 의지를 덮고 가정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 안주했다. 그리고 그는 창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그에 비해 그의 장인 크루타는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따라가는 소시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철저하게 독일의 방식을 따르고 강요하는 집주인의 여러 절차와 강요를 비판하면서도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간다. 이는 그가 바깥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불평을 쏟아내지만 창문을 열어두고 세상과의 소통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각각의 방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위의 인용문은 극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면으로, 두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의 창문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방식은 이후에도 다시 나타난다.

이르지는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창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눈까지 감는다. 세상을 램프에 비유하며 자신의 의지로 꺼버릴 수 있으며 세상사를 자신의 의식세계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거울이며,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했다. 그런데 이르지는 이런 통로를 닫아버린 것이다. 그는 세상을 의식적이고 정신적인 감각으로 산다기보다는 육체적인 감각으로 살아가고 있다. 위의 장면에 이어 이르지가 아름다운 아내의 육체를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발레연습을 가기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발랄하게 왔다 갔다 하며 옷을 입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르지는 말한다.

> Alena je na začátku svých ranních úprav, je v dobré náladě, otvírá gramofon a dává na něj desku. Jiří si toho všimne.
> Alena: Když je neděle, tak má být vesele.
> Jiří: Vesele, to je tiše.
> Alena: A nedívej se na mě, když se oblíkám!
> Jiří: Vesele, to je dívat se, jak se oblíkáš. (Jiří se dívá se zalíbením na Alenu ...) p. 18

> 이르지: ... (알레나는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고, 기분이 좋다, 축음기를 열고 판을 놓는다. 이르지는 그것을 지켜본다) 알레나, 시끄럽게 하지 말아줘.
> 알레나: 일요일이면, 자 즐거워야겠지.
> 이르지: 즐거운 건, 조용한 거지.
> 알레나: 내가 옷 입을 땐 쳐다보지 말아줘.
> 이르지: 즐거운 건 당신이 옷 입는 걸 바라보는 거지. (이르지는 만족스럽게 알레나를 바라본다...)

> Jiří: (leží v posteli a dívá se na ni s velkým zalíbením: Alena je krásná, je roztomilá, je koketní, ale koketnost je zabarvena čímsi dětským a naivním, o čem se nedá říct, že by to bylo přestírané, nanejvýš někdy poněkud zneužívané) Rybičko, sakra, ty jsi krásná. p. 19

> 이르지 (침대에 누워 그녀를 사랑 가득 바라본다; 알레나는 아름답고 귀엽고 수다스럽다. 하지만 그 수다스러움은 유아적이고 순진한 색조를 띄고 있다. 이는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야, 제기랄, 당신은 예뻐.

위에서 보듯이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 알레나는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유아적이고 순진하다”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지적이지 않다. 그녀의 지적인 수준은 그의 남편과 그의 옛 애인인 베라가 나누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이처럼 이르지는 자신의 지적이고 정신적인 동반자라기보다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다. 그는

건축기사이자 좌파운동을 했던 자신의 과거의 정신적인 세상을 잊어버리고 육체적이고 단순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성한 것이 없어진 현대사회에 있어서 성적인 육체에 관한 담론이 예전의 불가해하고 신성한 것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대치”하고 있다는 피터 브룩스의 말을 상기시킨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사물은 바로 시계이다. 시계는 주인공의 장인 크루타의 전유물이다. 그의 방과 더불어 주인공의 방까지 시계는 가득하다. 다음은 갑자기 찾아온 사위의 손님에게 자신의 시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Krůta: To je moje sbírka. Líbí se vám?
> Věra: Ohromně zajímavé.
> Krůta: Každý den všecky natáhnout, milostivá, to už je můj životní řád, jinak bych nevěděl, že je ráno. p. 38
>
> 크루타: 이것은 나의 수집품입니다. 맘에 드십니까?
> 베라: 무척 흥미롭네요.
> 크루타: 매일 모두 작동하는 거, 이건 이미 내 삶의 질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침인지도 모를 겁니다.

장인 크루타는 퇴직한 군인이다.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질서와 의무 등을 강조한다. 그가 모으는 그의 시계들은 그에게는 완벽한 사물이다. 정확한 움직임으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계 소리를 “숲의 노래(píseň lesa)”라고 찬양한다. 여기에 비해 시계를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는 자신들의 성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알레나의 경우 “내가 만일 시계였다면 나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움직였을 거야.(Kdybych já byla hodiny, tak bych schválně chodila špatně.)”라고 말한다. 그녀는 발레리나를 꿈꾸는 인물로 절차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유로운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이 시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틀리게 시간을 나타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성격을 시계에 대비해 설명한다.

시계와 연관하여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자. 내용상 극은 아침 7시 반부터 한 시간 반 정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런 짧은 순간은 인간이 살아가고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순간적으로 주인공은 발각된 자신의 옛 동지이자 애인을 위해 집주인을 문진으로 쳐서 죽인다. 이 행위는 주인공이 과거를 버리고 집중한 현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다. 그는 그의 공간을 버려야만 한다. 물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하지만 순진하고 떼를 부리는 부인을 끝내 데리고 나오지 못한다. 이런 장면은 이후 쿤데라의 작품에

많이 등장한다. 순간의 선택이, 짧은 농담 한마디가, 낙서 하나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는지 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많고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큰 문제, 사건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작가는 이를 표현한다. 이는 극의 구조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입부와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짧은 순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두 사건은 극의 가장 중요한 플롯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공간에 남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공간의 문제 때문이다. 이르지는 “파리처럼 앵앵거린다(bzučí jak mouchy)”라고 시계소리를 욕하고 시계들을 싫어한다. 하지만 시계를 빌미로 장인은 언제든지 사위의 방에 드나든다. 이르지의 공간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의 열린 공간이다. 이런 열린 공간은 개인생활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랑하는 부부사이에 중요한 에로틱한 상황이 방해되고 있다. 에로티시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쿤데라의 소설 『우스꽝스런 사랑들』에 나오는 정의를 빌면 “에로티시즘은 그저 육체의 욕망일 뿐만 아니라 같은 크기의 명예의 욕망이기도 하다. ... 에로티시즘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와 중요성을 찾는다.(Erotika není jen žádostivost těla, ale ve stejné míře i žádostivost cti. ... V erotice hledáme obraz svého vlastního významu a váhy)". 쿤데라에게 있어서 에로티시즘은 그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인 것 혹은 그 이상을 대변한다. 이런 에로틱한 내용이 없는 사적인 공간은 공적인 공간과 차이가 없다. 쿤데라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극단적 형태의 전체주의적 사회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다.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권력은 시민들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투명해지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이르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전 친구들의 삶을 선택해 베라를 따라 떠나는 것을 좀 더 쉽게 결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시계는 크루타와 그의 세상을 나타내는 환유로서의 오브제인 동시에 이르지의 공간을 침범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오브제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물은 바로 거울이다. 이 거울은 알레나를 상징하는 오브제이다. 그녀는 발레연습을 하러다니며 주부라는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나타내는 인물이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계속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본다. 이런 그녀의 행위는 나르시시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나르시시즘은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초기 무대로 인생 후기에 나르시시즘으로 회귀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3]라는 말처럼 알레나는 이르지 보다는 자신을 사랑한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과 옷차림 등에 신경 쓰면서 자신에게 주목한다. 이런 그녀의 자기애를 부추기는 건 바로 그녀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르지가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녀가 발레연습에 갈 수 없게 되는데 대해 그의 장모는 그가 질투심을 느끼고 일부러 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에 이르지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이를 거부한다. 남편 때문에 자신이 발레연습을 가지 못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가

3) Erich Fromm, Art of Loving, p. 85.

길 거부한다. 그녀는 역시 소시민의 세계인 그 공간에 머무르길 택한다. 그녀 역시 그의 남편에 복수했다고 느끼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실패'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3. 나가는 말

이 작품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여러 사물들이 중요한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등장인물 자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거나 인물들의 심리상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등 다른 어떤 작품들 보다 작품의 핵심적인 구조를 이루는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독일 점령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인간의 권력과 관계한 사상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쿤데라의 첫 번째 희곡 작품인 『열쇠의 주인공들』에서 사물들이 오브제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 열쇠는 열쇠를 지니게 되는 등장인물들과 관계하면서도 동시에 공간과 연관한다. 열쇠가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의 장소를 개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과의 상관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다른 중요한 사물인 창문은 인물들의 외부와의 소통의 형태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창문도 역시 공간과 연관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머지 시계나 거울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브제들은 등장인물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며 그 바탕에 공간과 관계를 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쿤데라의 다음 작품 *Ptákovina*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의 초기 희곡에는 기호, 특히 사물이 기호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흐바칙이 쿤데라의 소설을 설명하면서 그의 소설 미학을 "자율적 예술 형태(autonomní umělecké formy)"라고 정의하면서 이 정의가 프라하 학파의 구조주의와 상통한다고 설명한다. 이 부분은 특히 무카르조프스키의 기호에 대한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희곡이지만 바로 이런 그의 시학이 잘 나타나있다. 이는 구조 안에서 자율적이고 다층적인 기능을 하는 기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다.

러시아 자화상 전통과 푸슈킨의 자화상

심지은(한양대)

1.

푸슈킨은 19세기 신기술로서 은판사진 카메라가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2년 전인 1837년 세상을 떠났다. 생존 당시 그려진 초상화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그 작품들은 모두 시인의 여러 개성의 일면만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작가의 초상화 혹은 자화상, 또는 인물사진이 언제나 작가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마주하고 해당 작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성격을 유추해보고자 하는 바람이 호사가들만의 취미는 아닐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외면이 내면의 반영이라거나 얼굴이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을 축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서로를 바라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인간”(에드가 드가)이라면 우리의 관심은 호사가의 호기심을 넘어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본능적 의도와 맞닿아있는 것은 아닐까.

작가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 그린 자화상이 외양 및 내면을 그대로 모사하는 데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애’를 완전히 버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화상은 자아를 드러내는 특별한 수단이자 깊은 자아성찰의 결과물이다. 작가는 작품의 모델인 자기 자신의 안과 밖을 오가면서 그 두 개의 자아를 하나의 이미지로 재창조한다. 그가 자화상 속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렸는지 관찰하는 과정에서 혹시 일말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백여 점의 스케치로 남은 푸슈킨의 자화상 연구는 특별한 연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러시아의 ‘모든 것’인 시인의 자화상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호사가의 그것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푸슈킨의 시각미술작품 연구는 ‘작가의 그림’이라는 점에서 사실 그 한계를 지닌다는 생각이 보다 활발한 연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직업 화가가 아니었기에 작가의 그림은 통상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사실, 푸슈킨만이 글과 그림에 재능을 가진 유일한 작가는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빅토르 위고와 같이, 미술작품을 문학적

성취와 따로 취급할 만큼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린 경우도 아니었다.

푸슈킨의 그림 가운데 자화상에 주목해야할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러시아작가로는 크릴로프, 쥬콥스키, 바튜슈코프, 바라틴스키, 푸슈킨, 레르몬토프, 고골, 투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레미조프, 나보코프 등이 글과 그림을 병행했으며, 유럽작가들 가운데는 괴테, 호프만, 디킨스, 테커리, 메리메, 안데르센, 위고, 입센, 키플링, 발자크, 플로베르, 보들레르, 뮈세 등이 있으며 그 목록은 한없이 확장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자화상을 그린 작가는 그리 많지 않다. 보들레르의 놀랍도록 예리한 자화상이 유명하나 아쉽게도 그는 과작(寡作)의 작가였다. 뿐만 아니라, 전업화가들 가운데서도 자화상에 몰두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취급되어 연구되는 게 현실이다.

많은 화가들이 자화상을 즐겨 그렸지만 푸슈킨에 필적할만한 화가는 오직 렘브란트뿐이다. 평생에 걸쳐 유화 50여 점을 포함하여 백여 점에 가까운 자화상을 남긴 렘브란트가 미술사가들의 관심을 끄는 만큼 푸슈킨의 자화상 역시 흥미로운 자료다.

푸슈킨은 렘브란트와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쳐 자화상을 그렸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한 자화상의 다채로움만으로도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시인은 자화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여성으로, 때로는 프랑스 혁명기의 자코뱅당으로, 또는 콧수염을 단 모습이나 단테의 월계관을 쓴 노시인, 나이 들어 머리가 벗겨졌거나 주름살투성이 노인의 모습으로 그렸다. 이밖에도 카프카즈 식의 복장이나 수도승의 복장을 한 자화상, 궁정시종 등으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에프로스에 의해 가장 예술적으로 뛰어난 자화상으로 평가된 이래로 가장 유명세를 날린 자화상은 우샤코바의 앨범에 남은 것으로, 예의 그 유명한 구레나룻이 유난히 강조된 자화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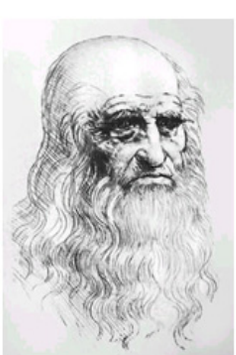
푸슈킨의 자화상

여기서 딜레탕트 화가로서 푸슈킨의 자화상이 전업작가의 유화작품과는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해야만 할 것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푸슈킨이 글을 쓰다 원고에 남긴 가벼운 터치의 펜화와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들처럼 열심히 탐구하고 그 결과물을 많이 남긴 작가는 드물다. 우리는 이런 공통점에 착안하였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연구 성과가 쌓였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푸슈킨의 자화상이 갖는 의미를 잘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

주지하다시피, 언어예술과 시각예술 양쪽에 재능을 가진 작가가 푸슈킨뿐만은 아니었다(도널드 프리드먼, 『작가의 붓』(아트북스, 2014) 참조). 무엇보다 레르몬토프나 빅토르 위고와 같이 시각예술 작품이 개별적으로 그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화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한 작가군이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로서의 예술적 성취는 뛰어나나 보들레르의 경우와 같이 과작을 남겨 후세에 큰 아쉬움을 주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시각예술 분야의 재능은 언어예술 분야에 비해 그다지 뛰어나지 못했으나 화가로서의 노력을 존중하여 애호가들의 수집 및 관심의 대상이 된 블레이크, 코코슈카, 루이스, 로세티 등의 작가군도 있다. 여기서 보들레르의 경우, 현존하는 그의 은판사진 초상은 자화상만큼이나 작가의 내면을 투시하는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사진이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실례라 하겠다. 이밖에도, 언어예술과 시각예술이라는 상이한 매체를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한 작가들도 있었는데, 가령 장 콕토의 경우, 그에게는 드로잉이란 “시구(詩句)를 적어 넣는 또 다른 방식”에 불과했다.

푸슈킨은 레르몬토프와 달리 본격적인 유화작품은 제작하지 않았으나 다양한 범주에 걸쳐 비교적 많은 수의 그림을 남겼다. 이는 푸슈킨이 그림을 그릴 때 주로 글을 쓰던 펜을 사용해 스케치나 드로잉을 그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일찌감치 시인으로서의 천분을 알았던 푸슈킨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고민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귀족들의 회화에 대한 교양으로서의 관심을 넘어 그림에 대한 열정적인 취미나 관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푸슈킨의 그림이 상기 나열한 작가들의 그림과 결정적으로 차별되는 지점이 바로 자화상의 존재이다. 회화에 조예가 깊었던 쥬콥스키나 바튜슈코프,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등은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작가의 자화상은 화가의 자화상만큼이나 특별한 연구대상임이 분명하다. 비록 푸슈킨의 자화상이 보들레르처럼 단 한 편의 자화상만으로도 시인 내면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빈치의 자화상



보들레르의 자화상



렘브란트의 자화상



반 고흐의 자화상

화가의 자화상 가운데 다빈치와 같이 르네상스인의 품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자화상도 훌륭하다. 반 고호나 고갱 역시 자화상을 즐겨 그렸다. 반 고호의 경우, 귀를 자른 후 그린 일련의 자화상들을 상기해 보라. 이들 자화상은 화가의 내면을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작품으로, 고호는 그 어떤 화가들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심연에 천착했던 작가였다. 그에게 자화상은 자기 확인을 위한 대결의 장이었다. 그에게 자화상은 자의식의 분출구였다. 그는 불꽃같은 붓질의 강렬함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이때, 반 고흐의 자화상 상당수가 거의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아마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깊이 침잠하여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되물었던 자기 확인과 정체성 탐색의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직한 형식적 장치였을 것이다.

다양한 변장술이 난무한다는 점에서 푸슈킨의 자화상은 다르다. 시인의 자화상은 그야말로 그의 예술세계가 그러하듯 프로테이즘의 진수를 보여준다. 다양한 표정과 각도를 다루었던 렘브란트의 자화상만이 그에 필적한다. 빛의 예술가인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예의 명암의 대비로 묵직한 설명을 대신하기도 한다. 반면, 가벼운 펜화 스케치 형식으로 그려진 시인의 자화상은 경쾌하고 가볍다. 순간순간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포착해 그리기도 하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한다. 시인의 자화상은 1823년 말, 오데사 시절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어서 1824년 미하일롭스코예, 1829~30년 모스크바, 1831년에 그린 자화상은 한 점도 없다. 1832년에는 단 두 점을 그렸고 1833~34년에는 한 점도 그리지 않았다. 그리고 1835년에 두 점, 1836년에 한 점을 남겼다.[1] 한마디로, 변화무쌍한 푸슈킨의 자화상은 그 미학적 성취와는 별개로, 시인의 삶과 예술 속에서 각별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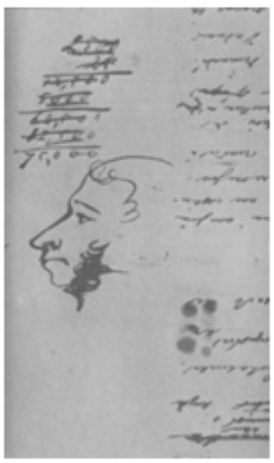
“푸슈킨 시세계의 내적 통일성은 그 속에 다채로운 스타일로 구현된 작가의 형상들이 하나로 집결되는, 전기적으로 구체적인 작가 자신의 형상에 의해서 유지된다”[2]는 긴즈부르그의 진술을 상기해 볼 때, 시인의 삶과 예술은 여타의 작가들에 비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까닭에 푸슈킨학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연구대상이 바로 시인의 삶과 창작의 상관관계, 즉 시인의 전기적 컨텍스트와 작품의 기저텍스트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시인의 자화상은 예기치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아래 그림은 시인이 생을 마치기 일 년여 전에 남긴 마지막 자화상이다. 아내의 부정을 둘러싼 추문과 재정적 파탄, 정신적 고통이 그 최대치에 이르렀던 시기에 그려진 자화상으로, 자화상 왼편 위쪽으로 시인이 쓴 숫자들이 보인다. 아마도 재정 상태를 가늠하다 그렸을 저 자화상은 당시 시인의 상태를 그 어떤 일기보다도 더 극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만 같다. 이즈

---

1) Завгородняя Е. 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рисова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 С. Пушкина" // *Слово о Пушкине*, Киев, 2008, с. 84.

2) Л. Гинзбург, *О лирике,* Л., 1974, с. 196-198.



마지막 자화상

음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푸슈킨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아오? 바로 이런 생각이라오. 우린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자화상이란 그리는 주체와 그려지는 대상이 만나는 공간이다. 글 쓰는 주체와 쓰여지는 객체가 일치하는 공간이 일기장일진대 푸슈킨은 흥미롭게도, 거의 일기를 쓰지 않았다. 평생에 걸쳐 일기를 썼으며 작품 속에 자신의 alter ego를 충분히 형상화했던 톨스토이에게는 ‘자화상’을 그릴 그 어떤 내적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푸슈킨의 내밀한 일기장을 대신하는 것은 시인의 자화상일 수 있다. 실제로 푸슈킨의 그림 전반을 에프로스는 이미 시인의 ‘내적 일기’라고 명명한 바 있다.

물론, 본 연구는 시인의 삶과 작품의 단순한 병치로 복잡다단한 삶과 예술의 문제를 환원시키고자 하는 손쉬운 경로를 거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의 삶과 창작의 복잡한 상관관계 속에서 자화상이 차지하는 자리를 찾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엄밀한 학적 연구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추측이나 가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기자료와 문헌들의 면밀한 검토 속에서 자화상의 연구가 진행되어야함은 당연하다. 시인의 전기자료가 그 수와 분량에 있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모자이크”와 같은 인상을 부여할 뿐인 현실에서 본 연구가 시도하는 시인의 자화상 연구가 이 흩어진 모자이크 조각을 맞추는데 일조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현재 96점이 남아있는 푸슈킨의 자화상과 시인의 예술텍스트야말로 본 연구의 가장 주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며, 이들 자화상의 ‘차이와 반복’에 집중하여 그것이 시인의 내면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또한 그 역으로 조성해나가는가를 밝혀보는 일이 중요하다.

3.

자화상은 창조자와 관람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하여 둘 간의 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매개이자 자화상이 그려진 해당 시대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자료다. 따라서 자화상은 우선적으로 창조자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인간 전반에 대해, 그리고 사회에서의 작가의 위치, 해당 시대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마련이다.

렘브란트의 자화상에 견줄만한 것으로서 푸슈킨의 자화상에 관한 연구는 요컨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간의 본원적 질문, 즉 인류의 지난한 정체성 탐구의 노력과 그 필연적인 관심에의 경도를 확인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자기에 대한 묘사만큼 어려운 것은 없다”고 일갈했던 몽테뉴의 말은 여전히 옳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집요하게 시도했던 과정 그 자체

를 보여주는 몽테뉴의『수상록』과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많은 접합접을 지닌다. 이런 견지에서 몽테뉴의『수상록』은 우리의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서전이라는 문학 장르와의 교차 연구 속에서 푸슈킨의 자화상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여 시인의 예술세계 및 그 내면세계의 깊이를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자기성찰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기성찰의 어려움과 그 지난한 과정의 결과물이 렘브란트의 백여 점에 달하는 다채로운 자화상이 다. 또한 몽테뉴의 책이 챕터를 더해 갈수록 점차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로 기울어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이로써, 문자와 이미지로 각각 그 지난한 자기성찰의 과정을 기록한 두 대가의 작품에 대한 이해 위에서 푸슈킨의 자화상이 갖는 함의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몽테뉴는 16세기 프랑스인, 렘브란트는 17세기 네델란드인이고 푸슈킨은 그보다 훨씬 후인 19세기 러시아인이다. 이렇게 서로 시간과 공간을 각각 달리 하는 세 명의 예술가를 상호 비교하는 작업은 자칫 서투른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국적을 지닌 세 명의 예술세계로부터 (글과 그림으로 작성된) '자화상'의 보편적 특징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술가의 '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값진 작업일 것이다.

푸슈킨이 몽테뉴를 즐겨 읽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인은 종종 프랑스 철학자의 상념을 시 속에 구현했다. 그래서일까, 푸슈킨의 스케치-자화상을 문자로 표현한다면 몽테뉴의 다음과 같은 언술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 나는 이제 내 영혼에 하나의 얼굴을 부여하고, 이제 또 다른 얼굴을 부여한다. 내가 어떤 쪽을 향하는 가에 따라 그것은 달라진다. 만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나에게 말을 건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모든 모순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지도 모른다. 모든 모순이 내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신을 진심으로 연구하는 자는 자기 안에서 혹은 자기 심판 안에서 이 불화를 발견하고 만다. 나는 혼동과 엇갈림 없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확실하게 나에 대해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수상록』 제2권 2장)

렘브란트 역시 이와 같이 오롯이 "나 자신"이 되고자 17세기 네델란드에서 분투했다. 그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근대적 자아 개념, 즉 "예술가는 독립적 존재로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3]라는 사실을 선취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아성찰의 도정을 자화상이 함께 했다. 1628년 첫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그의 화폭에는 젊은 시절의 패기만만하

3) H. Perry Chapman, *Rembrandt's self-portraits: a study in seventeenth-century ident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37.

고 다소 반항기 어린 모습에서부터 세상을 떠난 해인 1669년에 그린 말년의 영락한 노인, 세월의 주름이 새겨진 형형한 표정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 사이 약 10년간의 공백기를 제외하고는 40여 년간 자화상 작업에 몰두하여 유화 50점, 판화 30점, 드로잉 7점의 총 87점의 자화상이 현재 남아있다. 중동인의 옷을 입은 모습이나 티치아노의 <소매가 보이는 남자>에서 차용한 의상, 화려한 모피, 군인의 견장을 단 모습 등, 다양한 의상으로 변장했으며, 뚱뚱한 청년이었다가 술집에서 지껄이는 탕자, 모자를 쓰고 땀을 흘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고약한 노인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자화상을 자세히 보면 그의 눈 모양이나 예의 주먹코 역시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발견된다. “어떤 쪽을 향하는 가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 얼굴을 묵묵히 그리는 렘브란트의 모습을 상기해 보라. 그는 동시대 화가 루벤스가 변치 않는 시선과 동일한 표정을 지었던 것과는 달리, 매번 변화하며 고정된 그 어떤 상(相)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그의 자화상은 몽테뉴와 푸슈킨과 포개진다. 한 마디로, 세월에 따라 달라지는 외모와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화가의 백여 점에 이르는 자화상은 그의 영혼의 다양한 연기(演技)를 재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17세기 화가의 자화상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자화상’이라는 용어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용어는 19세기에 발명된 것이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자화상뿐만 아니라 초상화를 그릴 때도 다른 작가들에 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화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화가는 푸슈킨과 몽테뉴와 갈라진다. 화가의 자화상은 화가 생존 시에도 컬렉션의 대상이었다. 그가 파산했을 때 그의 작업도구 및 자화상도 모두 팔려나갔다. 이런 이유로 인해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다른 그림을 위한 표정 묘사 연습을 위해서라거나, 자기 홍보를 위한 수단이요, 성경이나 신화 속 인물을 위한 모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 아쉽게도 화가는 자화상에 대해 어떤 언급도, 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결국 모든 해석은 관람객과 연구자의 몫이다. 만화경과도 같은 그의 자화상을 이해하기 위해 몽테뉴와 푸슈킨의 사례가 적절한 참조가 된다.

4.

푸슈킨의 자화상은 대부분 옆모습을 그린 프로필이 많다. 유럽회화사에서 프로필 초상화가 시작된 것은 15세기였다. 러시아의 첫 번째 프로필 초상화는 18세기 표트르 대제 시기 탄나우에르가 그린 <표트르 대제의 초상>(1710년대)로 추정된다. 후에 로코토프 역시 프로필 구도를 사용한 초상화를 그렸고(<예카테리나 대제의 공식 초상화> (1763)) 로코토프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도 이 구도의 초상화를 모방해 그렸다. 18세기 프로필 초상화 가운데 특히 슈빈과 코즐로프스키의 것이 유명하다. 푸슈킨의 프로필은 이전 시대의 초상화 구도를 의식적으로 가져왔다

기 보다는, 펜화로 인물의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구도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자화상이 성숙한 렘브란트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묘사해야 할 내적인 자극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푸슈킨의 자화상을 연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자화상 전통에 관하여 살펴보는 작업이 요청되었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두기로 한다.

러시아에서 자화상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 즉 인간 개성의 발로이자 자기성찰의 의미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들어서이다. 러시아 자화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산혁명 전까지 자화상은 그 수가 많지 않았으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형상을 유지했다면, 소비에트 시기에는 자화상이 화가가 과감한 실험을 하는 데 있어 안전한 모델이 되어 주었다. 오늘날 자화상은 다매체적으로 구현되며 셀피의 등장과 함께 화가라는 직업적 경계를 넘어 그 개념 자체가 매우 모호해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현대 러시아 자화상의 위상은 전지구적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러시아의 첫 번째 자화상으로 미술사에 기록된 작품은 18세기 화가 안드레이 마트베예프의 <아내와 함께 있는 자화상>(1729?)이다. 유럽풍의 의상을 입은 귀족 남녀의 초상은 당시 유행하던 초상화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러시아 자화상 역시 유럽적 세속화가 탄생하던 18세기에 시작되었음을 증명한다.



그 당시 자화상은 '초상화의 시대'라 불리던 유명인의 초상화가 널리 퍼졌던 18세기 러시아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화상은 점차 다른 뉘앙스를 얻게 된다. 황실이나 유명인사의 공식적인 초상화에 반하여 자화상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체메소프, 세드린). 이리하여 '전문적' 자화상이 널리 퍼지게 된다. 화공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화상이 주로 생산되었다. 이들 자화상에 이젤이나 팔레트, 붓 등이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인테리어로 널리 사랑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술가 개인이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전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성은 감상주의, 낭만주의를 거치며 유럽이 조탁해낸 '개성'을 가리킨다.

자화상은 초상화의 하위 장르로 취급되어 왔다. 렘브란트가 활동하던 17세기에 자화상이란 단어는 '발명'되기 이전이었고, 자화상은 그저 '화가의 초상'이라 불렸다. 그러나 자화상 역시 일반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화상은 크게 '전문적' 자화상과 '개인적' 자화상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화가는 작가로서 자신의 예술관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화폭 위에 구현한다. 이때 화가의 개성은 예술적 재현의 도구가 된다. 전문적 자화상에는 이젤이나 팔레트 등

의 미술도구가 등장하며 화가는 얼굴을 반쯤 돌려 관람객을 바라보고 있다. ‘개인적’ 자화상은 ‘직업적’ 자화상보다 더 다양하다. 여기서 화가는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법론이나 접근법을 따지기 보다는 ‘개인적’ 자화상은 무엇보다 내면 심리에 큰 관심을 보인다. 따라서 비공식적이고 내밀한 분위기를 풍긴다. 화가는 자신을 화가라는 직업적 틀로 가두지 않는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구분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계기는 자화상의 주된 모티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화상은 무엇보다 자기만의 개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자화상에서 드러나는 화가의 집요한 학구적 시선, 약간 부자연스럽게 쳐다보는 두상, 왜곡된 얼굴의 비율 등 이 모든 사소한 부분이 자화상의 구성을 다채롭게 변주한다. 이런 기호들을 잘 다루었던 몇몇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도 예술사에서 자기만의 유니크한 얼굴을 남기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19세기 들어 러시아의 사회생활이 보다 넓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자화상 역시 발전해가기 시작한다. 인간 개성에 대한 인식이 큰 변화를 겪게 되며 이것이 당시 예술 장르 전반에 반영되었다. 인문주의, 감상주의, 낭만주의 영향 하에 화가들은 이제 내밀한 감정의 세계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창조자의 개성이 화가라는 공통의 직업의식보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 이제 러시아에서도 브률로프의 드로잉 초상화가 보여주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 다양한 모습의 자화상이 여러 점 그려진다. 이 시기 유화가 아닌 드로잉이 선호된 것은 빠른 속도로 시시각각 변하는 영혼의 상태를 화폭에 고정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푸슈킨의 자화상-드로잉이 갖는 일반적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자화상 발전에 있어 흥미로운 지점은 19세기 후반 <이동화파>의 등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동화파는 사회 문제에 깊이 연루되고자 했으며 비판적 태도와 참여적 성격을 지녔다. 덕분에 이들은 자화상에 몰두할 시간을 많지 않았다. 이동화파 화가들은 고전적인 장르에 집중했다. 초기 자화상처럼 화공 조합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보다 방점이 주어진 자화상이 그려졌다. 내밀한 개성의 탐구, 자기성찰이라는 주제는 사회 비판적 주제와 공동체를 묘사화는 데 우선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이제 안락하고 고요한 귀족의 내실은 과거지사가 되었다. 이동화파의 화가들은 진보적 사상을 담지한 선구자이며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현실 문제에 몰두해야 했던 그들에게는 자기 내면의 심층을 들여다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다.

19세기말~20세기로 넘어갈 무렵, 즉 혁명의 시기 러시아 자화상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동파는 힘을 잃었으며 이 당시 초상화와 자화상은 다시 이전 전통에 기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리코프의 자화상이 이를 증명한다. 동시에 유례 없는 시대정신을 담지한 자화상이 그려지기 시작했다(말레비치, 마슈코프 등). 이 시기 그려진 페트로프-보트킨의 자화상을 보면 다가올 소비에트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 상념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상화나 자화상은 그 장르적 특성 상, 볼플린이 일찍이 지적했듯이 예술적 스타일의 변화 순간을 포착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소비에트 시기 자화상은 순전히 예술가 자신만을 위한 장르가 된다. 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적을 때 화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달리 말해 화가에게는 기존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자기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자화상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개인 실험실인 것이다. 이제 자화상은 초상화로부터의 피난처가 된다. 자화상은 화가에게 어떤 주문도 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 요구도 강요하지 않는 고요한 피난처다. 여기서 화가는 자기 자신을 맘껏 내보일 수 있었다.

2차세계대전 시기 러시아 자화상은 거의 창작되지 않았다. 남아있는 자화상들은 불안으로 가득 찬 당시 예술가의 내면을 드러낸다. 전후 소비에트를 건설하기 위해 주력하던 1950년대 미술은 노동자의 초상화가 대세를 이뤘다. 반면, 자화상은 별로 그려지지 않았다. 간혹 있다 해도 이 시기 자화상은 매우 내밀한 톤을 지녔으며, 비극적이고 철학적 뉘앙스를 풍겼다.

러시아 자화상 역시 해빙기를 맞았다. 해빙기와 함께 러시아 자화상은 자아에 대한 성찰을 다시 재개했다. 50년대의 공식 이데올로기와는 거리를 둔 자족적이고 독립적 판단을 하는 인간의 자화상이 부각된다.

70년대에도 해빙기의 경향이 지속되었다. 자화상은 화가의 내면 세계에 몰두하였고 이에 따라 화폭 위의 심리주의 역시 심화되었다.

70~80년대 들어서면서 '개인적' 자화상이 주도적으로 부상한다. 이제 화가의 무의식으로 잠입해가는 자화상이 빈번해지기 시작한다.

80~90년대 들어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러시아 자화상은 유럽과 미국 미술의 영향 하에서 창작되었다. 고전적 의미의 공식적 자화상도 창작되었으나 이 시기 들어 자화상은 자기 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방법이었다. 화가-창작자가 예술작품 자체가 되는 경향도 이 시기 나타났다. 그 결과 자화상은 필연적으로 자기아이러니를 수반했다.

21세기 들어 자화상은 회화 영역을 넘어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현대예술의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 자화상 역시 개인주의 컨텍스트 속에서 창작되고 소비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군다나 2000년대부터 인터넷 발전과 함께 널리 퍼지기 시작한 셀카[selfie]는 자화상의 창작자 및 소비자의 개념을 무화시켰다. 이와 함께 자화상이라는 장르의 개념 및 그 경계 역시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이 간단히 요약한 러시아 자화상의 역사이다. 푸슈킨은 자화상이라는 단어가 발명되고 자아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예술가였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자화상이 갖는 시대적 공명과 그 변별점을 기술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아용 애니메이션『마샤와 곰』에 나타난 문화의 전승 양상(준비단계)

박선영(충북대)

『마샤와 곰(Маша и Медведь)』은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아용 3D 시리즈애니메이션이다.[1] '아니마코르트(Аннимаккорд)' 스튜디오가 2009년에 1회「첫 만남(Первая встреча)」을 선보인 이래 2016년 11월 현재까지 총 59편을 TV 채널(유아용 애니메이션 채널 '회전목마(Карусель)')과 유투브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해 왔다. 26회를 하나의 시즌으로 구성하여 현재 3시즌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사이 주인공 마샤 목소리 역을 맡았던 아동 성우가 성장하자 어린 마샤 역을 실감나게 전하기 위해 성우를 교체하기도 했을 만큼 애니메이션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2]



『마샤와 곰』 공식홈페이지(http://mashabear.ru/) 메인 페이지

1) 공식홈페이지(http://mashabear.ru/)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마샤와 곰』의 인기는 해당 캐릭터들의 상품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컴퓨터 및 휴대폰용 게임이나 서적, 일상용품, 의류 및 액세서리 용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인형이나 과자류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편, 2012년 8월 EBS에서 한국어 더빙『마샤와 곰』을 내보내면서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두 개의 상품이 개발되기도 했다. (참고로, 러시아 애니메이션 캐릭터 체부라슈카 또한 동일 회사의 이미티콘으로 상용화된 바 있다.)

2) 2008년 마샤 목소리 더빙 캐스팅 오디션에 최연소자로 참가했다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마샤로 활약했던 알리나(Алина Кукушкина, 2001년생)는 마샤의 목소리 더빙을 맡아 작품의 흥행에 큰 기여를 해오다가 2015년 52회차를 마지막으로 마샤 목소리 역을 바르바라(Варвара Саранцева, 2007년생)에게 넘겨주게 된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녹음 감독'이란 타이틀로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중이다.

여타의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대체로 교훈적이거나 교육적인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이 애니메이션의 경우 교훈적인 내용을 위해 재미를 반감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숲속 동물 친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주인공 마샤의 캐릭터가 선도적인 입장에 서서 훈계조로 상황을 정리하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천방지축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러시아 내에서도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마샤 캐릭터에 불만을 갖는 어른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마샤에게 훈계조로 가르치는 캐릭터가 부재한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마샤 스스로 깨달아가게끔 만듦으로써 천편일률적인 교훈극이 아니라 재미와 교훈, 감동이 잘 어우러진 훌륭한 애니메이션이 탄생할 수 있었다. 더욱이 교훈적인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꽤 세련된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감상자들까지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은 해외 수출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고유한 민족색 혹은 국가색을 버리고 국제화를 지향한 콘텐츠(예를 들어, 몇몇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이름에서부터 영상에 새겨진 문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나 언어 등을 찾아보기가 힘든『뽀롱뽀롱 뽀로로』)가 아닌 지극히 러시아적인 콘텐츠, 더욱이 러시아의 과거 문화 전통을 대거 인용한 콘텐츠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눈길을 받을 만하다. 결국, 유아용 애니메이션『마샤와 곰』의 가장 큰 미덕은 한 국가의 과거 문화 전통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전승되는가, 보다 정확히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문화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승할 수 있는가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있다고 사료된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의도는 일차적으로 '마샤'와 '곰'이라는 주인공 캐릭터 자체를 러시아 전래 동화에서 가져왔다는 것에서도 분명히 노출된다.[3]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캐릭터를 비롯해 애니메이션 속 많은 요소들이 단지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변용을 거쳐 현대 속으로 아주 조화롭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샤의 복장에서도 곧바로 포착된다. 마샤는 박물관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는 러시아 전통복장(코프타에 사라판을 입고 플라토크를 쓰고 있다)을 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현대식 운동화를 신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통복장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가 전혀 이물감 없이 조화롭게 어울려 있는 마샤라는 캐릭터의 외양 묘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애니메이션에서 추구하는 과거 문화에 대한 해석의 방점이 과거를 이미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여 화석화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현재 혹은 미래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찍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꽤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애니메이션의 주요 무대는 숲속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곰 미샤의 집이다. 미샤의 집은 그의 과거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집 책장에

3) 이 애니메이션이 인용하고 있는 동화는 일차적으로 애니메이션과 같은 제목을 지닌「마샤와 곰(Маша и Медведь)」, 이차적으로는「곰 세 마리(Три медведя)」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는 온갖 테마의 책들(호쿠에서 체스, 동물, 신화 등)이 즐비할 뿐 아니라 전직 서커스 단원인 미샤의 영광의 순간들을 담은 사진과 트로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캐릭터는 아니다. 그의 집을 가득 채우는 세간들이 대체로 구식이기는 하지만 휴대폰 같은 현대의 기계 문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불청객인 천방지축 개구쟁이 마샤와 좋은 관계를 이어감으로써 이 두 캐릭터를 통해서도 과거가 현재 혹은 미래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임을, 그리하여 과거의 문화 기억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샤의 집이 갖는 상징성 또한 눈여겨 볼 만하다. 과거를 통째로 간직하고 있는 미샤의 집은 인적이 전혀 없는 숲속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편이나 기차 등을 통해 외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과거 혹은 문화 전통을 상징하는 듯한 어른 미샤의 공간은 어린 마샤의 방문을 통해 미래로 열리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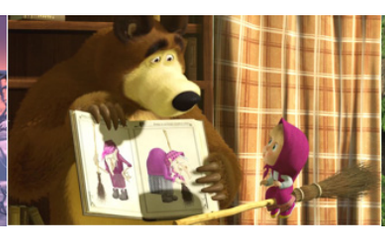
아울러 『마샤와 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표현 기법이 패러디라는 사실 또한 이 애니메이션 텍스트가 지향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마치 포스트모던적인 특성을 한껏 내뿜듯 기저텍스트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해당 애니메이션은 극의 재미를 끌어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특히 기저텍스트를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의 감상자들에게 그 재미는 배가된다) 과거의 텍스트들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줌으로써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교육적인 효과까지도 거두게 되는 것이다(특히 아동 감상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끼치게 되는 교육적인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마샤와 곰』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화 요소들, 기저텍스트들을 몇 가지로 분류한 뒤, 이러한 과거의 문화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아용 애니메이션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용 및 표현 방식이 세대에서 세대로 문화를 전승하는 데 있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4)]

1. 동화민담적 요소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기본적 속성에 더해 주요 캐릭터인 마샤와 곰이 러시아 전래 동화에서 취해진 만큼 이 작품 속에는 동화적 요소가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물론, 동화에서 그려진 피해자(길 잃은 착하고 영리한 마샤)와 가해자(악하고 어리석은 곰)의 전형적인 틀은 애니메이션에서는 1회에서부터 완전히 와해됨으로써 애니메이션 전체가 패러디의 기법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흥밋거리를 제공할 것이란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4) 현재로서는 적절한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 이 글이 전적으로 발표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향후 집중적인 관련 자료 탐색을 통해 논의를 보다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발표자의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

에피소드「하나 둘 셋! 트리야 켜져라! (Раз, два, три! Ёлочка, гори!)」(№ 3)에서는 해당 시즌에 꼭 맞는 캐릭터들인 데드마로스와 스네구로치카가 등장한다. 감기몸살에 걸린 데드마로스를 대신해 미샤는 데드마로스로, 마샤는 스네구로치카로 변신해 숲속 동물들에게 선물을 배달하러 나서는 것이다. 또한 에피소드「물고기야 잡혀라! (Ловись, рыбка!)」(№ 5)에서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황금물고기'가 등장하고 있고,「모자 쓰고 벌어진 일 (Дело в шляпе)」(№ 41)에서는 모자를 쓰면 투명인간으로 변하는 마샤를 통해 푸슈킨의 동화적 서사시의 여주인공 류드밀라를 연상시키기도 하며,「새로운 빗자루 (Новая метла)」(№ 31)에서는 바바야가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동화적 인용은 러시아 동화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가을 명절 (Праздник урожая)」(№ 50)에서는 호박 수확 후 신데렐라의 변신 모티프를 패러디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화적 요소들이 단순한 인용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에피소드 속으로 잘 용해된 채 마샤의 슈제트를 통해 과거의 동화들이 새롭게 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바바야가는 하늘을 나는 빗자루를 통해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킨다. 바바야가와의 연관성은 이 에피소드의 제목(「Новая метла」)에 제시된 '새로운'이라는 형용어를 통해서 더욱 짙어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빗자루를 타고 다니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마샤의 모습을 계기로, 마샤의 장난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샤가 우연히 보게 되는 책『우리 숲의 신화와 전설들(Мифы и легенды нашего леса)』속 내용으로 분명하게 언급되기에 이른다.


『마샤와 곰』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해석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이 애니메이션이 첫 스핀오프로 내놓은『마샤가 들려주는 동화(Машины сказки)』를 통해서도 분명히 파악된다. 마샤는 자신의 인형들을 앞에 앉혀놓고 전래동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샤가 구연하는 동화들은 전래동화의 슈제트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샤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현실·일상적 요소들

환상성, 비현실성의 유입이 용이한 애니메이션의 기본 속성에 더해 주인공 캐릭터들을 전래동화에서 가져온바, 『마샤와 곰』은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되지만 아주 실감나게 묘사되는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모습들은 그러한 비현실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된 곳이 주인공 캐릭터인 곰이 서식할 수 있는 곳, 즉 침엽수림이 자라는 북쪽 지역이라는 점에 눈길을 줄만하다.[5] 뿐만 아니라 3D 그래픽 기술을 통해 제작된 영상은 캐릭터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잡아낼 뿐 아니라 미장센을 세밀하게 표현해냄으로써 극의 리얼리티를 더욱 살려주고 있다. 현재는 다차나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구식 세간살이들(예를 들어, 사모바르나 간이식 세면대, 연통 난로, 풍구 등)이 전통적 혹은 비전통적 식기들(전통적인 찻잔 세트와 물고기 패턴이 인쇄된 동시대적 머그잔)과 함께 세팅되어 있는 미샤네 집의 미장센은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은 사실성과 일상성에 근거해 유아들에게 계절 감각을 익히게끔 해준다. 예를 들어, 봄과 여름에는 낚시나 바레니에 만들기를, 가을에는 수확과 철새의 이동을, 겨울에는 곰의 동면 습성이나 새해맞이에 대해 알려주는 식이다. 또한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 1일의 풍경을 통해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학교생활을 오리엔테이션해주고 있기도 하다. 즉 9월 1일, 마샤는 미샤를 졸라 만들어진 '학교 교실'로 리본을 머리에 매달고 꽃다발을 든 채 '등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읽기와 산수, 실과 등 실제 수업 시간을 재연하기도 하는데, 이때 '교실'로 꾸며진 미샤의 집안에는 칠판이나 책걸상뿐 아니라 통상 학교 교실의 벽을 장식하게 되는 작가들의 초상화들까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감탄을 자아내기도 한다.



한편, 마샤는 러시아 아이들에게 아주 익숙한 음식들인 카샤나 바레니에 만들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도 마샤의 창의력은 빛을 발하게 된다. 미샤가 만들어주는 전통적인 방식의 카샤나 바리니에 대신 마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마샤가 미샤의 바레니에용 재료를 다 먹어 버리거나 엎질러버려 미샤가 바리니에

5) 애니메이션 속에서 우편물에 선명하게 찍혀진 우편번호(625537)는 미샤의 거주지가 우랄의 튜멘 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미샤의 경쟁자인 흑곰과 마샤가 펼쳐는 테니스 대회의 명칭은 'Siberia Open'으로 제시되고 있다.

를 끓일 수 없게 되자 마샤는 직접 텃밭과 숲속에서 새로운 재료들을 찾아냈다.

Это варится варенье.	여기 바레니에가 끓고 있지.
То есть, я его варю.	내가 바레니에를 끓이고 있단 거지.
Что на грядке уродится,	밭고랑에서 익어가는 거,
Что на дереве растёт,	나무에서 자라는 거,
Всё для дела пригодится,	다 쓸모가 있지,
И в варенье попадёт.	바레니에에 들어갈 거거든.
Наберу-ка я кореньев,	뿌리채소를 모으고
Сыроежек натащу,	버섯을 나를 거야.
Даже шишечным вареньем	솔방울 바레니에까지
Я медведя угощу.	난 곰돌이한테 대접할거야.
Ох, сегодня настроенье	오, 오늘 내 기분은
У меня варенное!	바레니에 무드!
Ты варись, моё варенье,	끓어라, 독특한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내 바리니에야!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어 단독으로도 유명해진 일명 ‘바레니에 송’은 미샤의 재료들(딸기, 구즈베리, 체리, 산딸기, 사과)이 아닌 바리니에로는 쓰이지 않는 재료들(오이, 토마토, 당근, 버섯, 솔방울)이 어떻게 ‘독특한 바레니에’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한편, 애니메이션에서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아이들 놀이인 망차기(классы)를 비롯하여 숨바꼭질이나 오목 등을 소개하거나 하키, 테니스, 장기, 체스두기 등을 보여주며 오늘날 유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그렇지 못한 과거의 놀이 문화를 은연중에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은연하게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압권은 하키 스틱에 새겨진 숫자가 아닐까 한다. 주로 마샤와 토끼가 가지고 노는 하키 스틱에는 각각 ‘Чемпион 1242’와 ‘Чемпион 1380’이 새겨져 있다. 두 캐릭터가 스틱을 잡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이 두 숫자조합은 눈 밝은 감상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1242는 알렉산드르 넵스키가 추드스코예 호수에서 도이칠란드의 튜턴 기사단을 격파했던 빙상전이 벌어진 해를 가리키고, 1380은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타타르-마마이군을 격파했던 쿨리코보 전투가 벌어진 해를 가리킨다. 이 숫자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지금껏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마샤와 곰』의 작가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에서는 사실성과 일상성에 기초해 민간에서 널리 쓰였던 여러 종류의 충치 발치법, 딸꾹질 퇴치법 같은 것도 알려줌으로써 현대화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이거나 생활의 지혜로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내용을 넌지시 알려주기도 한다.

3. 미학예술적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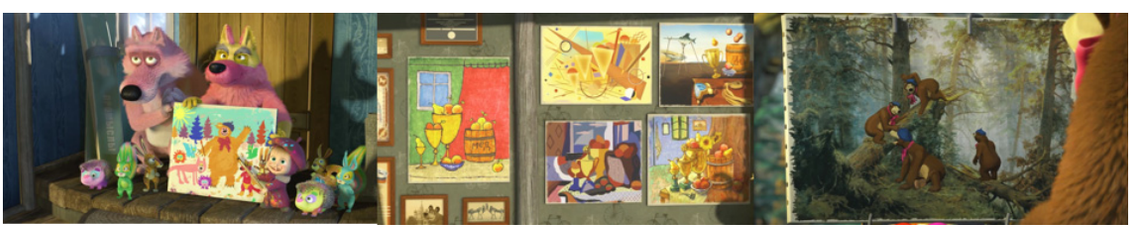
『마샤와 곰』에서 인용되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은 이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공들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속에는 음악, 미술, 영화, 무용 등이 인용되고 있는데 음악의 경우 클래식(쇼팽, 차이코프스키, 슈트라우스, 베토벤, 그리그 등)에서 시작해서 러시아 민요(「Динь-динь-динь」, 「Из-за острова на стрежень...」, 「Очи чёрные」 등), 내전 중에 불린 군가(「На границе тучи ходят хмуро...」), 영화 음악(「Я шагаю по Москве....」, 「Эй, вратарь готовься к бою...」 등), 심지어 마이클 잭슨까지 인용되고 있다. 상황에 절묘하게 어울리는 곡들을 배치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의 사운드 디자인도 아주 훌륭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바레니에 만드는 날」에서 유리병을 머리에 뒤집어 쓴 마샤는 마치 자신이 우주비행사가 된 양 소비에트 록그룹 '지구인들(Земляне)'이 1980년대에 불러서 히트시켰던 「지구의 풀(Трава у дома)」의 첫 소절 '비행선 선창에 지구가 있지... (Земля в иллюминаторе...)'를 부르면서 감상자들로 하여금 우주비행에 열광했던 과거를 잠시 회상하도록 만든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주비행사 놀이에 빠져 있는 마샤는 1963년 작 영화 『Я шагаю по Москве』의 주제곡 첫 소절을 'Я шагаю по луне...'라고 개사하여 부르거나[6]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선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위에서 열거된 삽입곡들은 모두 '우주비행사/달'이라는 주제에 촘촘히 맞춰 선정된 것이었다. 물론, 위에서 언급된 곡들 모두 실제로는 어린 마샤가 알 리 없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 속 마샤를 통해 이 곡들을 접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즉 학습이 아닌 재미를 통해서 이 곡들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마샤가 하키를 하면서 부르는 「Эй, вратарь готовься к бою...」(1936년 작 영화 『Вратарь』의 주제곡)라든지 미샤로부터 당근밭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마샤가 군모를 쓴 뒤 부르는 「На границе тучи ходят хмуро...」 또한 컨텍스트 속에서 익힌 것이라 오래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술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유화(Картина маслом)」(№ 27), 「아영지에서(На привале)」(№ 57)라는 두 에피소드를 통해 과거 문화의 기억에 관한 문제 및 예술의 표현과 재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화」에서 화가로 변신한 미샤와 마샤는 각각 정교한 정물화와 엉성한 동물화를 그리게 된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에서 매끈하게 잘 그린 미샤의 그림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6)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라이트모티프처럼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래 「Я шагаю по Москве」의 패러디이다. 「수리수리마수리(Фокус-покус)」(№ 25)편에서는 마샤가 고깔모자를 쓰고 어두운 상태로 걸으며 'Я иду шагаю по темнате...'로 개사해서 부르기도 한다.

통해 그려놓은 그림에 맞춰 모델들을 바꾸고 있는 마샤의 기지에 더 눈길이 가게 된다. 마샤의 색채 상상력으로 그려진 파랗고 빨간 소나무들, 빨갛고 분홍색인 늑대들, 파랗고 녹색인 다람쥐들, 보라색 고슴도치 등은 곧 마샤의 붓터치로 인해 현실 속에서 실현된다. 표현과 재현의 문제를 뒤집고 뒤집는 흥미로운 발상인 셈이다. 역시나 이 에피소드에서도 과거 텍스트에 대한 패러디가 등장하고 있는데(달리, 고흐, 세잔 등이 미샤식 화법으로 패러디되어 있다) 패러디의 대상을 인지하는 감상자들에게 잔잔한 웃음을, 패러디 여부 자체를 모르는 어린 감상자들에게는 후일 원전을 접하게 될 때 비록 패러디된 작품이었을지언정 익숙함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아영지에서」는 시슈킨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따라 행군을 떠난 미샤와 미샤의 먼 친척 판다, 그리고 마샤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물론, 이 에피소드에서도 재현과 표현의 문제, 패러디의 문제가 다루어진다. 시슈킨(Иван Шишкин)과 사비츠키(Константин Савицкий)가 그린 「소나무 숲속의 아침(Утро в сосновом лесу)」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미샤는 동일 장소에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한다. 미샤가 유독 시슈킨의 이 그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곰 네 마리가 그려진 시슈킨과 사비츠키의 이 작품은 해당 에피소드에 앞선 「엉켜버린 이야기(Запутанная история)」(№ 45)에서 이미 퍼즐 맞추기용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아영지에서」에서는 해당 에피소드의 제2주제쯤으로 제시되고 있는 '허풍'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언급된다. 마샤가 고대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자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자 판다는 에펠탑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마샤는 성바실리사원을, 판다는 만리장성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물론 위에서 나열된 유산들은 유아들을 위해 모두 2D의 그림으로 제시됨으로써 어린 감상자들은 스토리를 따라가다 자연스럽게 세계 문화유산들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허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술 작품으로 건너가 마샤는 「모나리자」가 자신을 모델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판다는 고대그리스의 조각상(원반던지기)이 자신을 모델로 해서 완성된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마샤의 대답("너를 모델로는 「검정 사각형」만 그릴 수 있을 거야")은 흰색과 검정색 털을 가진 판다에게서 꽤 정확하게 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허풍/거짓말 때문에 곤혹을 치른 마샤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거짓말은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공상하는 건 좋아(Врать лучше не надо. Надо лучше просто фантазировать)"로, 결국, 이 애니메이션이 추구하는 바는 아이들에게 '상상력', '판타지'를 심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만든다.

또 한편, 패러디와 관련해 꼭 언급해야 할 에피소드는 「영화 찍는 날(День кино)」(№ 42)로, 눈보라 때문에 집안에서 지루해하던 마샤의 제안으로 영화를 찍어보려는 내용이다. 하지만 미샤와 마샤는 시나리오에서부터 합의를 보지 못한다. 로맨틱 버전을 원하는 미샤는 『타이타닉』, 『백설공주』를, 영웅 버전을 원하는 마샤는 『마스크 오브 조로』, 『킹콩』, 『아바타』 등을 원했던 것이다. 각종 헐리우드 영화가 패러디된 이후 오랜 논쟁 끝에 그들이 합의하에 써 내려가게 된 시나리오는 『마샤와 곰』의 「첫 만남」이 된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애니메이션 속에서 메타극 포맷을 선보이는 신선함을 제시하고 있는데,[7]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은 이미 초기에 선보인 「스키자국!(Лыжню!)」(№ 14)에서도 보여준바, 일명 라쇼몽식 구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의 문제,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다.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시도는 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정된 사고방식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는 에피소드 「보이지 않는 동물들의 발자국(Следы невинных зверей)」(№ 6)에서도 이미 말해준 바 있다.

4. 도덕·교훈적 요소

이미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샤와 곰』은 교훈을 위해 재미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으며, 교훈적인 내용이 다루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명료하게 제시되는 법이란 거의 없다. 마샤와 곰, 두 주인공 캐릭터가 타인으로 만나 점차 친구, 더 나아가 유사가족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애니메이션에서는 입양과 가족애, 우정,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삽입곡의 가사를 통해 기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의 문제는 「나 홀로 집에(Один дома)」(№ 21), 「업둥이(Подкидыш)」(№ 23), 「모두가 집에(Когда все дома)」(№ 32)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업둥이로 온 펭귄을 통해 미샤가 '아빠'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가정 형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곰 아빠는 펭귄 아들을 위해 결국 경비행기를 만들어 남극으로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다시 찾은 펭귄 아들이 곰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준비해둔 촌스러운 모자를 쓰고 앨범용 사진을 찍어줌으로써, 마샤는 펭귄 아들과 곰 아빠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악역을 자처하고 나섬으로써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알려주고 있다.

---

7) 이따금 마샤가 애니메이션의 주제곡을 흥얼거린다든지 마샤가 즐겨보는 TV에서 애니메이션의 타이틀곡이 들린다는 것 또한 이 애니메이션의 메타극적 요소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에피소드 「모두가 집에」의 삽입곡 가사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 다소 직접적으로, 그러나 꽤 감동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기도 하다. 반복하지만, 『마샤와 곰』에서 언어를 구사하는 캐릭터는 마샤가 유일한데, 마샤 또한 하나의 캐릭터에 불과하기에 극의 정황 전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교육적 목적이 앞서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에서는 통상 '~은 해야 한다', '~은 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은 단언적 명령을 성인 내레이터가 맡게 된다. 성인 내레이터가 부재한 『마샤와 곰』에서는 간혹 이 내레이터의 역할을 삽입곡이 맡는 경우가 있다. 「모두가 집에」의 삽입곡이 바로 그러한데, 가사의 면면을 보면 상업용 유아 애니메이션에서 만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Так устроено, что дети вырастают,	아이들은 자라게 되지
Время наступает и тогда	따뜻한 부모의 둥지에서
Улетают птицы, улетают	새들이 떠나는
Из родительского тёплого гнезда.	때가 오게 돼.
Пусть дороги вновь и вновь нас разлучают	여러 길은 계속해서 우리를 헤어지게 하지만
Но опять вернуться хочется туда	살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Где и ждут, и любят, и скучают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게 만들어
Где осталось детство навсегда.	그곳엔 어린 시절이 영원히 남겨져 있지
А когда все дома соберутся	모두들 집에 모이게 될 때면
То обиды лучше позабыть.	속상한 일은 잊는 게 나아.
Заглянуть в глаза и улыбнуться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고
Просто улыбнуться и простить.	그저 미소 짓고 용서하는 게 나아.
Просто улыбнуться и простить.	그저 미소 짓고 용서하는 게 나아.

한편, 『마샤와 곰』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또한 주목할 만한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타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미샤의 먼 친척으로 등장하는 판다의 문화, 즉 중국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애니메이션에서 타문화와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샤의 집 근처에 위치한 역에서는 '모스크바—베이징' 구간 기차를 탈 수 있고, 바로 이 기차를 통해서 판다가 미샤를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맛있게 드세요!(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24) 편에서는 판다의 주도로 중국식 만두를 빚어보게 되는데, 여기서 'свой/чужой'에 대한 인식이 젓가락과 숟가락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여기서도 마샤는 다소 반항적이고 고집스런 캐릭터를 유지하고 있기에 타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다. 판다와 미샤가 만두소를 넣을 때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마샤는 숟가락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이 빚어낸 만두의 모양에 있어

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애니메이션은 타문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엔딩타이틀곡을 중국풍으로 편곡하여 들려줌으로써 타문화 수용에 수동적이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 *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마샤와 곰』은 전대 및 동시대의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박물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박물관의 전시품들은 일반적인 여타 전시품들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이것들은 박물관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먼지가 쌓여가는 채로 과거 속에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끊임없이 소환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용화될 수 있는 전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치 마샤의 사라판이 운동화와 만나 잘 어우러지는 것처럼 말이다. 하바네라를, 내전기의 군가를, 1930년대나 1950년대 영화 삽입곡을 자연스럽게 불러대는 어린 마샤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화적 요소에서부터 일상적 요소, 예술적 요소, 교훈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문화 요소들을 간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마샤와 곰』은 미샤와 마샤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꺼내서 펼쳐보는 책장의 책과 동일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결국, 유아용으로 만들어진 이 러시아 애니메이션은 자국의 어린이들에게뿐 아니라 외국의 러시아어 학습자들에게도 훌륭한 문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411호

II 세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세션 1)

러시아 인문공간의 제한성과 잠재력(I)

사회: 황성우(한국외대)

≫ 발표 1

동북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GTI의 신현실주의적 분석:
전망이론의 상대적 손실을 중심으로

김선래(한국외대)

≫ 발표 2

1920년대 원동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역사적 의미

배은경(한국외대)

≫ 발표 3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

최우익(한국외대)

동북아 경제협력 거버넌스 GTI의 신현실주의적 분석: 전망이론의 상대적 손실을 중심으로

김선래(한국외대)

Ⅰ. 서론

동북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대 초부터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유엔에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의 주요 구성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몽골이 이에 해당하며,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25년 넘게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그 진척에 있어서 크게 성과가 없다는 것은 구성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국가이익이 서로 상충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국가이익을 서로 조정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이끌어가는 국제기구의 적실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겠다. UNDP 프로그램과 이어진 GTI 프로그램 그리고 GTI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GTI 사무국, 이러한 국제 거버넌스가 존재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은 여러 문제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동북아 협력 거버넌스인 GTI에 대하여 알아보고 GTI가 거버넌스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개념과 활동을 정리 제시한다. 그 다음 지금까지 GTI 체제가 각 국가들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전망이론 중 상대적 손실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상대적 손실이라는 논리로 동북아 국제협력 구조의 문제점을 풀어나간다면 그 해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적용되는 상대적 손실의 개념을 일대일 혹은 국가 대 국가라는 틀에서 본다면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을 다자간 관계로 묶는다면 상대적 손실개념이 희석화 될 수 있다는 논점에서 이 글의 결론을 이끌어가고자 한다. 이 다자적 구성의 핵심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거버넌스로서의 GTI체제를 상정했으며 이 거버넌스가 국가간의 상대적 손실을 극복하고 국제 협력의 장을 열기 위하여 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신현실주의자들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렵다는 논리로 제시한 전망이론 중 상대적 손실개념도 다자적 접근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해법을 제시한다.

Ⅱ. 거버넌스와 전망이론의 상대적 손실개념

1. 거버넌스의 개념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분야는 거버넌스이다. 국내연구에서 거버넌스란 용어는 협치, 공치, 정부주도의 거버넌스, 사회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중심의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있다. 20세기 개막과 동시에 본격화한 행정국가는 복지와 발전을 목표로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양적 팽창과 관료의 확대로 이어져 왔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비대해진 관료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 세계화와 정보화, 민주화는 탈집중, 분권화와 동시에 행정국가의 약화와 대의정치의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정책결정방식으로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전개 발전해 왔다(Pierre & Peters, 2000: 61～64).

거버넌스의 개념은 주제와 학문적 영역 그리고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피레 & 피터(Pierre & Peters, 2000), 로즈(Rhodes, 1997), 코헨 & 나이(Keohane & Nye, 2000) 등이 거버넌스에 대한 각자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Kooiman(2002)은 공식적인 권위 없이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두고 상호 협력하게 만든 제도나 형태를 거버넌스로 정리하였다. 여기에 광의의 개념으로 Rosenau(1995)가 정의한 가족에서 국제조직까지 모든 인간 활동수준에서 형성된 규칙 체계를 적용한다면 국제체제 속에서 형성된 국제기구 중에서 국가와 사기업들로 구성된 형태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광의의 거버넌스 개념은 공적 사적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협력과 상호조정 양식으로 넓게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도 해당된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과 범위, 수준, 이슈 들을 정리하는데 관리, 정책, 체계와 같이 상이한 차원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일반적 의미로서 관리와 정책이 포함된 광의의 개념과 한가지만을 대표하는 협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1)]

2. 거버넌스의 범위와 수준

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집단에서부터 국가차원을 넘어선 국제단체까지 매우 확대되어 있기에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지방적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다.

---

1) 라미경(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2009년 12월), pp. 91~107.

세계적 차원(global governance)에서의 이슈들은 국가들 간 국제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한다. 절대적 권위나 위계질서가 없는 국가들의 협력체로서 국가들 간의 공동 이슈나 이익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으로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력 기구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상호작용으로 국가이익을 확대하여 공동 번영의 목표를 창조해가는 차원에서 구성되어진 GTI체제를 국제협력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협력 매커니즘과 그 한계를 분석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이 지역적 차원(regional governance)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말하며 아시아공동체, 아프리카공동체, 유럽공동체와 같은 세계적 이슈차원에서 국가단위를 넘어 지역 차원에서 상호협조하고 조정하는 형식을 말한다. 지역적 특성의 거버넌스에는 안보적 이슈를 많이 담고 있다. 그다음으로 국가적 차원의 이슈를 해결하려는 거버넌스가 있고 지방적 차원에서 시민, 시민단체, 시장 등과 같은 지역문제에 대한 의견과 이슈 해결을 위한 공공거버넌스 등이 있다.

표 1>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개념[2)]

학자	거버넌스 개념
Rosenau(1995)	가족으로부터 국제조직까지 모든 인간 활동수준에서 규칙체계
Commission on Global overnance(1995)	개인들과 사적·공적 조직들이 그들의 공동사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의 합
Rhodes(1997)	상호의존성, 자원교환, 게임규칙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의 특징을 가지는 자기조직적인 조직간 네트워크
Keohane & Nye(2000)	조직의 집단적 활동을 이끌고 제약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적 과정과 제도들
Pierre & Peters(2000)	국가, 시장, 네트워크, 공동체, 결사체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는 것
Kooiman(2002)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
Khaler & Lake(2003)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식

3. 절대적 손실의 국제정치

1980년대 국제정치의 협력논쟁의 초점은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 적실성이 주요 논쟁의 대상이었다. 신 현실주의자들은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국제협력을 바라보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2) 라미경(2009), p.94.

절대적 이익관점에서 국제협력을 바라보았다. 신현실주의자들은 무정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국제질서에서 상대적 이익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다면 공동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보다 더 많은 권력과 이익을 가져간다면 상호 협력이 가능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주류 국제정치이론사이에서 논쟁이 이익에 초점을 놓고 논쟁했다고 한다면 정 반대인 손실이라는 개념은 더 국가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설명되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절대적 손실이라는 개념이다. 국가가 상호협력의 전망에서 절대적 손실이라는 논리를 적용한다면 국제협력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국가 간 협력에 있어서 상대적 손실이라는 전망을 설명하는 이론이 전망이론이다.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상대적 박탈감 즉 상대적 이익 이라는 개념으로 적용된 박탈감과 직접 자신의 땅을 빼앗겼을 때 느끼는 박탈감 즉, 절대적 손실이라는 입장은 크게 차이가 난다. 전망이론에서 절대적 손실은 국가가 국제협력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근거가 된다. 신자유주의자들과 신현실주의자들의 논쟁인 상대적 이익과 절대적 이익 논쟁과는 달리 전망이론에서의 손실과 손실회피(loss aversion)라는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현상유지(status-quo bias)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의 문제를 동북아 국가 간 협력에 적용한다면 현재 동북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협력의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에서 신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상대적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 보다는 협력이 더 불가능해지는 전망이론의 손실개념을 적용한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한국과 북한 관계도 이에 해당되며, 몽골과 중국과의 관계도 이에 해당된다. 국제협력을 통하여 상대국가의 이익이 다른 국가의 손실로 귀결된다면 그 국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안보의 영역에서는 더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결국 전망이론의 상대적 손실개념을 적용하면 국제협력이 중단되고 현실 유지를 중요시하게 된다. 최근 발생한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이 그러한 극단적인 예에 속한다.

Ⅲ. GTI(광역 두만강 계획) 사업의 경과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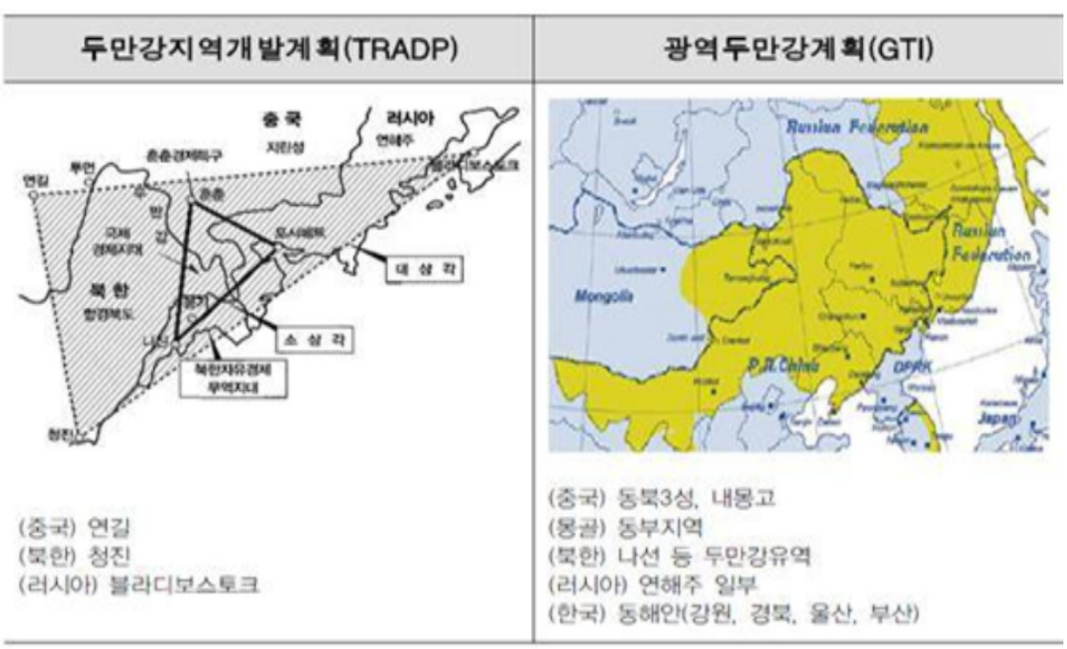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후 동북아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4대강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이 중첩적으로 교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블럭 구조화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제정치학적인 공학이 투영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른 셈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1990년대 탄생한 동북아 개발 사업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제질서의 영향력 하에 놓여 교착상태에 있었다. 2013년부터 신동방정책을 기치로 극동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세계 신흥경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3) 황지환(2007),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pp.10-11.

중국,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안보지형 속에서 적응하려는 한국, 동북아 최약소국으로서 국가의 존립여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북한, 동북아 국제 정치역학에서 개입을 유지하여 영향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동북아 세력 변화 판도에서 그 이니셔티브를 쥐려고 하는 일본, 이와 같은 변혁과 혼돈의 동북아세력 판도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사업이 GTI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GTI 사업에는 동북아 여러 국가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그 흐름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동북아 정치 경제 국제관계 지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인 것이다.

1990년 유엔 국제기구인 UNDP가 주도하여 중국, 한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 북방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사업(TRADP), 이후 광역두만강 개발사업(GTI)으로 명칭이 바뀌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좁은 의미의 두만강계획 대상지는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 북한의 라진 선봉지역의 삼각지대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두만강 개발지역은 북한의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중국의 연길, 한국의 속초에서 부산까지 동해안지역을 포함한다.[4)]

[그림 1] 광역두만강계획(GTI)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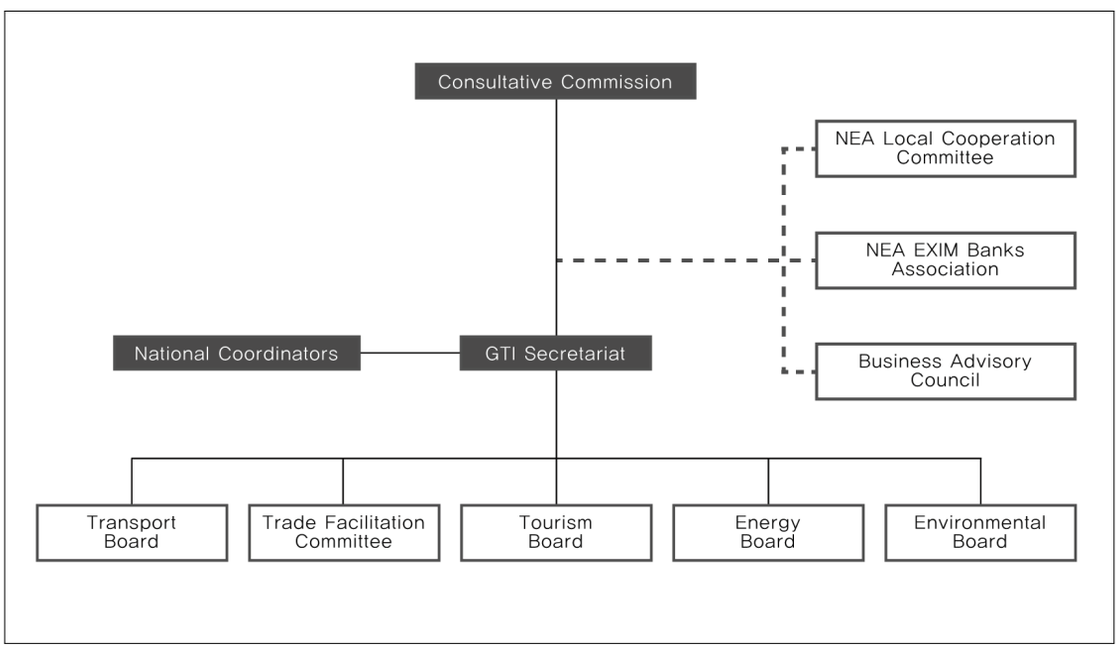


GTI의 2012~15 전략계획에 GTI의 교통, 물류, 무역, 투자, 관광, 에너지, 환경 분야의 협력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교통, 물류, 무역,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 역내 회원국들은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 원활화가 주요 목표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와 진행이 미미한 수준이다. 무역 원활화는 관세인하와는 달리 그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실제 기존 연구에서도 물류와 통관행정 효율화 등이 교역비용을 감소

4) 한국, 몽골, 북한, 중국, 러시아가 초기 회원이었으나 2009년 북한이 탈퇴하였다.

시키며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보고 있다.[5] GTI 거버넌스는 차관급 대표로 구성된 총회와 조정관 회의, 분야별 위원회, GTI 사무국이 있다.[6]

[그림 2] GTI 조직도



자료: Greater Tumen Initiative(2013).

현재까지 GTI 내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만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 하드웨어적 개발과 접근방법은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중국의 창지투 투자개발지역에서 물류 운송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 인프라가 완성되었고, 러시아의 극동개발 프로젝트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무역항 개항 등으로 항만 인프라와 항만 건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와 나진항을 잇는 철도 현대화 사업도 완결되었으며 [그림4]에서 나타나 있듯이 최근에 중국과 북한이 연계되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완성되었다.

5) 최보영 외(2014),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기획재정부(2012), p. 3.

[그림 3] 중국의 창지투 투자 개발지역



[그림 4] 두만강 유역 북한 중국 경제특구와 인프라 개발현황



[그림 5]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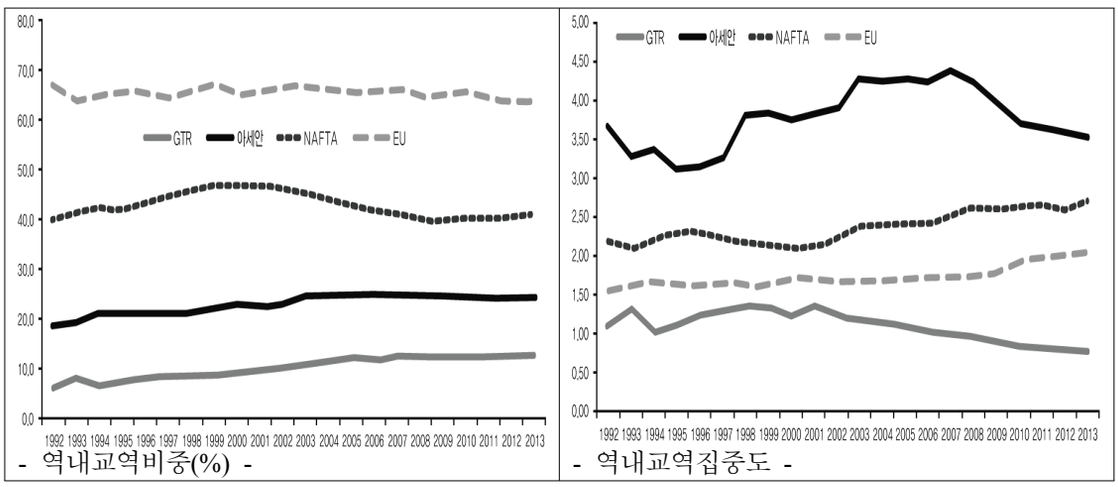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기존의 하드웨어적인 철도, 교량, 도로는 각 국가들이 GTI 접점사업 일환으로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아직 그 속도가 늦다. GTI 해당 국가들의 국제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수순이고 이러한 국제적 협력 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GTI 사무국이다. 이 사무국이 각 국가 차원에서 GTI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와 규정 그리고 관세, 통관, 금융에 대한 장벽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Ⅳ. GTI 국가들의 역내교역

특정지역에 속하는 국가들 간의 교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역내교역비중이다. 역내교역비중과 더불어 역내무역집중도를 적용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역내무역집중도(intra-regional trade concentration ratios)는 전세계 총 무역에서 역내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이다. [그림 6]에서 보면 GTI 내 역내교역비중이 1992년 6.0% 였으나 2013년엔 12.2%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그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그림 6] GTI 지역과 주요경제권의 비교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nline](검색일: 2014. 6. 26).

[표 1] 국가들 간 수출 시 물류 특징

국가	서류 개수		소요일		컨테이너비(US 달러)	
	2005	2013	2005	2013	2005	2013
한국	5	3	13	8	780	670
중국	8	8	23	21	390	620
러시아	10	9	24	22	1,600	2,615
몽골	11	11	49	49	1,807	2,745
독일	4	4	8	9	770	905
미국	3	3	6	6	960	1,090
싱가포르	3	3	6	6	416	460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online](검색일: 2014. 7. 11).

[표 1]에서보면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 GTI 해당국가들 간의 물류운송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간의 물류 유통의 문제는 GTI 거버넌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이다. 몽골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과 서류 준비 시 걸리는 기간이 한국의 6배인 무려 49일이나 소요된다. 중국과 러시아도 만만치 않다. 결국 GTI 거버넌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가 이러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불충분이다. 각 국가들 간의 조정과 이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의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겠다. 컨테이너 운임비도 2005~2013년 기간 동안 한국의 경우 20피트 기준으로 780달러에서 670불로 줄어들었는데 반하

여 몽골과 중국, 러시아는 크게 인상되었다. 각 국가들이 수입 시 소요되는 서류의 양도 [표 1]에 의하면 러시아, 중국, 몽골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14년 월드뱅크 물류성과에서 독일이 1위 한국이 21위, 중국이 28위, 러시아 90위, 몽골 135위를 차지하고 있다.[7] 물류성과지수[8]로만 보아도 러시아와 몽골의 지수가 세계 평균보다 낮았다. 이와 같이 같은 GTI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 2] GTI 회원국의 통관서류[9]

E: 수출, I: 수입			선하증권	원산지증명	상업송장	세관신고서	화물적하목록	수출입허가서	계약서	세관경비지불증명	운송장	통과세관신고서	보험증명서	기술/보건증명서	신용장	터미널화물처리영수증	외환양식	선적지시서	적합성인증서	인수지시서	창고증권	화물인도지시서
국가	수출	수입																				
몽골	11	13	E/I	E/I	E/I	E/I	E/I	E/I	I	E/I	E/I	E/I	E/I	E/I	I							
한국	3	3	E/I			E/I	E															I
러시아	9	10	E/I	E	E/I	E/I	E/I	E	E/I		E/I				I				I	E/I	I	
중국	8	5	E/I		E/I	E/I	E/I		E/I							E	E	E				

[표 2] GTI 회원국의 통관서류에서 보듯이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 방어를 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세관신고서 이외에 상업송장, 운송장, 인수지시서, 원산지 증명서, 수출허가서 이외에 금융거래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 수출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도구이며 과정인 것이다. 수입 시에도 신용장, 창고증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 시 추가로 요구되는 고스스탄다르트(수입품 적합 인증서)를 추가로 요구하여 통관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상에서 수입과 수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몽골은 이에 더하여 보험증명서, 기술 보건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 소프트웨어 장치들

7)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Database [online](검색일: 2016. 10. 15).

8) 무역원활화 수준을 평가할 때 많이 이용되는 지수는 2007년부터 발표되는 World Bank의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가 있다. 2007년 LPI는 ① 통관(Customs) ② 물류인프라(Infrastructure) ③ 국제수송(International shipments) ④ 물류역량(Logistics competence) ⑤물류추적(Tracking & tracing) ⑥ 국내물류비(Domestic logistics costs) ⑦적시성(Timeliness) 등의 7개 항목에 대해 전세계 150개국의 물류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9) McGill, Olin(2012), p. 7.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

의 장애로 인하여 GTI 거버넌스 사무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각 국가들의 무역 원활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국가 간 조정을 통하여 제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물류와 무역의 증대를 꾀할 수 있으며, 활발한 GTI 내 국가들의 교역으로 상호이익 창출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바람직한 동북아 협력 거버넌스란 동북아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둔 안정적 체계구축, GTI 규정에 의한 상호 조정, GTI 사무국의 행정 효율성을 통한 안정적 거버넌스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제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또한 참여하는 국가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의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동북아 GTI 참여국가들 간의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GTI 사무국이 그 역할을 해야 하며 GTI 구성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무역원활화에 방해가 되는 자유로운 물류 운송저해요인, 통관 시 문제가 되는 행정 서류 간소화와 프로세스의 단축 등을 국가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관세와 물류 운송, 통관 부문의 문제는 결국 GTI 지역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볼 수 있다.

신현실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한 국가의 이득이 다른 한 국가의 이득과 비교할 때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이익에 더 초점을 두고 움직인다. 그러나 손실이론에서 는 상대의 이득이 곧 나의 손실로 이어지며 이러한 관계에서 국제협력의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현 동북아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손실이라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 국제협력으로 발생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의 안보위기로 연결되며,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GTI 체제를 통한 극동 지역의 개발과 발전은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되지만 안보논리로 보면 중국에 대한 안보이익의 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 강화는 러시아의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동북아 국제협력에 불안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몽골 관계도 신현실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전망이론 중 손실개념을 적용하면 현재 동북아 협력 구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에 대한 설명 가능하겠다. 중국과 일본관계도 그러하다. 이러한 점은 한국과 북한관계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적 이익 개념의 상호 협력이란 논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전망이론에서 보여지는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국가 대 국가로 국가이익을 살펴보면 국제적 협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GTI 거버넌스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에서는 이러한 일대일

구도가 많이 희석화 된다는 점이다. GTI에 참여하는 여러 국가들의 이러한 절대적 손실 논리가 다자 협력 구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GTI 체제가 국제거버넌스로서 활동하면서 중앙 사무국의 역할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동북아 국제협력이 GTI 거버넌스를 통하여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동북아 GTI 체제의 사무국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가 강화되기 위하여는, 사무국을 주도하는 국가가 동북아 안보에 위협적인 주요 영향력자가 아니면서 동북아 협력 프로젝트에 자본과 기술투자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한국, 몽골 중에 한국이 제일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 중, 러, 일 4강 사이에 가장 지정학적 이익이 배치되지 않는 국가이며, 다른 4강에 안보적 위협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이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개발과 GTI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국가는 신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망이론 중 상대적 박탈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라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은 가정 적합한 적임자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현(2002), “상호주의와 국제협력”, 국가전략 , 제8권, 3호. p. 14.

김관옥(2011), “상대적 이익과 국제협력이론 논쟁의 재조명”, 대한정치학회보(제19집 1호), pp. 6-8.

라미경(2009),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2009년 12월), pp. 91~107.

박동훈(2010),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 논총, 제15권, 제4호, pp. 191-211.

서종원 안병민(2011), “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p. 12.

원석범(2015),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조성의 의의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국제지역연구 제19권 3호, pp. 326-328.

이성우(2010),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제주평화연구원, 2010-20, p. 21.

최보영 외(2014), “GTI 회원국의 무역활성화 현황 및 역내 협력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지환(2007), “전망이론의 현실주의적 이해: 현상유지경향과 상대적 손실의 국제정치이론”, p.9-11.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online](검색일: 2014. 6. 26)

Grieco, Joseph, (1988), “Anarchy and the Limits of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2.

Keohane, R, O. & Nye, S. Jr. (2000). Introduction. Nye, S. Jr. Donahue, J. D.(eds.), Governance in Globalizing Worl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Press.

Kooiman J. & Vliet, Van M. (1993). Governance and Public Management. In K. A. Eliassen & J. Kooiman(eds.),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London: Sage Publisher.

Rosenau, James N. (1995).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Ⅰ.

Lipson, Charles,(1984),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World Politics, 37.

World Bank, Logistics Performance Index Database [online](검색일: 2016. 10. 1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19002006 서울신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47652&ref=D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개념도

1920년대 소련 원동고려문단의 초기 형성과정 (고려인 한글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배은경(한국외대)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1920~30년대 소련 극동지역에서 생성하고 활동했던 고려인 문학사회, 즉 '원동고려문단'의 초기 형성과정과 그 사회문화사적 연구이다. 원동고려문단은 소련 정부가 극동지역에 수립되었던 1923년 이후 형성된 고려인 문학계를 뜻하는 개념으로 1937년 고려인이 중앙아시아지역으로 강제이주 되기 직전까지 활동했다. '원동고려문단'이라는 명칭은 당대 대표적인 고려인 신문인 『선봉』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당시 고려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용어이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이 강제 병합되었던 1920~30년대 국책으로 한글 교육과 활용이 지원되고 장려되었던 곳은 구소련 극동지역이 유일했다. 1923년 러시아 극동지역을 접수한 소비에트 정부는 한인들에게 새 나라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고, 소수민족 토착화정책도 전개해나갔다. 이는 소련 소수민족의 모국어교육과 민족문화 보호육성이라는 민족융화정책으로 발현되었다. 이 정책은 1920~30년대에만 시행되었다. 고려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강행 1년 후인 1938년 소련의 모든 소수민족학교들은 러시아어로 교육하는 일반학교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담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볼셰비키 권력이 갈망했던 신천지가 초기적 현상으로 시도되었던 1920~30년대의 소련 극동의 한인들은 역사상 가장 민족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스스로 '고려어', 또는 '고려말'이라 불렀던 민족어를 일반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러시아 한인촌락에 있던 관공서는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고려어로 처리했고, 신문, 교과서 등은 고려어로 쓰였으며, 문학과 연극 등도 고려어로 표현되었다. 즉, 소련정부는 한반도에서조차 탄압받고 있던 우리의 민족어를 고려인의 공식 언어로 인정했고, 이는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한글문학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러시아에서의 한글문학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것은 러시아 한인의 문화사적 기원을 원동 고려문단에서 찾으려 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 문학이란 창작자와 향유자의 시대정신, 역사

성, 사회적 갈등과 일체성, 애환과 행복 등 집단적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적인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1920년대처럼 복잡다기했던 소련 극동의 현실이 고려인 문학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면서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러시아 한인의 역사를 추출하고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과제이다.

본 연구는 소련 연해주에서 주로 활동했던 고려인 한글문학계의 초기 형성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을 『선봉』에 실린 고려인 작품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고려인 문학작품 대부분이 『선봉』을 통해 소개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적절함이 확인된다.[1] 그러나 러시아 아카이브, 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있으리라 추측되는 관련 문서들에 대한 탐색과 발굴 역시 주요 과제임을 밝히는 바이다.

2. 논제의 선행연구 동향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한국 연구자들은 러시아 고려인 문학사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과 문헌들을 발표했다.[2]

1) 선행 연구는 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를 다루고 있었다.[3] 그 대표적 저서로 김필영의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1937-1991)』[4]가 있다. 본서는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후의 고려인 문학사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고려인 문학연구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다. 본서는 연구자에게 본 연구의 발상을 제공한 소중한 문헌이다. 본서가 원동고려문단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존재성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본서에 등장하는 다수의 고려인 문인들은 이미 원동 고려문단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이었다. 즉, 중앙아시아 초기 고려인 문단을 형성하고 있던 작가와 작품들은 원동고려문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1) 선봉』은 1923년 3월 1일에 창간되어 1937년 한인 강제이주가 집행되기 직전까지 소련 극동에서 발행되었던 한글신문이다. 『선봉』은 원동 고려문학 역사의 무대였고, 『선봉』 편집부는 원동 고려문단의 지도부였다. 물론 외부적으로 조직된 문예동아리와 '연해주 쏘베트 문사동맹 고려쎅치야'가 활동하고 있었다. 『선봉』 편집부는 이 단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자이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2) 송명희, 「고려인 소설에 재현된 '러시아 이미지' 연구 – 김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Vol.31), 2014, 5쪽.

3) 광회진, 「『레닌기치』에 수록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비평 고찰」, (시학과 언어학, Vol.30), 2015; 강현모,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구비문학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구비문학」, (民俗研究, Vol.30), 2015; 강회진, 「고려인 시문학 속 여성상의 변화 양상-『레닌기치』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Vol.27), 2014; 박안토니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韓民族語文學, Vol.63), [2013].

4)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1937-1991)」, (용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4.

있었고, 그런 이유로 원동고려문단 연구의 의미가 역설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2) 그 외 고려인 문학사에 관한 연구들은 조명희[5], 아나톨리 김[6], 김준[7], 김세일[8]과 같은 인물 중심의 연구가 많았다.

3) 원동 고려문단을 직접 다루고 있는 대표적 문헌과 작품은 다음과 같다:

2005년에 발행된 장사선, 우정권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9]이다. 이 저서는 러시아 고려인 문학 연구의 범주를 연해주 지역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고려인 문학을 시, 소설, 평론 등의 장르로 나눠 그 작품들이 품은 민족적 심상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갑의 「고려인 문학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 『선봉』에 실린 작품과 문예관련 기사를 중심으로」[10]라는 논문도 직접적인 선행연구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원동 고려문단의 시대적 흐름과 동향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원동 고려문단에 대한 최근 연구로 논문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가 있다.[11] 이 논문은 1928년에서 1933년까지 원동 고려문단의 고려인 작가와 작품들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려인 문단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첫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작품에 대한 정확하며 정교한 분석이 부족하다.

3. 논제의 전개 방향

원동 고려문단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뉜다. 분류는 『선봉』 문예란 명칭 변화에 따랐다. 명칭 변화는 사회정치적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려인 문학 발전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1) 제1기는 [문화혁명]시기로 문예란이 신설되었던 1928년 4월 1일부터 [독자문예]로 그 이름

---

5) 김낙현, 「조명희 시 연구: 구소련에서 발표한 詩를 중심으로」, (우리文學硏究, Vol.36), 2012.

6) 정덕준, 「CIS 지역 고려인 소설 연구 CIS 지역 고려인 소설 연구 : 아나톨리 김, 알렉산드르 강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Vol.36), 2007.

7) 박안토니나, 「문학지리학 관점에서 본 김준의 장편소설 『십오만원 사건』에 관한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Vol.15), 2015; 송명희, 「고려인 소설에 재현된 '러시아 이미지' 연구 - 김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Vol.31), 2014.

8) 임형모, 「境界人의 抗日武裝鬪爭과 또 다른 '고향찾기'의 旅程 : 김세일의 「홍범도」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Vol.42 No.1), 2014; 신정은, 「고려인문학 「홍범도」에 나타난 역사의식과 서사 양상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Vol.11), 2013.

9) 장사선,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5.

10) 이상갑, 「고려인 문학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 『선봉』에 실린 작품과 문예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11) 배은경, 임영상,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과 그 초기작품 연구 : 고려인 신문 『선봉』에 기초하여」, (역사문화연구, Vol. 56), 2015.

이 바뀐 4월 20일까지이다. 한 시기로 규정하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발표된 작품도 단지 네 편에 불과하지만, 원동 고려문단의 '완전한 도입'이 실현되었다는 의미에서 독자적인 시기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2) 제2기는 1928년 4월 20일부터 시작된 [독자문예] 시대이다. 1933년 10월 4일 [문예 페-지]로 그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 5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 원동 고려문단의 형성기이다.

3) 제3기는 1933년 10월 4일부터 시작된 [문예 페-지] 시대이다. 이 문예란 이름은 1937년 고려인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후 발행된 『레닌기치』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원동 고려문단의 시대 구분에 기초하여 제1기와 제2기 전반기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1920~30년대 고려인 신문『선봉』외에도 6개의 고려어 잡지와 7개 고려어 신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문화』,『새 세계』,『로동자』,『로동신문』, 『동아 공산 신문』,『덕성』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고려인 콜호즈(집단농장) 및 지역 고려인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것이다.[12] 『선봉』을 제외한 다른 간행물들은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 이 간행물들에 문학작품이 실렸다는 정보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그러나『선봉』역시 지역 간행물의 성격이 강한 터,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상기 간행물도 지역 소식지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선봉』에 실리지 않은 의외의 고려인 문학작품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주고 있다.

2) 1925년 김시종의 시집 "눈물의 순례"가 발간되었고[13], 1935년 하바롭스크에서 130여 쪽 분량의 최초의 고려인 문집 "노력자의 고향"이 출판되었다. 본 문집에는 최호림, 조동규, 오성묵, 김인섭, 조명희 등 많은 고려인 문인들의 시와 글들이 실려 있다.[14] 이 두 문헌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없다. 그 이유로는 이 문헌들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 아카이브의 구조적 관료시스템으로 본다면, 본 문헌들은 분명 보존되어 있으리라 유추된다.

3) 본 연구주제에 관한 선행연구 실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그조차도 한국어 연구물에 한정되어 있다. 러시아 한인 문화사에 대한 러시아 연구 현황 조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고려인 문학이 잉태되고 성장한 곳이 바로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인 문학을 연구하려면 고려어, 즉 한글 해독에 능숙한 학자여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안타깝게도 고려인 및 러시아 학자들 중 한글 읽기와 이해가 가능한 이는 거의 없다. 아마도 원동고려문단에 대한 러시아 연구 성과는 개연적 추론에 비추어 전무하리라 생각된다.

---

12) Ким Сын Хва,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лма-Ата, 1965, с.222.

13)『선봉』, 1928년 05월 23일.

14)『선봉』, 1935년 01월 12일, 1935년 1월 18일.

4) 고려인 문학 형성의 도입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즉, 소련 정부의 고려인 문학 형성을 위한 초기 정책 및 원동 고려문단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5) 1928년 4월 20일부터 시작된 [독자문예]란에 실렸던 두 편의 시, 청인(靑人)의 <바다가에서>와 <봄은 오건만>을 시작으로[15] 배출된 많은 고려인 문학작품들의 원문 추출과 그것에 대한 정치문화사적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6) 원동국립대학 노동학원 학생이었던 김준[16]을 비롯하여, 니콜스크-우수리스크 사범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전동혁[17], 대표적인 고려인 작가이자 연극 감독으로도 유명했던 연성룡[18], 한자 혼용시를 주로 썼던 시인 김시종[19],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 출신으로 1928년 8월 소련 연해주로 망명한 포석 조명희[20] 등 다수의 고려인들이 이 시기에 작가로 입문했다. 그들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고, 고려인 문단의 주류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앙아시아시대로 국한되어 있다. 그들의 소련 극동에서의 작가로의 입문과정과 초기 작품에 대한 연구, 그 사회문화적 기여 등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4. 논제 연구의 중요성 및 결론

1) 고려인 문학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경향은 편향적이다. 주로 1937년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뒤 형성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 반면 원동 고려문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1]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얼까. 짐작해보건대, 무엇보다도 1937년 전격적으로 시행된 고려인 강제이주로 인한 역사적 기록물 유실 등 사료 채집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와 달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의 용이함은 그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창출했다.[22]

---

15) 위의 신문, 1928년 4월 20일, 「독자문예」.

16) 위의 신문, 1928년 5월 27일, 김준, 「새농촌」.

17) 위의 신문, 1928년 5월 1일, 전동혁, 「봄」.

18) 위의 신문, 1928년 5월 17일, 연성룡, 「원향」.

19) 위의 신문, 1928년 5월 23일, 김시종, 「나무줍는 안악네」.

20) 위의 신문, 1928년 11월 7일, 조생, 「짓밟힌 고려」.

21) 그 대표적 선행연구로 장사선, 우정권의 저서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5)와 이상갑의 논문 「고려인 문학 형성의 사회 문화적 배경 - 『선봉』에 실린 작품과 문예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Vol.31), 2014)를 들 수 있다.

22) 광회진, 「『레닌기치』에 수록된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비평 고찰」, (시학과 언어학, Vol.30), 2015; 강현모,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구비문학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와 구비문학」, (民俗硏究, Vol.30), 2015; 강회진, 「고려인 시문학 속 여성상의 변화 양상-『레닌기치』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Vol.27), 2014; 박안토니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문학의 연구 필요성과 방향」 , (韓民族語文學, Vol.63), [2013] 등.

2) 연구의 편향은 고려인 문학사의 오류를 낳았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는 분명 다양한 연구 가치를 갖는 논제이다. 그러나 고려인 문학사에 대한 한국학계의 관심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단에 경도되어 있다. 그 결과 현존하는 고려인 문학의 발생 원년을 강제이주가 일어났던 1937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23] 이는 고려인 문학의 원형 추적을 방해한다.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을 주도했던 연성룡, 태장춘, 김세일, 김기철, 조기천, 리은영 등 대표적 작가들은 실제로 1920~30년대에 이미 고려문단에 입문했던 사람들이다. 즉,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모태는 분명 원동 고려문단이었다.

3) 본 연구의 중요성은 고려인 문학의 창작언어가 러시아어가 아닌 고려인의 민족어인 '고려어'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상술한대로 1938년을 기점으로 고려어는 부차적인 언어가 되었고,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로 교육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차 민족어를 잊어갔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언어는 여전히 고려어였지만, 고려어를 아는 일부 고려인들만이 독자가 될 수 있었다. 작가와 독자 간의 순환적 소통이 이루어졌던 원동 고려문단 시대와 달리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은 일방통행의 닫힌 문학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즉, 강력한 집합적 정서의 도구가 되었던 '고려어'는 극동 고려인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결정적 장치였던 것이다. 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며, 조선 문학 역사와의 긴밀한 연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4) 소련의 초기 문화 사업은 문맹퇴치를 위한 범국민적 계몽운동이었다. 이 사업은 원동 고려인 문학의 대중화에 크게 일조했다. 1920년대 초반 고려인 남성의 33%, 여성의 8.8%만이 고려어로 독필이 가능했다. 그러나 10년 후인 1930년대 초반에는 고려인의 90% 이상이 고려어 문맹에서 벗어났다. '고려어'는 실제로 고려인 사회를 하나로 응집시키는 관념적, 현실적 상징이었다. 즉, 고려어를 매개로 한 자유로운 소통은 고려인 문학의 대중화와 공동체 문화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5) 원동 고려문단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작가와 독자의 일체성이다. 1920~30년대 소련의 한인들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었고, 고려어로 쓰인 작품들을 읽고 즐길 수 있는 독자가 될 수 있었다. 당대 발행되었던 러시아 한인 신문 『선봉』은 수시로 문학 작품을 공모했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다. 당선된 작품들은 『선봉』을 통해 소개되었고, 고려인들은 그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다.

6) 조선 문화와의 연계성 추적이다. 한민족의 전통 문예 장르라 할 수 있는 시조, 민요, 설화, 판소리 등이 고려인 문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920~30년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기초한 소수민족 토착화 정책에 따라 '형식은 민족적으로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라는 슬로우건 하에 소련 민족문화사업이 추진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가장 민족적인 소비에트 고려인 문화 발현이 가능했고, 이 때 원동 고려문단이 활동했다.

---

23)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1937-1991)」, (용인: 강남대학교 출판부), 2004, 57쪽.

7) 1930년대 초반까지도 ‘한자’ 사용이 가능해서 한문시나 한자혼용 시편이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조선의 한문시와 어떤 계통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을 더해준다. 한편, 1931년 문자문학에서의 한자 사용이 제한되면서, 고려인 문학에서 한자문학은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 말해, 고려인이 창작한 한문시나 한자혼용 시는 1920년대에만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고려인 문학사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고려인 한글문학을 조명하고, 이를 학술적인 맥락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군주제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기 문학으로서, 조선과 소련,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라는 3국의 영향을 받은 복합적 특징을 갖는 이질적인 한글문학으로서 고려인 문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한 다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

최우익(한국외대)

1. 서론

2000년대에 들어와 지구온난화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북극해 동결 기간이 점점 짧아짐에 따라 향후 북극 항로의 상시 이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북극권 산업 개발 계획이 여러 나라에서 구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극 환경 변화와 산업 개발에 따른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탐색하여 이 지역 주민 생활양식의 새로운 특징과 유형을 분석하고, 각 지역 주민 삶의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더 나아가 향후 북극항로가 활성화되고 북극권 개발이 가시화될 때 이 지역 주민이 어떠한 인적 자원으로 변모할지 단서를 찾는 데 역점을 둔다.

현재 세계는 북극 항로와 북극 지역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시에 이 지역의 보존이 필요하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이란 개념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양립을 추구하기 위한 취지로 등장했다. 즉, 보존을 전제하지 않는 개발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극 보존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들을 검토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북극 주민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초점을 둔다. 북극 주민이 생존을 넘어서서 이 지역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곧 북극의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과 결부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많은 경우 북극 주민은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이거나 이 지역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 직접 노동, 관리, 경영을 담당하는 지역 주민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이 지역의 주인공들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들이 건강한 주체로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곧 북극권이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이들이 북극권을 보존하고 개발할 수 있는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는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 북

극의 개발과 보존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타진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199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전 지역에 걸쳐 국가 차원의 사회변동을 겪었다. 처음에는 모스크바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전 지역으로 퍼져 이제는 변경 지대에서도 큰 폭의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북극권 지역은 석유, 가스, 금속 등 지하자원 채굴 및 수출 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엄청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 있다. 게다가 지구 온난화와 같은 북극권의 환경 변화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면서 사회변동의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2000년대 이후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두어 그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살피는 데에 역점을 둔다.

러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더욱 활성화되었지만, 사실 북극 지역에 초점을 둔 연구, 더 나아가 북극권 개발과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선행연구 자료들을 활용하되 북극항로와 북극권 자원 개발 가능성, 그리고 이들 지역의 개발과 보존의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징 연구에서는 보통 인구 및 이주 추이, 월평균 소득 및 임금 수준, 최저생계비, 실업률, 빈곤, 각종 소비지수, 교육수준, 노동, 취업부문 및 산업 분야 등과 같은 사회적 지표 분석이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경제 지표들에 초점을 두되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최근까지 시계열적인 흐름의 양상과 변화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러시아 통계청에서 출간한 다양한 자료의 통계정보 및 지표를 분석하고 재구성한다.[1] 이외에도 여러 학자와 기관의 연구 성과들을 동원하여 자료로 활용한다.

본 논문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고, 3장에서는 주로 2000년대 이후 북극권 주민의 시계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며,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2. 북극권의 정의와 기존 연구 동향

북극 영토를 지닌 나라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스웨덴, 핀란드 등 8개국이다. 이중 러시아는 가장 넓은 북극 영토와 영해를 지녔다. 그런데 북극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있어 이에 따라 북극 영토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다. 자연과학적 차

1) 러시아통계청에서 2016년 가장 최근 발간한 자료들은 2014년까지의 통계 수치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간은 2014년까지의 내용이다.

원에서 북극은 1) 7월의 등온선이 10도 이하인 곳(여기에서는 여름 철 식물의 정상적인 생장이 곤란), 2) 삼림 분포 지대의 북부 경계 너머 지역, 3) 북위 66.33도 이상의 지역이다(하지에는 낮이 24시간, 동지에는 밤이 24시간 계속되는 위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곳을 북극으로 보면 면적은 약 2,700만 ㎢이며, 북위 66.33도 이상의 지역으로만 한정하면 북극은 약 2,100만 ㎢가 된다.[2)]

이외에도 북극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경제적, 사회과학적 차원의 정의가 있다. 이러한 정의들에서는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지정학, 사회·경제적 측면, 행정적 기준들이 고려된다.[3)] 이 기준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북극의 면적은 더 확대된다. 만약 66.33도 이상의 지역을 북극으로 보면 러시아의 북극은 <그림 1>과 같다. 반면에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차원의 기준들을 반영하여 북극을 정의하면 러시아의 북극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북위 66.33도 경계의 북극



2)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или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2-3쪽. http://narfu.ru/aan/Encyclopedia_Arctic/RA-AZRF.PDF (2016 0702 검색)

3) Российская Арктика или Арктическая зона? 3쪽. http://narfu.ru/aan/Encyclopedia_Arctic/RA-AZRF.PDF (2016 0702 검색)

<그림 2>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요소들을 고려한 러시아의 북극



이에 따르면 러시아의 북극권 지역은 전 영토의 70%를 차지한다. 러시아 경제에서 북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즉, 석유의 약 80%, 가스의 90% 이상, 석탄과 목재의 거의 절반이 북극지역에서 생산되며, 이들을 수출하여 국가 차원에서 외화의 2/3를 벌어들인다.[4)]

러시아의 북극 지역은 지리적으로 유럽 북부, 서시베리아 북부, 동시베리아 북부, 극동 북부로 나뉜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다양한 잠재력을 지녔으며, 다음과 같은 발전 전망을 가질 것으로 평가된다.[5)]

러시아의 유럽 북부 지역은 연료 및 에너지 산업(특히 석유 및 가스), 군수 산업, 환경 친화적 임업과 관련한 자원이 풍부한 지대이다. 또한, 유럽 북부 지역은 서유럽의 시장은 물론 러시아 유럽 지역의 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서부 시베리아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유 및 천연 가스 개발 지대이다. 현재 주요 유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새로운 유전의 개발과 신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상태이다. 때때로 세계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이 지역 경제를 악화시켜 수출 안정성을 떨어트린곤 한다.

동부 시베리아에는 비철금속(니켈, 코발트, 구리, 보크사이트, 납, 아연, 안티몬, 탄탈륨), 철광석, 금광석을 포함한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대이다. 21세기 초반에 코빅타 유전을 포함하여 이르쿠츠크 지역의 탄화수소 자원의 대규모 개발이 계획되었다. 최대 수십억 cube.m의 천연 가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의 자원은 한국, 중국 및 일본으로 수출 될 수 있다.

---

4) http://works.doklad.ru/view/gTDKjajXfzE/all.htm (검색일: 20160617)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5) http://works.doklad.ru/view/gTDKjajXfzE/all.htm (검색일: 20160617)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극동 북부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연방 정부의 "극동 및 바이칼의 사회·경제적 발전 프로그램"으로 주도된다. 이 지역은 채굴업이 발달했으며, 야쿠티야 서부 및 사할린 대륙붕의 대규모 석유 및 가스 자원은 러시아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한국 및 일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 북극권 지역은 많은 경제적, 인구학적, 지정학적, 환경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사실 1990년대 러시아가 시장개혁을 하면서 북극권 지역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약 20만 명에 달하는 북극 소수민족의 문제들이 첨예화되었다. 그들은 무르만스크로부터 추콧카, 사할린, 극동까지 러시아 영토 60% 이상의 범위에 달하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들은 수세기동안 인류의 문명 발달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6)]

1990년대 시장개혁 이후 국가 통제가 약화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2000년대 중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북극 민족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다고 평가한다. 1인당 소득, 주택, 다양한 사회복지 지수들이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러시아 실업자의 1/5, 임금체납자들의 절반이 북극 거주자들이다. 원주민의 평균 수명은 러시아 평균보다 10-11년이 낮다. 2003-09년에만 출생률은 34%가 떨어졌고, 사망률은 42%가 올랐다. 산업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외부로부터 비원주민이 이주해 오면서 원주민의 정착지와 사회적 인프라가 훼손되었다.[7)]

항공과 기타 운송 비용이 높아져 생산품의 60%가 필요한 장소로 전달되지 않고 파손되었다. 순록의 숫자가 줄었으며, 물고기 어획량, 모피 생산량, 해양 동물 포획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버섯, 딸기 견과류, 약용 식물, 조류의 생산량도 줄었다. 실질적으로 순록 사육인, 어부, 수렵인에 대한 의료, 문화, 상업, 일상 서비스는 붕괴되었고, 주택 건설도 중단되었다. 또한 전통 민속 예술의 독창적인 모습도 잃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소수 원주민을 멸종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8)]

이와 같은 내용이 2000년대 중반까지 러시아 북극권 주민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모든 지역에서 전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북극지역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분화(social-economic differentiation) 현상이 발생하였다.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 북극지역은 사회·경제적 발전 양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9)]

첫 번째 유형은 세 지역으로 구성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이다(네네츠, 한티-만시, 야말-네네츠 자치구). 이 지역은 경제, 금융, 사회적 발전 지수가 매우 높다. 특히 1인당 소

---

6) Иванченко Л. А., Гневко В. А.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и правовые приоритеты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ой. – СПб.: ВС, 2006. – 119 с. 127쪽

7)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8) Тенденции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9) 유형별 지역 분류는 다음을 참조.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СЕВЕРА РОССИИ. 64-66.

득, 고정자본 투자, 무역, 유료 서비스, 소득, 지출 지수가 높으며 도로가 발달되어 있고(네네츠 자치구 제외), 최저생계비 미만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경제적으로 중간 정도 발전한 지역이다. 이들은 총 8개 지역이다(카렐리야, 코미, 아르항겔스크, 무르만스크, 사하, 캄챳카, 마가단, 사할린). 이 지역은 주택, 고등, 중등 교육 수준의 전문가 수, 철도 부분은 첫 번째 유형을 능가한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첫 번째 유형의 지역보다 수준이 낮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중간 이하이며 4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에벤크, 코랴, 추콧카, 타이미르 자치구). 단지 북극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이 높아지면서 의료, 보건, 소득, 지출, 주택 공급의 수준은 높다. 하지만 그 외의 분야는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지역보다 수준이 낮다.

이처럼 북극권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상황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3. 2010년대 중반까지 북극권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

러시아 북극 지역의 경계를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범위로 확대하였을 경우 83개 러시아연방 주체 중 200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 16개 주(혹은 공화국이나 자치구)가 북극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중 4개 지역은 2000년대 후반 인근 주에 통합되어 현재 러시아 북극 지역은 12개 주가 남았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카렐리야 공화국, 무르만스크 주, 코미 공화국, 네네츠 자치구, 아르한겔스크 주, 야말-네네츠 자치구, 한티-만시스크 자치구, 사하 공화국, 추콧카 자치구, 마가단스크 주, 캄챳카 주, 사할린 주.[10] 이들 중 다섯 지역은 북서연방관구, 두 지역은 우랄연방관구, 다섯 지역은 극동연방관구에 속해 있다. 본 연구는 이 12개 주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0세기 후반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러시아 인구는 1990년대 개혁기에 들어와 1992년을 기점(1억 4,870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11] 2000년 전후에는 연간 인구감소 규모가 약 100만 명에 달하기도 했는데, 점차 감소세가 완화되다가 2008년(1억 4,274만 명)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12] 그리하여 2015년 시점 러시아 인구는 1억 4,630만 명을 기록 중이다.[13] 오

10) 이후 본고에서는 지역의 행정적 단위 명칭을 삭제하고 지역 고유명만 기술한다. 예를 들어 네네츠 자치구를 네네츠로 표기한다.

11) Росстат(1999)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19.

12) 1992-2008년까지 인구 추세는 다음 참조. Росстат(2009)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66. 2008년 인구 수치는 다음 참조. Росстат(2012)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54.

늘날 러시아의 인구학적 상황은 1990년대부터 진행된 급속한 시장개혁과 이로부터 발생한 여러 과도기적 사회 현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단기간에 약 600만 명의 인구가 줄었는데,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등이 아니라 사회적 과도기의 후유증으로 인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규모 감소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인구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자연증가(및 감소)와 인구의 이주(유입과 유출)로 결정된다. 러시아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것은 주로 낮은 출생률과 높은 사망률로 인한 자연감소로부터 기인하였다.

<표 1> 러시아 북극권 인구의 자연증가율 추이(단위: 천 명당 명수)[14]

	90	95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러시아	2.2	-5.7	-6.6	-5.9	-4.8	-3.3	-2.5	-1.8	-1.7	-0.9	0.0	0.2	0.2
카렐리	3.1	-7.9	-7.8	-8.2	-6.8	-5.3	-5.1	-4.0	-4.1	-2.8	-2.8	-2.7	-2.3
코미	6.1	-3.5	-3.5	-4.1	-2.7	-0.8	-0.5	-0.4	-0.2	0.7	1.8	2.2	2.0
아르한	3.7	-6.1	-7.5	-6.3	-4.9	-2.8	-2.6	-2.1	-2.0	-1.7	-0.8	-0.5	-0.7
네네츠	10.3	0.7	0.3	2.3	1.1	3.0	3.6	4.8	4.7	4.7	7.1	5.7	7.9
무르만	5.4	-3.2	-3.0	-3.6	-2.9	-1.4	-1.3	-1.2	-0.2	0.0	0.5	0.9	0.3
한티	12.9	3.4	4.5	6.4	6.9	7.9	8.5	9.0	9.6	9.9	11.4	11.2	10.8
야말	13.1	6.7	6.1	7.7	7.6	8.8	9.1	9.7	10.3	10.2	11.4	11.5	11.8
사하	12.7	5.5	4.0	4.1	4.7	6.4	6.1	7.0	7.0	7.7	8.5	8.8	9.2
캄챳카	6.2	-2.0	-1.7	-1.6	-0.3	0.1	0.3	0.1	-0.5	0.4	1.5	1.6	1.7
마가단	8.0	-2.7	-2.1	-2.6	-2.5	-2.3	-2.9	-1.2	-1.5	-1.4	-0.1	0.7	0.3
사할린	6.1	-8.3	-4.2	-6.0	-3.8	-2.4	-2.2	-2.4	-2.8	-2.4	-1.2	-0.2	0.6
추콧카	10.1	1.3	1.9	3.9	3.7	4.1	2.7	1.2	0.9	2.5	2.6	2.6	2.8

<표 1>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로 보았을 때 자연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00년 천 명당 –6.6명이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0명에서 그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런데 북극권 지역에서 이것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카렐리야와 아르한겔스크의 경우는 현재까지도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할린의 경우는 2014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13년까지도 감소세였다. 반면에 네네츠, 한티-만시, 야말-네네츠, 사하, 추콧카의 경우에는 자연감소 현상이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코미, 캄챳카, 마가단의 경우 러시아 평균 수준보다는 덜했지만 그와 유사하게 감소세였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13) Росстат(2015) *Россия‘ 2015: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правочник,*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 8.

14) 1990~2010년까지는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1. сс. 68-69. 2011~2014년까지는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5. сс. 50-53.

<표 2> 러시아 북극권 인구의 이주 추이(단위: 만 명당 명수)[15]

	90	95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러시아	19	44	25	20	22	25	25	24	19	22	21	21	19
카렐리	-35	-16	-13	-115	-93	-29	-33	-36	-54	-18	-15	-13	-7
코미	-134	-176	-108	-163	-162	-98	-129	-109	-139	-112	-122	-120	-107
아르한	-78	-88	-78	-72	-70	-46	-61	-49	-82	-77	-85	-82	-65
네네츠	-169	-271	-62	-21	-26	-19	-47	14	-50	32	12	-3	1
무르만	-77	-250	-165	-169	-156	-93	-105	-60	-69	-77	-101	-129	-65
한티	-26	46	129	-27	-20	29	1	21	8	57	32	-29	-16
야말	-143	120	-22	-24	4	-45	-114	-79	-88	118	-21	-150	-112
사하	-60	-219	-92	-28	-29	-34	-69	-66	-71	-102	-87	-96	-70
캄찻카	-27	-346	-143	-199	-170	-89	-88	-63	-41	-51	-2	-38	-98
마가단	-229	-1024	-384	-180	-182	-153	-158	-108	-141	-118	-137	-142	-153
사할린	-41	-374	-121	-104	-110	-56	-66	-48	-63	-4	-31	-44	-59
추콧카	-355	-1269	-704	73	64	-56	-156	-196	-174	102	-66	-70	-30

러시아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3년부터이지만 총 인구 수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였더라도 외부로부터 이주민이 유입되어 전체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1990년대에 러시아 내 지역 간 이주민은 매년 약 110-160만 명 선이었고 2000년대에도 80-100만 명 선에 달했으며, 한편 1990년에서 2008년까지 러시아로 순유입된 국제이주민의 규모는 약 460만 명에 달했다.[16] 따라서 인구의 이주현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표 2>에 따르면 북극권 지역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 현재까지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한 두 해 인구가 유입된 적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인구의 유출 현상이 적지 않은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네네츠와 한티-만시스크의 경우만 인구의 유입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났는데, 한티-만시스크의 경우는 최근 2-3년 전부터 다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네네츠의 경우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로 코미, 무르만스크, 야말-네네츠, 사하, 캄찻카, 마가단, 추콧카에서 대규모 인구 유출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기 힘든 곳이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주민의 거주를 가능케 하는 연방 및 지방 정부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이러한 지원 시스템과 사회·경제 인프라가 와해되면서 주민이 유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 현상은 향후 북극권 개발을 앞두고 중대한 사회·

15) 1990~2000년까지는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2. сс. 76-77. 2005~2012년까지는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3. сс. 79-80. 2013~2014년까지는 다음 자료에서 재구성.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3. сс. 62-63.

16) Росстат(2009)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России,* Москва: Росстат, сс. 422-423. 국제이주민의 대부분은 독립국가연합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들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이들의 순유입이 없었다면 동 기간 러시아의 인구는 6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 이상 축소되었을 것이다.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표 3> 러시아 북극권의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 추이(2000~2014년)[1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러시아	1 ~ 83														
카렐리	16	19	18	17	26	28	31	33	35	36	29	32	31	34	41
코미	8	5	5	7	12	11	13	10	13	14	12	15	15	15	15
아르한	21	17	19	19	24	22	23	23	20	19	19	18	19	15	20
네네츠	-	-	-	-	2	3	2	1	1	1	1	1	1	1	1
무르만	5	7	8	8	15	16	16	13	11	12	11	13	11	9	12
한티	-	-	-	-	5	5	5	5	4	5	5	5	6	7	7
야말	-	-	-	-	3	2	3	3	2	3	3	3	2	2	2
사하	4	4	4	4	9	12	12	12	12	11	13	11	12	11	11
캄찻카	6	6	6	9	16	14	14	11	10	9	9	9	9	8	8
마가단	7	8	7	5	8	13	11	9	9	8	8	7	5	5	5
사할린	11	9	9	6	10	8	7	7	7	6	6	6	7	6	6
추콧카	3	3	2	2	4	4	4	4	5	4	4	4	4	4	3

시장개혁 초기인 1990년대 러시아는 상당히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어느 정도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고 있다. 1998년 모라토리엄으로 휘청했던 경제는 2001년에 가서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차츰 소득, 연금, 임금 등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 상승세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4년부터 서방의 경제제재로 주춤하였지만, 대체로 1990년대에 비해 2010년대는 실소득은 약 2배, 실질임금과 실질연금은 약 2.5배 높아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 국가 내의 지역 소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절대 수치보다 지역 간 소득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83개 연방주체 중에서 북극권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소득 순위 추이를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북극권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시점 카렐리야 공화국을 제외하고 소득 수준이 모두 20위 권 내에 있다.

사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소련시대부터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곳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 지역들이 대부분 인간이 거주하기 힘들고 경제활동에 불리한 혹독한 자연환경 때문에 노동력 유입을 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러시아 경제의 견인차 역

17)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의 자료 중에서 2001. cc. 110-111, 2002. cc. 110-111, 2003. cc. 126-127, 2004. cc. 144-145, 2005. cc. 32-35, 2006. cc. 36-39, 2007. cc. 36-39, 2008. cc. 32-35, 2009. cc. 34-37, 2010. cc. 34-37, 2011. cc. 32-35, 2012. cc. 32-25, 2013. cc. 32-35, 2014. cc. 30-33, 2015. cc. 30-33. 참조. 2004년 통계수치부터는 기존에 산정되지 않은 내부 소규모 자치구들의 순위가 포함되면서(이들의 순위는 대체로 높다) 전체적으로 몇 계단씩 순위가 낮아졌다. 2014년 통계수치부터는 83개 연방주체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단위로 순위가 산정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아르한겔스크 주의 경우 네네츠 자치구와 별도로 각각 순위가 산정되기 시작했다.

할을 한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을 위해 이들 지역에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곳 대부분이 변경 지대여서 최저생계비가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소련 시대부터 이들 대부분 지역에서는 생활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소득 및 소비를 보장해주어야 했다.

<표 3>의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추세를 볼 때 대체로 10위권 안에 있는 지역은 네네츠, 한티-만시스크, 야말-네네츠, 캄찻카, 마가단, 사할린, 추콧카이다. 10위권 대를 유지하는 지역은 코미,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사하이다. 단, 카렐리야는 30위권에서 40위권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졌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지역에서는 본래 많은 지출과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인 높다고 이곳 주민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표 4> 러시아 북극권의 소득격차율 및 지니계수 변화 추이(2002~2014년)[18]

소득격차율	02	05	10	11	12	13	14	지니계수	02	05	10	11	12	13	14
러시아	14.0	14.8	16.5	16.2	16.4	16.3	16.0	러시아	0.398	0.405	0.421	0.417	0.420	0.419	0.416
카렐리	8.8	9.2	10.7	10.6	11.6	11.3	10.3	카렐리	0.331	0.338	0.360	0.358	0.371	0.367	0.355
코미	15.4	17.3	17.3	16.5	16.9	16.6	14.9	코미	0.411	0.426	0.427	0.420	0.423	0.421	0.406
아르한	9.0	11.0	12.6	12.5	13.2	12.4	12.2	아르한	0.334	0.384	0.383	0.381	0.389	0.380	0.378
네네츠	16.3	15.9	19.8	19.3	19.9	19.1	17.6	네네츠	0.419	0.415	0.445	0.442	0.445	0.440	0.429
무르만	11.0	11.6	13.7	13.2	13.8	14.0	12.5	무르만	0.364	0.371	0.394	0.390	0.396	0.398	0.381
한티	18.7	17.5	17.0	17.1	17.6	17.0	16.9	한티	0.437	0.428	0.424	0.425	0.429	0.425	0.423
야말	18.2	17.8	17.8	18.1	19.1	18.9	17.6	야말	0.434	0.430	0.431	0.432	0.440	0.439	0.429
사하	10.7	13.3	14.4	14.5	14.7	15.0	14.5	사하	0.360	0.390	0.401	0.403	0.405	0.407	0.403
캄찻카	10.0	9.8	11.9	12.0	12.4	12.5	11.5	캄찻카	0.350	0.347	0.374	0.376	0.381	0.381	0.370
마가단	8.5	12.5	14.9	14.9	15.9	13.9	14.0	마가단	0.326	0.382	0.407	0.406	0.415	0.397	0.397
사할린	10.4	12.8	16.0	15.1	15.5	15.8	16.1	사할린	0.355	0.385	0.416	0.408	0.411	0.414	0.417
추콧카	11.7	10.3	14.7	15.8	15.9	16.1	16.1	추콧카	0.373	0.355	0.404	0.414	0.415	0.417	0.417

따라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지역의 소득격차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등을 살펴보는 일이다. 사실 러시아에서 시장 개혁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두드러진 부정적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 현상이다. 러시아 통계청은 2002년의 소득격차율과 지니계수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소득격차율은 2010년에 최대로 벌어졌다가 그 이후 다소 줄었고, 지니계수는 2010년 0.421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 조금 낮아졌다. <표 4>에 따르면, 러시아 평균치보다 소득격차율이 낮은 곳은 카렐리야, 아르한겔스크, 무르만스크, 사하, 캄찻카, 마가단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소득격차율이 높다. 특히 네네츠, 한티-만시스크, 야말-네네츠 등의 소득격차율이 높아 이곳의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2003년 발간 책부터 2002년부터의 소득격차율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고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정리함. 2003. cc. 144-145, 2006. cc. 172-173, 2011. cc. 162-163, 2012. cc. 182-183, 2013. cc. 176-177, 2014. cc. 156-157, 2015. cc. 226-227.

<표 5> 2000년대 러시아 북극권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의 추이[19)]

	00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러시아	29.0	17.8	15.2	13.3	13.4	13.0	12.5	12.7	10.7	10.8	11.2
카렐리	22.3	15.9	14.6	16.0	15.6	15.8	14.9	15.7	13.6	14.1	14.2
코미	26.3	14.9	14.6	13.8	15.1	16.5	15.6	16.3	13.4	13.7	14.3
아르한	33.5	17.5	17.2	15.9	14.4	13.6	14.0	14.4	13.2	14.1	14.1
네네츠	37.9	9.0	8.0	5.7	5.6	7.3	7.5	7.7	6.5	7.9	9.0
무르만	24.9	19.1	17.4	14.6	13.8	13.2	13.2	13.6	11.1	10.8	10.9
한티	11.8	7.7	7.6	7.4	7.3	8.8	10.3	10.6	9.8	10.7	10.9
야말	11.1	8.4	6.8	6.5	6.2	7.4	7.3	7.4	6.4	6.6	6.9
사하	28.3	20.0	18.9	20.3	19.0	19.6	19.0	18.6	16.7	16.3	17.4
캄찻카	-	25.2	23.6	20.5	22.6	21.2	19.5	19.2	17.8	16.8	17.0
마가단	30.9	18.6	17.5	16.2	16.1	15.3	13.6	13.9	11.3	12.2	12.1
사할린	39.6	18.2	15.5	12.6	11.4	11.5	11.0	11.9	11.8	9.4	9.1
추콧카	50.1	15.1	14.2	13.3	12.0	11.9	10.3	9.0	7.7	8.3	8.3

<표 5>는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이들은 사실 해당 지역의 극빈층에 해당한다. 러시아의 극빈층은 2000년 무렵 거의 30%에 달했지만, 2010년대 중반에는 약 11%로 줄었다. 북극권 지역 대부분도 이처럼 극빈층의 비율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절반은 러시아 평균치보다 극빈층 비율이 높다.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 사하, 캄찻카, 마가단이 이에 해당한다. 이중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겔스크는 2005~06년 러시아 평균치보다 극빈층 비율이 낮았지만, 2014년 시점에는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에 네네츠, 사할린, 추콧카는 2000년 시점 극빈층 비율이 상당히 높았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환경 변화와 자원 채굴산업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북극권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향후 이들이 새로운 생활양식 속에서 이 지역의 어떠한 주인공으로 등장할지에 대해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들 삶의 변화는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북극권 공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안 연구 과제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북극 개발 잠재력을 측정하거나 북극권 공간 개발을 둘러싼 러시아 여러 나라 간의 사회·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중반에 수행된 기존 연구 결과들과 몇 가지 주요 지표들을 활용하여 2010년대 중반

19) 2000~2009년 통계수치는 2013. cc. 184-185, 2010~2014년 통계수치는 2015. cc. 234-235 참조. 1990년대 통계수치는 통계청에서 제시하지 않았음.

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본 연구에서는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먼저 2000년대 중반 가장 열악한 지역들로 꼽힌 지역 중 다수가 행정적으로 주변에 편입되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나뉜 것과 유사하게 2010년대 중반에도 크게 세 가지 수준으로 지역들이 나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가장 발전한 지역 유형으로 네네츠, 한티-만시, 야말-네네츠를 꼽았다. 여전히 이것은 유지되고 있는데, 다만 한티-만시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순위가 점차 떨어지고 있고, 극빈층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다소 불안한 사회·경제적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에는 가장 열악한 지역 중 하나였던 추콧카의 소득 순위가 조금 높아졌고, 특히 극빈층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져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이제 포함될 수 있다. 사할린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가단과 캄찻카는 소득 순위는 높아졌지만, 극빈층의 비율이 러시아 평균보다 높아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무르만스크와 사하는 소득 순위나 소득격차율에서 큰 변화가 없고 다만 극빈층 비율은 과거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들 네 지역은 북극권 지역 중 중간 정도로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카렐리야, 코미, 아르한켈스크는 북극권 지역 중 소득 순위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극빈층 비율도 러시아 평균치보다 높아 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지역은 인구 및 이주 상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북극권 지역 중 발전 수준이 중간 이하인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 시점 북극권 지역 주민은 사회·경제적으로 세 가지 수준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북극권 지역 전체적으로 인구 유출 현상이 심해 이것을 향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공통의 중요한 지역 과제로 남아 있다.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205호

III 세션 (동유럽 외국인 교수 세션)

사회: Piotr Horbatowski(한국외대)

≫ 발표 1

How to describe the Czech verbal aspect?

Milan Hrdlicka(한국외대)

≫ 발표 2

Reflection of Russia's Imperial Policies in the Works of Taras Shevchenko

Olena Shegal(한국외대)

≫ 발표 3

The Image of Women in the Ukrainian and Korean Cultures: An Ethnographical Aspect

Irina Zbyr(한국외대)

How to describe the verbal aspect?

Milan HRDLIČKA(Department of Czech and Slovak Studies, HUFS)

Foreign students at the Institute of Czech Studies at the Faculty of Arts at the Charles University (Prague) were asked some years ago (Milan Hrdlička, 2009) to indicate the most difficult grammar category or grammar phenomena in Czech language from their point of view. They mentionned, of course, the Czech declension and other difficult chapters of the Czech grammar, but they almost all wrote that the most complicated part are the Czech prepositions and the verbal aspect.

I am going to touch some important reasons which cause the verbal aspect is often indicated as very demanding, especially for non-Slavic speakers, and I am going to describe in concise way some attemps how to present the verbal cathegory from the linguodidactic point of view, how to teach the verbal aspect to foreigners studying Slavic languages.

The difficulty of the verbal aspect consists not only in its specific character, but also unfortunately (and mainly) in its problematical, daubtful explanations in textbooks. We can often meet the following simplification which causes many mistakes: *If an action has been repeated, we use an imperfective verb, if not, if there is only one unusual action, we use a perfective verb*, for example *Každý den se vrací v šest, ale zítra se vrátí v devět* (He returns at six o´clock every day, but tomorrow he is going to return at nine o´clock). The rule is often true, but very often it is false: a finished action can be repeated, see *Každý den si koupím ty noviny* (I buy / I used to buy the newspaper every day).

Another problem is, that explanations are too general, insuffisant, nonspecifised, without adequats exemples. In class, it may happen that the verbal aspect has been presented by teacher as a category which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learn well. Such demotivation of students from the beginning of their study is not welcomed.

I am persuade that it is necessary to show students the positive points of the verbal aspect: thanks to this category, Czech has a very simple system of tenses. The verbal aspect is also very

sophisticated and „economic“, it is able to describe nuances of an action by using only one prefix: *Odešel* (He left) versus *Poodešel* (He left a bit). I think it is also useful to explain students how has been the non-existence of the verbal aspect substituted in different languages, for exemple by a complexe system of tenses etc.

The exellent Czech linguist, Vladimír Skalička, member of the Linguistic Circle of Prague, author of the famous typologie of languages, said: *Languages are different attemps to solve the same problem*. I think it is perfectly truth: a speaker has his communicative intent, he wants to express an idea, he wants to communicate a content and he has in different languages different means how to formulate his concept.

It is evident, there is no a common simple instruction how to treat the verbal aspect, especially in teaching foreign languages. Its description should depend on several important factors, such as the mother tongue of the foreign speaker, of his level of the commucative competence (in Czech or in an other Slavic language), on his commucative priorities, on his instruction (philolog versus nonphilolog) etc.

To imagine the character of a perfective and an imperfective verbs, we very often use the following comparision. An imperfective verb „is filming“ an action, it expresses an activity as a process (in English, we use in such situations „-ing“ verbal forms, for example *I was doing, I had been doing, I have been doing, I am doing, I will be doing*). A perfective verb „is photographing“ an action, it expresses a result of the activity (see Ivan Poldauf – Karel Šprunk, 1968). I appreciate the verbal substance of the metaphore, but the problem is that it is too general, too abstract that it can help only in some cases.

The difference between perfective and imperfective verbs can be shown on this situation: a person is leaving for one week on a business trip and telling to his friend Každý den ti budu psát dopis (I will write / I will be writing you a part of a letter every day) or *Každý den ti napíšu dopis* (I will write / I will have written you a letter every day). In the first case, the person is speaking about the activity, non about its result, he does not promise to finish one lettre by day, so after one week, he will probably have only a part of a long letter. In the second case, the person is going to write seven letters.

An other metaphore, very sophisticated and detailed had been thaugth out by Laura Janda (2008). In her conception, perfective verbs have been taken for solide materials (stone, chair), for objects having clear borders, its beginning and its end, imperfective verbs have been presended as unlimited, with no borders, amorphs (sand, water). In Janda´s opinion, both matherials have a lot of qualities, features. I am going to mention only some of them: the „stones“ and „chairs“

(perfective verbs) are countable, the „sand“ and „water“ are not. It is possible to mix sand with water (imperfective verbs are compatibles), the perfectives ones are not. Perfective verbs are dynamic (the motion on a stone way is easier and quicker than the motion in water), imperfectives ones are not.

Janda´s conception is very interesting, but I doubt a little if it is really useful for language teaching purpose.

In teaching materials, we can meet some simplifized tendencies. Lída Holá (2008) in her textbook called *New Czech step by step* prefers to use during the first semester just imperfective verbs. She advices to learn the perfective verbs later. I do not agree with conception, because in this way, the adequate concept of the description of a verbal action has not been supported since the beginning. If the perfective verbs have not been presented soon, foreign students would miss them, they come and ask themselves the teacher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frequents verbs like *kupovat – koupit* (to buy), *psát – napsat* (to write), *čekat – počkat* (to wait) etc. I am sure that students are able to learn the often used pair of verbs quite easily.

Ilona Kořánová (2014) works with the idea the speech realisation of the verbal aspect is used to been expressed both by lexical component(s) cooperating with the predicative verb, not only by the verb itself. In her opinion, imperfectives verbs are used after expressions as *pořád* (always), *celý den* (the whole day), *pravidelně* (regularly), *zatímco* (while) etc. on one hand, perfectives verbs occur together with words *nakonec* (at the end, to finish), *náhle* (suddenly), *jakmile* (as soon as), *dříve než* (befor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It looks like a good way to solve the presentation of the verbal aspect, but I see two main problems: first, a very limitated number of such expressions, second, a considerable number of exeptions. So this solution is not reliable enough.

Let us see one example: the word *vždycky* (always) would be supposed to be followed by an imperfective verb, but in the sentence *To se pak vždycky hádají / pohádají* (Then they always quarrel), it is possible to use both verbs (*hádají – pohádají*) according to the situation (Milan Hrdlička, in press).

I think, the best way is to give students a lot of examples accompaigned with simple rules (Milan Hrdlička, 2009).

Imperfective verbs focus on a duration of an action or on a repetition of an action (see above). The imperfective verb expresses very often an actual action (*Alena se učí německy* – Alena is learning German) as well as non actual, but usual action, which happens often, regularly (*Ráda cestuje* – She likes travelling; *Výborně vaří* – She cooks exellently).

Imperfective verbs express also simultaneous actions: *Když jsem snídal, poslouchal jsem rádio* – During breakfast,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This verbs express skills, some knowledge: *Mluví dobře rusky* – She speaks (= she is able to speak) Russian well, and an intent, a task: *Bratr hledá větší byt* – My brother has been looking for a bigger flat.

We use imperfective verbs to describe a slow action (in such case, it it possible to fill in adverbs *dlouho* – longtime and *pomalu* – slowly): compare *Každé ráno vstávám v 7 hodin* (I get up at 7 o´clock in the morning) with *Každé ráno vstanu v 7 hodin* (the second action is quicker).

In Czech, there is a very strong tendency to use the perfective verb in an affirmative imperative form (the speaker wants a have some result): *Řekni to!* (Tell it), *Přelož to!* (Translate it), *Kup to!* (Buy it) and the imperfective verb in a negative imperative form: *Neříkej to!* (Do not tell it), *Nepřekládej to!* (Do not translate it), *Nekupuj to!* (Do not buy it). But, of course, there are exceptions, for example: *Přelož ten text, ale překládej ho pečlivě* (Translate the text, but translate it with care). The firs form is perfective, it means, the speaker wants to have a result, the second imperfective form expresses the speaker speaks about the developpement, about the way of the realisation of the action.

The imperfective verbs have been used to express unsure actions (the positive result is not known, it is unsure) – *Zítra dělám zkoušku* (I am going to také an exam tomorrow), to ask about an experience – *Už jsi někdy četl Kunderu?* (Have you ever read any Kundera?) and so on (for more examples see Milan Hrdlička, 2009).

The imperfective verb is also used to ask the author of a finished action (the perfective verb would be correct, but it would not be necessary, because we can see the result): *Kdo psal ten dopis?* (Who wrote that letter?) *Kdo šil ty šaty?* (Who made that dress?)

The use of the perfective verbs is simplier – a) we use them often after the time conjunction *až*: *Až napíšu úkol, půjdu ven* (After I write my homework, I am going out), b) to expresses some „inability“: *Bez slovníku nic nepřeloží* (Without a dictionnary, he can never translate anything), *Neumí si ani uklidit* (He can not even clean up for himself), c) to show an unwanted or spontaneous action: *Tady vždycky uklouznu* (I always slip here), *Pokaždé když ji uvidím, zčervenám* (Everytime I see her, I blush).

With regard to the verbal aspect, in essence only verbs have been considered, but aspect also refers to deverbatives: verbal nouns (*vysvětlení* x *vysvětlování* – explanation) and verbal adjectives (*přeložený* – translated x *překládaný* – being translated).

Bibliography

HOLÁ, L. (2008): K metodice výuky vidu (www.czechstepbystep.cz/cz/prouc/index.htm).

HRDLIČKA, M. (2009): *Gramatika a výuka češtiny jako cizího jazyka.* Praha: Karolinum.

HRDLIČKA, M. (v tisku): Sémantika a aspekt.

JANDA, L. A. (2008): A Metaphor for Aspect in Slavic (hum.uit.no/lajanda/mypub.htlm).

KOŘÁNOVÁ, I. (2014): K metodice výuky aspektu. In: *Čeština jako cizí jazyk VII* (M. Hrdlička – J. Hasil, eds.), Praha: Euroslavica, s. 141-149.

POLDAUF, I. – ŠPRUNK, K. (1968): *Čeština jazyk cizí.* Praha: Státní pedagogické nakladatelství.

Reflection of Russia's Imperial Policies in the Works of Taras Shevchenko

Olena Shchegel(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

I. Introduction

Taras Shevchenko (Тарас Шевченко, 1814-1861) is rightfully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writers of Ukraine to whom Ukrainians ofter refer as 'our national poet'. Although he wrote not only poetry but also prose and plays, and was a distinguished painter as well as a prominent public figure, he is best known for his poems. His achievements are of immense importance to the Ukrainians as it was Shevchenko who truly promoted Ukrainian from a spoken into a literary language. Many Ukrainian and foreign researchers have studied various aspects of Shevchenko's artistic heritage utilizing biographical, bibliographic, literary, lexicographical, artistic, aesthetic, psychological, educational, textual, linguistic, religious, ethical, philosophical, social, political and other approaches.

Due to the number and diversity of Shevchenko's works and their meaning to Ukraine and her people studies of his legacy are often classified as a separate area of research and are called 'Shevchenko studies'. First reviews of Shevchenko's works appeared in the Russian Empire during his lifetime[1] but were rather limited in their nature as they mostly derived from the official stance of the empire on Ukrainian language. After his death, a number of comprehensive articles were published by Ukrianian and foreign researchers mostly abroad[2] as at that time Shevchenko's works in the Russian Empire were declared illegal. In the Soviet times, researchers amplified anti-autocratic and anti-exploitative motifs in his verse[3] while at the same time studies

1) First reviews of Shevchenko's works in newspapers and journals include *Сын отечества,* 1840, vol. 2, book 4, p. 836-837;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чтения*, 1840, vol. 39, p. 14-16; *Литературная газета*, 04.05.1840, vol. 36, etc.

2) Durand, Émile "Le Poète national de la Petite-Russie". *Revue des Deux Mondes*, vol. 15, 1876, p. 919-944; Franzos, Karl Emil *Vom Don zur Donau: neue Kulturbilder aus Halb-Asien.* Leipzig: Duncker & Humblot, 1878; Drahomanov, Mykola "Il movimento letterario ruteno in Russia e Galizia (1798—1872)". *Rivista Europea*, 1873; etc.

of the diaspora and foreign authors emphasized reflection of national conciousness and calls for freedom[4] in Shevchenko's poetry. After Ukraine regained independence in 1991, there has been a surge in Shevchenko studies which continues to this day especially as his works are often reminiscent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remain relevant to a contemporary reader.

Despite the vast range of research of Shevchenko's legacy, as his works are diverse and multidimensional we keep discovering new methods and ways of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his literary works. Many scholars have discussed negative depiction of the Russian Empire and tsarism in Shevchenko's poems but there are only few papers that analyze how imperial policies are shown in his works. Even those few are mostly written not by literary critics but by scholars of law and politics and dwell on his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freedom. This paper aims to show which specific imperial policies were in place at the time when Shevchenko was wring his poems and how these policies are reflected in his works.

It is important to make a short remark concerning historical circumstances of that time. Since 1667 (Truce of Andrusiv), Ukraine was divided between Russian and Poland, and after the partitions of Poland – between Russia and Austria. Each empire had its own policies towards the nations within their borders. As Shevchenko was born and lived in the Left-bank Ukraine, i.e. in the part governed by Russia, this paper will only consider Russian imperial policies in his works. Although Shevchenko knew about the situation in the Right-bank Ukraine and longed for unification of all Ukrainians within their own state as a subject of the Russian Empire it was Russian policies that influenced his life directly and it was mainly these policies that found reflection in his poetry.

II. Imperial policies in the Russian Empire

Imperial policies that most significantly influenced – or maybe it would be more accurately to say, reigned over - the lives of the Ukrainians in the nineteenth century can be summarized as serfage and Russification. Before talking about how these two sets of policies are exposed in the

---

3) Soviet studies of Shevchenko include Бельчиков, Николай*Тарас Шевченко. Критико-би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М., Гослитиздат, 1939; Білецький, Олександр "Шевченко і слов'янство". *Радянське літературознавство*, vol. 16. Киев, 1952, p. 3-12.

4) For the studies outside USSR, see Doroschenko, Dmytro *Schewtschenko, der grosse ukrainische Nationaldichter*. Berlin: Verlag E. Wyrowyj, 1929; Mijakovs'kyj, Volodymyr and Shevelov, George Y. ed., *Taras Ševčenko 1814-1861 : a symposium*. Gravenhage : Mouton, 1962; etc.

works of Shevchenko,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y such policies were considered at the time so important by the Russian Empire in the first place.

Importantly, both serfage and Russification were not introduced to Ukraine in the nineteenth century and have been in place for quite some time with serfage introduced by Catherine II in 1783, and Russification - in various forms - ever since Russia started to exercise its rule over Ukraine. But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se policies were expanded and fortified with the Uvarov's (Уваров) doctrine. In 1833, the education minister of the Russian Empire Uvarov pronounced that the ideological pillars of the empire should be Orthodoxy, autocracy and nationality. For Ukraine, this meant strengthening the tsarist regime. Uvarov was well-educated and versed in politics of the time. He understood the danger that the Dekabrist revolt of 1825 had concealed and saw that changes seeping into Russia were a great threat to its stability. He knew all too well about the result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rise of nationalism it had caused; he also saw that other European empires started to stumble, not in the least because of the growth of the national movements. His triad of 'Orthodoxy, autocracy and nationality' was designed to strengthen the regime.

Uvarov saw Orthodoxy as a preserver of tradition. Tradition was important for Uvarov as it was an opposite of change - and change, at least a rapid one, would mean collapse to the empire. Orthodoxy in its traditional form was important to Uvarov as a response to rationalism which was gaining popularity in Europe, and mysticism, which was so characteristic of the reign of Alexander I. According to Nikolsky[5], in original report to tsar written in French Uvarov does not use the word 'Orthodoxy'[6] instead he writes 'faith of ancestors', thus emphasizing its role as Russian tradition. Moreover, in Russia, Orthodoxy has for a long time been an instrument for spreading imperial ideology and implementation of tsarist policy[7]. Therefore, it was an important transmitter of imperial ideology which was essential for preserving autocracy. The cornerstone for maintaining autocratic regime in Russia was the class system, and tsar relied heavily on support from the nobles. Accepting western ideas of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would inevitably

---

5) Никольский, Сергей *Рус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Новые люди» как идея и явление: опыт осмысления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философии и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40—60-х годов XIX столетия.*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12, p. 78

6) The word 'Orthodoxy' was added to the document later.

7) On role of the Orthodox Church in the Russian Empire see Степовик, Дмитро "Тарас Шевченко і українське православ'я". *Народна творчість та етнологія,* 2004, #3, p. 36-45.; Огієнко, Іван *Українська церква: Нариси з історії Української Православної Церкви*: Vol. l. Київ: Україна, 1993; Richard S. Wortman *Scenarios of Power: Myth and Ceremony in Russian Monarchy*,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etc.

lead to abolition of the class system. Thus, for tsarism it was crucial to keep the peasants enslaved (enserfed) and limit their access to education so that they did not get exposed to new knowledge and ideas. Without freedom and education peasants had very little ability to take part in the political life of the empire.

Autocracy, in Uvarov's view, was the only form of government under which the empire could survive. In his report to Nicholas II, Uvarov writes "A *colossus* (meaning empire) in which an imagined constitutional form of government accepts, in the European manner, the chimeras of restricting the monarch's authority and granting equal rights to all classes, would fail to last a fortnight. It will in fact collapse before completing these false transformations"[8]. Therefore, as Whittaker[9] put it, "the rise of the autocracy was presented as the most essential feature of Russia's organic development and the tsar its natural guide. Throughout his life, Uvarov intoned that the "autocracy constitutes the sine qua non of Russia's political existence." Thus, rejection of such western ideas as freedom of thinking, freedom of personality, individualism and rationalism were central to Uvarov's triad.

The notion of nationality (rus. народность) is, in my opinion, central in Uvarov's motto, a connecting link that makes 'Orthodoxy, autocracy, nationality' not just a motto but an ideology. Interestingly, Uvarov introduces the concept of nationality as one of the pillars of the imperial ideology in 1830s. Many scholars (Gellner, Brubaker) agree that the phenomenon of 'nation' in its modern meaning emerged at the time the French Revolution while others (Gat, Kohn) argue that it has been around since the ancient times. But although it is hard to argue that ancient Egypt or Israel were not national states it is also widely known that before the French Revolution in Europe – and even more so in Eastern Europe – nationality was rather fluid and far less important than social class and religion[10].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due to aggressive extension of the imperial boarders the percentage of non-Russians in the empire increased dramatically. Aware of the rise of nationalism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nd seeing its ideas influence non-Russian nationalities of the empire (one of the examples was the Polish revolt in 1830) Uvarov understood that he cannot block this concept from the discourse in Russia completely. Instead, he chose to interpret it in such a manner that it served the needs of the

---

8) English translation is from Haines, John R. *Russia, Hungary, and the Quest for Grandeur* 2.12.2015. Retrieved from http://www.fpri.org/article/2015/12/russia-hungary-and-the-quest-for-grandeur/ on 6.11.2016.

9) Whittaker, Cynthia H. "The Ideology of Sergei Uvarov: An Interpretive Essay" *The Russian Review,* 1978, Vol. 37, No. 2. p. 164

10) Norris, Stephen M. and Sunderland, Willard *Russia's People of Empire: Life Stories from Eurasia, 1500 to the Present.* Bll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p.139

empire. As most autocracies, Russian tsarism depended on such elite groups as nobles, military and priesthood for the maintenance of the regime. Accepting modern concept of nation, nationality and nationalism would mean to accept superiority of nationality over social class and religion as the foundation of a nation and further on – a state. Therefore, Uvarov needed to embed 'nationality' in his triad in such a way that it would not stand in opposition to religion (Orthodoxy) and autocracy but would on the contrary enhance it. Understanding that recognizing the right of national self-identification for the subject peoples would consequently lead to their demands for statehood, he developed the theory of 'official nationality[11)]'. As Meshcheryakova[12)] suggests, "From Uvarov's arguments about the nation in the context of his doctrine we can be conclude that by this term he understood national identity, including in this notion adherence to national traditions, historical memory, and understanding of a nation of its own historical way. No wonder that in one of the official texts relating to the triad, he replaced the abstract concept of "nation" with a more concrete one - Russian spirit" (translation from Russian is mine). Thus, Uvarov interpreted nationality as a cultural-political community that has become conscious of its autonomy and in this sense, he insisted that only Russians were entitled to having their own nationality. Uvarov's understanding of nationality can be verified through his treatment of the Germans and Poles (and specifically their elites) in his letters to the tsar.

> But the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among them the idea is ingrained strongly that they belong to this imaginary nationality which is German.
>
> Young Poles should forget the senseless dreams of a separate Polish nationality[13)].

Miller argues that Uvarov with his policy did not intent to turn Germans or Poles or other nationalities into Russians but simply aimed to acculturate them with the Russians. Which I personally cannot agree with, as culture is a crucial element of the nation's self-identification and taking it away or substituting with a culture of 'the other' would simply mean denying a nation the right for self-identification. Although Uvarov does not use the term 'Russification' in his

---

11) Although Uvarov did not use the term 'official nationality' in his writings (it was introduced by Alexander Pypin in 1875) his suggestions on interpreting nationality quite fit such description. I do not agree with the meaning Pypin provides for this notion, but consider the name to be fitting in sense that Uvarov limited the right for self-identification as a nation to only one 'official' nationality – the Russians.

12) Мещерякова, Арина "Граф С С Уваров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консерватизма". *Гуманитарные науки,* 2014, vol. 7-8, p. 51

13) Original reference is taken from the public lecture by Alexey Miller which he gave on March 5, 2007. The verbatim report of the lecture can be found at http://polit.ru/article/2007/04/11/uvarov/. Translation of the original reference from Russian is mine.

writings, their analysis makes it clear that for him the only way a representative of a subject nation can be accepted equal in the empire is to become Russified. Therefore, it is adequate to state that his triad provided ideological ground for further Russification policy of the Russian Empire.

Uvarov's slogan 'Orthodoxy, autocracy, nationality' provided ideological foundation for Russia's policies of Russification and enserfment. These policies were implemented not only with administrative levers but also with the active assistance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Russification was not simply a language policy; it was a policy that aimed to deprive subject nations of their culture and their right for self-identification.

III. Imperial policies through the works of Taras Shevchenko

Taras Shevchenko's views are distinguished by profound rejection and condemnation of autocracy. For him, there are no 'good' kings. In the poem "A Dream" ("Сон") which the poet himself sarcastically called a comedy, with withering sarcasm he debunks the image of the tsar as 'the Lord's Anointed' on earth, and in "The Holy Fool" ("Юродивий") calls him 'a sergeant on the throne', 'ringleader of the pack of bloodthirsty tyrants and villain landlords'. Despite knowing for sure that severe punishment would follow[14], Shevchenko boldly raises the question: "How long will hangmen longer rule / And turn earth into hell?" ("A Dream"). The poet depicted Russia as the state of 'princes', 'tyrants', 'kings', 'Caesars' and 'emperors', who ruled with the help of the Russian Orthodox Church, which sanctified the arbitrariness and violence against oppressed nations. In "My Mighty Hills" written in 1848, the poets proclaims: "Over the Ural Mountains, life of the Kyrgyz[15] is disastrous. But still it is better than here, in Ukraine!" (На що вже лихо за Уралом / Отим киргизам, - отже, й там, / Єйжебогу, лучче жити, / Ніж нам на Украйні!) and adds an explanation: 'That is probably because they do not yet have Orthodoxy over them' (А може, тим, що киргизи / Ще не християни?..) thus implying that the

14) The punishment did follow as Shevchenko was arrested and sent to distant regions of the Russian Empire as a soldier for ten years (1847 — 1857). Although the pretext for his arrest was not his literary activity but participation in 'The Brotherhood of Cyril and Methodius', an underground Ukrainian organization that propagated abolition of serfdom and absolute royal power in the Russian Empire; they also urged all Slavic nations to rise and build their own democratic republican states.

15) While serving in the army as the punishment for his poetry, Shevchenko was sent to Kazakhstan in 1847, where he got acquainted with the Muslim locals, whom he called Kyrgyz.

Church was an instrument of implementation of tsarist policies. Moreover, in “The Caucasus” he accuses the Russian Church that it had forsaken the Holy Law and has become an avant-garde of amorality:

> ...a priest the Bible reads
> And then to teach the flock proceeds
> About a king of ancient times,
> Who took to bed his best friend's bride,
> And slew the friend he wronged besides....
> Now he's in heaven! See the kind
> We send to heaven![16)17)]

Political and legal ideas of Shevchenko may be summarized as such that considered existence of serfdom an unjust social system in which peasants were ‘enslaved’ and ‘voiceless’. Such situation was even more unbearable for the poet as he himself was born a serf and only later was emancipated for 2500 rubles[18)] from his master. He knew both the bitterness of being a slave and joy of being a free man, thus he wished for all Ukraine to experience the happiness of freedom. In Shevchenko’s works, the feudal autocratic Russia is divided into two social stratums: exploited peasantry and the exploiters - the landlords headed by the tsar. Shevchenko calls Ivan the Terrible a "torturer", sharply denounces oppressive policies by Peter I, bitterly condemns the anti-national character of the reign of Catherine II, who in 1782 ordered to construct a monument to Peter I with inscription “the Second to the First“, thereby emphasizing absolute power of monarchs of Russia.

Shevchenko chooses satire and ridicule as means for criticizing Russian autocracy. He especially mocks the tsar, his family and high-ranking bureaucrats. In “A Dream”, the tsar in on his horse but he cannot even ride properly as he is without a saddle (охляп), his clothes is something that is hard to identify (у свиті — не свиті) and his head is covered not with a proper hat but with some bush leaf (якимсь листом голова повита)[19)] The poet makes mockery

16) Шевченко, Тарас *Кобзар,* vol. II. Вінніпег: Тризуб, 1952, p.143

17) All literary translations from Shevchenko are by John Weirh, retrieved from http://taras-shevchenko.infolike.net/poems-of-taras-shevchenko-translated-into-english-by-john-weir.html [05.11.2016]. All word-for-word translations are mine.

18) 2500 rubles at that time was equivalent to approximately 47 kilograms of silver.

19) Shchegel, Olena “Russia as surreal space in literary works of Taras Shevchenko”, *East European and Balkan Studies* vol. 38-3, p. 41

not only of the tsars that ruled in the past but is also not afraid to ridicule the then tsar Nikolai I and his wife the empress.

> And like a grizzly from his den
> He shambles out - the tsar;
> All bloated and his face tinged green:
> His hangover was bad[20].
> His empress struts and preens,
> All wrinkled like a dried-up prune
> And like a beanpole lean,
> While every time she steps, her head
> Goes jiggling on her neck.
> Is this the beauty rare they praise?!
> Poor thing, you are a wreck![21]

No wonder that for such poems Shevchenko was sent to serve in the army with a ban to write and draw (he was not even allowed to have paper and scribing tools in his possession). Shevchenko not simply condemns the autocracy but has a specific vision for what Ukraine's future should be. In "Holy Fool" he writes:

> When will we greet
> Our own George Washington at last
> With the new law of righteousness?
> Oh,t here's no doub that day we'll see![22]

From these lines, we can clearly see that for him, the ideal form of government was not autocracy but democratic republic and Shevchenko choses the United States as the example. Although the Ukrainians were enslaved at that time, the poet has no doubt that the day will come when his brothers-Ukrainians will have their own state and liv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righteousness. But as Saltovsky[23] argues, "Taras Shevchenko did not idealize the social

---

20) Шевченко, *ibid*, vol. II, p.123

21) Шевченко, *ibid*, p.118

22) Шевченко, *ibid,* vol. IV, p.150

23) Салтовський О.І. *Концепції української державності в історії вітчизняної політичної думки (від витоків до початку XX сторіччя,* Київ: Парапан, 2002., p. 198.

and political system existing in the United States as he knew very well from his black American friend, actor Ira Aldridge, about slavery and social inequality there. But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managed to establish the national formula 'we, American people' was what attracted the poet the most in the American model. For him, the formula 'we, American people', meant that there could be 'we, Ukrainian people' as well as 'we, enslaved peoples of the Russian Empire'."

Resentment towards the Russification policy can be seen in many Shevchenko's works but one of the most prominent is "The Caucasus". The poet here speaks not only about the fact that to be heard in the empire one had to speak Russian but also about the fact that being autocratic, the regime prohibited any exhibition of free thought, no matter the language:

> Just look at all our vast domains-
> Boundless Siberia alone!
> And prisons—myriads! Peoples—throngs!
> From the Moldavian to the Finn
> All silent are in all their tongues[24].

Shevchenko criticizes not only the tsarist regime for the policy of Russification but also Ukrainians who willingly become Russified for the promise of career and money:

> The civil servants hasten next
> Their office desks to man,
> To scribble – and to rob the folks
> Of everything they can.
> Among them here and there I see
> My fellow - countrymen.
> They chatter in the Russian tongue
> And bitterly condemn
> Their parents that when they were small
> They didn't teach them how
> To jabber German[25]- that's the cause

24) Шевченко, *ibid,* vol. II, p.143

25) John Weir translates Ukrainian 'по-німецьки' as 'German' language, but it is important to notice that in Shevchenko's times 'по-німецьки' had two meanings. In most cases, it was used to indicate any foreign language. Thus, Shevchenko here might not necessarily mean 'German' but also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The second meaning does refer to the German language but it is unlikely that Shevchenko used it in direct connotation. If we are to interpret from the poem that Russified Ukrainians could not get a

They've no promotions now!
Oh leeches, leeches! It may be
Your father sadly sold
His last remaining cow that you
The Moscow tongue should know.
My poor Ukraine! My poor Ukraine!
These are your hapless sons,
Your youthful blossoms, splashed with ink,
In German reared salons,
On Moscow's silly-potions fed
Until they are inane!...
Oh weep, my childless widow - land!
Unfortunate Ukraine![26]

Shevchenko condemns the 'Judases' who betrayed their country and their fathers, their ancestors. He considers Russification a tragedy for Ukraine as it takes away talented youngsters and turnes them into devoted servants of the oppressors. He bitterly acknowledges that some Ukrainians from the countryside now run errands for the Russian 'masters'. Moreover, they are now ashamed of their own language and consider it strange when someone choses to speak Ukrainian not because he does not know Russian but because he wants to speak his mother tongue.

I push my way; a countryman
With buttons made of brass
Elected to acknowledge me:
"Where are you from?" he asked.
"I'm from Ukraine." "How comes it that
You do not even know
To talk the way they do up here?"
I answered, "That's not so-
I know, but do not choose to." "Queer!

---

promotion because their parents did not teach them German, it would be hard to underst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situation of that period. In the first part of the nineteenth century, Russian bureaucrats spoke either Russian or French, which was a sign of class and aristocratic upbringing. So, it is possible that Shevchenko hints to non-Russian ancestry of the Romanov dynasty thus, stripping the dynasty of traditionality it craved for and impugning the right of the Russian tsars to the throne.

26) Шевченко, *ibid,* vol. II, p.122

Well, I'm in service here,
I know the ins and outs, and so
I'll lead you, if you care,
Into the palace. But, you know,
We're educated folk
So don't be stingy with the tip..."[27)]

Shevchenko shows in this poem that the Russification policy is truly a colonial one, as it matches perfectly into the paradign of 'civilizing mission'[28)] with which empires tried to justify their aggressive policies. The fellow Ukrainian whom the protagonist meets in the street in St. Petersburg, is now 'educated' and he talks about it with pride. But Shevchenko ridicules such education showing that with Russian language one acquires most negative 'knowledge' such as, for instance, corruption.

Imperial stance on Russification can not only be seen through Shevchenko's poems but also from how Russian intelligentsia of the time reacted to his works. In reviews of Shevchenko's *Kobzar*, which was an anthology of his poems, Russian magazines *Son of the Fatherland* (*Сын отечества*) and *Library for reading* (*Библиотека для чтения*) as well as the newspaper *The Northern Bee* (*Северная пчела*) unanimously maintained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Ukrainian literature and there never can be, because there is supposedly no such thing as the Ukrainian language - only a Ukrainian vernacular dialect, which is soon to become extinct. That is why the reviewers, while recognizing Shevchenko's poetic talent, advised him not to write in Ukrainian but switch into Russian[29)] Shevchenko did not take such suggestions silently, and answered to his critics in his next poem, "Haidamaki[30)]"

··· My thanks to you
For your advice so sage!
The coat is warm, but I'm afraid
It's not cut to my size,

27) Шевченко, *ibid,* vol. II, p.117-118

28) On civilizing mission, see Falser, Michael *Cultural Heritage as Civilizing Mission. From Decay to Recovery*. Heidelberg, New York: Springer, 2015; Conklin. Alice L. *A Mission to Civilize: The Republican Idea of Empire in France and West Africa 1895-193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etc.

29) Лизанчук, Василь "Українська національна ідея у творах Тараса Шевченка" *Освіта регіону,* 2013, vol.4, p. 14-33

30) *Haidamaka*s is the name for Ukrainian Cossacks who mainly waged wars against Polish nobility but also against nobles in Russian-ruled Ukraine.

And your advice, perhaps, is wise.
But it is lined with lies.[31)]

As I have written in one of my previous papers[32)], Shevchenko never uses the word Росія (Russia). He deliberately chooses Московія(Moskoviya) and even more often Московщина (Moskovshchyna) as a protest against imperialistic policies of the Russian Empire. For Russia, Ukraine was nothing but a colony and Ukraine had no chance of establishing equal relations with its neighbour. But before becoming Россия[33)] Moskoviya was a weaker northern country culturally inferior to Kyiv thus, Shevchenko emphasizes that equal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Ukraine is possible only when Russia gives up its imperialistic avarice but at the same he realizes that this is highly unlikely and therefore expresses his hopes for the future through using Russia's name from the past. Criticizing Russian imperial policies, Shevchenko hopes that his fellow Ukrainians will ‘wake up’ and stand up to the tsarist regime, as for him it the only way to get back Ukrainian statehood.

IV. Conclusion

The time when Shevchenko lived was peculiar because on one hand, new thoughts and ideas were shaping in Europ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but on the other hand autocracy and tsarism in the Russian Empire, trying to block these ideas were severe as never. The ideological base for imperial policy in most of the nineteenth century was created by the imperial minister of education, Uvarov after he formulated his triad ‘Orthodoxy, autocracy, nationality’ which became the foundation for Russia’s enserfment and Russification policies in Ukraine and other subject territories, with the Orthodox Church as one of the instruments for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In his works, Shevchenko criticizes the Church for forgetting the Christian moral norms and becoming an aide to the regime. He also ridicules the tsar and his circle. Satire is his ‘weapon of choice’ to speak up against autocracy. Analysis of Shevchenko’s poetry clearly shows that his literary works aimed at social and national liberation the Ukrainian people. The poet voices his

31) Шевченко, *ibid,* vol. I, p. 175

32) Shchegel, *ibid*, p.46

33) The name Russia (ukr.-*Росія,* rus. - *Россия*) or Russian Empire was officially adopted for the country by Peter I in 1721.

hope that one day Ukraine will become a democratic republic such as the United States but he realizes that the Russian Empire will not let it happen willingly thus, he appeals to the Ukrainians to rise and oppose the regime. The poet also condemns the Russification policy as it denies Ukrainians and other subject nations the right of self-identification.

Works Cited

Norris, Stephen M. and Sunderland, Willard *Russia's People of Empire: Life Stories from Eurasia, 1500 to the Present.* Bll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Shchegel, Olena “Russia as surreal space in literary works of Taras Shevchenko”, *East European and Balkan Studies* vol. 38-3

Whittaker, Cynthia H. “The Ideology of Sergei Uvarov: An Interpretive Essay” *The Russian Review,* 1978, Vol. 37, No. 2.

Лизанчук, Василь “Українська національна ідея у творах Тараса Шевченка” *Освіта регіону,* 2013, vol.4,

Мещерякова, Арина “Граф С. С. Уваров в истории русского консерватизма”. *Гуманитарные науки,* 2014, vol. 7-8

Никольский, Сергей *Русское мировоззрение. «Новые люди» как идея и явление: опыт осмысления в отечественной философии и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40—60-х годов XIX столетия.*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12

Салтовський О.І. *Концепції української державності в історії вітчизняної політичної думки (від витоків до початку XX сторіччя,* Київ: Парапан, 2002.

Шевченко, Тарас *Кобзар,* vol. I-IV. Вінніпег: Тризуб, 1952

The Image of Women in the Ukrainian and Korean Cultures: An Ethnographical Aspect

Iryna Zbyr(Department of Ukrainian Studies, HUFS)

1. Introduction

The image of a woman in any people's culture is the brightest and most poetical one. It finds its reflection in folklore, prayers, songs, poetry, prose etc. In folk songs it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favourite motives. Here, a woman (a young girl, a wife or a mother) represents the highest moral values, i.e. kindness, self-sacrifice, love, diligence, mercy, thoughtfulness, tenderness, etc. The woman's impact on formation of personality is hard to overestimate. This can be proved by I. Franko's words: "[…] every people's level of culture can be measured by the way they treat women […]" (Franko 1980: 210).

The chronological framework of the given article embraces ancient times and early 20th c.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it took quite a long time to create a family and form customs and traditions that determined relationships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as well as the other members of their family. Apart from that, their life was influenced by variou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ctors. Late 19th – early 20th cc. was the time of multiple transformation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life of the Ukrainian and Korean people. These changes eventually led to destruction of traditional family lifestyle.

The aim of the given article is to demonstrate women's place in the family, their role and functions, to contrast Ukrainian term *"women's servitude"* and Korean *"han"* as well as to outline certain ethno-cultural stereotypes of the Ukrainian and Korean people. The research is based on Ukrainian and Korean folk songs.

2. The position of women in traditional family of Ukrainian and Korean people

Since ancient times a typical Ukrainian family has been patriarchal, but "as documents of that time prove, in reality and in the family circle the Ukrainian women occupied a comparatively high place and even was to

some extent independent" (Isaievych 2001). It gives us reasons to single out a peculiar type of Ukrainian patriarchate: equality of the man and woman in the family, which was manifested in doing housework. Besides, the woman was independent from the man, although she was subordinated to him by law; the woman could file for divorce, take a part of her property and children and come back to parents' house if the reason for divorce was her husband's infidelity; after her husband's death the widow ran the entire household. If her husband died and left his widow at a rather young age, she had the right to return to her family home or stay in her husband's family and even get married for the second time. A famous historian O. Levytskyi underlined that "many documents prove that after marriage the woman had certain property and legal power which gave her the right to buy and sell real estate and movables, pledge credit and take civil action […]. When a woman got married she took her husband's surname or kept her maiden name; and very often married women signed documents only with their maiden names" (Levytskyi 1909: 62).

Traditionally, a Korean family was also patriarchal, and "here a leading role belonged to Neo-Confucianism, whose postulates and ideas served as laws which were necessary to abide by in Korean families and society" (Lee Kwan Soon 2010: 150). Family relations, which regulated statuses of a husband and wife, occupied a special place in the Neo-Confucianism ideology. The man was the head of the family, while the woman obeyed him in everything. It was nothing but obedience that was the wife's main virtue. The woman had no rights, and her role consisted in being a wife and giving birth to children. It was determined by law that after marriage the woman had to live in her husband's house, and widows had to remain faithful to their husbands' families till their death. If the widows decided to return to their family home or remarry, their children had to stay in their husbands' families. No matter how cruel a man was to his wife, she had to accept her husband's will without saying a single word. She could not come back to her parents' house because this would be a shame for her family. The women could not even dare to think about divorce (Lee Kwan Soon 2010: 153).

All the aspects of social and family life of the Ukrainian and Korean people have been reflected in folklore and people's outlook. It was not by chance that I. Franko entitled his paper *"The Servitude of Women in Ukrainian Folk Songs"*, and called women's extremely sad songs "female slavers' psalms". But what urged the Ukrainian researcher to write such a paper? And what kind of *"servitude"* did he mean?

Having analyzed songs on women's life Ivan Franko claimed that the first reason for this *"servitude"* was "the pressure of bad economic conditions on family life […]. The source of this shortage lay in poverty and lack of living space" (Franko 1980: 244). The second reason was most often connected with unsuccessful marriages which the scholar calls "continuous marriages that force the woman to live with the man she hates" (Franko 1980: 245). Finally, the third reason for *"women's servitude"* was closely connected with the previous one and that was children. In I. Franko's opinion, they often become "the major tether that chain the woman to her husband, even if she does not love him" (Franko 1980: 246).

Taking a close look at people's life and analyzing sad women's songs, which are "a bizarre combination of poetic rhythm and simplicity" (Ostapyk 2008: 963–964), the Ukrainian scholar believes that such symbiosis

constitutes the basis for aesthetic value of folklore texts and are its advantage over a literary work. "I don't know if there can be a simpler, more poetical and elaborate way to tell a poor woman's story […]. It is our artificial poetry that was still unable to do this" (Franko 1980: 228). Thus, the term *"women's servitude"* by I. Franko conveys a complex of sufferings that a woman had to undergo and which were caused by both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the Korean culture we come across the term *"han"* which characterizes the women's low social status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and represents her pain, hatred, rancor, and regret. Lee Younghee claims that "*Han* is difficult term to translate to English. Nevertheless, by grouping together such translation suggestions as "lamentation", "hatred", "resentment", and "regret", we can at least approximate the meaning of *han* in English. *Han* is a dynamic concept that is readily applicable to a number of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contexts" (Lee Younghee 2004: 2). However, it seems necessary to emphasize the fact that for a Korean woman *"han"* does not just mean succumbing to a certain life situation, but also finding a way out of it, which can bring joy and pleasure. *"Han"* exceeds the limits of sorrow and makes one's life comfortable. By singing songs women often managed to overcome their pain, and these songs remain a valuable source of analyzing women's *"servitude"*. According to Lee Younghee, "the songs are like a medicine that gives temporary relief to the pain that fills the heart" (Lee Younghee 2004: 28).

Kim Yongsuk believes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women's han is the Neo-Confucian system. She lists five critical factors: (1) predominance of men over women and the way of *samjong*; (2) inequality of education; (3) emphasis on virtue in women and prohibition of remarriage; (4) concubinage; and (5) the *gisaeng* system" (Kim Yongsuk 1979: 21–27).

Therefore, a Korean term *"han"* has a broader meaning than a Ukrainian notion *"servitude"*, since it conveys not only women's sorrow, pain and sufferings but also signifies ways of overcoming them and finding harmony in life notwithstanding economic and social hardships.

3. The major motives of Ukrainian and Korean folk songs

Let us try to trace and contrast some major motives in Ukrainian and Korean songs which reflect the reasons for women's *"servitude"* or *"han"*.

3.1. Relationships between the daughter-in-law, her parents-in-law and other relatives

After the wedding the girl left her family home and had to get used to traditions in her husband's house. I. Franko mentioned that "as the head of the house, the mother-in-law has total control over the daughter-in-law" (Franko 1980: 223). In the Ukrainian folklore we can come across a number of songs which

reflect “the daughter-in-law’s hard life under the rule of her mother-in-law” (Franko 1980: 223) and contrast the girl’s life in her family home and her husband’s house:

Ой на горі виорано, пшениці не буде,
У чужої матіноньки розкоші не буде.
Своя мати кладе спати, постіль постелила,
А свекруха нарікає: ще-с не заробила.
Своя мати й а в полудень та й ще прикриває,
А в свекрухи спати трохи, та й ще нарікає (Franko 1980: 212).

Oh, the field has been plowed up the mountain, there will be no wheat,
I will have no comfort in my husband’s house.
My mother makes the bed for me to sleep,
While my mother-in-law says that I have not done enough to go to bed.
My mother covers me with a blanket when I am still in bed at noon,
While my mother-in-law does not let me sleep long and even scolds me for that.

A daughter-in-law often knew how to please the quarrelsome mother-in-law and restore peace and comfort in the house. The husband taught his wife how to do it:

Ой як ти підеш горою-горою,
Назве тя матінка бідою-бідою.
А як ти підеш долинов,
Назве тя матінка дитинов (Franko 1980: 225).

Oh, if you go up the hill
The mother-in-law will be angry at you,
But if you go down the hill
The mother-in-law will consider you to be her own child.

I. Franko believes that “the daughter-in-law has to put up with her mother-in-law’s moodiness and bad mood rather than systematic criticism based on the outlook of the entire nation” (Franko 1980: 225).

The daughter-in-law’s position in the Korean society was much worse. In fact, the man never interfe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mother and wife, no matter how hard the life of his wife was. Korean folk songs depict how the young daughter-in-law’s life changes in her husband’s house. In particular, one of them tells us a sad story of a young woman, comparing her life before and after the marriage:

This body used to wear
silk dresses,
now hemp cloth –
what has happened to me?
These fingers used to wear
a silver ring
now this hoe in hand –
what has happened to me? (Kim Yongsuk 1979: 135). [1]

It has to be underlined that the woman felt even worse because she was not allowed to visit her parents without the permission of her husband and relatives. Korean folk sayings serve as a perfect illustration of this situation: "A married daughter is not better than a stranger", "A married daughter is like spilt water" (Lee Younghee 2004: 23).

Therefore, a poor daughter-in-law was looking for someone to confide in and tell about her hardships. She often talked to birds, particularly geese, which fly from the north to the south, from the west to the east and symbolize freedom contrasting her imprisonment in her husband's house:

If you go to my home village
please tell them what I say.
If my mother asks how I am,
tell her I was naked and crying,
If my father asks how I am,
tell him I was barefoot and crying (Kim Yongsuk 1979: 142).

3.2. Couple's life after marriage

Women's life after marriage depended on different factors. She was lucky when her husband loved her, understood her problems, sympathized with her and helped in everything. However, it got worse "when she did not love her husband. In such a case she got really miserable and felt like a slave. […] now she had to share everything besides the food with him, tolerate all his whims, swearing, and beating" (Franko 1980: 226). In the Ukrainian folklore we come across the abovementioned songs of lament, in which a woman recollects her youth in her family home, tells us about her present-day sorrow, despair and hard days:

[1] Original texts of Korean songs see in *Appendix*. The number at the beginning of each song means the number of page and the number of songs in the book.

Ой там за горою, там за кременою
Не по правді жиє чоловік з жоною.
Уна йому стелить білу постелечку,
Він на ню готовить з дроту нагаєчку… (Franko 1980: 226).

Oh, behind the rocky mountain
There lives a man who gets on badly with his wife.
She makes a white bed for him,
While he prepares a wiry whip to beat her…

When the husband drinks a lot, the woman's life turns into a nightmare. I. Franko writes: "excessive drinking results neither from the person's bad character, nor rotten traditions of the entire nation, but from the person's economic and family life" (Franko 1980: 229). It resembles "a protest against the situation whose origins and end they cannot grasp, and the way-out from which seems impossible to find" (Franko 1980: 228):

Ой бачу ж я бачу,
Що худобу трачу,
А як прийду додомоньку,
Тяженько заплачу (Franko 1980: 229).

Now I can see,
That I'm losing my cattle,
So when I come back home,
I'll sit down and cry.

Husband's excessive drinking brings about poverty for the whole family. Women express their despair and misery in the songs of lament, full of "desperately sad facts" (Franko 1980: 229). The woman is looking for the way-out and solution to the given situation. According to I. Franko, "she is not even afraid of death since this may be the only escape from her difficult situation" (Franko 1980: 230).

Not only life with the unloved man or drunkard causes woman's misery or, as I. Franko calls it, *"servitude"*. It seems even more sordid when a man finds another woman "who very often appears not better, but much worse than his wife. He feels himself that he is doing something bad, but nothing can be done about it …"

Ой зацвіла калинонька в лузі,
Чогось моє, ой, серденько в тузі.
Чогось мене мій милий не любить,
Чогось мене д' собі не голубить.
Ізвечора до іншої ходить,
А до мене з півночі приходить.
Коло мене надувшися ляже,
А до мене й словечка не скаже! (Franko 1980: 233).

Oh, a viburnum is blooming in the meadow,
But my heart feels sad.
As my husband doesn't love me,
And doesn't even hug me.
In the evenings he visits another woman,
And comes back home to me at midnight.
He lies down in a bad mood beside me,
And doesn't say a word to me!

In the traditional Korean family the wife had no opportunity to become "familiar" with her husband (Lee Younghee 2004: 74). There were several reasons for that, namely Neo-Confucianism as the dominant ideology in the Korean society, forced marriage (both from the girl's and young man's sides) and the system of concubines (besides the wedded wife a rich man could have several other women who were called "the second wife", "the third wife") etc. However, folk songs depict woman's responsibility and extreme fatigue after doing daily household chores:

Sky high the master of the house,
he got ill with an incurable disease,
sold everything we had
so as to buy Chinese herbs (Kim Yongsuk 1979: 106).

Three themes are evident in this song. One is the "sky high" – place of the husband. Another is poverty and third is her labor. The woman has labored unceasingly to care for her ill husband and at last she falls asleep while preparing the medical tea. The herb pot which breaks in two after the husband's death symbolizes the end of their relationship.

Concubines who lived in the same house with the wedded wife and were subordinated to her were another reason for the Korean woman to feel *"han"*. Very often they performed duties as servants. The lawful wife

could not dare complain to her husband if she did not like a certain concubine. Besides, the wife had no right to feel jealous, she could only be kind to them and try to get on well with these women (Lee Younghee 2004: 82). However, the woman found it psychologically and emotionally unbearable to put up with such a life, so she often wanted to commit a suicide. We can see that in the following song:

I open the door, and
drinking wine as clear as white jade,
holding his dancing-girl concubine in his arms,
he engages in all kinds of flirtations.
I returned to my room,
ripped the silk scarf into shreds,
and swallowing various types of poison,
I hanged myself.
Upon hearing the news, my husband
runs to me in his stocking feet.
Listen my love!
The dancing-girl concubine is only for three months,
but a maiden's love is for a hundred years (Kim Yongsuk 1979: 113–114).

3.3. Widow's life

It was extremely hard for a woman to live alone after her husband's death, especially when she was responsible for a large household and young children. I. Franko claims that the Ukrainians believed that "woman's servitude ended when her husband died". Therefore, it was unacceptable to hurt and scorn a widow. In folk songs they call her "a poor widow", and her life seems "sad and cheerless":

Їхав козак з України на воронім коні
Та й повернув на подвір'я до бідної вдови.
– На добрий день, бідна вдово, як же ми ся маєш?
Як ти в світі проживаєш, що газди не маєш?
– По чім же м'я, козаченьку, по чім м'я пізнаєш,
Що ти мене, молоденьку, вдовов називаєш?
– Пізнаю тя, бідна вдово, по твоїй худобі,
Обійстя ти невеселе, сама-с у жалобі (Franko 1980: 244).

A Cossack was leaving Ukraine on a black horse

And on his way he visited a poor widow's yard.
–Good afternoon, poor widow,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without your husband?
– But how did you know, dear Cossack,
That I'm a widow? I'm still so young?
– I knew it, poor widow, after looking at your cattle,
Your house is sad, and you're wearing black clothes.

The Ukrainian society and families never criticized the widow who decided to remarry. But I. Franko emphasized that "the second marriage was rarely based on love, very often being even less successful than the previous one".

Widow's life in the Korean society proved extremely hard. It can be explained by Neo-Confucianism and later by a state law which prohibited widows' second marriages (Yi Sangbaek 1947). As far as the widow practically had no rights, after her husband's death she was under her eldest son's tutelage. If the children were too young, her husband's relatives (his father or brother) were responsible for the widow and her children. In addition, the widow had to spend the rest of her life in her husband's house, obeying all the relatives.

Widow's second marriage was considered to be a serious crime and an offence to her late husband's memory. The widow who dared to remarry became an outcast, risked being killed by her husband's relatives and by law could only become somebody's concubine, not a wife (Lee Younghee 2004: 75).

Folklore could not overlook such a topic, so the problem of widowhood and their hardships is represented quite broadly:

The time has passed.
The mountain is high,
the valley is deep,
the cuckoo cries with much sorrow –
is it the soul of my love? (Kim Yongsuk 1979: 106).

In the given song a cuckoo symbolizes the connection with the other world. The widow listens to the cuckoo crying and tries to feel her late husband's presence. But after all she is alone and can only sing, "I won't be able to see my love" (Lee Younghee 2004: 76).

3.4. Divorce

The main reasons why the Ukrainians divorced were of moral and aesthetic character. In particular, the couple divorced if they disagreed or argued a lot; a spouse was severely or terminally ill; a husband or wife was absent for a long time; anyone of the couple proved unfaithful or committed a serious crime; and sometimes they filed for divorce when a husband or wife changed their religion (Isaievych 2001). I. Franko addresses the given issue in his research analyzing "*The Song about a Gendarme"*. However, the scholar admitted that "the song […] belongs to the newest works of folk fantasy […] and is still in statu nascendi*" (Franko 1980: 247). The theme of divorce was not typical of traditional Ukrainian families, so it was not reflected in folk songs. It rather sounded as disapproval of moral and aesthetic norms being broken.

Instead, in the Korean society it was the man who could initiate divorce, while the woman had no right to do this. According to Kim Yongsuk, Neo-Confucianism determined major women's faults which gave men the right to divorce her, namely:

(1) disobedience to the parents-in-law,
(2) not being able to bear a child, especially a son,
(3) salaciousness,
(4) jealousy,
(5) having an incurable disease,
(6) talkativeness, and
(7) stealing (Kim Yongsuk 1979: 11).

3.5. Forced marriage

According to I. Franko, there were not many cases of forced marriage in the Ukrainian society. However, as the scholar continues, "the number of such marriages is increasing now, especially when it concerns poor people. […] One cannot consider such marriages to be voluntary (from the girl's side of the family), based on traditions or the worldview of the whole nation. This is done against the girl's will, [...] and may be very often viewed as the only way the relatives can get out of financial crisis" (Franko 1980: 213).

We can find numerous examples of songs with the given motive in Ukrainian folklore. In his paper I. Franko demonstrates a girl's protest against her marriage with a rich Cossack (originally, these were free mercenaries who resided in a no-man's-land. – ***I. Z.***) and a widower whom she does not love.

The Ukrainian spirit of defiance bursts out with a tragic episode and culminates in the poetic image of death:

> Воліли мня вовки ззісти та й кості рознести,
> Ніж мня мали із нелюбом до шлюбу відвести (Franko 1980: 227).

I'd prefer to have been eaten by the wolves
Rather than be forced to marry the unloved man.

By contrast, the marriage in the Korean society was as a rule arranged by the girl's and young man's family. It was accounted for by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family union consisted not only in procreation but also in taking care of the late ancestors. It was the young man's parents who were especially interested in his getting married because, on the one hand, their ancestors' souls made them responsible for their dynasty, and on the other hand, they worried about their own after-life (Lee Younghee 2004: 43).

Old Korean moral did not approve of tender relationships between the fiancée and fiancé – it was considered unnecessary and even indecent. The couple was not even supposed to meet before their engagement. Their personal feelings were ignored and absolutely neglected. That is why there are no songs in Korean folklore in which a young girl (or a boy) protests against such a marriage. It was a part of the traditional ideology – Neo-Confucianism, which promoted obedience and respect for the parents' will (Lee Kwan Soon 2010: 154). An old Korean saying teaches: "If you like your wife, but your parents dislike her, you have to divorce her. And vice versa, if you dislike your wife, but your parents say that she serves them well, you do not have the right to leave her".

4. Conclusions

Traditionally, Ukrainian and Korean families were patriarchal, but the place of the women in them proved to be rather different. The main factors that influenced it included religion, political system, customs and traditio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out centuries. Therefore, having compared the position of Ukrainian and Korean women in the family, we have singled out certain ethno-cultural stereotypes in each culture.

A Ukrainian woman is a wife, a mother, a guardian of the hearth, her husband's wise adviser and helping hand, a perfect housewife and an active participant of social lif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her life has always been connected with the family, it is also associated with her husband, who according to I. Franko, often becomes the reason for her *"servitude"*. However, the woman has the right to express her point of view, make independent decisions, protest against violence etc.

A Korean woman is a wife, a mother and a guardian of the hearth, but practically has no rights. Her function in the society has been narrowed down to keeping the household and giving birth to children. She never interferes into serious family issues or social life.

Despite relatively high position of the Ukrainian woman in the society and family, her image in folklore did not differ much from that of the woman in the Korean folklore. In folk songs of both nations we can find such common topics as hard life of a young daughter-in-law in her new family, her relationships with

parents-in-law, life with her husband after marriage (in particular, when the husband was unfaithful or the woman did not love him), widowhood and divorce.

Reference

<Ukrainian and Russian>

Isaievych, Iaroslav and Fedoriv, Oksana. Ісаєвич, Ярослав і Федорів, Оксана (2001). "Сімейний побут. Становище жінки". [Family Life. The Position of Women]. *Історія української культури у 5 томах*. – Т. 2: http://litopys.org.ua/istkult2/ikult207.htm Web. 28 Aug. 2016.

Levytskyi, Orest. Левицкий, Орест (1909). *Черты семейного быта Юго-Западной Руси в XVI–XVII вв.* [Characteristics of Family Life in South-West Rus in XVI–XVII cc.]. – Киев.

Lee, Kwang Soon. Ли Кван Сун (2010). "Социально-философский анализ семьи (на примере корейской семьи)". [Socio-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Family (on the Example of Korean Family)]. *Философия и общество* 3: 149–161.

Ostapyk, Ivan and Vasylkevych, Halyna. Остапик, Іван і Василькевич, Галина (2008). "Студія "Жіноча неволя в руських піснях народних" Івана Франка та її контекст" [Ivan Franko's Work "The Servitude of Women in Ukrainian Folk Songs" and its Context]. *Іван Франко: Дух наука думка воля*: Матеріали Міжнар. наук. конгресу, присвяченого 150-річчю від дня народження Івана Франка (Львів, 27вересня – 1 жовтня 2006 року). – Львів: ВЦ ЛНУ імені Івана Франка. – Т. 1: 960–967.

Franko, Ivan. Франко, Іван (1980). "Жіноча неволя в руських піснях народних". [The Servitude of Women in Ukrainian Folk Songs]. *Франко Іван. Зібрання творів у 50 томах*. – Київ: Наукова думка. – Т. 26: 210–253.

<Korean and English>

Im, Donggwon (1961). *Han-guk minyo jip.* [Collections of Korean Folk Songs]. – Seoul: Dong-guk Munhwasa.

Kim, Yongsuk (1979). *Joseonjo yeoryu munhak-ui yeon-gu.* [Study of Women's Literature in the Joseon Period]. –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Yongsuk (1989). *Han-guk yeosoksa.* [Women's Customs in Korea]. – Seoul: Minumsa.

Kim, Yung-chung (1976). *Women of Korea: A History from Ancient Times to 1945*. –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Lee, Younghee (2004). *IDEOLOGY, CULTURE, AND HAN: Traditional and Early Modern Korean's Women's Literature*. – Seoul-Edison: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Yi, Sangbaek (1947). *Jaega deumji seupsok-ui yurae e daehan yeon-gu.* [Study on the Custom of Prohibiting Remarriage]. – Seoul.

<Appendix>

106 (3)

하날같은 가장몸에 남을보면 시침떼고
태산같은 병이들어 날만보면 슬피우네
월자팔고 죽자팔아 선들선들 부는바람
패독산의 약을지어 우릿님의 숨결인가
靑銅火爐 白炭숯에 八道江山 다돌아도
약탕관을 걸어놓고 우릿님은 못볼레라
모진녀의 잠이들어
깝짝놀라 깨달으니
임의목숨 간곳없고
약탕관은 벌어졌네

113(5)

바방삼청 넓은방에 흰빨래는 희게씻고
獨守空房 홀로누워 검은빨래 검게씻어
팔을비고 누었으니 집에라고 돌아오니
흐르나니 눈물이요 시어머니 하신말씀
자아낼사 한숨이라 얘야아가 며늘아가
그럭저럭 歲月如流 진주양반 볼랴거든
아랫방 문열고봐라
冬至섣달 다보내고 아랫방 문열고보니
三月春窮 당도하니 옥수같은 술을놓고
산은높고 골깊은데 기생첩을 옆에끼고
슬피우는 저두견은 건주개를 노는구나
우릿님의 넋일런가 웃방으로 올라와서
남을보면 시침떼고 명주수건 썩찢어서
날만보면 슬피우네 이가지 약을놓고
선들선들 부는바람 목을매어 죽었느라
우릿님의 숨결인가 진주양반 이말씀듣고
八道江山 다돌아도 버선발로 뛰여나와
우릿님은 못볼레라 야ㅣ이사람 이사람아
기생첩은 석달이요
처녀사랑은 백년인데
말도없이 죽었는가
저퉁지퉁 죽었네
불쌍하고도 가련하다
가련하고도 불쌍하다

134 D3

씨누이야 생각령말라
나도가면 어멍일러라
너도가면 씨집일러라
山도설고 물도선곳에
누를보고 내여기왔나
네오래비 전체곧아니면
네집을내 어디영알리
기와집이 열다섯길인들
求景하려 내오았던냐
⋮

125 E1

시집온지 사흘만에
광단치마 벗어놓고
행주치마 둘러치고
장지문을 열떠리고
대청마루 때구르고
부엌으로 나리달아
큰솥밥솥 열어보니
청동녹이 앉았데나
광방문을 열떠리고
쌀독이라 열어보니
암거미 줄서렸네
팔독이라 열어보니
수커미 줄서렸네
앞집아가 뒷집아가
우리밭이 어디메니
저건너면 저밭일세
우리논은 어디메니
저건너편 저논일세
선보리는 제쳐놓고
익은보리 잘라다가
애벌씻어 두벌씻어
삼세번을 거듭씻어
애벌볶아 두벌볶아
삼세번을 볶아놓고

머슴이야 머슴이야
고사리밭이 어디메니
저기저기 저밭이오
쓴고사리 제쳐놓고
단고사리 꺾어다가
끓는물에 소꾸치고
고사리죽 끓여놓고
섭시한죽 들이소서
네리한죽 들이소서
도마한죽 들이소서
시칼한죽 들이소서
수닭같은 시아버님
고사리국에 진지잡수
암닭같은 시어머니
고사리국에 진지잡수
동굴동굴 동새님아
어서나와 밥자시오
장독같은 한림학사
어서나와 밥자시게
햇대끝에 더벙머리
어서나와 밥먹게나

140 F1

⋮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맵더라
둥글둥글 수박식기
밥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
수저놓기 더어렵더라
五里물을 길어다가
十里방아 찧어다가
아홉솥에 불을때고
열두방에 자리걷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푸르랴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뾰죽새요
시아지비 뾰중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나하나만 썩는샐새

⋮

142 G3

새박서리 찬바람에
울고가는 외기러가
동남가을 향해가나
동해서산 향해가나
우리집골 가거들랑
이내말을 전해주소
우리어매 묻거들랑
옷을벗고 우드라소
우리아배 묻거ㄷ들랑
신을벗고 우드라소
담박에랑 이씨숨거
담안에랑 쪽을숨거

⋮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301-1호

IV 세션 (한국외대 대학원생 세션 1)

유라시아 경제협력 및 대외정책

사회: 정세진(한양대)

≫ 발표 1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trochemical industri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김서이

≫ 발표 2

1차~4차 북핵실험을 통해 본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 고찰

김준현

≫ 발표 3

사하공화국-한국 간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전망

아르촘 예고로프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trochemical industrial polici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김서이(한국외대 대학원생)

I. Introduction

1. Overview

Petrochemical industry is an industry of producing synthetic resin (plastic), synthetic fibers (Polyester, Nylon) material, synthetic rubber, and various basic chemicals using petroleum products (Naphtha) or natural gas as a raw material. Petrochemical industry is classified as basic chemicals manufacturing, basic 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industry, the manufacturing of synthetic rubber, synthetic resin and other plastic materials manufacturing industry.[1] Petrochemical industry is a key industry in both Korea and Uzbekistan.

Uzbekistan was promoting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 On the contrary, Korea has promoted export-oriented policies. Both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different policies. However, the biggest feature of Korea's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1970s was the export-oriented policy, on the other hand, Korea had import-substituting feature such as dependence on foreign imports of chemical raw materials is lowered through promotion of petrochemical industry. It shows similarities with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 of Uzbekistan.

This research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of petrochemical industry of Korea and Uzbekistan.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both countries' promotion of petrochemical industry under these similarities and to compare the two countries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the industrial policy and purpose of supporting petrochemical industry.

[1]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http://www.kpia.or.kr/index.php/main)

2. Korea

In the 1970s, South Korea had the movement that of Uzbekista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lan(제 3 차 경제개발 계획) in the early 1970s and the government supported intensively the heavy chemical industry. In addition, the government decided on a policy to promote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as part of an export-oriented policy. In 1973,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has been declared, the government began to invest vast resources with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e, taxation, finance, technical support etc, in steel, chemicals, nonferrous metals, machinery, shipbuilding, electronics as a selected strategic industry. In particular, the petrochemical industry was required than any other industry in order to independence for light industry was a major export industry in 1960. After 1963, Korea Nylon has started production, the chemical industry has grown faster than the cotton spinning industry.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chemical industry since the 1972, Ulsan petrochemical complex was completed and dependence on main foreign imports of the main intermediate raw material began sharply lowered. In conjunction with the demand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has evolved. Since the mid-1970s Yeocheon petrochemical complex with a complex production system(now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built up.

Thanks to the development, production capacity of Ethylene in Korea was the world's fourth. Global market share of the ethylene also grew from 1.9% in 1990 to 5.4% in 2015. In addition, ethylene sector accounted for 3rd place in the domestic manufacturing behind the automobile and oil industry. Ethylene exports a lot and it took a 5th place in the exports. Parts of automobile and construction are made of plastic that is made of ethylene. As a result, Korea's dream came true, because Korea's export-oriented policy was succeeded to promote petrochemical industry.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석유화학협회)

3. Uzbekistan

Among the CIS countries, Uzbekistan is known that the country has strong government control of it's economy. Since the dissolution of Soviet Union, Uzbekistan has conducted gradual reforms in almost all sectors of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rather than radical reform from the beginning of reform. Because, there was no reason to rush development of energy through a rapid market opening due to abundant natural resources the country has such as natural gas and oil. Under this policy stance, the government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and through this ultimately enhanced the foster and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2] Besides, it offered a variety of preferent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company's

[2] Ji-Won Park, "The First 10 Years of Transition Process in Uzbekistan and Mongolia : The Background of Strategy Selection and Privatization"(박지원,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체제전환 초기 10년: 전략선택의 배경과 사유화 과정의 경로" 슬라브연구.)

growth.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played a protective role to grow companies under protection of government rather than the growth of company over the competition in the common market.[3] This is called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 that Uzbekistan adopted. The purpose of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 intended to protect and promote the domestic industry, furthermore to activate domestic demand.

By choosing a national strategy of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 Uzbekistan is the only country that did not fall in a rate of economic growth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even during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As part of this policy, Uzbekistan supporting petrochemical industry with the investment using the natural resources.

In general, petrochemical industry is a key industry in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Uzbekistan. According to the 2011-2015 five-year plan of industrial modernization, the petrochemical industry has been included in major development projects with the textile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Uzbekistan took the protective policy for the industry from the initial introduction of the market economy. Among all industries, petrochemical industry is one of the featherbed industry of Uzbekistan's government in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Uzbekistan, that have had a resource-based economy and relatively are vulnerable to manufacturer, they should strengthen policies to invest manufacturer by selling resources. Country that has strong government control over market, such as Uzbekistan, may appear more strongly this phenomenon. In addition, until now in the last 2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ic policies, policy of governmen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becoming more consolidated. Ustyurt chemical plant and recently completed Surgil Project could be a result of such movement. In particular, notably Surgil project as a joint project with South Korea is currently operating. Through this project, Uzbekistan is planning to produce High Density Polyethylene(HDPE), Polypropylene etc. Such a plan is Uzbekistan's primary goal.

4.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background

(1) Literature review

Until now, there are many existing studies about industrial policy of Korea and Uzbekistan.

박지원 Park, Jiwon(2012) analyzed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by applying the automobile industry, Uzbekistan's 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was that the focus is on strategies to protect its own domestic market rather than export promotion. Uzbekistan's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protected thoroughly from the government by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government and infant industry protection policies for manufacturing development. As a result, the automobile industry of Uzbekistan emphasized the positive aspects that Uzbekistan has a large-scale assembly production system

[3] Fund, I. M. (2000). Uzbekist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s, 00*(36), 1

within the CIS region except for Russia. If this strategy of the government successfully will settle in the future, a positive economic effect due to localization will be expected and modernization of automobile industry will be received a big help by this strategy.[4]

김영진 Young Jin Kim(2010) analyzed the initial condition, transition strategy and the nature and application of economic policy models. Uzbekistan could stop the dramatic decline in output in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by selecting a gradual approach for the economic transition. The industrial policies adopted in this period, gave help to restore the previous level of output in Uzbekistan and made it possible for self-sufficiency in oil and natural gas, the majority of consumer goods, including wheat. He also acknowledged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made Uzbekistan stable in the field of economy, furthermore compared to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Uzbekistan did not suffered from global economic crisis. As a result, most of the studies about Uzbekistan economy emphasized it's unique industrial policy,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ISI).[5]

There are many existing studies about Korean economy.

이병기 Lee Byungki(1998)[6] analyzed the factor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and role of the industrial policy compared to East Asia. He stated that the heavy chemical industrial policy was a good example of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Also, he mentioned high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was the power of supporting specific industries by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I agreed with his opinion.

Mortuza Khaled(2007)[7] announced his study in Bexco in Busan in 2007. He analyzed the Korean President Park Chung Hee's industrial policy and applied to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he evaluated as President Park's export orientation program, foreign capital inducement and monetary and fiscal reform, export-led growth, all these reforms were successful.

Zhu Yan Hua(2013)[8] and two scholars[9] analyzed "The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the 8 Manufacturing Industries: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s:1975-2010". In this study, they concluded that two-way casual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the real exports and real output value overall in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because six of eight manufacturing industries including the petrochemical,

---

[4] Ji-Won Park,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Uzbekistan : Automobile Industry(박지원,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중소연구(2014))

[5] Young Jin Kim, "Paradox of Economic Growth in Uzbekistan : Initial Conditions, Transition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김영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비교경제연구 제 17권 제 1호, 2010)

[6] Lee Byungki(1998) 'The factor of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role of the industrial policy'(이병기,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7] Park Chung-hee's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its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Mortuza Khaled(2007), University of Rajshahi Bangladesh

[8]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the 8 Manufacturing Industries: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s:1975-2010, Zhu Yan Hua, Sehoon Park, and Joo Hoon Kang, J Korea Industr Inf Syst Res Volume 18 Number 4, 2013 (주연화 외 2인, "한국 8개 제조산업의 수출과 경제성장에 한 실증분석:1975-2010")

[9] Sehoon Park, and Joo Hoon Kang

primary metals and fabricated metals, transportation machinery that had a large proportion of exports, showed the feature of two-way causation. They also agreed that exports of petrochemical industry increased after 1975 and it went along the lines of the growth of Korean economic. Like this, a number of scholars, who were interested in Korean economy, evaluated that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at w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Korean export-oriented policy was successful and it led to the Korean economic growth in 1970s.

This study is meaningful, compared to the other studies. I compared petrochemical industry of Korea and Uzbekistan focusing on their industrial policies. Most of studies emphasized the one country's industrial policy or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 highlighted the industrial policy between two countries.

II. Korean petrochemical industrial policy in 1970s

1. Export-oriented policy and its application

(1) The background of export-oriented policy

In 1973, the first oil crisis occurred, due to the aftermath of political unrest in the Middle East and a sudden increase in global demand for oil. At that time, the developed countries promoted export-oriented economic policies. Korea also promoted export-oriented policies too. However, Korea's economy also had a severe impact due to the oil crisis. In the early 1970s,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Five-Years Plan. The government has defined a policy to foster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the export industry through intensive support for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nd the government has declared the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in 1973. The government has selected 6 industries such as steel, chemicals, nonferrous metals, machinery shipbuilding, electronics as a strategic industry. The government began to invest vast resources with government support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e, taxation, finance, technical support etc, in steel, chemicals, nonferrous metals, machinery, shipbuilding, electronics as a selected strategic industry.

(2)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olicy

Background of heavy chemical industr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steel, petrochemical, shipbuilding, automobiles, machinery, etc, at upgrading industrial structure level and because of import-substitution in the first, the second period of five years of economic development. Heavy chemical industry was difficult to equip the facilities of the appropriate scale, because heavy chemical industry is economy of scale, but those days are limited by the small domestic market. Therefore, Korea needed to develop heavy chemical industry.

Second, due to the global recession in the 1970s, exports to developed countries were inactive and new protectionism has emerged. As a result, least developed among developing countries with cheap labor

exported main items of Korea. The continued expansion of exports and economic growth of Korea through light industry was starting to get difficult gradually.

Third, since the mid-1960s, industrial exports wer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eeds of domestic production of capital goods such as machinery, equipment and capital-intensive intermediate goods such as petrochemicals, steel, etc. significantly increased.

Fourth, due to de-industrializa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pollution problem of Japan and oil crisis, condition that heavy chemical industries of developed countries can be transferred to developing countries was created.

Lastly,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South Korea needed to enhance national strength and self-defense system for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Thus, the government actively fostered the heavy chemical industry to immediately switch to defense when needed.

In addition, even 'Economy Planning Board'(경제기획원) published "Long-term prospects of our economy" on August, 1973.[10] It's prospects were for support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Heavy chemical industrial policy started in earnest. It was a necessary measure to take concrete shape the declaration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on January, 1973.

There were 3 goals of Our Economy's long-term prospects.

First, To achieve the export target of $ 1 billion and keep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Second, To build a self-reliant economy structur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heavy chemical industries.

Third, To achieve the balanced economic development without gaps between regions by developing the rural economy innovative.

(부작용)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ide effects of heavy chemical industrial policy. The distortion of resource allocation was intensified due to overinvestment and overlapping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preferential biased support in the process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lso, as a result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o Chaebol that launched into the part of heavy chemical industry, many side effects caused such as loss of efficiency and expansion of inequality. Many companies caused insolvency, because overinvestment and inefficient management depended on loan of Chaebol in the process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Eventually, it was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was caused by government's direct intervention in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source in the process of policy.

As a result, it was one of the causes that triggered the economic crisis in the end of 1997. (변형윤 –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지식산업사) 2012)

However, on the basis of these HCI drive, Korean government dreamed export-oriented policy. After 1980s, Korea expanded exports of petrochemical product. Finally, Korea could export perfectly from the end of 1990s.

---

[10] 변형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지식산업사, 2012

2. Background of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in 1970s

(1) The background

Korea has promoted various industrial policy for supporting industry. On the basis of the Third Economic Development plan, Korea has develop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as part of the develop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Lee Byungki(1995) classfied the period of industrial policy, period of import-substitution in 1950s, period of export promotion in 1960s and the period of heavy industry in 1970s. The representative of South Korea's industrial policy, began in 1970s was HCI drive(Heavy chemical industries drive).

From the beginning of 1970s, policy of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in earnest. Production and export of heavy chemical industry increased sharply.

As a result, acceleration of industrial and export structure was achieved.

Heavy industrialization,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In January 1973, President Park Chung-hee had declared the heavy chemical industry development policy, however, the law of individual promotion already had been enacted before in January 1973. From 1975 to 1983 it can be carried out as a period of heavy industry policy. Even in the early 1970s had already discriminate between industries. As a result, active period of Heavy Chemical Industry can be called up since the early 1970s, early 1980s.[i]

In the 1970s, several laws was enacted to promote heavy chemical industry. From 1970s, major industries were promoted actively by government. Laws of petrochemical, steel, textile and shipbuilding industries were established.

<Table 1 :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industries Promotion Act>[11]

Period	1950	1960	1970	1980
Change of legislation	-Act on the Encouragement of Shipbuilding	-Temporary measures of textile industry - Act on the promotion of machine industry - Act on the promotion of shipbuilding	-Act on the promotion of modernizing textile industry -Act on the promotion of steel industry **-Act on the promotion of petrochemical industry**	-Act on Development of industry

[11] Table 1 : 이병기(1995)이용 재구성

As shown in table 1, act on the promotion of petrochemical industry was established by law. By enactment of the law to specific industries,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support for the industry. (특정산업에 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는 이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2) The policy

Especially, in the 1970s that export-oriented policy was carried out in earnest, there was also a movement to develop petrochemical industry actively. With steel and textile industries, the petrochemical industry support act was enacted on 1 January 1970. The government expected to develop domestic economy by supporting petrochemical industry. Its essential contents were as follows. First, the Master Plan for the support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was established. Second, at the request of the Minister of Trade, a prearranged location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complex was designat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Third, those who wanted to engage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were required to be registered.[12] Such an act meant that the government was interested in the petrochemical industrial sector. Furthermore, petrochemical product could be one of the export goods.

After the 1970s, there was an act on development of industry in the 1980s. It's act was the evolution of act on promotion.

Among the heavy chemical industries, petrochemical industry started to produce based on infrastructure. Petrochemical industry was more necessary than any other industry, because the government needed to expand the base of light industries, such as textile, clothes and so on.

(3) The result

After 1963, Korea Nylon has started production, the chemical industry has grown faster than the cotton spinning industry. Such a development of chemical textile industry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growth of petrochemical industry to create synthetic fibers.

With the development of these chemical industry since the 1972, Ulsan petrochemical complex was completed and dependence on main foreign imports of the main intermediate raw material began sharply lowered. The construction of the Ulsan Petrochemical Complex was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a petrochemical industry in export-oriented industries.

In conjunction with the demand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has evolved. It had expanded domestic sales and exports rapidly.

Since the mid-1970s, finally, Yeocheon petrochemical complex with a complex production system(now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built up.

The petrochemical industry was evaluated as developed industry based on the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the aggressive investment of the private sector.

---

[12] The Role of Law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ark Nohyoung, KLRI

As a result of this, exports of petrochemical industry increased after 1975 and it went along the lines of the growth of Korean economic.[13]

<Table 2 : An average growth rate of real production and real exports by industry>[14]

(Unit : %) (1975 ~ 2010)

Industry	The volume of real output	The real amount of export
Petrochemical industry	**3.46**	**4.30**
Fabricated metals/transportation machinery	4.56	4.83
Primary metal	3.91	4.21
F/B	2.81	2.63
Wood pulp	3.12	2.48
Nonmetal	3.35	2.69
Fiber/Clothes	2.43	0.78
Other manufacturing industry	3.70	2.56

<Table 2> is an average growth rate of real production and real exports by industry.

According to <Table 2>, the real amount of exports of petrochemical industry with fabricated metals and transportation machinery surpassed the volume of real output. The real output of petrochemical industry was 3.46%, but the real amount of export was 4.30%. It was outstanding point,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Except for fabricated metals and transportation machinery, the real amount of export did not surpass the real output.

Thus, fabricated metals and transportation machinery, petrochemical industry led the growth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y.

III. Uzbekistan's petrochemical industrial policy

1.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its application

(1) The background of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Uzbekist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some of the liberalization policy in the early stage of market reforms from the independence of Soviet Union. Accordingly, price liber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for key products, and Government subsidies that are paid to the consumers abolished or reduced, small

[13] The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the 8 Manufacturing Industries: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s:1975-2010, Zhu Yan Hua, Sehoon Park, and Joo Hoon Kang, J Korea Industr Inf Syst Res Volume 18 Number 4, 2013

[14] The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the 8 Manufacturing Industries: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s:1975-2010, Zhu Yan Hua, Sehoon Park, and Joo Hoon Kang, J Korea Industr Inf Syst Res Volume 18 Number 4, 2013

businesses and shops were privatized. However, the government continuously maintained the control policies to large corporations and whole economy. Especially, the government has maintained control over large-scale national enterprise through budget support, low price of energy provides, offering favorable loan and preferential access to foreign currency guarantees. In the mid-to-late 1990s, the implementation index of transition countries(2012) conducted by 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EBRD), Large-scale privatization Index of Uzbekistan was evaluated as "1" points, openness to a market economy of Uzbekistan was low with Turkmenistan, two countries were estimated to receive a lot of government control.[15]

In particular, slow privatization of the Uzbek government is closely associated with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the government promoted.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ISI) is a trade and economic policy which advocates replacing foreign imports with domestic production.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 country should attempt to reduce its foreign dependency through the local production of industrialized products.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works by having the state lea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nationalization, subsidization of vital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power generation, etc.), increased taxation, and highly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Even though market and resources of Uzbekistan is not very rich circumstances, domestic supply and demand were kept in balance. So, having a self-sufficient system was more profitable than market opening for rapid influx of Western capital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n Uzbekistan the share of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in GDP increased sharply by 15.3% in 1992 from 1.3% in 1991. Since then, recorded 21% in 1997 and 1999 to 16.6%, constant level was maintained for the initial 10 years of reform. In addition, Uzbekistan lowered significantly dependence of international economy, being self-sufficient in major energy resources, these aspects became factor that led its economy into a closed structure with gradual economic reforms to promote self-supporting economic policy. Core of these self-supporting economic policy was not developed natural resources, but develop industries for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rough major companies, being been influenced by government.

(2) Application of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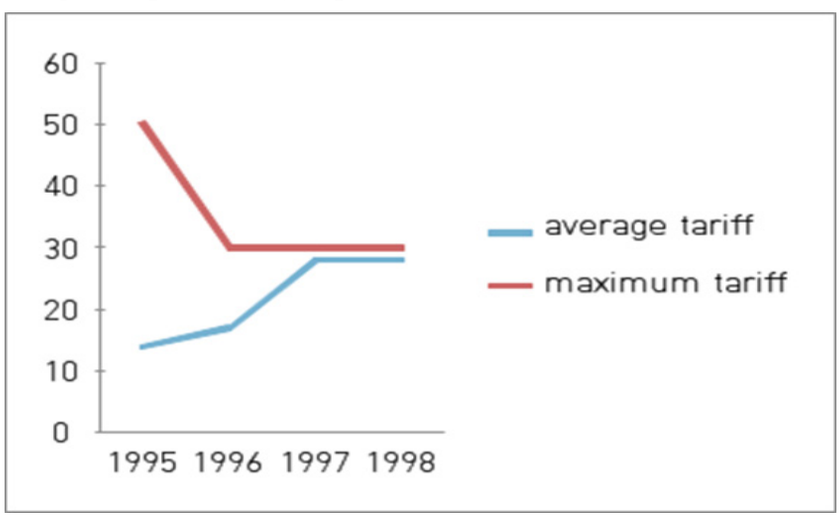
One of the important ways that government can use in promoting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strategy was tariff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roducts by imposing high tariffs on imported finished products of the industry. Imposed higher tariffs could lead to import substitution and protected effect of domestic products, so as to favor domestic products to domestic consumers than imported products.[16] In terms of time-periodic tariff policy change of Uzbekistan, from 1991 to 1996, in the beginning of reform, the feature of Uzbekistan's tariff policy was keeping high inflation rate down in the early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not imposing tariff on imported products and intended to

[15] EBRD, "Transition Report 1998: Financial sector in transition,"
[16] Bela Balassa,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supply adequate products into domestic market. In contrast, export duties had been maintained at a relatively high level. This period of Uzbekistan was important period for turning point in self-sufficiency of energy. Uzbekistan, where depended on import in supply and demand of energy after 1991, had been able to be independent on major energy sources, such as oil, gas and coal, from the mid-1990s. Self-reliance on energy sources played a larger role as leading independent and closed economic policy, not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international economy. Since then,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raised the tariffs on imported finished products drastically in earnest and began to promote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government began to raise tariffs on imported products significantly from 1995.

In <Figure 1> shows the change in import tariffs(except for automobile industry) for Uzbekistan from 1995 to 1998.

<Figure 1 : change in import tariffs(except for automobile) for Uzbekistan from 1995 to 1998>[17]



Source : IMF. "Republic of Uzbekist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8/116. October, 1998, p. 120

In 1995 the average tariff rate is 14% and 17% in 1996, 1997 and 1998 has risen to 28%. However, the maximum tariff rate is 50% in 1995, and 30% in 1996, the trend of tariff rate was lower, I could find a high level of tariff equalization for most imported products has been made.

Also, Uzbekistan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such as introduction of State-Guaranteed Loan and subsidization, instead of attraction of foreign capital. [18]Positive achievements of Uzbekistan's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was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t energy industry. Energy industry is the second industry following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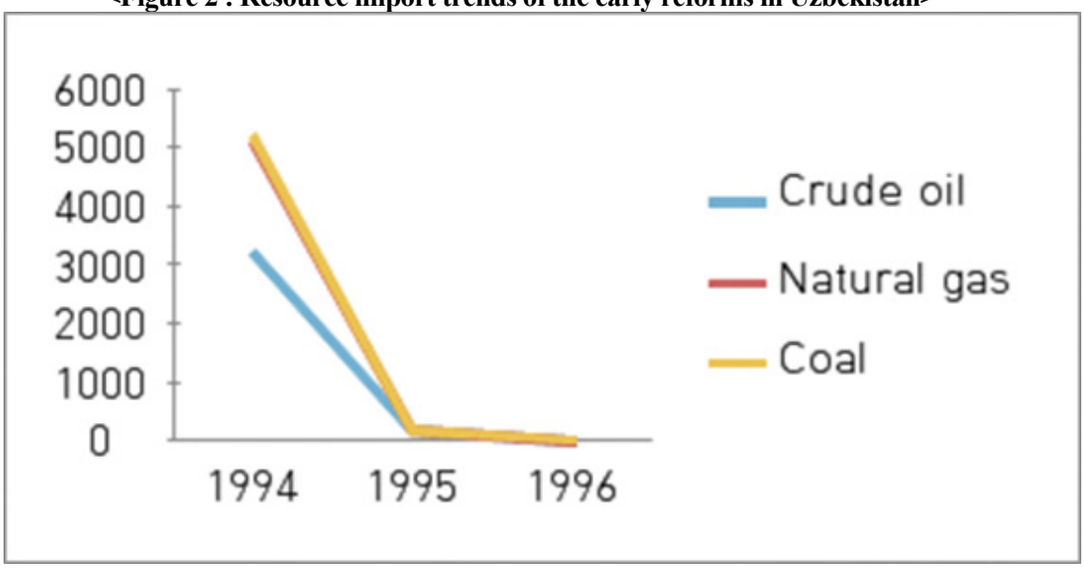
[17] IMF. "Republic of Uzbekist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18] Ji-Won Park,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Uzbekistan : Automobile Industry(박지원,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중소연구(2014))

agriculture in Uzbekistan, the government has conducted energy self-sufficiency policy to focus on increasing production of oil and gas. As a result, now they join the ranks of energy exporters to achieve self-sufficiency and export a certain amount. As of 2003, exports of energy industry accounted for 9.8% of total exports. Because these resources are buried in Uzbekistan, they can develop a wealth of available material for the chemical industry and until now they achieved sustained growth of production in chemical raw materials.

<Figure 2> is a resource import trends of the early reforms in Uzbekistan.

<Figure 2 : Resource import trends of the early reforms in Uzbekistan>[19]



Source :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8/116(1998)

As shown in the figure 2, imports from abroad accounted for a very large amount in 1994, but it declined drastically from 1995. Imports of natural gas ceased in small quantity, also imports of coal decreased sharply in 1995. It was result of independent economic policy that Uzbekistan accomplished by pursuing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Table1> is an expansion of the main industries after transition of Uzbekistan.

[19]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8/116(1998)

<Table1 : An expansion of the main industries after transition of Uzbekistan>(unit:%)[20]

Sector	1990	2000	2013
Energy/Fuel	100	127.3	2.4times
Electricity	100	78.9	85.4
Steel Industry	100	58.8	1.8times
Nonferrous metals	100	87.7	100.9
Petrochemical industry	100	101.6	3.6times
Machine manufacture	100	142.2	18.5times
Construction	100	58.4	1.9times
Light Industry	100	159.2	5.0times
Groceries	100	150.0	7.5times
Wood processing and paper manufacture	100	248.4	19.8times
etc	100	162.6	7.0times
sum	100	123.6	3.7times

source : Ministry of Economy (http://www.mineconomy.uz/ru/node/696.

After transition, Uzbekistan has also created the fairly new industry such as automobile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and machine manufacture. After the mid-1990s, Uzbekistan has promoted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n earnest. The core of this strategy was to achieve industrial diversification by developing industry, not developing natural resources, through major conglomerates that wa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This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industry could be expanded.

[20] Ministry of Economy (http://www.mineconomy.uz/ru/node/696)

2. Background of Uzbekistan's petrochemical industry

(1) The background

Uzbekistan, where is buried various resources, has published a continued support of state for activating domestic market based on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particular, the petrochemical industry, production sector and the construction sector based on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re given a tax favor by government. Among them, the chemical industry with the automotive and energy industr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in Uzbekistan and has shown steady growth to the present. Uzbekistan is available developing the rich raw material for the chemical industry using resources, until now they are achieving sustained growth with raw chemical material.

(2) The policy

Uzbekistan announced two plans about economic development for supporting domestic industries.

First, Uzbekistan announced its "2011-2015 Industrial Modernization Five Years Program('10 .12)"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21] The main goal of the program was sustainable balanced industrial development and ensur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export potential and so on. The main content i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detailed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al processing, textile industry and petrochemical industry.

By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main content of the industrial modernization program,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support for the industry.

Second, Uzbekistan promoted "the Uzbekistan structural reform,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program"(2015-2019). The program announced on March 04, as 2015 presidential decree, will be pursued over the next five years. The core of this program i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in the fields of petrochemical, chemical, mechanical, textile and leather.

In particular, the goal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promoting the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petrochemical sector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processing and production of natural gas.

[21] О Программе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http://special.uzkimyosanoat.uz

(3) The result

<Table 2> is Uzbekistan's production of major industries 2014.

<Table 2 : Uzbekistan's production of major industries 2014>[22]

Sector	Output (A billion Sum)	Output (A million dollar)*	Share (%)	Growth rate (Over last year %)
Energy/Fuel	9,841.5	4,062.7	13.1	-1.9
Electricity	5,368.5	2,216.2	7.1	2.2
Steel industry	1,800.5	743.3	2.4	16.5
Nonferrous metals	6,580.1	2,716.4	8.7	1.7
Petrochemical industry	4,107.7	1,695.7	5.5	**8.9**
Machine manufacture	14,828.3	6,121.3	19.7	13.5
Construction	4,553.8	1,879.9	6.1	10.7
Light industry	10,555.5	4,357.5	14	16.1
Groceries	11,993.8	4,951.2	16.0	7.6
Wood processing and paper manufacture	1,261.1	520.6	1.7	12.3
etc	17,557.6	1,776.1	5.7	3.7
sum	75,193.5	31,040.9	100	8.3

Source : Ministry of economy

As shown in <table2> and <figure3>, the chemical industry is not a continuously growing, however, can be found petrochemical and basic chemical sectors that are highly equali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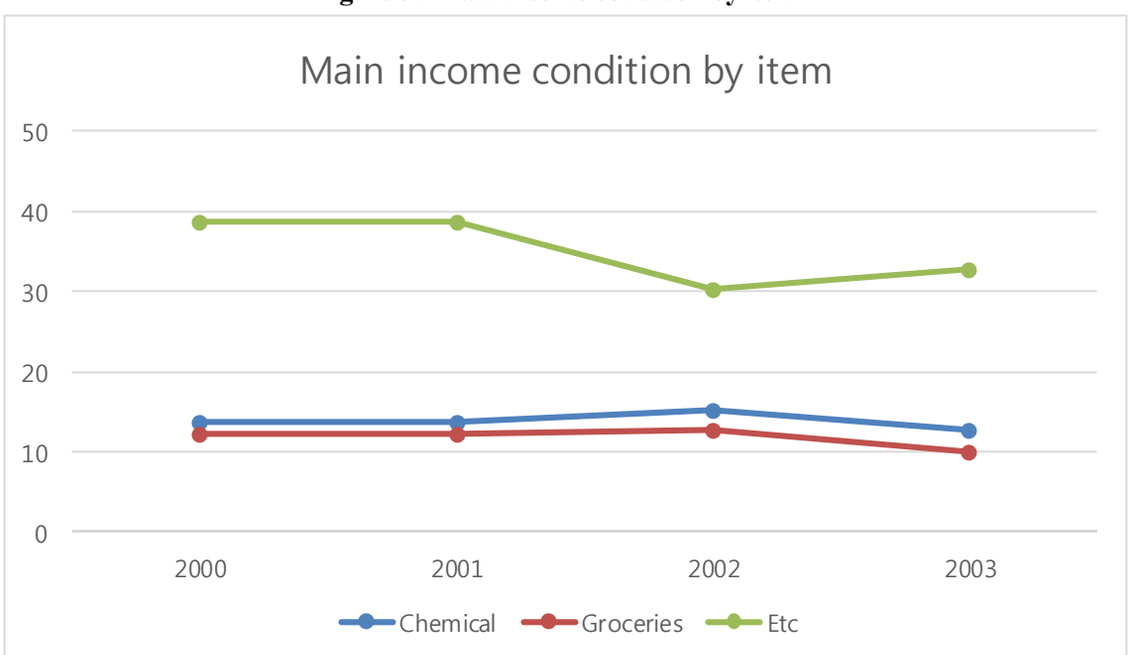
In the <table2>, the growth rate of petrochemical industry was 8.9%. It meant that petrochemical industry was developed through the government's effort. Compared to the other industries, the growth rate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was quite increased.

[22] Ministry of economy

The production used domestic manufacturing technology through the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national strategy of Uzbekistan reached approximately $ 45.04 million (about 90 billion SUM), the government enforced an investment of about $ 3,000 for a chemical production facilities and system improvement.

In <Figure 3> that shown major import condition by item, I could verify that import of chemical and plastic products was not small part of major items except for other item. However, import of chemicals are decreasing. The reason why it was a result of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at produces imported products by itself.

<Figure 3 : Main income condition by item>[23]



Source : Statistical Office of Uzbekistan

Surgil Project, which is a joint project with Korea and Uzbekistan, is the production of natural gas from Surgil gas fields, send it to the gas and chemical complex, where is under construction in Ustyurt, using with gas pipeline of diameter 1m and resale as a fuel gas with produced chemical products.[24]

That project is a packaged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that have jointly developed by Uzbek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and Korean Gas Corporation and they sell gas including construction chemical plant. February 18, 2008, President of Uzbekistan Islam Karimov was issued the Presidential Decree №797 of the

[23] Statistical Office of Uzbekistan
[24] Financial News(http://www.fnnews.com/news/201007271752287899?t=y)

Surgil Project that jointly will be developed by Korea and Uzbekistan. And then, August 04, 2009, additional measures were applied on a project run by the Presidential Decree №1168.[25]

Currently, the chemical industry using gas as a raw material is rising internationally. This can be seen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that Uzbekistan also joined. Surgil project also has this meaning. In Uzbekistan, imports of chemical products was high. Uzbekistan promoted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ies to reduce imports. Surgil gas field project is reproduced chemical products by developing and producing gas in the gas field. Uzbekistan planned to produce the main chemical products, fertilizers,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PP, PE and so on,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developed the gas field. Through this, experts are expected to be able to get an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reduce chemical imports.

IV. Comparison of industrial policy

1.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Uzbekistan is following the economic model of Korea in 1970s, for instance, Korea promot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the progress of developing domestic economy in 1970s.

Now Uzbekistan also has promoted the petrochemical industrial sector on the basis of abundant natural resources for supporting domestic economy. In fact, many experts who related in Uzbekistan mentioned that Uzbekistan is imitating that of Korea.

A former president of Uzbekistan, who passed away lately, Islam Karimov, was also favorable to Korea.[26] Under his regim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is continuing. Moreover, the Surgil project that was a huge cooperative project was ended successfully.

Both Korea and Uzbekistan focused on same industry that was petrochemical industry, however, the industrial policy they took was significantly different.

Uzbekistan is trying to develop the petrochemical industry by promoting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strategy. On the other hand, Korea develop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by promoting export-oriented policy. Both countries have develop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rough different industrial policies. The biggest feature of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in the 1970s was the export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it can be found the features of import-substitution in the case of Korea. Because, through chemical industries, dependence on foreign imports of chemical raw materials was decreased. It was the feature of Import-Substitution and it was similar with industrial policy of Uzbekistan.

---

[25] Uz-Kor gas chemical(http://www.uz-kor.com/en_uzkorgas.php?s=3)

[26] "카리모프 대통령은 "한국의 유•무상원조들이 우즈벡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하고 한국의 발전모델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The Korean Embassy in Uzbekistan(http://uzb.mofa.go.kr/)

Focus of Korean industrial policy before 1970s was import-substituting heavy chemical industrial products, in contrast, 'Long-term prospects of our economy' that was declared in August, 1973, was not associated with results of conventional industrialization and was export-oriented.[27]

2. Analysi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s

<Table 3 : Similarity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Korea	**Uzbekistan**
Similarity	① Import-Substitution tendency(Korea – 1950, Uzbek – 1990) ② Petrochemical industry ③ Initiated by a government	
Differences		
Location	East Asia	Central Asia
Period	After 1970s	After 1990s ~
Resource availability	None	Gas, oil
Industrial policy	Export-oriented	Import-Substitution
Role of the government	Involvement of Chaebol(Mainly government-led)	Completely, government-led
Exact field of industry	Petrochemical industry	Petrochemical and gas chemical industry

<Table 3> shows similarity and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As shown in it, Korea and Uzbekistan have commons.

First, there were import-substitution tendency in both Korea and Uzbekistan. Of course, Uzbekistan is still developing under the import-substitution strategy. Korea also had import-substitution tendency in 1950-60s after Korean War.

Second, two countries support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as a key industry for developing economy. Korea supported the industry since 1970s for encouraging exports, furthermore, Korea wanted to the radical economic growth. As a result, by adopt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Korea achieved the economic growth and exported a lot. On the contrast, Uzbekistan also promot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as a core industry. As a result, Uzbekistan succeeded in the 'Surgil Project' that is the complex of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ird, Korea and Uzbekistan adopted the different industrial policies each other. But, role of the both countries was huge. All industrial policies and projects was initiated by a government. It was true that the government had a power.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This is the key point of my study. Firstly, both Korea and Uzbekistan belongs to Asian continent. Korea is in East Asia and Uzbekistan is in Central Asia. In fact, Korea has no gas or oi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Uzbekistan has huge resources. Second, the period

[27] 변형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지식산업사),2012

of industrial policies in Korea was after 1970s. Uzbekistan started after 1990s and is continuing until now. Third, Korea promoted the export-oriented policy, but Uzbekistan promoted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Two policies have opposite feature. As I emphasized, Uzbekistan was to protect the domestic economy, Korea was aimed at activating exports.

Fourth, role of government was powerful in Uzbekistan and Korea. However, petrochemical industry of Uzbekistan was almost initiated by a government. In Korea, influence of Chaebol was strong in the industrial policy.

Lastly, two countries developed the petrochemical industry. Furthermore, Uzbekistan is supporting both petrochemical and gas chemical industry based on the enormous natural resource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no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and gas. So, Korea concentrated to develop petrochemical manufacturing.

V. Conclusion

Uzbekistan is promoting protective policy actively for the domestic industry from the mid-1990s to 2000s. The government intended to protect the domestic market through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by maintaining control for major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y minimized import of main products and prevented national wealth by developing relevant industry. Thus, resource-based petrochemical industry was one of the protective industry.

Under the continuous control of the government for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2000s, the chemical industry achieved steady growth, many companies that produce chemical product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Uzbekistan is turning to gas chemical industry, because the importance of gas is bigger due to rising of international oil price and oil depletion. Therefore, Surgil gas field is in operation with Korea, many experts are expected to create high value with the import-substituting effect. The Surgil Project was very successful case that South Korea invested in.

Also, this project was evaluated as practiced example of agreed contract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Like the 1990s, the core of industrial policy of Uzbekistan is minimizing the import of industrial products and established a production in the country to create jobs, to promote the export through it.[28] And the core of the government policy is to develop the chemical industry by developing resources. If the policies of government will work effectively on chemical industrial development that has a great ripple effect on related industries, government can expect a variety of effects. Uzbekistan that only promoted the 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compared to the other CIS countries, is still accep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only strategical industry. The country has promoted the passive open-door policy. Thus, Uzbekistan will have to promote policies that can attract foreign investment by increasing industrial self-reliance.

---

[28] OECD, “Competition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National Champions,”

In terms of Korea, Korea is very interested in ODA in Central Asia. Korea has already contributed to build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nd infrastructure for petrochemical or gas chemical industry in Uzbekistan. If Korea will activate more ODA for petrochemical related field of Uzbekistan, it will lead to more opportunities for the two countries.

Therefore, if Uzbekistan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Korean economic model and maintain friendly relationship with Korea, Uzbekistan will grow further in Central Asia.

However, the petrochemical industry is closely related to oil prices and economic fluctuations. In other words, this industry is a cyclical business where the recession is repeated periodically according to the global economy and supply and demand conditions.[29] In fact, Korea had suffered a recession after 1980s. At that time, oil prices decreased drastically.

Thus, Uzbekistan had better continue to monitor the Korean economic model, considering the side effect such as economic crisis of Korea after 1980s. In other words, Uzbekistan should benchmark the good point of Korean example, at the same time, recognize the differences with Korea and implement Uzbekistan's unique petrochemical industrial policy.

[29]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http://www.kpia.or.kr/index.php/main)(검색일 : 2016. 11. 04)

References

<Thesis/publications>

Ji-Won Park, ”The First 10 Years of Transition Process in Uzbekistan and Mongolia : The Background of Strategy Selection and Privatization”(박지원,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의 체제전환 초기 10 년: 전략선택의 배경과 사유화 과정의 경로” 슬라브연구.)

Ji-Won Park, “Import-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Strategy of Uzbekistan : Automobile Industry(박지원,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 자동차산업의 사례분석”, 중소연구(2014))

Paradox of Economic Growth in Uzbekistan: Initial Conditions, Transition Strategy, and Economic Performance, Young Jin Kim, 비교경제연구 제 17권 제 1호, 2010)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역설에 대한 고찰 : 초기조건, 체제전환전략, 경제실적

변형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지식산업사, 2012

Lee Byungki(1998) ‘The factor of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role of the industrial policy’(이병기, “ 한국의 경제성장 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 한국경제연구원)

The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the 8 Manufacturing Industries: Cointegrat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s:1975-2010, Zhu Yan Hua, Sehoon Park, and Joo Hoon Kang, J Korea Industr Inf Syst Res Volume 18 Number 4, 2013

The Role of Law in Korean Economic Development, Park Nohyoung, KLRI

김인철(2007),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산업정책론과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경제연구KIET

e-KIET, 산업경제정보 제 376호, 2008. 01. 04

Park Chung-hee’s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its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Mortuza Khaled(2007), University of Rajshahi Bangladesh

Bela Balassa,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Hausman R. and D. Rodrik, “Economic Development as a Self-Discover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2), 2003, pp. 603~633

Hausman, R., D. Rodrik, and A. Velasco, “Growth Diagnostics,”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March 2005

Rodrik, D.,“ Growth Strategies,”in P. Aghion and S. Durlauf, eds., Handbook of Economic Growth, Amsterdam, North-Holland, 2005

Rodrik, D.,“Normalizing Industrial Policy,”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Harvard University, August 2007

Rodrik, D.,“Industrial Polici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September 2004

Richard Auty, “Natural resources and ‘gradual’ reform i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Natural resource forum(2003)

Dougla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s,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6-7

Stephen D. Krasner, “Approaches to the State :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Comparative Politics,* Vol 16, No.2 (1984), pp 242-243

IMF, “Republic of Uzbekistan: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IMF Staff Country Report

IMF, Staff Country Report, No. 98/116(1998)

EBRD, “Transition Report 1998: Financial sector in transition,”

OECD, “Competition Policy, Industrial Policy, and National Champions,”

<Internet materials>

Korea Gas Corporation(한국가스공사)

The Korean Embassy in Uzbekistan(주우즈베키스탄 대사관(http://uzb.mofa.go.kr/))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Trade(http://www.kiet.re.kr)

Ministry of Economy (http://www.mineconomy.uz/ru/node/696)

Statistical Office of Uzbekistan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http://www.kpia.or.kr/index.php/main)

Uz-Kor gas chemical(http://www.uz-kor.com/en_uzkorgas.php?s=3)

О Программе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http://special.uzkimyosanoat.uz

1차~4차 북핵실험을 통해 본 러시아의 대북정책 변화 고찰

김준현(한국외대 대학원생)

사하공화국–한국 간 경제협력 현황과 발전전망

아르촘 예고로프(한국외대 대학원생)

307호

V 세션 (문학 세션 2)

러시아 문학 테마 및 예술 철학

사회: 박혜경(한림대)

≫ 발표 1

아이와 형제의 테마: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스메르댜코프

윤새라(울산과기원)

≫ 발표 2

M.A. 불가코프의 초기 소품 「도시 키예프」 (Киев-город)읽기:
1920년대의 문학적 경험에 비추어

강수경(부산대)

≫ 발표 3

파벨 플로렌스키의 예술철학 연구:
'역원근법'과 '이코노 스타스'를 중심으로

장혜진(한국외대)

아이와 형제의 테마: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스메르댜코프

윤새라(UNIST)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걸작으로 작가의 예술 세계가 집대성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크고 깊다. 작품의 다면적인 면모는 제목부터 찾아볼 수 있다. '카라마조프 형제'라는 제목은 얼핏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카라마조프 형제는 몇 명인가? 다시 말해 삼형제인가, 사형제인가?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셋이다. 그러나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스메르댜코프가 문제다. 주지하다시피 스메르댜코프는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사생아로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아버지 집에서 사는 인물이다. 정실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카라마조프가 아니라 어머니 이름에서 딴 스메르댜코프다. 더구나 스메르댜코프는 소설에서 부친살해를 저지르는 진범으로 심성이 비뚤어진 패륜아다. 이런 이유로 스메르댜코프는 악한으로 치부되지만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역시 다른 형제와 마찬가지로 버려진 아들이며 더 나아가 가장 학대 받은 아이로서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조화와 질서에 가장 커다란 물음표를 찍는 인물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한 평론가는 스메르댜코프가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플롯을 추동하고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의 핵심이면서도 체계적인 설명을 비껴간다고 본다 (Morson, 234). 본고는 스메르댜코프의 의미를 존속살해범이라는 플롯상의 역할을 넘어 소설의 근간을 이루는 테마인 '아버지와 아들,' '형제,' 그리고 '아이'의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시도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축적된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스메르댜코프의 면모가 다각도에서 드러나리라 본다. 특히 소설의 갈피에 내장된 작가의 시선에도 주목할 것이다.

<스메르댜코프, 아들>

카라마조프 성을 가진 인물들(아버지와 삼형제)은 결코 스메르댜코프를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스메르댜코프를 표도르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면 소설 속 역학 관계는 사뭇 달라진다.

주지하다시피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자식을 낳기만 하고 전혀 돌보지 않은 '책임감이 없는 아버지'다. 페듀코비치의 변론은 그 점을 들어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아버지가 아니니 부친살해도

없다고 주장할 정도로 '아버지'를 통렬히 비판한다. 그러나 표도르 카라마조프와 스메르댜코프의 관계를 보면 다른 면모가 눈에 띈다. 먼저 스메르댜코프는 아들 중 아버지와 가장 오랜 기간 같이 산 자식이다. Suzanne Fusso가 지적한 바와 같이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다른 아들들을 장성한 후에야 대면하게 된 것은 부자 사이의 역학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만 아버지와 아들일 뿐 실상 남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삼형제는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고 돈과 여자 문제라는 남자에게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

그에 비해 스메르댜코프는 아버지가 자라는 과정을 옆에서 본 유일한 아들이다. 더구나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스메르댜코프에게 관심을 보인다. 어린 스메르댜코프가 간질 발작을 일으킨 후 그리고리에게 체벌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아이가 자신의 서재에 눈길을 주자 고골과 세계사 책을 직접 골라주며 사서가 되라고 권한다. 더 나아가 스메르댜코프가 요리에 소질이 있겠다고 생각하자 모스크바 유학도 보낸다. (3편 6장) 실제로 스메르댜코프는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기대에 부응해 훌륭한 요리사가 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표도르 카라마조프는 아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준 역할을 한 셈이다. 사실상 모두에게 멸시 받는 스메르댜코프에게 그나마 가장 관심을 보이는 이는 놀랍게도 '무책임한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다.

그러나 스메르댜코프는 표도르 카라마조프에게 애정은커녕 일말의 고마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 이유는 표도르가 그를 아들이 아닌 하인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스메르댜코프 스스로도 자신이 카라마조프의 아들임을 알지만 스메르댜코프는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아버지를 주인나리로 모시며 살아간다. 표도르 카라마조프도 동네에 기정사실처럼 퍼진 소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시인하지만 사생아 아들을 단 한 번도 아들로 대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인으로 데리고 살면서 '발라암의 당나귀'로 부르며 동물 취급을 한다. 오만하고 자의식이 강한 스메르댜코프가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보여준 실질적인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실 그도 드미트리도, 또 다른 두 형제도 모두 어머니가 다르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히 부정된다. 더구나 스메르댜코프는 자신이 카라마조프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비롯해 형제까지도 주인나리로 모셔야 하니 원한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스메르댜코프의 비극은 친아버지를 대신한 양부(foster father)조차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는 데서 더욱 커진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는 무책임한 친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들에게 '대리부'(surrogate father)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일정 정도 채워준다. (See Golstein) 평자들이 지적하다시피 대표적으로 알료샤에게는 정신적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조시마 장로가 있고 그리고리 영감은 친아버지를 대신해 일 년간 드미트리를 씻기고 입힌다. 또 단편적이기는 하나 '호두 한 줌'을 나눠준 동네 의사도 드미트리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스메르댜코프의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는 양부마저도 그를 멸시한다.

스메르댜코프를 친아버지 대신 키우는 '아버지'는 다름아닌 그리고리 영감이다. 사실 그리고리 영감이 카라마조프의 자식 모두에게 대리부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다시금 스메르댜코프가 성만 다를 뿐 카라마조프 형제의 일원으로 갖는 공통점이 암시된다. 드미트리와 이반 및 알료샤 모두 어머니가 사망하고 후견인이 데려갈 때까지 그리고리 영감이 친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들을 보살핀다. 그리고리 영감의 대리부 역할이 카라마조프의 정실 자식들에게는 짧게 끝난 데 반해 스메르댜코프의 경우는 특별하다. 스메르댜코프는 명실공히 아버지가 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리 영감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충직하고 고집 센 하인 그리고리가 평생 딱 하나 있었던 아들을 생후 2주 만에 잃은 바로 그 날 밤 스메르댜코프를 발견해 키우게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리 영감에게 스메르댜코프는 친자식을 묻은 바로 그 날 아들을 대신해 찾아온 아이인 것이다. 그 점은 그리고리 본인이 해석하는 바다. "고아는 하느님의 아이라서 누구에게나 자식이 되는 법인데 마침 당신과 나한테 주어진 거야. 우리의 죽은 아들 녀석이 이 아이를 보냈어." (3편 2장, 김연경 역 1권 210쪽). 그리고리 영감은 두 아이 간의 상관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처럼 각별한 아이지만 그리고리는 스메르댜코프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서 아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리고리는 스메르댜코프를 아끼기는커녕 모욕하고 때린다. 그가 아내에게 처음 갓난아기인 스메르댜코프를 안기며 한 말은 "이 아이는 악마의 아들과 의로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 (3편 2장)이다. 또 그리고리는 스메르댜코프의 얼굴에 대놓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목욕탕의 수증기에서 태어난 놈이거든"(3편 6장, 김연경 역 1권 261)이라고 말해서 스메르댜코프의 분노를 산다. 화자는 스메르댜코프가 "이 말을 한 그리고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같은 쪽)고 전한다. 스메르댜코프는 친아버지에게 그러는 것처럼 자신을 실제로 키워준 그리고리 영감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품는다. 게다가 그리고리의 학대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열두 살쯤 된 스메르댜코프가 성경 공부 중에 말대꾸를 하자 "미친 듯" 아이의 뺨을 때리는 데서도 나타난다. 스메르댜코프에게 간질이 발병한 시기가 그리고리 영감의 폭행 이후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스메르댜코프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패턴, 즉 친아버지가 방치하고 대리부가 사랑을 주는 패턴에 상치된다. (See Fusso) 스메르댜코프의 경우는 '대리부'가 친아버지보다 더욱 가혹하게 아이를 학대한 것이다. Holquist는 "스메르댜코프를 두 번이나 버림 받은 고아"(182)라고 지적하면서 친아버지에 이어 두 번째로 스메르댜코프를 버리는 이로 이반을 지목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반 전에 양부인 그리고리의 학대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동일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리 영감은 주인집 정실 아들 드미트리은 사랑으로 대하고 스메르댜코프는 학대한다. 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스메르댜코프의 아버지를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다. 흥미롭게도 스코토프리고넵스크에

서 스메르댜코프의 아버지를 표도르 카라마조프로 보지 않는 이는 그리고리가 유일하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유로디비인 리자베타를 범해서 임신시켰다고 수근댈 때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인을 옹호하며 탈옥범 '나사못 카르프'를 지목한다. 한 번 마음속에서 굳어진 생각이라면 절대 고치지 않는 그리고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가 스메르댜코프의 아버지를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아니라 흉악범 카르프로 믿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주인을 감싸기 위해서 지어낸 말일지라도 그가 자기 주장을 내재화하고 믿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그가 스메르댜코프가 태어난 날 아내에게 한 말, 즉 "이 아이는 악마의 아들과 의로운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거야"가 이해된다. 여기서 그리고리가 염두에 둔 '악마'는 주인나리인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아니라 탈옥범 카르프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친아들과 그 아들이 죽은 날 태어난 스메르댜코프 간의 연속성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그리고리 부부에게 스메르댜코프는 죽은 친자식을 묻은 날 발견한 특별한 아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기할 점은 그리고리 영감이 육손이 아들을 용으로 부르면서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 민속에서 용은 악마로 간주된다. 아내의 임신 기간 중에는 기뻐하면 아이를 기다렸지만 그리고리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들을 보자 신의 착오로 악마가 태어났다면서 세례도 반대하고 눈길마저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친아들의 죽음과 양아들의 탄생이 맞물리는 운명에 둘을 동일시하는 그리고리 영감이 스메르댜코프를 학대하는 저간에는 스메르댜코프가 친아들의 뒤를 이어 악마라고 보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이는 그리고리 영감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리는 매우 충직하지만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정체성은 하인이다. 그는 주인이라면 표도르 카라마조프 같은 저열한 인간에게도 충성한다. 또 주인의 아들은 성심껏 보살피지만 자기 아들은 장애가 있다고 악마 취급을 한다.

그리고리 영감의 믿음 체계 안에서 육손이 아들과 용, 그리고 스메르댜코프는 하나로 이어진다. 고아가 하느님의 아이라 거두기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용인 아들을 대신해 다른 용이 들어온 것이며, 따라서 정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스메르댜코프는 그리고리 영감의 믿음처럼 용으로 자라난다. 즉 비뚤어진 스메르댜코프는 양부가 그를 육손이 아들의 대체(changeling)로 간주해서 '용'이라는 믿음을 투사하며 모욕하고 학대한 결과인 것이다.

그와 함께 자신이 카라마조프의 사생아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인으로 자라난 스메르댜코프는 아버지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아들이기도 하다. 아버지와 산 기간이 가장 긴 아들이 스메르댜코프라는 사실은 곧 그가 아버지에게 노출된 시간이 가장 길고 따라서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기회가 가장 많았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름의 배치도 상징적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파벨 표도로비치는 거울을 마주보고 선 듯 닮은꼴이다.

따라서 스메르댜코프야말로 표도르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며 동시에 하인 그리고리의 아들로서 양부의 믿음대로 '용'(drakon)으로 자라난 아들이다. 또한 그는 양부를 따라 하인이 된다. 스메르댜코프야말로 두 아버지의 나쁜 영향 하에 성장하는 불운의 인물이다.

<스메르댜코프, 형제>

그러면 스메르댜코프와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친아버지로부터는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양아버지로부터는 학대를 당한 스메르댜코프는 장성해서 만난 '카라마조프' 형제들로부터도 한결같이 부정 당한다. Olga Meerson은 이 철저한 외면을 두고 '금기'(taboo)로 해석한다. 다들 알면서도 금기라서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Anna Berman은 '형제애'(brotherhood)가 금기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스메르댜코프는 소설의 핵심인 형제애에 대한 '시험'(test)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277-278). 실제로 카라마조프 삼형제는 모두 스메르댜코프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그를 모욕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조시마 장로가 강조하는 '적극적 사랑'(active love)을 실천하는 데 실패한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스메르댜코프를 대하는 삼형제의 태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드미트리는 시종일관 스메르댜코프를 멸시한다. 소설에서 스메르댜코프를 처음 언급하는 이는 드미트리인데 수도원의 모임에 늦게 나타나서 그 이유로 "하인 스메르댜코프"(sluga)가 시간을 잘못 가르쳐줘서 늦었다고 해명한다. 스메르댜코프는 처음부터 드미트리를 곤경에 처하게 하고 드미트리 역시 비밀 신호를 아는 스메르댜코프를 협박하는 등 심하게 다룬다. 드미트리는 스메르댜코프가 아버지의 사생아라는 '전설'을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고 언제나 거리낌없이 하대한다. 하인으로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개나 암탉 등의 단어까지 서슴치 않는다. "냄새나는 개" 또 "암탉이 낳은 병든 암탉"(9편 5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혈연관계로 추정되는 이를 동물 취급하는 태도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버지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한편 스메르댜코프 역시 드미트리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한다. 자신을 따르는 동네 처녀와 대화를 나누며 스메르댜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행실이나 머리, 또 그 빈털터리 신세로 보아 어느 머슴보다도 나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위인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아요. 나야 뭐 한낱 부엌데기에 불과하지만, [중략] 도대체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은 게 뭡니까? 사실,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양반이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려버렸는지, 원" (5편 2장). 스메르댜코프는 드미트리를 멍청하고 낭비벽이 심한 인물로 이해하고 자신이 더 잘 났음에도 하인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에 울분을 느낀다.

알료샤마저도 스메르댜코프의 적개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주지하다시피 알료샤는 맑은 성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사랑을 받는 인물이지만 (비뚤어진 성격의 아버지조차 몇 달이 지나자 알료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스메르댜코프는 결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그의 성격을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 그러나 소설에서 주변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알료샤가 스메르댜코프에게 보이는 태도는 주목을 요한다. 알료샤는 드미트리처럼 스메르댜코프를 대놓고 모욕하지는 않지만 늘 거리를 두고 차갑게 대한다.

소설에서 알료샤가 스메르댜코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단 한 번 나온다. 파국의 예감에 드미트리를 찾아나선 알료샤가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동네 처녀와 얘기를 하는 스메르댜코프를 만나게 된다. 이때 알료샤는 스메르댜코프가 자신의 출생과 신분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말을 엿듣게 되지만 그 후 두 사람 간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알료샤는 스메르댜코프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갖지 않는다. 혹시 스메르댜코프가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소설에는 알료샤가 스메르댜코프의 사연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네 전체가 스메르댜코프가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사생아라고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 집에 온 지 1년이 된 알료샤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알료샤는 단 한 번도 스메르댜코프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친살해 사건을 두고 알료샤는 단호히 "형이 죽이지 않았어요. 죽인 자는 하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스메르댜코프를 형제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메르댜코프는 알료샤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반과 같은 차가움이 스메르댜코프를 대상으로 알료샤에게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스메르댜코프와 접점이 없어 보이는 알료샤지만 이복형제인 스메르댜코프와 닮은 점이 있다. 육체성이 희미하다는 점에서 둘은 비슷하다. 리즈와 결혼을 약속하기는 하지만 알료샤의 이성관계는 카라마조프의 정열과는 거리가 멀다. 알료샤를 male virgin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See Fusso). 스메르댜코프도 동네 처녀가 그를 따르지만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언급된다. 거세종파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에 무성애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묘사된다. 표도르 카라마조프가 그에게 결혼을 권하자 스메르댜코프가 하얗게 질리며 질색하는 모습은 음담패설을 들을 때 경기를 일으키는 알료샤의 모습과 묘하게 겹친다.[1)]

이는 두 사람의 어머니 간의 유사성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다. 소설에서 스메르댜코프의 어머니는 '유로디비'(iurodivyi)로, 또 알료샤의 모친은 '클리쿠샤'(klikusha)로 규정된다. 물론 이 둘은 같지 않다. 유로디비는 '성 바보'로 백치에 가깝다. 한편 클리쿠샤는 부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경증 환자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은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첫 부인 아델라이다 미우소바가 자존심이 강한 귀족이었던 데 반해 러시아 정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여자들이다.[2)] 스메르댜코프의 어머니인 리자베타는 백치에 벙어리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유로디비, 즉 신이 내린 바보로 사랑받는다. 신앙심이 돈독한 알료샤의 어머니도 정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미지로 제시된다. 알료샤는 자신을 안고 성상화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소중하게 기억한다.

어머니의 기억이 있는지 여부는 두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어도

1) 엄밀히 말하자면 스메르댜코프와 알료샤가 육욕에 대해 보이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알료샤는 카라마조프의 피에 흐르는 뜨거운 욕망을 알고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스메르댜코프는 아예 육욕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런 점에서 스메르댜코프는 카마라조프의 주요한 특성을 결여한다.

2) 드미트리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미우소프 집안은 서구 문화와 친연성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표트르 미우소프는 소설에서 으뜸가는 서구파로 유럽을 숭상하는 인물이다. 드미트리 역시 괴테와 쉴러 등 독일문학을 암송하며 카라마조프 형제 중 가장 서구 문화에 침윤된 인물로 그려진다.

알료샤는 신심이 깊은 어머니의 기억으로 삶의 항로를 정해 조시마 장로를 찾아간다. 그에 반해 태어나면서 바로 어머니를 잃은 스메르댜코프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같이 사는 친아버지와 양아버지의 무시와 멸시 속에 사랑 받은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로 '용'이 된다.

이 맥락에서 이반과 스메르댜코프는 닮은꼴이다. 이반 역시 어머니의 기억은 물론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이 없다. 스메르댜코프가 이반에게 끌리고 동질감을 느끼는 데는[3] 당연히 이반의 논리가 가장 큰 이유지만 어머니의 기억을 비롯해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이 부재한다는 점도 공통분모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방기로 야기된 상처만을 지닌 아들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두 형제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엄밀히 말해 이반의 기억은 스메르댜코프의 기억과 다르다. 스메르댜코프는 기억 자체가 없는데 반해 이반은 기억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기억이 그 좋은 예다. 사실 카라마조프 형제를 통틀어 어머니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이가 이반이다. 드미트리는 어머니가 세 살 때 집을 나가고 소피아 부인은 알료샤가 네 살 때 죽는다. 또 스메르댜코프는 어머니가 출산하자마자 죽는다. 그 가운데 알료샤보다 네 살 연상인 이반은 8년 간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형제 중 가장 많을 법하지만 소설에서 그는 어머니를 전혀 떠올리지 않는다. 그가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아버지가 알료샤가 소피아 부인과 똑같다면서 놀라워할 때 알료샤와 자신이 같은 어머니를 두었다고 언급할 때뿐이다. 즉 이반에게 어머니는 '사실'로서만 나타난다.

이처럼 두 사람의 '기억의 부재'가 본질적으로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스메르댜코프가 이반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데는 단순히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논리만이 아니라 이반에게 내재된 결핍에서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는 직관적 이해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두 사람은 나이도 24세로 같고 모스크바 유학파라는 점도 닮은꼴이다. 또한 둘 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처지(이반은 경제적 궁핍, 스메르댜코프는 뭇사람들의 멸시)에서 비롯된 열등감에 시달린다. 또한 오만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점도 공통분모다.

스메르댜코프가 형제 중 이반만 좋아하고 동갑내기인 이반을 마치 스승처럼 우러러본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는 스메르댜코프는 이반의 지성을 인정하고 이반과 마찬가지로 유럽여행을 꿈꾼다. 그는 이반에게 심지어 '사랑'한다고까지 직접 말한다. (이반이 사랑을 고백하는 대상은 알료샤다.) 그러나 이반은 그를 경멸한다. 이반은 아버지가 살해된 후 스메르댜코프와 세 번 만나면서 살인범이 스메르댜코프라는 사실, 또 자신이 그 범죄에 무언의 허가를 내렸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이반은 스메르댜코프, 자신의 이복동생에게 연민이나 죄의식을 하등 느끼지 않는다. 도리어 스메르댜코프를 부정하고 증오하며 저주한다. 이반의 갱생을 암시하는 선행의 대상도 결국 자살에 이르는 이복형제가 아니라 타인(술 취한 농부)이다.

---

3) 스메르댜코프는 이반과의 만남에서 이반도 자신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하는 데 이 말은 함축적으로 여러 의미를 담지한다.

스메르댜코프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느 형제로부터도 사랑은 고사하고 인정도 받지 못한다. 다혈질인 드미트리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개 같은 자식이 개처럼 죽었군”이라고 소리친다. 또한 알료샤마저도 스메르댜코프의 죽음에 연민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를 죽인 ‘하인’으로 규정한다.

그에 비해 이반은 스메르댜코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운아다. 그에게는 알료샤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사상을 집약해 표현한 ‘대심문관의 전설’과 마음속 내밀한 이야기를 흉금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료샤는 자신과 생각이 달라도 형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다시금 어머니의 기억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반은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덟 살까지 같이 살았던 어머니의 기억이 없을 리가 없다.[4] 이는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기억을 안 할 뿐 마음 속 어딘가에는 자리 잡고 있기에 이반은 이성으로 다다른 결론에 전부를 걸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신의 세상을 거부하는 아버지의 피만이 아니라 신에게 의지하는 어머니의 유전자도 물려받은 것이다. 알료샤를 보고 알료샤의 모친을 떠올리며 놀라는 아버지에게 알료샤의 어머니가 곧 자기 어머니이지 않느냐고 분노에 차서 항의하는 이반의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머니를 알료샤의 어머니로만 한정 짓는 데 대한 반발이며 이는 이반도 어머니를 부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에 비해 스메르댜코프는 그리고리 영감의 영향 하에 자기 어머니를 저주한다. 어머니가 사실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들은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뭇사람들과 달리 리자베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하는 그의 주양육자 그리고리 영감을 탓할 수밖에 없다. 태어난 날 바로 어머니를 잃은 스메르댜코프는 유로디비인 어머니의 직접적인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의 출생을 원망한다. 그러므로 이반이 ‘반역’에서 열거하는 아이들의 눈물에는 아버지로부터 버림 받은 자신은 물론 스메르댜코프도 포함된다. 어찌 보면 이반의 주변에서 (기사로 접하는 아이들이 아닌) 가장 불쌍한 아이가 스메르댜코프라고도 할 수 있다.

<스메르댜코프, 아이와 악한>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테마는 소설의 진행과 더불어 ‘부자’와 ‘형제’를 넘어 ‘아이들’로 확장되며 도스토옙스키가 쓴 마지막 걸작의 넓이와 깊이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일류샤와 콜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아이들’ 이야기는 카라마조프 가족에서 벌어진 가정의 갈등과 불행, 그리고 화해의 가능성을 가족 너머의 범주로 넓혀 탐색한다. 여기에는 카라마조프 삼형제는 물론 스메르댜코프도 ‘아이들’의 테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

---

4) 표도르 카라마조프의 자식 중 어머니와 가장 긴 시간을 보낸 아들이 바로 이반이다. 더구나 이반은 알료샤에게 “난 모두 다 기억해”라고 말한다. 대학생인 그는 형제 중 가장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다.

드미트리는 ‘아버지’ 스네기료프를 모욕함으로써 그의 아들 일류샤의 마음에 씻을 길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이반은 추상적으로 무고한 아이들의 눈물을 들어 신에게 ‘반역’을 일으킨다. 한편 알료샤는 형들을 대신해 행동한다. 드미트리의 형제라는 이유로 일류샤에게 손가락을 물어뜯기고, 아이들의 눈물 때문에 신의 섭리를 거부한다는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 이반 대신 아이들의 멘토가 된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알료샤는 조시마 장로의 유지를 받들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적극적 사랑’(active love)은 조시마 장로에서 알료샤로, 또 더 나아가 콜랴를 비롯한 아이들에게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See Lee Trepanier.)

알료샤가 사랑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면 스메르댜코프는 악의 연쇄 반응에 책임이 있다. 스메르댜코프의 어린 시절 장면으로 소개되는 일화는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고 장례식 흉내를 내는 모습이다. 그는 학대 받은 아이이자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학대하는 가해자이기도 하다. 같은 선상에서 바늘이 든 빵으로 개를 학대할 아이디어를 일류샤에게 준 사람이 바로 스메르댜코프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그가 이반의 논리를 근거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유사한 일이 주치카 사건에서 역할을 바꿔 재연된다. 스메르댜코프의 사주로 일류샤는 개를 죽일 뻔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일류샤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사랑이라고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 오로지 학대만 당하며 자란 스메르댜코프는 부친을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스메르댜코프는 작가로부터도 악의 화신으로 부정되는가?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가족 및 스메르댜코프를 악한으로 치부하는 화자(Meerson 190; Berman 280-281)와 달리 그를 경원시하지만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작가가 자신의 병, 간질을 스메르댜코프와 나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스메르댜코프가 간질 발작을 살해의 알리바이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의 교활함이 한층 더 두드러지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세계를 보면 간질발작은 <백치>의 미시킨에게 초월적 세상과 이어지는 긍정적인 각성의 순간을 선사하고 이는 곧 작가 자신의 경험과 중첩된다. 다시 말해, 간질 자체는 스메르댜코프에게도 이 세상을 이월하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스메르댜코프가 그 가능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한 스메르댜코프의 이름이 뜻하는 바인 ‘냄새’의 의미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메르댜코프 본인도 그렇고 얼핏 보기에 ‘냄새’는 부정적인 의미소인 듯 하지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조시마 장로의 죽음이 몰고 온 추문은 타계 후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인이 죽으면 향기가 날 거라 믿은 신도들의 기대를 ‘냄새’는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냄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식별하는 기능을 한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조시마 장로의 성인과 같은 가르침이 사기꾼의 말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모에 혹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짓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경거망동임을 작가는 강조한다. 스메르댜코프의 어머니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겉으로는 볼품없

고 장애인이지만 그녀를 유로디비, 즉 신의 사람으로 대하는 이들도 많다. 그와 같이 '냄새'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이 다르다. (See Carol Flath)

마지막으로 작가가 스메르댜코프에게 견지하는 입장의 일단을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조시마 장로의 전기 마지막은 지옥에 대한 고찰로 자살한 자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 이 땅에서 스스로를 죽였던 자들, 자살자들에게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들보다 더 불행한 자들은 숫제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드러내놓고 그들을 배척하지만, 내 영혼 속에서 은밀하게 생각하길,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를 내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런 자들에 대해 나는 평생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해왔으며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음을, 신부님들 스승님들,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6편 3장, 김연경 역 2권 97쪽)

이처럼 작품의 최고 심급이라 할 조시마 장로는 자살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논한 간질과 냄새의 의미론과 함께 작가가 스메르댜코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그와 함께 스메르댜코프는 조시마 장로를 본받아 알료샤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Berman, Anna A. “Siblings in *The Brothers Karamazov*.” *The Russian Review* 68 (2009): 263-282.

Dostoevskii, Fedor. *Polnoe Sobranie Sochinenii*. Leningrad: Nauka, 1976.

Flath, Carol. “The Passion of Dmitrii Karamazov.” *Slavic Review* 58 (1999): 584-599.

Fusso, Suzanne. “Dostoevskii and the Family.” *The Cambridge Companion to Dostoevsk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75-190.

Golstein, Vladimir. “Accidental Families and Surrogate Fathers: Richard, Grigory, and Smerdyakov.” *A New Word on* The Brothers Karamazov. Evanston: Northwestern UP, 2004. 90-106.

Holquist, Michael. *Dostoevsky and the Novel*. Princeton: Princeton UP, 2015.

Hruska, Anne. “The Sins of Children in *The Brothers Karamazov*: Serfdom, Hierarchy, and Transcendence.” *Christianity and Literature* 54.4 (2005): 471-495.

Meerson, Olga. *Dostoevsky's Taboos*. Dresden: Dresden UP, 1998.

Morson, Gary Saul. "Verbal Pollution in *he Brothers Karamazov.*" C*ritical Essays on Dostoevsky*. Boston: G. K. Hall, 1986. pp. 234-242.

Trepanier, Lee. “The Politics and Experience of Active Love in *The Brothers Karamazov.*” *Perspective on Political Science* 38.4 (2009): 197-205.

M.A. 불가코프의 초기 소품「도시 키예프」(Киев-город)읽기: 1920년대의 문학적 경험에 비추어

강수경(부산대)

1. 들어가며

불가코프의 본격적인 문학 여정이 1920 년대 초 모스크바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초기 창작활동의 중심이 신문의 문예기사(фельетон)란 이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1920-30 년대 신문의 문예기사는 당시 소비에트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장르이다. 1917 년 혁명 이후 모스크바를 비롯한 소비에트 러시아의 전역은 내, 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러한 새로운 풍경과 분위기를 사실에 근거하여 다채로운 필치로 그려내기에는 문예기사만 한 장르도 없었기 때문이다[1].

불가코프는 당시 꽤 규모가 컸던 신문 『경적』(Гудок)과 베를린의 러시아 망명자들이 발행했던 신문 『전날』(Накануне)의 문예기사 필자로서 활동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2]. 그는 『경적』의 문예기사를 집필하면서 «모스크바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고[3], 『전날』의 지면을 통해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소품들을 창작할 수 있었다.

---

[1] 혁명 후 첫 10 년간 소비에트 신문의 문예기사란을 장식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콜초프(М.Кольцов)이다. 그와 함께 <프라브다>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조리치(А.Зорич)가 있고, 이는 1920 년대 장르로서의 문예기사(фельетон)를 확립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카타예프(В. Катаев), 일리프(И.Ильф), 페트로프(Е. Петров, 스밴(И. Свэн), 올레샤(Ю. Олеша) 등의 젊은 작가들도 문예기사의 필자로 활동했다.

[2] 불가코프는 1921 년부터 1926 년까지『무역-상업 통보』(Торгово-промышленный вестник)(1921 년 말 – 1922 년 4 월 중순), 『경적』(Гудок)(1922 년 4 월 초 – 1926 년 8 월), 『전날』(Накануне)(1922 년 7 월 – 1924 년 6 월)과 같은 신문의 문예기사 작가로서 활동했고, 그 밖에도 『Известия』, 『Красный журнал для всех』, 『Заноза』와 같은 신문과 잡지 『Медицинский работник』에 자신의 칼럼을 기고했다.

[3] 불가코프는 1924 년에 기록한 자신의 짧은 자서전에서 “В конце 1921 года приехал без денег, без вещей, в Москву, чтобы остаться в ней навсегда»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살아남기 위해(«что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существование») 자신이 증오하는 репорт го 와 신문의 문예지 기자로 일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Булгаков М.А. Рукописи не горят М.: Школа-Пресс, 1996. С. 547

하지만 불가코프 자신은 그의 문예기사 작품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미완성 작품인 «비밀 친구에게»(Тайному другу)에서 불가코프는 문예기사의 창작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сочинение фельетон строк в семьдесят пять – сто занимало у меня, включая сюда курение и посвистывание, от 18 до 22 минут. Переписка его на машинке, включая сюда и хихиканье с машинисткой, -8 минут. Словом, в пол-часа все заканчивалось...»

불가코프 스스로 자신의 초기 문예기사들에 대한 평가를 대수롭지 않게 내린 이유 때문인지 러시아 국내외 연구자들 역시 불가코프의 문예기사들을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가장 최근에 발간된 불가코프의 전집에 작가의 초기 문예기사 작품들이 모두 수록되지 않은 점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4]. 최근까지도 불가코프 문학에 대한 관심은 주로 그의 마지막 소설인 『거장과 마르가리타』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1920-30 년대 중편 및 희곡 작품들로 연구가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1920 년대 초반에 창작된 불가코프의 여러 문예기사, 수필, 단편 등의 소품들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는 뚜렷이 전개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창작된 작품의 해설을 통해 초기 작품들과의 연관성 및 상호 영향을 주고 받은 흔적에 대한 언급들은 꾸준히 있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불가코프가 1924 년 자신의 어떤 작품보다도 더 좋아한다고 고백했던 『백위군』(1925)과 1923 년에 창작된 수필 『도시 키예프』(Киев-город)의 연관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 키예프』에 대한 비평적 관심과 분석적 읽기는 매우 빈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가코프의 초기 소품들을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백위군』의 창작을 가능케 했던 전편으로서의 『도시 키예프』를 꼼꼼히 읽고, 예술가로서의 불가코프가 형성됨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도시 키예프』가 가지는 문학적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2. 1920 년대의 문학적 경험

불가코프의 1920 년대 창작에는 사회·정치 시평이 폭넓고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산문)작가로서의 불가코프의 탄생이 «외적 관찰과 내적 성찰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문예기사 장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언급했다. 20 년대 러시아는 풍전등화와도 같이 불안했고, 매일이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정기 간행물들은 급변하는 사건의 추이를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외적 관찰') 주요한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응('내적 성찰')을 해야 했다. 『경적』과 『전날』의 문

[4] 2002 년 8 권으로 발행된 불가코프 전집의 편집자였던 로세프는 전집에는 "몇몇 작품들만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원작으로서의 특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세련되지 않고" 유의미하지 않은 일부 작품들이다"라고 기술하였다. Лосев В.И. // Булгаков М.А., Соб. соч. в 8-ми томах. М., Т.1. С.13

예기자로 활동했던 불가코프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사건과 실제 사실의 뜨거운 흔적을 좇아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생생한 필치로 전했다.

불가코프는 이 시기 문예기사 뿐 아니라 단편, 수필, 수기 등의 다양한 형식의 소품들을 통해서도 현실의 풍경과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불가코프가 보여준 다양한 묘사 방식들은 작가 특유의 문학 기법과 현실 인식이 생성,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작업들에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단초들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적된다[5]. 당시 문예기사를 비롯한 불가코프 소품들의 특징은 그 기저에 사실의 기록에 근거한 일상 생활의 풍경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불가코프의 재능은 이 같은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콕 집어 그것을 사건의 원천으로써 발전시켜 하나의 완결된 공연-에피소드 형태로 재현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리즈로 구성된 작품의 제목이 『서류철 속 수도』 그리고 『모스크바 무대들』로 명명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6].

또한 불가코프의 초기 소품들의 특징은 당면과제를 논하는 평론성, 분석적 어조, 자료에 근거한 신빙성 그리고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예술적 방법을 결합하여 예술적 산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본고에서 살펴 볼 수필 『도시 키예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시 키예프』는 신문에 게재된 불가코프의 작품 중 가장 진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바로 이 작품에서 불가코프는 러시아 지식인의 현실과 운명에 대한 이해에 면밀히 다가갔고, 생생한 현실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현실과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흥분과 두려움을 생생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과 느낌, 분위기, 나아가 거대한 생각의 서사성은 문예기사라는 장르의 논리와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3. 도시 키예프 (Киев-город)

1923 년 5 월 24 일 불가코프는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모스크바는 소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특히 키예프와 비교해서 볼 때 그렇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스크바에서는 맥주를 엄청나게 마신다는 거다»[7]. 불가코프는 이에 앞선 4 월 21 일 모스크바를 떠나 키예프로 가서 5 월 10 일까지 머물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온다. 이 때의 인상에 대해서 불가코프는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수필 『도시 키예프』에서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 불가코프는 온전히 키예프에 헌정한 자신의 작품을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시작한다.

---

[5] 라승도「도시의 신화와 시학: 불가코프의 초기작에 나타난 모스크바 이미지」,『노어노문학』20-4. (2008) 188.

[6] М.С. Штейман, 『Мастерство М. Булгакова-очеркиста: опыт интерпретации』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Тамбов: Грамота) 2015. № 7(49): в 2-х ч. Ч.1. с. 211.

[7] «Под пятой: Дневник и письма М.А. Булгакова» *Михаил и Елена Булгаковы Дневник Мастера и Маргариты*, М.: Вагриус, 1998. С. 25.

Весной зацветали белым цветом сады, одевался в зелень **Царский сад**, солнце ломилось во все окна, зажгло в них пожары. А **Днепр**! А закаты! А Выдубецкий монастырь на склонах. **Зеленое море** уступами сбегало к разноцветному **ласковому Днепру**. **Черно-синие густые ночи над водой,** электрический **крест св. Владимира**, висящий в высоте...[8]

봄에는 정원이 흰색 꽃으로 무성했고, 황제의 정원은 초록으로 옷을 입었다. 태양은 모든 창문으로 밀려 들어와 활활 불타 오르게 했다. 아, 드네프르여! 아 석양이여! 언덕 위 브이두베츠키 수도원이여. 신록의 물결이 단을 이루며 다채로운 색상의 부드러운 드네프르로 몰려간다. 감청색 짙은 밤이 물 위에 떠 있고, 높이 걸려 있는 블라지미르 동상의 전기 십자가여...(1, 307)

이와 같은 키예프의 풍경은 『백위군』의 알렉세이의 '도시' 꿈에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다. 『백위군』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키예프인 것은 명백하지만, 불가코프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 도시를 한번도 키예프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고 다만 대문자 '도시'(Город)로 표기하고 있다[9].

<...> Турбину стал снится Город.

<...> **Сады** красовались на прекрасных горах, нависших над **Днепр**ом, и, уступами поднимаясь, расширяясь, порою пестря миллионами **солнечных** пятен, порою в нежных сумерках, царствовал вечный **Царский сад.**

<...> 투르빈은 '도시'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 정원은 드네프르 위에 걸쳐진 아름다운 구릉위로

불가코프가 «전설적인 시간»(2, 307)이었다고 말한 이 시기 «키예프의 모든 삶은 흰 빛 속에, 조용히, 평안하게, 아침 여명과 저녁의 석양 속에 지나갔고», «여름에는 태양이 가득한 거리가, 겨울에는 차갑지 않고, 거칠지 않고, 크고 부드러운 눈이 쌓인 곳»(1, 307)이었다.

[8] М.А. Булгаков «Киев-город», Соб. соч. в 5ти томах, том 2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89) с. 307. 이하 이 전집에서의 인용은 본문에 권수와 쪽수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9] 연구자들은 이 같은 표기 방식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를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같은 상징적 이미지는 알렉세이의 꿈에서 더욱 강화된다. 김혜란「『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전편으로서 『백위군』 읽기」,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 50 집, 2015. 59.

파벨 플로렌스키의 예술철학 연구: ‘역원근법’과 ‘이코노스타스’를 중심으로

장혜진(한국외대)

ducunt volentem fata, nolentem trahunt.[1)]

Ⅰ. 서론

일반적인 미술 구성 원리인 ‘창을 통해 바라보는’ 일점 원근법의 원리와는 달리 이콘(성상화)은 추상적인 내부 관찰자에 의해 대상이 그려지며, 신의 시선과 동일시된다고 설명된다. 이점에서 이콘은 ‘위대한 눈(великий глаз)’에 의한 관찰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2)] 신이 있는 저 세계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콘은 신이 있는 저쪽 세상에서 우리의 속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인간의 관점으로 구조화하였다. 이것이 이콘의 역원근법의 구성방법이며 일반적인 의미이다.

이와 같이 원근법과 역원근법은 미술사적 담론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시에 예술텍스트에서 공간적 형식의 인식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점은 파노프스키가 지적했듯이 원근법이 하나의 철학적 사유를 나타내는 상징체계이기 때문이며, 르네상스에서 데카르트 합리주의까지 이어지는 근대사회를 지탱하는 시각체계이기 때문이다.

반면, 역원근법은 미술사에서 아직까지도 크게 주목받는 이론은 아니다. 역원근법의 방법은 관람자의 눈에 그림 속 대상을 왜곡하여 보여주고 불편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 대상들의 정렬과 위치를 비논리적으로 보여준다. 관찰자에게 그것은 부조화의 대상으로 보일뿐 아니라 세련되지 못한 감각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는 원근법이 근대를 대표하는 공간구성 원리이자 인식의 지평이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기존의 원근법과는 상반된 관점인 역원근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1) 운명은 의지가 있는 자들은 이끌어 가고, 의지가 없는 자들은 끌고 간다. 이 글은 플로렌스키 ‘역원근법’의 마지막 구절이다.

2) Б. А. Успенский, “Семиотика иконы”, Семиотика искусства, М.; Школ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юль 1995. с. 258-259.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러시아 이콘의 공간구성과 시점의 원리인 역원근법의 시각체계는 종교화의 구성 원리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식론과는 다른 사유체계에서 생성되었다. 그것은 이미 중세시대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원리였으며, 현대미술에 이르러 피카소, 세잔 등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현대적으로 부활되었다.

이와 같은 시각적인 왜곡의 현상은 관점의 위치에 따라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는 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정신적인 즉흥성과 우연에 기인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공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러시아의 사제 파벨 플로렌스키는 예술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상대성 물리학의 개념으로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로뜨만은 단테의 신곡에서 공간성을 언급할 때 플로렌스키가 언급한 타원기하학이 단테의 중세적 공간구조와 유사함을 분석하고 있다. 그 표면은 닫힌 평면적 공간, 리마노프 식의 평면이며, 운동 시 수직선의 방향을 전화시키는 공간, 하나의 면만 가지는 평면[3]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라지미르 로스키(Лосский) 역시 플로렌스키의 과학과 신학적 유사를 밝히려는 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 "신학자이자 수학자인 플로렌스키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시도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과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하면서 지구 중심적 우주론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실적인 시도를 인용할 수 있다. 과학적 이론들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함부로 가시계 밖에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 그리스도교 신학은 우주에 대한 모든 과학적 이론들과 매우 잘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옹호될 수 있을 만한 이 신학자의 대담한 종합이 가치 있다."[4]

수학과 과학적 근거 하에 예술 공간에서의 공간성과 시각성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밝히려는 종교와 예술적 이데아의 합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극단의 위치에 존재하되 이들의 존재 경계가 다름과 동시에 일치한다는 생각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시계와 비가시계에 대한 것은 이미 플로렌스키의 저서 「이코노스타스(Иконостас)」의 첫 구절에서 문제제기 되어 있다.

---

3) 유리 로뜨만, "예술적 공간에 관한 소고",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 로뜨만 외, 러시아 시학연구회 편역, 서울: 열린 책들, 1996. pp. 15-18. 단테의 지옥편, 34곡에는 "그자는 우주 세계에 구멍을 뚫었소/ 내가 내려가는 동안, 그대는 저편에 있었소./ 그러나 내가 돌이켰을 때, 그대는 중력이 모두 모인/ 지점을 지났소" 라고 써있다.

4) 블라지미르 로스키,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박노양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p. 131.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창세기 1:1), 그리고 모든 창조의 나눔을 두 개를 기본으로 항상 밝히셨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신의 믿음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로 명명한다. 보이는 것으로써의 창조주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로서. 그러나 이 두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서로) 닿아 있다. 그러나 그들 접촉의 경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게 그들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경계는 그들을 나누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로 만든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По первым словам летописи бытия, Бог “сотворил небо и землю” (Быт 1:1), и это деление всего сотворенного надвое всегда признавалось основным. Так и в исповедании веры мы именуем Бога “Творцом видимых и невидимых”, Творцом как видимого, так, равно, и невидимого. Но эти два мира — мир видимый и мир невидимый — соприкасаются. Однако их взаимное различие так велико, что не может не встать вопрос о границе их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Она их разделяет, но она же их и соединяет. Как же понимать ее?



그림1>
«Мнимости в геометрии»
(기하학에서 허수)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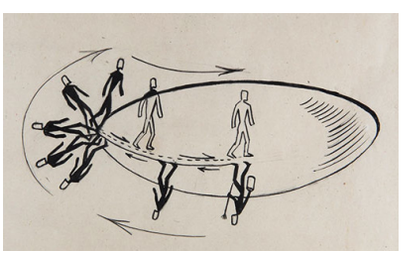


그림1-1>
<기하학에서 허수>의 삽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분법적인 세계를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존재하는 원리이듯,

역원근법의 방법을 이해하려면 플로렌스키의 공간에 대한 규정과 개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유클리드적 세계를 벗어나 비유클리드적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대상의 휘어짐과 왜곡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어떤 각도에서 보는가의 문제에서 벗어나, 주위를 둘러싸는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다중 시점의 문제 역시 보는 각도만의 결과물이 아니다. 아이슈타인에 의한 공간 개념이 바뀌면서 기존의 고정된 시각체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Мнимости в геометрии» (기하학에서 허수)와 관련된 공간문제, 그 대상과 시점의 문제를 분석하기에 앞서 플로렌스키의 업적과 사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정교의 사제인 파벨 플로렌스키(Павел Флоренский)의 학문적 업적과 종교철학의 사상은 광범위하다. 그는 러시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릴 만큼, 수학, 철학, 미학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철학자 파스칼에 비견될 만큼 지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학자이자 사제로 평가 받는다. 철학과 신학, 언어학, 수학, 과학, 기술, 박물관과 창작, 교육 및 출판 활동을 유

기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가 남긴 이와 같은 학문적 업적만으로도 충분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 네스쩨로프의 <철학자들, 1917>

플로렌스키는 혁명 후 혁명정부의 고등 예술 기관인 브흐테마스(ВХУТЕМАС)에서 21-24년까지 예술사 강의와 예술 행정을 맡은 바 있으며, 27-34년까지 '기술백과사전'에 참여하였고, '전기기술연구소'에서도 일을 하였다. 국내에서 플로렌스키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정교신학과 종교철학 모임과 관련하여 거론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없다. 국외에서도 몇 권의 서적만 발행 되었을 뿐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부진한 연구 성과는 그의 공식적인 사망이 늦게 확인된 탓도 있으며, 그에 관한 아카이브가 대부분 국가가 아닌 가족들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933년 2월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1937년 12월 8일 스탈린에 의해 숙청당한 이후, 그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예술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유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사제복을 벗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죽는 날까지 지켜냈다는 기록이 전해질뿐 스탈린 시대에 숙청을 당한 모든 인사들처럼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1989년에야 공식적인 사망 증명이 나왔지만, 매장된 정확한 위치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파벨 플로렌스키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가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된다. 실재로 그에 대한 정보와 자료들은 가족들에 의해 보존되었으며 그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2002년에는 파벨 플로렌스키의 생일 120주년을 기념하여 플로렌스키의 손자와의 인터뷰[5]를 계기로 그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모스크바의 브루덴코 거리의 가족아파트에서 플로렌스키의 손자와 손녀가 그의 업적과 자료들을 기리기 위해 플로렌스키 재단을 설립하면서 플로렌스키에 대한 정보와 자료공개가 이루어진다.

플로렌스키는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였고 니콜라이 부가예프의 지도하에 1904년 논문을 마치게 된다. 부가예프는 상징주의 시인 안드레이 벨르이의 아버지이며, 이때부터 플로렌스키는 벨르이를 비롯하여 다른 상징주의 작가들과도 교류 하게 된다. 또한 솔로비요프와 니체, 바그너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뱌체슬라브 이바노브의 상징주의 모임에 1905년-07년까지 참석한다.

플로렌스키의 예술과의 인연은 21년 브흐테마스에서도 계속된다. 24년까지 브흐테마스에서 <예술작품에서 공간성의 분석(Анализ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ст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произведения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다. 예술 공간에 대한 분석은 수학적,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었으며, 강의의 독특함과 구체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 강의에서 시도된 새로운 공간의 분석은 예술작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 4차원이라는

5) http://www.hrono.info/text/2002/florenski2002.html

공간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 이론적으로 입증되어 졌으며, 차원이 다른 공간에 대한 수리적 계산도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는 칸딘스키의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가 출판됨으로써 예술의 정신이 추상 미술로 반영되어 점, 선, 면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때였다. 이에 대해 플로렌스키는 예술이 심리적인 것이 아닌 존재론적인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술에서 **정신의 실제성 (реальност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플로렌스키의 미학적 세계관을 조명하고,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의(것과 그 정신의 실제성에 대한) 탐색을 문제의식으로 시작으로 되었다. 칸딘스키에게 영감을 받았지만, 플로렌스키는 사제로서 러시아 정교 문화와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예술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플로렌스키의 예술사적 기원은 최근의 기호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호학자인 우스펜스키(Б. Успенский)는 『이콘의 기호학(Семиотика иконы)』에서 이콘의 구조와 시각적 관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의 이콘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연구자가 플로렌스키와 줴긴(Л. Ф. Жегин)이다. 줴긴의 『회화 작품의 언어(Язык живопис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에는 이콘 구성의 방법과 보이지 않는 공간의 시각적 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회화 특히 고대 미술에서 관점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줴긴의 연구는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콘에서 왜곡된 사물의 세세한 부분이 왜 그렇게 그려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줴긴은 동양과 유럽의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공간에서 깊이의 문제를 3가지 단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사물의 왜곡현상은 공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림3> 줴긴의 책표지-'이콘의 산'

1. 평평한 공간-비잔틴, 고대러시아, 동양 예술에서의 공간-즉, '얕은 깊이'의 공간, 원시적이라 말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그림도 해당된다.
2. 르네상스 시대의 상대적으로 깊은 공간, 17-18세기
3. 19세기의 무제한의 깊이를 가진 공간

줴긴은 이와 같은 공간시스템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콘의 시각적 '왜곡'은 그림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위치하는 관객의 시점의 결과로 표현된다는 점을 설명한다. 줴긴에 의하면, 직접 원근법은 고정된 관객의 위치에 기인하지만 역원근법 시스템은 시점의 변화 즉, 관객 위치의 다양성과 그 시선의 역동성을 총체적으로 반영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각적 총합의 결과로 역원근법 형식이 사물을 특별하게 왜곡하여 표현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6)]

이와 같은 시각 시스템의 사상적 토대와 패러다임을 정립한 사람이 플로렌스키라고 할 수 있

6) 플로렌스키의 글이 역원근법이 나타내는 사고의 새로운 틀을 언급했다면, 줴긴은 이콘에 묘사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분류하여 그림을 통해 왜곡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 물론 이콘화의 그림 화법은 수도사에 의해 그 방법이 전해지고 있었지만[7], 그 공간의 시스템과 시각적인 왜곡의 설명은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Обратная перспектив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서구의 근대적인 원근주의를 비판하였으며, 이콘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시각체계인 역원근법 체계를 분석하였다. 예술 공간에 대한 이들의 고찰은 이콘화 연구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콘을 종교화에 귀속시키지 않고 예술작품의 관점, 시점의 문제제기로 연구의 지평을 넓혔으며, 이콘을 예술로써 새롭게 정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플로렌스키의 논문 「역원근법」과 「이코노스타스(Иконостас)」에서 설명되는 공간분석과 그 철학적 사고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플로렌스키는 이콘을 정신의 형식으로써 얼굴(лик)로 새롭게 평가하고, 이코노스타스를 종교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에서도 재평가함으로써 종교 예술의 특수성을 대중적으로 확장시켰다.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에 나타나는 원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분석하고, 본질적으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코노스타스」의 텍스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역원근법의 관점과 합일의 완성

원근법에 대한 거부는 전통적 예술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것은 사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과 표현되지 않은 부분을 보고자 하는 예술가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물의 형식을 왜곡하여 추상적인 형태로 진행시켰다. 2차원 화폭의 평평함은 항상 한계를 노출하는데,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 평평함을 수학적 방법과 원근법 도구들을 사용하여 눈의 착시를 줌으로써 깊이감을 이용해 사물을 3차원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이 보는 대상은 한 방향으로 보는 형태로만 인식될 따름이며, 이점에 있어서 플로렌스끼는 직접원근법이 단안적인 눈의 한계를 보여주며 정신적인 공간을 내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플로렌스키는 '원근법주의'의 대안으로서 '역원근법'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은 1919년 10월 성삼위일체 성당의 예술 보존을 위한 위원회에 보고서로 쓰여진 것이지만, 1920년 10월29일 전러시아인민교육위원회(НАРКОМПРОС)의 회합(М.И.Х.И.М.)에서 발표되었다.[8] 역원근법은 원래 1899년 프랑스의 비잔틴 연구자인 가브리엘 밀레Gabriel Millet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 되었다. 또한 1907년 오스카 불프Oscar Wulff의 논문 "역원근법

---

7) В. В. Бычков, "Икона и русский авангард нач. ⅩⅩ века", доклад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Icona e avangardia", Torino-Caraglio, 4. 05. 1997, p. 4.;이콘은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진본(подлинник)에서 슈젯과 구성의 제한성을 엄격하게 하는 성상화술(иконопись)의 정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Б. А. Успенский. 앞의 책, 1995, pp. 221-222.

8) Павел Флоренский, Избранные труды по искусству, М.: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с. 68.

과 낮은 시점(Die umgekehrte persektive und die Niedersicht)”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광범위한 학술적 경향에 이르지 못했다.[9] 오스카 불프는 원칙을 거부하는 역원근법은 정상적인 원근법의 전도이며, 그 바깥의 관자 대신 그림 안쪽에 위치한 관자의 시점에 속하는 이미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파노프스키 역시 역원근법을 반원근법적(antiperspectival)이라고 언급하면서 동양적인 경향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내부 공간 자체가 전체 그림 바탕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문제점에 다다르면서 화가들이 형상의 오버랩을 피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오버랩의 공포는 사고의 2차원적 방법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한다. 즉 뒤에 위치한 사물의 형상을 앞에 위치한 사물의 형상으로 둘러싸는 겹침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적인 결과가 역원근법의 특별한 인기의 이유라고 지적한다. 역원근법의 출현은 그리스-로마 스타일의 지면의 퇴보이며, 고대 동양적 지면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같은 동양적 경향은 수직의 지평선을 만들었으며, 수평선에서 사물을 묘사하는 단축법(foreshortening)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10]

센들러는 역원근법 이론과 법칙을 정립한 세 명의 이론가들을 소개한 바 있다. 첫 째로 바꾸쉰스끼(A. V. Bakushinski)의 역원근법은 인간의 두 눈을 통해 본다는 사실로 법칙을 설명한다. 각각의 눈은 선원근법의 법칙으로 대상을 본다. 두 개의 지각이 결합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흥미로운 관찰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념은 단거리에 의존할 때만, 특히 30센티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그 이상의 거리는 불가능함을 한계로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줴긴(L. F. Zhegin)의 ‘역동적’ 공간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시각이 선원근법의 법칙으로 세상을 보는 단안적(monocular) 시각이라는 사실에 기반 한다. 장소에서 장소로의(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위치의 특성도 담고 있는 단일 이미지로 정신적으로 결합된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라우쉔바흐(B. N. Raushenbah)는 예술적 구성요소로서 원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비잔틴 회화의 역원근법은 하나의 요소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기하학에 의한 시각적 진행과 예술가의 예술 창작의 진행처럼 매우 다른 영역에 속한 몇몇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화 시키려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기초하여 그의 이론을 요약해야 한다. 우선 비잔틴 화가들은 자연 관찰에 기초해 작업하지 않고 그들이 알고 있는 사물을 재현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재현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등거리 투사법(isometric perspective)이다. 이 시스템에서 큐브의 면들은 선원근법에서처럼 소실점에 의지하지 않으며, 3가지 시각적 현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평행한다. 첫 번째는 형식 불변의 원칙으로 기울어진 표

9) Jefferson J. A.A. Gatrall, “The Icon in the Picture: Reframing the Question of Dostoevsky's Modernist Iconography” *SEEJ,* vol. 48, No. 1 2004, pp. 21-22.

10) Erwin Panofsky, *Perspective as Symbolic Form.* trans. Christopher S. Wood, N.Y..: Zone Books. 1997. pp. 112-114. 각주 9와 10 부분의 본문은 본인의 박사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임을 밝힙니다. 장혜진, 「러시아 아방가르드와 전위의 시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15-28.

면이 망막에 실제로 표현된 것 보다 더 크게 되는 것처럼 인지되는 효과를 만든다. 두 번째 효과는 가장 가까운 대상들은 그 실제 차원에서 보이며, 멀리 있는 것들은 왜곡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형식들은 등거리 시스템에 의해 그려진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광학적 요인이 시점의 이동성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11)]

역원근법의 이론가들은 대부분 그 기법적인 문제와 표현된 대상의 형태를 중심으로 공간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반면 플로렌스키는 원근법의 전체적인 맥락과 비교하여 역원근법의 과학적인 방법과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철학적인 문제를 정립한다는 점에서 이후 역원근법 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의 사고는 그의 독특한 이력과 종교철학에 대한 과정으로, 무엇보다 사랑을 토대로 하는 지식을 강조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플로렌스키의 『진리의 기둥과 확신(Столп и утверждение истины)』 이라는 대표 저서의 최종 제목에는, '지식은 사랑으로 생긴다(познание порождается любовью)'-지식은 사랑을 준다'γνώσις αγάπη γίνεται — «познание делается любовью» («познание даёт любовь»)-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플로렌스키의 『진리의 기둥과 확신』 은 편지로 되어 있으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마르크스주의 시기와 사제로 귀의한 시기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사랑을 토대로 하는 지식은 그가 종교에 귀의한 이유가 되며, 스스로의 사상적 합일점을 나타내기도 하는 지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를 「생각의 분수령에서(У водоразделов мысли, 1913-1922)」란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종교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정의하면서 하나는 신정론(теодицея)이며 다른 하나는 인정론(антроподицея)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정론은 신에 대해 주어진 특별함을 이성으로 확신하려는 것이며, 인정론은 신의 진리와 자신의 불일치를 스스로 살피고, 정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두 길은 이율배반적인 동시에 서로 관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신플라톤적인 사상으로 이원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플로렌스키의 궁극적인 종교관은 이와 같은 이원론을 인정하는 합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반-합 이라는 변증법적 사고는 그의 교리에도 남아있으며, 예술철학에도 이와 같은 통합과 합일의 사상을 지향하고 있다.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 이론 역시 반-합에 이르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역원근법 이론은 크게 2개의 장으로, Ⅰ. 역사적 관측(Исторический наблюдения): 1-12장 /Ⅱ. (이론적 전제) Теоретические посылки: 13장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플로렌스키는 '역원근법'에서 새로운 원근법의 체계(역원근법)는 근대적 원근법 체계를 파괴하는 예술적 대안으로 정의하며, 그 의미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예로서 정상적인 원근법이 강하게 파괴된 이콘의 속성은 수준 높은 거장에 의한, 즉 수준 높은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파괴된 원근법의 경우 2, 3 류의 예술가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이콘

11) Egon, Sendler. Su., *Icon: Image of the Invisible.* trans. by Steven Bigham California: Oakwood Publications, 1988. (원제L'Icone: Image de L'invisible(Paris: 1981)) 이꼰의 원근법의 역사는 8장에서 '이꼰과 투시의 법칙The Icon and the law of perspective'편을 참조함.

예술에 한정된 생각이지만 원근법 파괴는 좋건 나쁘건 고의적이건 의식적이건 이것은 이콘 예술의 창조적인 기법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미술이 원근법에서 벗어난 점은 예술이 극복해야할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 의하면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는 것은 예술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는 원근화법으로 묘사된 세상은 무수한 가능성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원근법 예술가들의 몇 가지 전제와 그 핵심을 언급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첫째로, 원근법으로 나타나는 현실세상이 유클리드 공간에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즉 굴곡이나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직선과 평행이 되는 각각의 점, 하나의 단일한 점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공간의 이동에 대해, 이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예술가가 측량막대기의 불변성만을 믿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간단하게 예술가는 유클리드가 정의한 세상의 구조를 믿으며, 칸트가 말한 방식대로 이 세상의 지각을 믿는 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번째 비판의 지점이 있다. 유클리드적 논리에 반해 주관성의 환영적 세계가 우세한 칸트적 세계관에 자신의 영혼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세계관은 화가의 오른쪽 눈이 시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예술가의 오른쪽 눈이 시각의 중심으로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플로렌스키는 시사한다.[12] 세 번째는 원근법이 시각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진 짜르이며 입법자라고 명하면서 그 같은 시점은 자연을 케클로페스처럼(как циклоп) 단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점의 절대성은 원근법적 그림의 기만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모든 세상은 창조적인 예술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각적 중심으로 대표되는 그의 오른쪽 눈만이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중심이 세계관을 입법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네 번째로 위에 제시한 입법자[13]가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세상은 완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도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역사도, 성장도, 발전도 없는 이러한 세상은 죽은 세상(зто - мир мёртвый)으로 비유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시선의 행위에서 심리적 형이상학적 과정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지목한다.[14] 이처럼 여섯 가지 항목을 들어 원근법적 법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근법에 대한 비판 이전에, 1장의 역사적 관측에는 기존에 미술사에서 사용되던 일점 원근법, 직접 원근법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원근법의 파괴는 이콘 예술의 창조적 기법(эти нарушения правил перспективы составляют применение сознательного приема иконопис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 45)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선원근법에서는 지평선으로 모이게 묘사되지만 이콘에서는 퍼지는 형태로 묘사된다고(.....быть изображены

12) 본문에서는 군주와 짜르, 정부소재지 등의 단어를 들어 비꼬면서 말하고 있다.

13) 여기서 입법자законодатель는 세상을 단안적으로 응시하는, 원근법의 원리로만 세상을 표현하는 예술가를 말하고 있다. 또한 재현되는 세계, 즉 그림에서 군주적인 이미지, 절대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14) П. А. Флоренский, “Обратная перспектива”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т. II,* Москва: Правда, 1990, pp.63-65, p.79, pp.89-93.

сходящимися к линии горизонта, на иконе бывают изображены, напротив, расходящимися. с. 44.) 설명한다. 지평선으로 퍼져 묘사된 대상들을 관찰자의 시각으로 종합하여 그리게 되며, 시점을 통합하여 표현하는 데서 시각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상반된 시각의 종합이 역원근법의 대상을 보는 방법이며, 이와 같은 시각 체계의 발생은 보는 방법의 변화가 반영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분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신의 형식으로써 리끄(성인의 얼굴, лик)인 이콘

플로렌스키의 '역원근법'이 이콘의 구성 원리와 새로운 시각체계의 의미를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면, '이코노스타스'에서는 가시계와 비가시계의 문제를 꿈과 비교하여 상상의 공간으로 꿈을 비유하여 정신의 중요함을 언급한다. 다음의 「이코노스타스」 글의 구조[15]를 참조하면 글의 맥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А. Ⅰ. сон как граница видимого и невидимого миров (가시계와 비가시계의 경계로서 꿈)
1) сон и обратное время(꿈과 뒤집힌 시간) 2) сон и мнимое пространство(꿈과 상상의 공간) 3) сон как граница двух миров(두 세계의 경계로서 꿈) 4) духовная прелесть(정신의 매력)
Ⅱ. Лицо, личина и лик (얼굴, 가면 그리고 리끄[16])
1) Лицо/ 2) лик/ 3) личина/ 4) маска
Ⅲ. От лица к лицу (얼굴에서 얼굴로)
1) преображение лица в лик(리끄로 얼굴의 변모(현성용(顯聖容)) 2) преображение тела(몸의 변모) 3) значение Храма(교회의 의미) 4) алтарь как граница видимого и невидимого миров(가시계와 비가시계의 경계로서 제단)
Б. Ⅳ. Иконостас(이코노스타스)
1) иконостас как ангело- и агиофания. Лики святых 2) иконы как 《видимые изображения тайных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х зрелищ》 3) иконопись как орудие сверхчувственного познания 4) икона как напоминание 5) иконопись и духовный опыт художник-иконописца 6) икона и каноническое предание
Ⅴ. Святой иконописец(성 이콘화가)
Ⅵ. иконопись как метафизика бытия(존재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콘화법)
1) возрожденская культура(부흥의 문화)
2) иконопись как конкретная метафизичность мира(세계의 구체적 형이상학성으로서 이콘화법)
Ⅶ. Икона и родственные ей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е явления(이콘과 그것의 가까운 문화-역사적 현상)

「이코노스타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로서 꿈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된

15) П. А. Флоренский, там же. с. 185-186. 원본에는 목차가 없지만 책을 편집한 뜨루바체프(А. С. Трувачев)는 각주부분에 글을 이와 같이 분류하여 간략한 주제로 제목을 적어 놓았다.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16) 리끄는 이꼰에서 묘사된 성자의 얼굴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리끄라고 사용하기로 한다.

다. 닿을 수 없는 두 세계의 본질적인 '보기', 즉 이콘과 관련된 '보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대상의 외형을 넘어서지 못하는 외적인 보기이며, 다른 하나는 천상의 비전, 즉 최고 영역의 가시적인 이미지를 감지하는 내적인 보기이다. 전자가 관자의 공허에서 비롯된다면, 후자는 관자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칸딘스키의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플로렌스키는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이며, 실재하는 존재론적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이콘의 얼굴을 일컫는 '리크(лик)'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러시아어로 얼굴을 나타내는 'лицо'는 일반적인 타자로서의 얼굴을 나타내지만 플로렌스키의 얼굴인 '리크'는 이콘의 얼굴로서 신적인 얼굴로 실현되며, 이데아로 파악된다.[17]

3. 예술현상으로써 페우르기야(Феургия)

플로렌스키는 이콘과 이코노스타스로 이어지는 자신의 예술미학을 페우르기야(Феургия)로 규정하고 있다. 페우르기야는 테우르기야(Теургия)의 그리스어 어원을 플로렌스키 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의미는 '신이 이룩한 일(богоделание)'이다. 베르쟈예프는 테우르기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 '테우르기야는 다른 세계, 다른 존재, 다른 삶, 본질로써 미를 창조하는 예술이다. 테우르기야는 창조의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창조적 에너지를 준다... 테우르기야는 신과 함께 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테우르기야가 신과 함께 하는 인간의 행위라면, 페우르기야는 신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를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에게 예술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합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인 동시에, 신과 함께 하는 현상의 모든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플로렌스키는 이콘을 단일한 예술적 유기체로 규정한다. 또한 이것에 완성은 정신적 경험과 이콘 제작의 경전의 일치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점에서 그는 인간의 정신이 신에 이르기를 기원하였으며, 하나의 통일된 본질에 이르기를 기원하고 있다. 종교화인 이콘을 통해 플로렌스키는 신 앞에서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духовное существо)'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다. 플로렌스키는 칸딘스키처럼 예술을 영적인(정신적인) 현상으로 여겼지만, 종교화인 이콘의 리끄를 정신적 형식의 가장 순수한 형상으로 이해했다.

---

17) 이덕형, 『이콘과 아방가르드』,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p. 510.

참고문헌

로스키, 블라지미르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에 대하여』, 박노양 옮김,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003,

석영중, 『러시아 정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이덕형, _____, “초월적 시선의 비교문학적 함의”, 「비교문학」, 제38권, 한국비교문학회, 2006, pp. 37-76.

_____, “카톨리코스(Katholikos)의 문화적 원리와 모자이크적 사유”,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42권, 2008, pp.155-184.

_____, 『이콘과 아방가르드』,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이명현, “종교적 르네상스로서의 러시아 은세기”, 「노어노문학」, 24권, 4호, 2012, pp. 385-413.

Misler, Nicoletta. *Beyond Vision: Essay on the Perception of Art,* London: Reaction books, 2002.

Putnam, George F. *Russian alternatives to Marxism: christian socialism and idelistic liberalism in twentieth-century Russia*, Knoxvill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77.

Андроник (Трубачев), Игумен. 『Теодицея и антроподицея в творчестве священника Павла Флоренского』, Томск: Водолей, Издание А. Сотникова, 1998.

Бычков, В. В., Русская теургическая эстетика, М.: Ладомир, 2002.

Жегин, Л. Ф., Язык живопис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М.: Искусство, 1970.

Иконостас.Происхождение-Развитие-Символика, ред-сос. А.М. Лидов, М.: Прогресс-Традиция, 2000.

Лосский, Николай.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философии. М.: Акаде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2007.

Соколов Н.Л. Участие С. Булгакова в революциях 1917 года (Политические деятели России 1917. б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1993). (http://www.hrono.info/biograf/bio_b/bulgakov_sn.php)

Успенский, Б. А. “Семиотика иконы”, Семиотика искусства, М.; Школа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1995.

Флоренский П.А., Сочинения. В 4 т. / Сост. и общ. ред. игумена Андроника (А.С.Трубачева), П.В.Флоренского, М.С.Трубачевой. - М.: Мысль,1996- 1999.

_____, Статьи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истории и философии искусства и археологии, М.: Мысль, 2000.

_____, Павел Флоренский и символисты: Опыты литературные. Статьи. Перепис

ка. сост. Е.В.Ивановой,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2004..
_____, Иконостас. Имена, М.: АСТ. 2009.
http://www.hrono.info/biograf/florenski/index.html(검색일:2015.1.30.)(플로펜스키의 편지글 모음)

205호

VI 세션 (러시아 외국인 교수 세션 1)

사회: Юшина Л.Ю.(한양대)

≫ 발표 1

Субстантивная номинация как сред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ерсонажа (на материале романа М.А. Булгакова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Юшина Л.Ю.(한양대)

≫ 발표 2

МЫ и ОНИ в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Полухина Е.Н.(배재대)

≫ 발표 3

Современные языковые модификации: за и против

Свинцова И.Ю.(한국외대)

≫ 발표 4

Образ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семантических полей

Поспелова М.С.(수원대)

Субстантивная номинация как средств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ерсонажа (на материале романа М.А. Булгакова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Юшина Л.Ю.(Hanyang University)

1. В в е д е н и е

Одной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стиля писателя в романе являетс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х форм причастий и имён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в качестве номинации лица, например: «Всё кончилось, *клетчатый* исчез», «Молчание нарушено было странным поведением *приведённого* к Пилату», «На пальцы *погребаемым* были надеты кольца», «Публика с изумлением поглядела на *говорившего*», «Настроение духа у *едущего* было ужасно», «*Дерущихся* разняли» и т.д.

Субстантивация как явле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бъединяющее имена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и причастия,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творчестве разных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1]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причастия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использующиеся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лица. Данная тема входит в контекст более широкой темы – о средствах выражения лица в предложении. Предмет данной статьи роль причастных и адъективных номинаций в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персонажей романа романа М. Булгакова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2].

В роман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лица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ются не только имена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нарицательные и собственные) и их «заместители» (личные местоимения. Адъективные и причастные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персонажей – характер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стиля писателя.

---

[1] Напр.: А.П. Чехов «Толстый и Тонкий, А. Грин «Бегущая по волнам» и т..д.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двергаться субстантивации могут не только причастия и имена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но и другие части речи – числительные (*первый*) и др., напр.: «Где сортир? – озабоченно спросил *первый*, который был в белой косоворотке». (с. 98).

Интересно, что псевдоним одного из героев романа (писателя Ивана Николаевича Понырева) *Бездомный* –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имя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ср.: *бездомный* пёс).

[2] Цитирование производится по следующим изданиям: Михаил Булгаков,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КРИСТАЛЛ», 2001; Mikhail Bulgakov, The Master and Margarita, *Translated by Richard Pevear and Larissa Volokhonsky*, PENGUIN BOOKS.

М. Булгаков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ует явление субстантивации имён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и причастий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того или и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эффекта.

Для понимания стиля писателя важно определить,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писатель прибегает к причастной и адъективной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й номинации пр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того или иного персонажа, какую роль играют те или иные рассматриваемые н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в создании образа, что это даёт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замысла писателя, ведь образ «лепится» средствами языка. Данная тема входит в контекст более широкой темы – о способах, особенностях номинации в произведении.

Способы номинации персонажей в романе различны, в романе есть персонажи главные и есть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и нас интересовало, как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наряду с именами собственными,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разных персонажей и чем это обусловлено.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ями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также могут входить в *банк* номинативных средст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ова их роль в романе Булгакова, в каких случаях он прибегает к ним, какова их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нагрузка», как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функции между разными видами номинаций?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ой руководствуется автор произведения при создании образа, диктует выбор конкретной формы номинации –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х адъективных форм или причастий, имен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с предлогом либо других средств, включая предложен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С позиций семантики номинация может производиться с опорой на разны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признаки,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именуемое лицо. Это может быть внешность (в широком смысле – черты лица, особенности фигуры, другие детали внешнего облика, в том числе одежда и т.д.), возраст, наличие или отсутствие какого-либо признака, физическое или 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лица,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действие, выполняемое им (или действие над ним, которому оно подвергается) и т.д.

Например,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обычно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номинацию по признаку внешности (или чертам характера).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обозначение действующего лица по признаку внешности более характерно для второстепенных персонажей.

Причастия представляют другой тип номинации, заданный его глагольной природой. Причастие 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по-разному участвуют в номинации, на разных семантических основаниях. В качестве доминирующего признака, положенного в основу номинации, могут быть выбраны разные параметры.

Рассмотрим отдельно каждый случай.

2. Номинации, выраженные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а д ъ е к т и в н ы е н о м и н а ц и и)

Как показал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а, для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типична номинация, произведённая с опорой на внешние признаки. Например:

1) «... Всё кончилось, марево растворилось, ***клетчатый*** исчез» (8)

2) «***Белогрудый*** сжал Аннушкино горло» (282).)

3) «– Дорогой мой, – задребезжал ***длинный***...» (330)

4) «... У ***сиреневого*** не не хватало чего-то в лице», «***Сиреневый***, провалившись в кадку, на чист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без признаков какого-либо акцента, вскричал» (с. 334).

Внешние признаки, положенные в основу номинаций в данных примерах (*клетчатый, белогрудый, сиреневый, диннный*) упоминаются в предыдущем контексте. Как правило,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чередуются в тексте с другими типами номинаций. В качестве доминирующего признака номинации часто выбирается признак, указание на который содержится в предыдущем контексте – в лексике, например в прилагательном-определении к другому имени:

< *клетчатый*>

(1) «... Соткался из воздуха прозрачный человек престранного вида. На маленькой головке жокейский картузик, ***клетчатый*** кургузый воздушный же *пиджачок*... (первое появление Коровьева).

«...Берлиоз отчётливо разглядел, что усишки у него как куриные перья, глазки маленькие, а *брючки* ***клетчатые*****)**

«Замыкал шествие маленького роста прихрамывающий иностранец <....>, без пиджака, *в* ***белом*** *фрачном жилете* и при галстухе» (282).

< белогрудый>

(2) «Аннушка собиралась скользнуть обратно в квартиру, как перед нею вырос дьявол его знает откуда взявшийся, *тот самый с* ***белой*** *грудью* без пиджака и тихо шепнул...» (282).

<*длинный* >

(3) «... Примерно через четверть часа после начала пожара на Садовой у зеркальных дверей Торгсина на Смоленском рынке появился ***длинный*** *гражданин в клетчатом костюме*», «– Дорогой мой, – задребезжал ***длинный***...» (330)

<сиреневый>

(4) «Низенький, совершенно квадратный *человек в* ***сиреневом*** *пальто* стоял у прилавка» – это первое появление персонажа, который далее именуется как *сиреневый клиент, сиреневая спина, сиреневый джентльмен, сиреневый покупатель, сиреневый иностранец*, *сиреневый толстяк*, *сиреневый гражданин* и наконец получает именование – ***сиреневый*** : «... У ***сиреневого*** не не хватало чего-то в лице, а, наоборот, скорее было лишнее – висящие щёки и бегающие глаза» (332), «*Сиреневый*, провалившись в кадку, на чист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без признаков какого-либо акцента, вскричал» (334).

Одна и та же морфологическая форма может выступать у Булгакова в разных ипостасях, в разных функциях – и как определение к имени (*клетчатый гаер, клетчатый помощник, клетчатый переводчик, клетчатый гражданин, клетчатый Фагот*, – 120 и т.д.), и как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имя, которое само мож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иметь при себе определение (*длинный клетчатый, этот клетчатый, развязный клетчатый, свалившийся ему на голову клетчатый* и др.). В романе встречаются как одиночные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формы, так и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е номинации. Напр.:

«*Развязный клетчатый* сам отрекомендовался финдиректору» (115).

«Но удивительнее всего были двое спутников чёрного мага: *длинный клетчатый* в треснувшем пенсне и черный жирный кот» (115).

«... С ним ещё двое: *какой-то длинный, клетчатый* ... и кот чёрный, жирный (63) – В данном примере местоименный определитель (*какой-то*) относится к двум адъективно-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 номинациям (*какой-то длинный, какой-то клетчатый*).

В качестве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й формы может,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определениями, выступать причастный оборот (в обособленной и необособленной позиции). Ср., напр.:

1) *Всякий посетитель*, попав в Грибоедова, сразу же соображал... (55) и

Всякий, *входящий в Грибоедова*, прежде всего знакомился с... (54)

2) Фагот поднял *сидящего* Бенгальского на ноги (121).

Сидящие в партере повернули головы (118).

В первых примерах из вышеприведённой пары примеров слово ‘всякий’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местоимен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и причастие ‘сидящий’ являются определениями (к слову ‘посетитель’ и к слову ‘Бенгальского’), во вторых – занимают позицию подлежащего (с рапространителями).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ь, выраженный причастным оборотом, может занимать препозицию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дъективу, напр.:

«Григорий Данилович осведомился *у свалившегося ему на голову* ***клетчатого*** о том, где аппаратура артиста» (115). В качеств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щего определителя в данном примере выступает

грамматически видоизменённый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й оборот (ср.: «свалиться кому-то на голову»), выражающий значение неожиданности действия (причастная модификация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го выражения «свалиться на голову»).

В основу номинации могут быть положен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ризнаки, выраженные самыми разны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формами, которые образуют *номинативную цепочку*, напр.:

«Маргарита Николаевна ехала по Арбату и прислушивалась к тому, о чём шепчутся двое граждан, сидевшие впереди неё. *Здоровенный*, *мясистый*, *с бойкими свиными глазками*, *сидящий у окна*, тихо говорил *маленькому* своему *соседу* о том, что пришлось закрыть гроб черным покрывалом...

- Да не может быть! - поражаясь, шептал *маленький*» (210).

В данном фрагменте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чередуются с другими типами номинаций, выстраивается целый номинативный ряд чередующихся именований, выраженных разны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причастиями, именными словосочетаниями): *здоровенный, мясистый, маленький*, *сидящий у окна*, *с бойкими свиными глазками* – так именует Маргарита незнакомых пассажиров, разговор которых она случайно подслушала в троллейбусе.

На основе анализа примеров можно сделать некоторое обобщение, касающееся алгоритма номинации у Булгакова. Большинство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х номинаций с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опирается на какую-то лексику, присутствовавшую до этого в контексте: один из признаков, обозначенный в контексте, становится доминирующим признаком в обозначении лица, кладётся в основу номинации: (***клетчатый*** *пиджачок*, *брючки* ***клетчатые*** => ***клетчатый***, *в* ***белом*** *фрачном жилете* => ***белогрудый***, *человек в сиреневом пальто*, *сиреневый клиент, сиреневая спина, сиреневый джентльмен, сиреневый покупатель, сиреневый иностранец*, *сиреневый толстяк*, *сиреневый гражданин* => ***сиреневый*** и т.д.). В основу номинации могуть быть положены самые разные признаки (рост, те или и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внешнего облика,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и т.д.). Например, персонаж, «назвавший себя Коровьевым» (в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Никанора Ивановича о фамилии), имеет в романе и другие именования, данные ему по внешним признакам: «*клетчатый*», «*рыжий*» (по цвету одежды – пиджака и «рыжего нечищеного ботинка» - 93), «*длинный*» (по росту).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адъективного типа, с именем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строятся на общем основании с именными номинациями (например, прозвище «Фагот» дано персонажу по признаку «дребезжащего» голоса (97) – «*клетчатый Фагот*» (120). См. ещё примеры:

«Прямо из зеркала трюмо вышел ***маленький,*** но ***необыкновенно широкоплечий***. И при этом ещё ***огненно-рыжий***».

«У камина ***маленький рыжий***, с ножом за поясом, на длинной стальной шпаге жарил куски мяса» (196).

«Опять-таки эта ***рыжая нагая*** в передней!» (Гелла – из свиты Воланда) (200).

Как показывают примеры, персонаж может иметь целую цепочку именований, выраженных словами разны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лассов. Номинация с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 при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о сравнению с номинацией именного типа, принципиально другой вид номинации. Свойства причастной номинации обусловлены глагольной природой причастия, ей присуще активное значение, номинация с причастием подчёркивает роль обозначаемого лица в конкретных ситуациях.

При этом важно, кто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именования, воспринимающим субъектом, дающим именование, – один и тот же персонаж в разных ситуациях может именоваться по-разному**,** например:

«Дядя Берлиоза был искренне поражён поведением *неизвестного*» (190).

В данном примере для дяди Берлиоза, прибывшего в Москву, встреченный им в квартире Берлиоза Коровьев – *неизвестный*.

Герои роман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итуации и именующего лица (воспринимающего субъекта, глазами которого дан тот или иной персонаж), именуются по-разному:

Иешуа: официальное имя – *Иешуа Га-Ноцри* («Голое тело *Иешуа Га-Ноцри* было с ним [с Левием Матвеем]»), *Га-Ноцри* (прозвище, по словам самого́ Иешуа); именования, выраженные имен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 *преступник, философ, философ-бродяга, бродячий философ*;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ем (в том числе распространённые): *обвиняемый, приведённый, арестованный, осуждённый*, *связанный, развязанный, упавший, повешенный*, *отвечавший*, *говорящий*;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ая номинация: «*никем не останавливаемый связанный*».

Воланд: *описываемый, подошедший*, *неизвестный*, *мелющий чепуху иностранец*, *повелитель*, *артист*, *маг*, *чёрный маг*, *иностранный маг*, *несуществующий*: «*этот несуществующий и сидел на кровати*» и т.д.

Свита Воланда:

Азазелло: *рыжий демон*, *рыжий*, «*доводящий до смертного страха Поплавского своим клыком, ножом и кривым глазом*» и т.д..

Коровьев: «*Коровьев, он же Фагот», «маг, регент, чародей, переводчик или черт его знает к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 словом, Коровьев*», «*клетчатый специалист-хормейстер*», *рыцарь*.

Кот: *Бегемот*, *Ганс*, «*валяющий дурака*».

служанка Гелла: *рыжая, нагая*

Мастер: *писатель*, *мастер* (так сам мастер себя называет – авто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в клинике – для Ивана: *неизвестный*, *пришедший*, *пришелец – гость – посетитель – лунный гость – рассказчик – слушающий* (для Ивана, рассказывающего мастеру свою историю), «*тот, кто называл себя мастером*» (136-137), *больной* (авторская ремарка), *тот* (местоименное замещение имени) и др.

Маргарита: *Маргарита Николаевна* (вежливое обращение других к Маргарите), *она*, «*моя возлюбленная*» (мастер о Маргарите Ивану), воспринимающий субъект – Иван: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незнакомка*, «*тайная жена гостя*»; *летящая, королева*, *королева Марго* (обращение к Маргарите на балу); *Марго* (обращение мастера к ней), *донна* (Воланд , обращаясь к ней), *косящая на один глаз ведьма*.

Иван: *Иван Николаевич Понырев*, *псевдоним Бездомный Иван*, *Иванушка*, *больной*, (в клинике).

Прокуратор: *прокуратор Иудеи Понтий Пилат, Пилат*, *игемон* (официальное обращение к нему), *больной*, *тот* (контекстная замена).

Автор: «*пишущий эти правдивые строки*»

Иуда: *влюблённый (*301*) – убитый (*301, 305*), грязный предатель Иуда* (прокуратор об Иуде, 31)*, негодяй* (прокуратор в разговоре с начальникой тайной стражи Афранием об Иуде).

Другие,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персонажи: *Аннушка, Чума* («она носила прозвище «Чума» 280), *Чума-Аннушка*.

Афраний: «*человек, никогда не расстававшийся со своим капюшоном*», «*начальник тайной службы*» (306) и т.п.

Левий Матвей: «*бывший сборщик податей*», *бывший сборщик*, *раб* (называет Левия Воланд), «*Его ученик*» (Левий Матвей о себе).

Персонажи именуются по-разному. Некоторые персонажи в романе имеют несколько именований. При этом важно, кто является автором именования, воспринимающим субъектом, дающим именование, – один и тот же персонаж в разных ситуациях может обозначаться неодинаково**,** получать разные имена[3]. Есть герои не только с полным именем, но и с псевдонимом и модификациями первого имени (напр.: *Иван Николаевич Понырев, Бездомный, Иван, Иванушка*). Второстепенные персонажи именуются по фамилии (Латунский, Берлиоз, Римский и т.д.), при этом среди них есть персонажи, полностью поименованные (имеют имя, фамилию и отчество – полное имя), другим Булгаков даёт только фамилию (критик Латунский) или только имя (Аннушка), и все эти употребления художественно мотивированы.

В случае если персонаж имеет ряд именований, писатель выбирает синоним-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целесообразностью.

В сеансе чёрной магии, например, номинация *клетчатый* (одного из свиты Воланда: «*клетчатый» / «Коровьев, он же Фагот» / «маг, регент, чародей, переводчик или черт его знает к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 словом, Коровьев» / «рыцарь»*) вполне уместна: персонажу отведена роль некоего шута, и «клетчатость» как деталь в костюм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клоунской роли (вспоминается костюм Арлекина или знаменитая клоунская клетчатая кепка Олега Попопва). В других контекстах он действует под другими именами (*Коровьева* и *Фагота)*, а в эпилоге, когда маски сняты, он уже и не *клетчатвый*, и не *Фагот*, и не *Коровьев*, а *рыцарь.*[4]

В романе есть персонажи *многоимённые,* а есть имеющие одно имя, одни номинации являются «постоянны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романа (напр., *Аннушка*), другие – нет.

---

[3] ‘Имена’ - в значении ‘именования’ данном случае.

[4] Такая многоимённост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бусловлена отчасти жанром романа и необычностью, спецификой данных образов.

Одноимённость персонажей может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б их типичности, почти «нарицательности» (образ *Аннушк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легко узнаваемый в своей типичности персонаж советских коммуналок). Восприятие образа складывается из суммы именований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 которые дают персонажу другие гер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В номинации может проявляться оценочное или эмоциона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именующего к обозначаемому объекту, автора к именуемому лицу. Поэтому имена *Аннушка* и *Иванушка*, при внешнем сходстве [5] имеют разные коннотации.

Система русских имён позволяет выразить целый спектр значений,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схожие образования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иметь разную коннотативную окраску: *Аннушка* и *Иванушка* в романе «прочитываются» неодинаково, в одном случае положительно (сочув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автора к герою – Иванушка), в другом – нет (*Аннушка* – «*Аннушка-чума*»).

Булгаков привлекает для именования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язык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имена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собственные и нарицательны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причастия, местоимения, предложен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Выбор конкретного обозначения лица обусловлен различными факторами, связан 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идеей, ключевой мыслью, которую писатель хочет донести до сознания читателя.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к образу Иешуа (ключевой образ романа). В части романа, посвящённой земной жизни Иешуа (после ареста),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подчёркивают его физические страдания (*связанный, упавший* и т.д.). Приоритетную значимость образа Иешуа в романе писатель акцентирует с помощью личного местоимения «он», входящего в цепочку именований: «*Он* прислал меня. *Он* прочитал сочинение мастера» (343). Имя нарочито не называется, не называемое лицо – Иешуа. Он же, Иешуа, имеется в виду и в неопределённо-лич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адресованном мастеру: «*Ваш роман прочитали*». Хотя *он* и не называется, подразумеваемое лицо этой фразы – не «некто», не неопределённое лицо, а вполне определённое – *Иешуа*.

Интересно, что сама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именований бывает значима, по ней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развитие сюжета и судьбу героя. Показателен в этом смысле образ Иуды: *грязный предатель Иуда – влюблённый – убитый – негодяй* (именно в так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этот образ в романе). Набор именований персонажа может да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его «истории», о его романной судьбе. Начальнику тайной службы Афранию поручено убить Иуду. Афраний, которому предстоит это дело, находит «слабое место» Иуды, его влюблённость в Низу и с её помощью выманивает его за город, где и осуществляет свой план,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торого *негодяй* (прокуратор об Иуде) получает по заслугам.

В начальных главах романа, описывающих мучения Иешуа, используются,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средствами,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ям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ассивных форм, что вполне логично:

---

[5] Одинаковая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слова: суффикс – *ушк*.

Иешуа показан как страдающий объект – *обвиняемый, связанный, упавший, отвечавший*, *осуждённый, казнённый* и т.д.).

3. Номинации, выраженные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и формами причастий (п р и ч а с т н ы е н о м и н а ц и и)

Существует определённая взаимосвязь значения номинации с её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ой. Номинации, выраженные причастиями, отличаются по значению от номинаций с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Если адъективные номинации тяготеют к обозначению *постоянных* признаков, то сфер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ричастий – обозначение *ситуативных* признаков, связанных с описанием конкретных событий, ситуаций, возникающих в ходе развития сюжетной лини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ричастные номинации используются пр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лица по действию – самого лица (действие, выполняемое им – субъектная субстантивация) или действия, выполняемог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му другими лицами (объектная номинация: персонаж именуется по состоянию, являющемуся результатом или реакцией на внешнее воз- действие или событие). Напр.:

«В руках у *кентуриона Крысобоя* пылал и коптил факел. ***Держащий*** его со страхом и злобой косился на опасного зверя [собака], приготовившегося к прыжку» (304).

При вторичном упоминании персонажа (*кентурион Крысобой*) используется синоним-заместитель, номинация с причастием – *держащий.*

«И тотчас все трое *открыли стрельбу* на веранде, целясь в голову *Коровьеву* и *Бегемоту*. *Оба* ***обстреливаемые*** сейчас же растаяли в воздухе» (341). [Обстреливаемые – Коровьев и Бегемот]

Булгаков любит именовать лицо по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действию (или событию, которое происходит в романе и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о с именуемым лицом). Именование посредством причастной номинации фокусирует внимание читателя на действии номинируемого лица, когда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находится персонаж ч*то делающий*? (или *подвергшийся / подвергающийся какому-то действию*) – это номинация не по типу *кто?*, а по типу: *какой*, *что делающий*?

Причастие, поставленное в позицию имен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несёт в себе не только предметное значение (номинация лица), но и значение действия, присущее причастию как глаго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Номинациям, выраженным причастиями, присуще *активное* значение. Они основываются на *действии,* совершённом самим именуемым лицом, взаимодействующим с другими персонажа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обытия», описанного в предыдущем контексте. Поэтому для такого типа номинаций характерна смысловая связь с контекстом, например:

«В эту минуту в столовую вошли двое граждан. И ***пришедшие*** немедленно устремились в коридор. А в чём дело? – спросил Никанор Иванович, следуя за *пришедшими*» (98).

«... Таинственный посетитель вошёл в комнату. Тут увидел Иван, что ***пришедший*** одет в больничное» (127- 128).

«Тотчас с потолка *обрушился* на пол растерянный и близкий к умоисступлению гражданин в одном белье...

– Могарыч? – спросил Азазелло у ***свалившегося*** с неба» (275)

«Третий... *курил* крепкие папиросы, и Маргарита раскашлялась, проходя мимо него. ***Курящий***, как будто его кольнули, вскочил со скамейки» (236).

«Из стены *вышел* мрачный человек в хитоне.

- Ба! – воскликнул Воланд, с насмешкой глядя на ***вошедшего***» (342)

«В комнате в полном одиночестве *сидел* средних лет небритый человек.

- Могу ли я виде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 вежливо осведомился экономист-плановик. ***Сидящий*** ничего не ответил. И тут в комнату *вошёл* какой-то гражданин. При виде ***вошедшего*** ***сидящий*** за столом побледнел. ***Вошедший*** что-то пошептал *сидящему* и тот, совершенно расстроенный, поднялся со стула» (188-189).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причастие сохраняя свою глагольность, значение действия и валентности исходного глагола в своей семантике, является своеобразной смысловой *скрепой*, связывающей части текста. Сюжетно-событийная линия романа обретает плоть, формируется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за счёт партиципиального ресурса языка, благодаря уникальным свойствам причастий.[6] *Ситуативные* номинации преобладают в романе.

Ситуативные номинации очень разнообразны по значению, они могут быть одиночными (однословные номинации: *идущие, отравленные, летящие*) или с распространителями, при этом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причастие сохраняет глаго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аходящиеся на террасе*, *стоящие внизу*, *бывшие в гостиной* и т.д.) Среди них можно отметить частотные[7] (*обвиняемый*, *сидящий, входящие*, *входящий, пришедшие, вошедшие, обвиняемый, арестованный, казнённые, желающие, опоздавшие, курящие, повешенный* и т.д.), менее частотные (*читающий*, *говоривший,*

[6] Шире: нефинитных глагольных форм – причастий и деепричастий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деепричастий не является предметом данной статьи).

[7] Многие из них приобрели статус терминов и отмечены в словарях.

шедшие, пострадавший, летящие, идущие, *кто-то из пришедших* и т.д.)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авторские, контекстуально-окказиональные (*свалившийся с неба, встретившийся*, *замаскированный, валяющий дурака, бегущие по лестнице, дожидающиеся*, *отравленные, все обедавшие, следовавшие за ним, жаждущие билетов, зарезавшие, одетые какими-то шутами гороховыми, первая раздетая, обстреливаемые, все встревоженные, погребаемые, приведённый; доводящий до смертного страха своим клыком, ножом и кривым глазом; усевшийся, подымавшиеся, ссорящиеся* и т.д.).

Среди номинаций с причастиями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различаются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ые, закрепившиеся в основном словарном состав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кружающие, неизвестный, главный*, *новый, рыжий*, *осуждённые* и т.д.) и есть «ситуативные», контекстуально мотивированные, созданные автором (*клетчатый, усевшийся*, *встретившийся* и т.д.).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ями всегда связаны смыслов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с контекстом, так как причастие называет лицо по действию, упоминавшемуся в предыдущем контексте. Этим объясняется и *дейктическая* (*отсылочная* – отсылающая к контексту) функция причастий. Причастие является маркером некоего «положения дел», описанного в предшествующем контексте (как сжатая пружина, которая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 контексте).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ями – это всегда *ситуативные* номинации: причастия не просто называют лицо, а указывают на действие или ситуацию, имевшие место или описанные ранее, поэтому их значение всегда привязано, «повёрнуто» к контексту. Контекстуальную «зависимость», прикреплённость номинаций с причастием к контексту иллюстрируют следующие примеры:

1) «Развернулась и взвилась шёлковая сеть, но ***бросавший*** её, к полному удивлению всех, промахнулся (326).

2) «*Пса вывели* из кабинета и *пустили* его в вестибюль, оттуда он вышел через парадный ход на улицу и привёл ***следовавших за ним*** к таксомоторной стоянке» (177).

3) «*Гость* приложил руку к сердцу, отказался что-либо ещё есть, объявил, что сыт. Тогда *Пилат* наполнил свою чашу, гость поступил так же. Оба ***обедающие*** отлили немного вина из своих чаш в блюдо с мясом и прокуратор произнёс» (288).

4) «На закате солнца высоко над городом на каменной террасе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красивых зданий в Москве ***находились*** двое: Воланд и Азазелло. Оба ***находящиеся*** на террасе глядели, как в окнах зажигалось ослепительное солнце» (341-342).

5)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грузовик уносил Рюхина в Москву. <...> Настроение духа у ***едущего*** было ужасно» (70).

6) «Гелла с воем вцепилась в шерсть коту, а он ей в ответ в волосы. ***Дерущихся*** разняли» (266).

7) «Все трое приложились к стаканам и сделали по большому глотку. Когда ***отравленные*** затихли, Азазелло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его глазах лицо ***отравленной*** менялось» (351).

8) «И вот два года тому назад начались в квартире необъяснимые происшествия: из этой квартиры *люди начали бесследно исчезать*. <...> Об ***исчезнувших*** и о проклятой квартире долго в доме рассказывали всякие легенды» (74).

9) «– Не желала бы я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ами, когда у вас в руках револьвер, - кокетливо поглядывая на Азазелло, сказала Маргарита. <... > Я [Коровьев] никому не рекомендую *встретиться* с ним [с Азазелло], даже если у него и не будет никакого револьвера в руках! ... Никто не поздравил бы этого ***встретившегося***» (266).

10) «Все окна были открыты. Из любопытства Маргарита заглянула в одно из них. Увидела кухню. Два примуса ревели на плите, возле них *стояли две женщины с ложками в руках и переругивались*.

– Обе вы хороши, – звучно сказала Маргарита, переваливаясь через подоконник в кухню.

«Обе ***ссорящиеся*** повернулись на голос и замерли с грязными лодками в руках» (224).

11) «В переулке народ бежал к дому Драмлита, а внутри его *по всем лестницам топали мечущиеся без всякого толка и смысла люди*. Домработница Кванта кричала ***бегущим по лестнице***, что их залило» (227).

12) «Человек в белом плаще *начинает идти* к луне. Рядом с ним *идёт* какой-то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Идущие*** о чём-то разговаривают с жаром» (375).

13) «С тем и *уехали* с Садовой, причём с ***уехавшими*** отбыл и подавленный секретарь домоуправления Пролежнев» (154).

Степень определённости лица в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ем может быть различной, от конкретной и определённой до неопределённой: это могут быть известные, определённые лица (примеры № 4 и №3: *Воланд и Азазелло* находились на террасе – *находящиеся* на террасе, *обедающие* – прокуратор и его гость), или неизвестные, неопределённые (примеры №1 и № 2 – *бросавший сеть*, *следовавшие за ним*). Значение номинации, как правило, конкретизируется в рамках более широкого контекста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не являю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и номинациями лица в тексте романа, входят в номинативную цепочку – совокупность обозначений именуемого объекта. Компоненты

цепочки могут быть связаны разными семантиче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синонимическими, метафорическими и т.д.)[8].

Булгаков избирателен в *выборе* средств пр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персонажей. Описывая свиту Воланда, он избегает сущностно-предметных именований, в «классическом» случае, выражаемых имен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от, например, фрагмент с описанием Азазелло (одного из свиты Воланда):

« – Азазелло! –

На его зов в переднюю выбежал *маленький*, *прихрамывающий*, *обтянутый чёрным трико*, *с ножом, засунутым за кожаный пояс*, *рыжий*, *с жёлтым клыком, с бельмом на левом глазу*» (с. 191).

Интересн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ерсонажа:

описывается внешность, но нет сущностного имени персонажа – *кто* Азазелло? Дядя Берлиоза не знает, кем является *неизвестный*, которого он встретил в квартире Берлиоза, поэтому не сказано *кто* встреченный им в квартире Берлиоз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 автор романа не даёт данному персонажу, представителю «тёмных сил» (*инфернальный* персонаж) предметно-квалифицирующего именования.

См. ещё аналогичный пример:

«*Этот маленький, доводящий до смертного страха Поплавского своим клыком, ножом и кривым глазом*, доходил экономисту только до плеча, но действовал энергично, складно и организованно».

А вот тот же персонаж в другом восприятии – «Аннушка собиралась скользнуть обратно в квартиру, как перед нею вырос *дьявол его знает откуда взявшийся*, *тот самый с белой грудью без пиджака* и тихо шепнул...» – в котором есть намёк на природу того, кто (*дьявол его знает откуда взявшийся*) «вырос» перед Аннушкой.

Одной из особенностей стиля писателя, которая проявилась и в создании данного образ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он избегает прямых оценок и предметных дефиниций в именовании персонажей (в особенности когда это касается таких, как члены свиты Воланда). Характеризуя Азазелло, писатель не называет *кто он*: это некто, «выглядящий так-то и действующий так-то», в романе нет предметн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сущностной дефиниции данного персонажа (хотя для дяди Берлиоза Поплавского, которого Азазелло спустил с лестницы, он – «*рыжий разбойник*»[9]). С намеренным уклонением писателя от прям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и оценок персонажей связана множественность трактовок и интерпретаций содержания романа, образов и взглядов самого́ автора романа.

В качестве языковых средств, используемых Булгаковым для именования персонажа, помимо именных сочетаний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с предлогом: *с ножом, засунутым за кожаный пояс*, *с жёлтым клыком*, *с бельмом на левом глазу*, *с белой грудью*, *без пиджака*) и номинаций с

---

[8] Данный аспект может стать темой отде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9] Но и в этом примере слово «разбойник» – это скоре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по действию, морально-оценочная, а не предметная («тот, кто разбойничает»).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и причастиями (*маленький*, *прихрамывающий*, *обтянутый чёрным трико*, *с ножом*) можно отметить *описате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напр.:

«У камина *маленький рыжий жарил куски мяса*» (196) – «*тот, что жарил мясо*» (197).

Как показал анализ материала, есть безусловная связь значения номинации с её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ой. Так, имена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обычно обозначают более постоянные признаки (по признаку внешности или чертам характера), тогда как причастия чаще связаны с взаимодействием именуемого лица с окружающими персонажами, они обозначают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ённое самим именуемым лицом или действие, совершённое по отношению к нему, над ним что выражается в различии активных и пассивных форм (действительных и страдательных причастий). Сфер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причастий – *ситуативные* номинации. Это согласуется с категориальной семантикой эт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классов слов (указание на вневременно́й признак в имена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и обозначение действия, развивающегося во времени, в причастиях).

4. П е р и ф р а с т и ч е с к и е н о м и н а ц и и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не являю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и номинациями лица в романе. Заслуживает упоминания ещё один вид номинаций. В арсенале номинативных средств, используемых Булгаковым для номинации лица, есть не только прямые номинации, но и *не* прямые, развёрнутые описательные именования персонажей, которые можно назвать *перифрастическими*, напр.:

1) «Трибун направил свои шаги к тому, кто ***сидел*** на трёхногом табурете, и ***сидящий*** вежливо поднялся навстречу трибуну» (с. 172).

Ср.: ***сидящий*** = *тот, кто* ***сидел*** *на трёхногом табурете*

2) «...*Бывшие* в гостиной отступали в кабинет и переднюю. *Те, что были* в столовой и спальне, выбежали через коридор» (с. 329).

Ср.: ***бывшие*** = ***те, что были*** *в столовой и спальне*

3) «А *двое, что шепчутся в троллейбусе*, тоже имею какое-то отношение...» (211).

«***Двое, что шепчутся в троллейбусе***» называет Маргарита двух незнакомцев, встреченных ею в троллейбусе, случайным свидетелем разговора которых она оказалась.

Причастным номинациям (*сидящий*, *бывшие*) в примерах выш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синонимы-заместители: «*тот, кто сидел на трёхногом табурете*», «*те, что были в столовой и спальне*».

Примеры *перифрастических номинаций* в романе многочисленны и их можно было бы продолжить: «*тот, что жарил мясо*», «*тот, кто называл себя мастером*» и т.д.

Одной из примечате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романа,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ей о мастерстве писателя,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Булгаков очень точен в том, как он называет своих персонажей, находя средств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логике развития именно этого образва.. Интересен в этом отношении образ начальника тайной службы (полиции) Афрания, характеризуя которого, Булгаков «не раскрывает» род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и, используя перифрастические именования, напр.:

«*тот самый человек в капюшоне, с которым Пилат имел мимолётное совещание в затемнённой комнате во дворце*» (165), «*человек, никогда не расстававшийся со своим капюшоном*» (306) и т.д.

Такой способ номинаци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художественно «оправдан», соответствует образу начальника тайной службы, действ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ого не должны, по 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афишироваться. Используя перифрастические конструкции, писатель не только делает образ немногословного Афрания убедительным и достоверным, но и создаёт флёр таинственности и секретности в романе, сохраняет интригу, держит внимание читателя.

5. С о п о с т а в и т е л ь н ы й а с п е к т

Отдельную тему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поставление явления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й номинации с языками других типов, например, с английским или корейским. Такое сопоставление выявляет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на фоне других языков, в которых *однословная причастная (или адъективная) номинация лица не всегда возможна*[10].

Трудности перевода связаны с тем, что нефинитные глагольные формы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е могут формировать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номинации со значением лица, как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р.: *читающий, пришедший, отравленные* и т.д.).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в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называется и действующее лицо, которо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мплицитно присутствует в значении причастия. В качестве слов, указывающих на *лицо*,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зны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 местоимения и имена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who, man, one, woman, those* и др.

---

[10] Ср. пример адекватного перевода.: «Замыкалась процессия солдатскою цепью, а за нею уже шло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любопытных* (***the curious***), на испугавшихся адской жары и желавших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при интересном зрелище. К этим *любопытным* (***the curious***) из города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теперь *любопытные богомольцы* (***the curious*** *from among the pilgrims*), которых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ропускали в хвост процессии» (с. 165) – p. 239).

Номинации с причастиями и адъективами перводятся разными способами,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азны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глагол, имена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местоимения и т.д.), напр.:

1) «Развернулась и взвилась шёлковая сеть, но ***бросавший*** её, к полному удивлению всех, промахнулся (326). / 'The net unfolded and soared upwards, but ***the man who cast*** *it*, to everyone's utter astonishment, missed' (487).

2) «Куда направились *двое* ***зарезавших*** *Иуду*, не знает никто» (301-302) / "Where *the two* ***who had stabbed*** *Judas* went, no one knows" (450).

Ср.: ***бросавший = the man who cast***, *двое* ***зарезавших*** *Иуду = the two* ***who had stabbed*** *Judas*.

3) «Да, это был, несомненно, главный. Он *сел* на табурет, а все остались стоять.

– Доктор Стравинский, – представился ***усевшийся*** Ивану» (85).

Ср. английский аналог данного примера: "Yes, this was unquestionably the chief. He *sat down* on a stool, while everyone else remained standing. 'Doctor Stravinsky', ***the seated man*** introduced himself to Ivan" (121).

Ср.: ***усевшийся = the seated man***

4) «**...** Таинственный посетитель вошёл в комнату. Тут увидел Иван, что ***пришедший*** одет в больничное» (127- 128). / "The mysterious visitor stepped into the room. Here Ivan saw that ***the man*** was dressed as a patient" (183).

5) «Он [Левий] первёл взгляд повыше и разглядел фигурку в багряной военной хламиде, поднимающуюся к площадке казни. ***Подымавшийся*** на гору в пятом часу страданий разбойников был командир когорты» (172).

'***The man climbing*** the mountain in the fifth hour of the robbers' sufferings was the commander of the cohort' (250).

Ср.: ***подымавшийся*** на гору = ***the man climbing*** the mountain

6) «В полном молчании ***вошедшие*** в гостиную созерцали этого кота в течение довольно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 М-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дорово... – шепнул *один из* ***пришедши****х*» (326).

Английский аналог: '***Those who entered*** the living room contemplated this cat for quite a long time in total silence.

'Hm, yes … that's quite something … *one of the* ***men*** whispered" (487).

Ср.: ***вошедшие = those who entered***

7) «Теперь по лестнице снизу вверх *подымался* поток. **<…>** Маргарита поймала взглядом среди ***подымавшихся*** ту, на которую указывал Коровьев» (254). – "Now a steady stream was coming up the

stairs from below. **<… >** Margarita's glance picked out among ***those coming up*** the woman at whom Koroviev was pointing' (378-379)

8) «***Сидящие*** в партере повернули головы» (118). '***Those sitting*** in the stalls turned their heads' (p. 170).

9) «***Летящая*** (*the flying woman*) любовалась тем, что луна несётся под нею» (с. 229 / p.342)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и переводе причастной номинации других, неглагольных средств приводит в ряде случаев к неточности перевода, к утрате аутентичности текстов.:

«И вот два года тому назад начались в квартире необъяснимые происшествия: из этой квартиры люди начали бесследно исчезать. <...> Об ***исчезнувших*** и о проклятой квартире долго в доме рассказывали всякие легенды» (74).

Ср.: 'And then two years ago inexplicable events began to occur in this apartment: people began to disappear from this apartment without a trace' (p. 103) <…> For a long time all sorts of legends were repeated in the house about ***these disappearances*** and about the accused apartment' (104).

Причастие *исчезнувшие* переведено неодушевлённым имен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these disappearances*.

В следующем примере номинация с причастием переведена именем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что не вполне передаёт значение оригинала (утрачивается значение процессуального действия):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инут грузовик уносил Рюхина в Москву. <...> Настроение духа у ***едущего*** было ужасно» (70) / '***The rider's*** state of mind was terrible' (97).

Аналогичная ситуация имеет место и с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ср.: «Молчание нарушил этот ***неизвестный*** (75) / "The silence was broken by this *unknown* ***man***"(105).

«Итак, ***неизвестный*** погрозил Ивану пальцем и прошептал: «Тсс!» (127). / "And so, *the unknown* ***man*** shook his finger at Ivan and whispered: 'Shhh! …'" (183).

Ср. некорректность употребления: *the unknown.

«- Они, они, - козлиным голосом запел ***длинный клетчатый*****,** во множественном числе говоря о Стёпе» (81) / 'Theirself, theirself!' ***the long checkered one*** sang in a goat's voice, referring to Styopa in the plural' (114).

В английском «портрете» Азазелло также используются слова-помощники, маркеры лица, отсутствующие в русском тексте (и не нужные, так как сема лица входит в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номинации с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man, one*. Напр.:

«Прямо из зеркала трюмо вышел ***маленький,*** но ***необыкновенно широкоплечий*** (*a short but extraordinary broad-shouldered* ***man***,114) в котелке на голове и с торчащим изо рта клыком,

безобразящим и без того невиданно мерзкую физиономию. И при этом ещё ***огненно-рыжий*** (with flaming red hair)

- Я, **-** вступил в разговор ***этот новый*** (*this new* ***one***), **-** вообще не понимаю, как он попал в директора, **-** ***рыжий*** гнусавил всё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Я это и говорю, **-** прогнусил ***рыжий***» (81).

На фоне сравнения с другими языками (напр., английским)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номинации с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ми причастиями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ми – это огромный ресурс,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й о богатств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6. З а к л ю ч е н и е

В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семантике причастий и имён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заложены возможности их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тегориальные значения этих классов слов прогнозируют содержание и сферу их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адъектив – обозначает более постоянный признак, при описании же событийной стороны романа используется причастно-субстантивная номинац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спределе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ролей» диктуе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заложено в категориальной природе данных классов слов – этим и определяются разные «задачи» причастия и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которые они выполняют в качестве средств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ерсонажей, героев романа.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обозначает лицо по его качеству (свойству и т.д.), а причастие – по действию, которое совершает лицо (активные формы – действительные причастия) или по действию, которому подвергается лицо (пассивные формы – страдательные причастия).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е формы причастий и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субстантивируясь, не превращаются в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сохраняют в своей семантике свою «первичную» категориальную семантику: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 присущее ему значение признака, причастие – значение действия, все валентности исходного глагола.

Субстантивация – интересное явлени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ее о богатств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ыбор конкретного обозначения лица всегда обусловлен различными факторами, и субстантивация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вать номинации, обладающие практически любыми семантическими харктеристиками.

Причастные и адъективные номинации входят в арсенал номинативных средств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три вида номинаций, используемых писателем в романе (причастные, адъективные и перифрастического типа). Какова роль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ых номинаций в ряду

других именований, как распределяются функции между разными видами номинаций и какова их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нагрузка» в произведении – эти вопросы требуют дальней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МЫ и ОНИ в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е мира

Полухина Е.Н.(배재대))

Термин «языковая картина мира» (ЯКМ) в научный обиход был введён немецким лингвистом Лео Вайсгербером и трактуется в учебной и справо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вшаяся в обыденном сознании данного язык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и отражённая в языке совокупнос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мире, определённый способ восприятия и устройства мира, концептуализац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особенности членения и категоризации внешнего мира, закрепленные в языке,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влияние на носителя языка в процессе познания и освоения этого мира» [Словарь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2006].

Хотя разработке этого понятия посвящено немало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к в зарубежном, так 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ознании, споры о его наполнении до сих пор живо ведутся на страницах научной периодики.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оживились споры о правомерности деления ЯКМ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ЯКМ. Мы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ом, что в любом язы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два аспекта: универсально-объективный, связанный с отражением в нём объективной реальности, и субъективно-национальный (или идиоэтнический), отражающий мировидение носителей данного языка.

Реконструкция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составляет одну из важнейших задач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семантики. Анализ работ, посвящённых наблюдениям за ЯКМ,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исследование данного феномена, как правило, ведется в одном из двух направлен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сследуются отдельные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данного языка (лингвоспецифичные) концепты**,** являющиеся «ключевыми» для данной культуры, то есть направл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определяет схема: «ключевая идея» – концепт – его языковое покрыти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 основании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отдельных единиц определенного языка производится реконструкция цельной системы представлений о мире, запечатлённых в данном языке. То есть основным принципом выступает принцип «от частного – к целому»: от описания отдельных фрагментов ЯКМ – к воссозданию общей картины.

В задачи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входит наблюдение за неким фрагментом русской ЯКМ, языковым покрытием которого выступает бинарная оппози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в названии доклада.

Личные местоимения концепту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МЫ и ОНИ уже становились предметом науч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Материалом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служили тексты из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рпу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хрестоматии «Живая речь уральского города», из комментариев с сайтов русского интернета (Одноклассники, Фейсбук, некоторых новостных сайтов), в языковом материале которых встречаются вышеупомянутые местоимения в их субстантивированном значении. Кроме того, наличие в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арсенале русского зыка неопределённо-личных и определённо-личных конструкций позволило нам также включить в круг исследуемого материала высказывания, в которых идея «МЫ – ОНИ» выражена имплицитно.

В своём исследовании, в качестве базовой, мы опирались на методологию, разработанную в рамках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го синтаксиса, а также лексической семантики, нашедшую отражение в работах Т.П. Ломтева, Т.В. Шмелёвой, М.Г. Шкуропацкой, Арутюновой Н.Д., Уфимцевой А.А.

Анализ отобра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показал, что ОНИ (так же как и МЫ) выступают репрезентантом некоторой коллективной сущности, имеющей сложную структуру,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особенности которой поможет выявление сфер «бытования» отде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этого комплекс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еопределённость субъектов является таковой лишь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и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снимается языковым контекстом, что позволяет выделить некоторые среды обращения МЫ и ОНИ.

В среде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Ы, также как и ОНИ, обращаются как некий комплекс, имеющий иерархическую структуру. В языковом сознании носител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тношения главных фигурантов принимают форму активного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я, причём не только ИХ поступки трактуются отрицательно, но и НАШИ действия оцениваются резко негативно. Наиболее частотный сценарий отношений участников ситуации – конфликт сторон. Ситуация отождествления («ОНИ – такие же люди, как МЫ») возможна, как правило, в контекстах «общего неблагополучия», когда и ОНИ, и МЫ выступают в качестве жертв неких третьих сил. Оценочность, по сути являющаяся факультативным модусным смыслом, выходит на первый план содержания в качеств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элемента описания.

В некоторых контекстах границы между ОНИ и МЫ оказываются размытыми, а роли участников неочерченными и определяются говорящим не вообще, а лишь в процессе речевого акта. В этом случае уместно говорить о среде «*отчуждённых своих*», каковыми могут стать родственники, коллеги, друзья или «*свои*», выделенные из общей массы по какому-либо соци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либо совершающие неверные действия. В том случае, если автор высказывания формально не переключает регистр, оставляя этих субъектов в сфере МЫ, желание выделить себя из группы

приводит к появлению неожиданной оппозиции Я–МЫ. Среду «отчуждённых своих» характеризует активная ролевая подвижность.

ОНИ, обращающиеся в среде *масс-медиа*,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сознанием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о, а их деяния вызывают презрение своей ничтожностью. Все высказыва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ироническим пафосом, рисуя картину лживого, не заслуживающего доверия источника информации, основное назначение которого – манипулировать НАМИ, НАШИМ сознанием, преследуя крайне недостойные цели.

Основным действующим лицом в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ных средах оказываются ОНИ, обычно занимая в пропозиции предложения место субъектного актанта, чаще всего агенса, обращающегося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го и психического действия. МЫ, как правило, выступает в роли объекта (пациенса) либо адресата.

Среды обитания и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и ОНИ не имеют чётких границ, зачастую «перекрывая» друг друга. Круг их может быть расширен в рамках последующего анализа.

Современные языковые модификации: за и против

Свинцова Ирина(Ханкук Университет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Языковая модификация, происходящая в языке под влиянием социальных факторов, - проявление языковой вариативности на различных языковых уровнях: лексическом,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стилистическом. Она может возникать в результате ка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язык (напр., создание нов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так и опосредованного воздействия - через тексты. В частности, модификации языка массов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тилистические, лексические и др.) обусловливаются такими экстралингвистическими параметрами, как содержание текстов, их тип, жанр, уровень аудитории, на которую они рассчитаны.

Изучение язы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человека, осмысление того, как личность владеет богатством языка, насколько эффективно им пользуется – очень важная и актуальная задача.

Каждый образованный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научиться оценивать язык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вои и собеседников, чтобы в той или иной ситуации оказаться способным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речевое богатство своего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язык граждан привлекает все большее внимание журналистов, ученых раз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Он становится предметом острых и частых диспутов и дискуссий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Событи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XX века привели язык в состояние, которое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рядом специфически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1. Расширяется состав участников массовой и коллекти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овые слои населения приобщаются к пиарной практике, прямо или косвенно прикасаются к орато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2.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значительно ослабле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языка в целях общения.
3.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сфере бизнеса, менеджмента возросла роль языка в таких его формах, как диалог.

4. Расширяется сфера и возможности спонтанного, никем не контролируемого общения.

5. Меняются языковые параметры общения, которое все более предполагает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при деловом языковом партнерстве.

6. Ослабляется официальное публичное языковое общение. Появляется многообразие видов и жанров соци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основанной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и языка как основного механизма коммуникации.

7. Возрастает негатив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языковым штампам и моделям прошлого, которое связывается в памяти общества с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режимом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8. Во всех слоях общества возрастает стремление выработать некие языковые средства, понятные и доступ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любой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9. Из языкового прошлого возвращаются некоторые языковые формы,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вергнуты в эпоху тоталитаризма.

Свобода и раскрепощенность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действий повлекли за собой языковые модификации. Они обнаружили себя в расшатывании языковых норм, в языковой вариативности, не всегда соотносимой с литературными нормам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речи синонимов, антонимов, омонимов, паронимов и омографов, безусловно, является важнейшим показателем речевой культуры человека, свидетельством его развитости, образованности, грамотного обращения со своим родным языком.

Все виды варьирования языка возникают под действием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К этим факторам относятся: время, пространство, соци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и пр.

Напомним, что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является эталоном, высшей формо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языка. Он имеет ряд отличительных свойств:

- обработанность,
- нормативность,
- широт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 общеобязательность,
- развитость функционально-стилис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Что касается языковых модификаций, то они бывают в основном двух видов: 1) ошибки; 2) креативные употребления.

Публицистика России сегодня - это огромный выбор тем и приемов для их освещения. Освобождаясь от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речи, журналисты обращаются к новым, более действенным, экспрессивным средствам выражения оценки.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й текст выполняет и информативную, и воздействующую функции,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менно функция воздействия на читателя выходит на первый план.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авторы используют различные приемы, помогающие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передать эмоции, сделать публикацию ярче, расставить необходимые акценты.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 активные помощники в этом деле. Показателем их активности является

частотность употребления, а также их трансформация в модели, по которым создаются новые языковые единицы.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 это специально или стихийно отобранные тексты, принадлежащие конкретной речевой культуре, важные для нее, допускающие различные формы их вторич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определенных задач. Такие тексты хорошо знакомы большому количеств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акого-то конкретного (например,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лингвокультур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когнитивную базу которого входят инварианты их восприятия. Такие тексты превращаются в своего рода символы, отправные точки, которые даже при кратком к ним обращении помогают воссоздать полную картину или ситуацию. Лингвисты к прецедентным относят значимые явления разного рода: от имён собственных личностей до событий и фактов, входящих в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й или общечеловеческий фонд.

В русской лингвистике проблемой прецедентных текстов занимаются такие ученые, как Караулов Ю.Н., Костомаров В.Г., Баранов А.Н., Гудков Д.Б., Красных В.В. и другие. Баранов А.Н. и Караулов Ю.Н. к таким текстам причисляют цитаты из письменных и уст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азлич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словицы, поговорки и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сочетания.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имеют уже готовую структуру и часто просто воспроизводятся в речи носи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Ю.Н. Караулов считает, что нельзя связывать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только 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ой. По его мнению, такие тексты «могут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ться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кинофильмов, театр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популярных песен, названий произведений, других видов искусства (живопись, музыка), рекламы». Знание прецедентных текстов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языковой личности к данному обществу, определенной эпохе, культуре.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является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массового читателя. Именно этой цели и служат такие языковые конструкции, которые побуждают к размышлению, вызывают эмоциональную реакцию на получ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Язык предоставляет богатый набор лексических,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х единиц, обладающих экспрессивностью и оценочностью.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легко узнаваемые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содержащие в себе различ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культурные, научные и др.) знания о мире, широко используются для этих целей.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ецедентных текстов в газетных и журнальных статьях и их адекватное восприятие являются необходимыми составляющими общей культурно-речев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овременной языковой личности.

Многие считают, что заголовок является квинтэссенцией газетной или журнальной стать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именно в нем эффе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Компактность и образность прецедентных текстов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оздать на ограниче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заголовка статьи семантическое поле, способное вызвать у читателя цепь ассоциаций.

В заголовках материалов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Коммерсантъ» - газете «Коммерсантъ», журналах «Деньги», «Власть» - очень часто используются прецедентные тексты. Разумеется, для их понимания даже носителям языка необх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культурный опыт. Без знания того, что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текстовым шлейфом, тянущимся за языковыми формами, невозможно полноценное поним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а устных и письме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Тем более это важно при обучении языку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являющих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к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публицистике. Это можно объяснить тем, что именно СМИ становятся для многих из них источником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о стране, государстве (в конкретном случае о России), о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политическом и культурном аспектах, выполняют ориентационную функцию.

Современные газеты и журналы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общедоступностью, усилением информативности, повышением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значимости, максимальной приближенностью к речи массовой аудитори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для точного понимания такого рода текстов необходимо знание реалий, стереотипных образов и ситуаций,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текстов популярных песен, фольклора и т.п.

Приведем примеры заголовков, «работающих»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внимания читателя, встречающихся на страницах газеты и журналов Издательского дома «Коммерсантъ»:

1. *Инструкция по выжиманию*

Каламбур, похожесть в звучании «выжиманию/выживанию»

Здесь: незаконные способы отбирания денег у граждан на основании созданных банками правил=инструкций

Исходная фраза: *инструкция по выживанию*

Сотрудник «Денег» доказал в суде незаконность банковских комиссий за открытие и обслуживание ссудного счета.

2. *Музей войсковых фигур*

Каламбур, игра слов, похожесть в звучании «войсковых/восковых»

Исходная фраза: *музей восковых фигур*

23 февраля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исполнилось бы 80 лет. Всеми своими победами и поражениями она обязана своим главным командирам – маршалам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Звание маршала всегда было символом признания исключительных заслуг и венцом карьеры. Получивший маршальское звание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падал в разряд небожителей.

3. *Free больше*

Каламбур, похожесть в звучании «free(английское слово)/ври (русское слово)»

Free = бесплатно

Исходная фраза: *ври больше*

До сих пор бесплатными были только советы да еще сыр в мышеловке. Но очень скоро в этот список можно будет включить компьютеры, модемы,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и другие полезные вещи. Бесплатные товары не обман - это маркетинг XXI века.

Все эти заголовки имеют исходный источник, от которого они произошли. Подобные названия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содержащие игру слов, безусловно, очень эмоциональны и выразительны. В них есть авторская оценка факта, события, личности, которым будет посвящена статья. Читателя заглавие привлекает одновременно своей узнаваемостью, привычностью фразы, слова и новизной. Раньше в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доминировали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заголовки-ярлыки. Сейчас в СМИ наблюдается авторская свобода: в заголовках можно увидеть аббревиатуры, цифры, разговорные слова, сленг, фрагменты на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они могут быть довольно многословными, включать цитаты. Хороший заголовок – своего рода произведение искусства, доставляющее эстетическ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ярко, компактно представляющее материал всего текста статьи. Композиция, мелодика, ритм, образность являются важными факторами, обеспечивающими публикации успех. Материал заголовков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очень интересен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Другую сторону языковых модификаций представляют разного рода ошибки. Они встречаются на всех языковых уровнях - фонетическом, лексическом, грамматическом (падежном и синтаксическом), фразеологическом, стилистическом и, наконец, прост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Язык наш развивается, обогащается, упрощается, увы, деградирует. Придумываются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новые" слова, которые по сути являются искажениями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х: **истерировать**, **эмоционировать**, **депрессировать, агрессировать** (иногда — **агрессивничать**).

Раньше люди по простоте своей высказывались, делились мыслями, идеями. Теперь всё, что приходит на ум, либо **озвучивают**, либо **транслируют**. Фактами **"апеллируют"**. Это же слово, бывает, используется и вместо «оппонировать», и вместо «опровергать».

"Безумно" стали так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значении "чрезвычайно (очень,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что появилась надежда однажды услышать "безумно умный"; и это было произнесено на канале "Культура".

"Дико", которое тоже часто выступает как "очень": дико приятно, дико неприятно, дико ухоженный. К счастью, это прозвучало на другом канале. На других каналах можно спокойно услышать: получать **потрещины**, **землянистный** цвет лица, **идти высоко с поднятой головой**, **насущие** проблемы, **пучок в районе нижнего затылка**, **командовающий**, **пытает** к ней чувства, никому **не поздоровается**.

Часто употребляемой стала рассогласованность по роду и числу. "**Вы прекрасна, вы хороша, вы умна, вы загадочна, вы талантлива, вы ужасна,**" - это кому попало говорят иногда по телевизору.

В письменном варианте еще хуже: **припадает** (преподаёт), **локальность** (лояльность), **безымянные мне дамы** (неизвестные), **каламбур** (кавардак), **колит** (колет), **резня** (резьба),

консервант (консерватор), **компрессор** (компресс), **органический** (органичный), **некомпетентный** вопрос (некорректный), **предосудите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ительно), **лепит** (лепет), **зализать** (залезать), **не преступен** (неприступен), **умолять** (умалять), **проведение** (провидение), **калия** (колея), **без инцестов** (без инцидентов), **папильотки** (папилломы), **максимума** (максима), **декларация** (декламация), **богемский** (богемный), **мадригал** (маргинал), **всё образумится** (образуется), **войти в аналоги** (в анналы).

Незнание имен и явлений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также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ошибки: **Среднезимноморская кухня. Царство Матфея. Авдеевы конюшни. Салат с Цезарем. Трояндский конь. Азбука морза. Коктейль молотого. Плач Мирославны. Гонк Конк. Мореуполь. Эль Брус. Бовария. Экзю Пери. Инштейн. Де Пардье. Дебальзак. Астапа несло. В Йош-Короле. Пичёрин. Дженэер (Джейн Эйр). Узник замка Ильф. Кладовое солнце. Юнона и Авосья. Тарас Бубля. Доль-чи-гобано. Ивсе Лоран. Иосиф Броцкий. Куртко Бэйн. Словарь Ожигова. Портрет Дорианы Грей. Шапка из Мономаха. В стиле Анны Каренины.**

Ошибки в построении предложений.

Как настоящий англичанин, Камбербэтчу не отнимать аристократичности. Почувствовав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шок прошёл. Старый Новый Год, этот Новый Год, Рождествы - аж две штуки. С наклоном на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Места в царском ложе в Мариинском театре. Отсутствие мозга в коробке головного черепа. Иван Иваныч собственной персоны. Не выпуская сигарету из-зо рта. Я от вас в фуроре. Дом близь Парижа.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зного рода ошибок**: разглаголивать, лебездить, скорялировать, облягающий, инфальтивный, образивный, корокотовый** (терракотовый), **пересиленец, минорет, сиждется, превуалирует, оппозиционируется** (позиционируется), **терапевтия, мировоздание, деспод, в закорма, муминизация** (мумификация), выкормышь, **нарожен** (на рожон), **под итожем, обрыбело** (обрыдло), **мускусный орех** (мускатный).

У некоторых людей есть любимые буквы. Догадайтесь, какие это буквы: **шизойд, фотогейничная, ничайно, не чайно, рейпер, помойму, нудийский пляж, гайшник, руберойд, уважаймый, маломайская (маломальская), скойч (скотч), кричайший, полицийя.**

Слова, "пережившие операцию по перемене пола": **всю свою либиду, попал на собственный похорон, кафе был полон, настоящая кладезь, натуральный замш, серый портупей, большая покрывала, пышный жабо, меховая балеро, некачественный пластмасс.**

Груст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языковая модификация в форме ошибок начинает превалировать.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остановить эту тенденцию. Развивать же необходимо модификацию креативную.

Образ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семантических полей (на примере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Запа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спелова Марина Сергеевна(The University of Suwon)

Введ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емантическая категория “Запах” выражается различ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Данные различия отражены как в парадигматическом, так и в синтагматическом аспектах.

В парадигматике по семантическому параметру “оценка” поле запаха подразделяется на микрополя “Приятный запах” и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 ”. Приятный запа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е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субстантивного синонимического ряда с доминантой *аромат*, глагола *благоухать* и синонимически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с доминантой *ароматный*.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 выражен группой субстантивных синонимов с доминантой *вонь*, глаголами *вонять, смердеть* и адъективными синонимами *зловонный, смрадный, вонючий*.

Интенсивность запах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ется имплицит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т. е. единицами *смрад, запашок, душок, попахивать* и др. Обозначения сильного запаха входят в микрополе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 а обозначения слабого запаха в основном (кроме некоторых глаголов)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йтральнооценочными единицами, к примеру: *душок, припахивать, отдавать, отзывать, отзываться, попахивать*.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уществует глагольное микрополе для обозначения движущегося запаха. Данные глаголы (*тянуть, нести, разить, смердеть, попахивать, припахивать, веять, пахну'ть* и др.) противостоят по общей оценке и интенсивности.

Семантически неотмеченные средства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Запах” не получают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целом ряде синонимических словарей.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метим, что в синонимический ряд средств обозначения да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й должны быть включены следующие субстантивные единицы: *запах, дух, дыхание* (поэт.), и *пах* (устар. и обл.). Синонимическая пара *дух* и *запах* противостоят прежде всего синтагматически. “Абстрактность/конкретность”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емантических параметров, по которому члени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ое поле “Запа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реди средств прямой номинации запаха преобладают абстрактные наименования, а конкретн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ими разговорными словами (*псина, винище, табачище*). Недостаток слов с конкретным значением здесь восполняется средствами вторичной номинации: *Из бочки тянет **бензином*** (ср.: *Из бочки тянет запахом бензина*).

Компонентами семантической структуры предложений, обозначающих запах, являются источник (или носитель) и содержание запаха. Данные компоненты выражаются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лексическим наполнением). Например, источник запаха обозначается двумя предложно-падежными формами: 1) родительным падежом имен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или местоимения с предлогом ***от***; 2) родительным падежом с предлогом ***из***.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запах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ыражае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определений, в частности, эпитетов, которые поддаются группировке по тематическому и номинативному параметрам.

Результаты изучения парадигматики и синтагматики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Запах” могут применяться в составлении идеографических словарей. После рассмотрения идеографических словарей, в которые включена тематическая зона “Запах”, можн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в некоторых тематических словарях не учитывается словесная синтагматика, даётся лишь информация о лексических классах. Анализ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 русской лексикографии полная и адекватная картина данного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отсутствует.

1. Вторичные средства описания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Запах».

Как известно, номинативные средства языка подразделяются на средства прямой номинации и средства вторичной (семантически производной) номинации. Разновидности последней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по Аристотелю, “перенесение … имени с рода на вид, или с вида на род, или с вида на вид, или по аналогии” (Аристотель 1957, с. 109).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сновными приёмами вторичной номинации считаются метафора (в узком смысле), метонимия, синекдоха, гипонимизация, гиперонимизация, при которых “имеет место непрямое отображение внеязыкового объекта, опосредуемое «предшествующим» значением слова, те или иные признаки которого играют роль внутренней формы, переходя в новое смысловое содержание” (Телия 1977, с. 129 - 130).

Очень важной является степень активности каждого из типов номинации в том или ином языке, так как “от соотношения удельного веса каждого из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номинации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устройство лекс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языка в каждый момент 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Шмелёв 1982, с. 6).

Рассмотрим “удельный вес” метафоры и метонимии как средств вторичной номинаци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 материале анализируемого поля).

2. Метонимическ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оле “Запа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известно, метоним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еренос названия с одного предмета (явления, действия) на другой на основе их смежности” (Касаткин 1991, с. 23).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есть целая группа слов, обозначающих запахи предметов, например: *аромат, вонь, благовоние, запах* и т. д., и есть слова, которые могут обозначать предметы-носители или источники запахов, но сами по себе запахи не обозначающи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ловари большинство этих единиц в таком значении не фиксируют). В определённых синтаг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некоторые из этих слов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получают значение запаха, подвергаясь метонимическому переосмыслению. Анализируя собранный материал, заметим, что семантическое поле запаха обслуживается всего одной формулой метонимического переноса (с носителя или источника запаха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пах), но зато эта формула отличается удивительно высокой продуктивностью.

Данную метонимическую формулу представим в виде модели «носители / источник запаха → конкретный запаха». Этот перенос в лексической выборке нередко представлен случаями собственно лексической (то есть получившей языковой статус) метонимии. Регуляр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в новой номинативной функции, как известно, приводит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у слова нового лекс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которое чаще всего фиксируется толковыми словарями. В этом плане очень показательной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слова *гарь*. Так, в БАС-2 даются: 1) прямое значение этого слова: “Продукты сгорания в виде мелких твёрдых частиц, переносимые дымом”, например: *В лицо пахнуло жаром и мелкой пылью пороховой* ***гари*** (Лавренёв. Подвиг); 2) “Запах горелого, сгоревшего: *Чувствую* ***гарь****, выскакиваю в кладовку, вижу пламя* (Леонов. Записки некоторых эпизодов…)”. Во втором случае, в отличие от первого, возможна трансформация развёртывания: *Чувствую гарь → Чувствую запах гари*. Возможность так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будем считать определяющим фактором при отнесении тех или иных единиц к разряду метонимических формул. Иных критериев, кроме трансформационного, как известно, для этой цели в современной науке о языке не выработано. Проанализируем по предложенной методике следующую фразу: *А уж там, за рекой полноводной, Где пригнулись к земле ковыли, Тянет гарью* (ср.: *тянет запахом* ***гари*** – возможна развёртка) *горючей, свободной, Слышно гулы в далёкой дали …* (А. Блок. Новая Америка). Возможность развёртки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гарь* в д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имеет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 некоторых контекстах такого рода развертка невозможна, например: *В комнате стоит запах пота / * В комнате стоит пот).*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единиц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Запах”, образованное по формуле «носитель / источник запаха → конкретный запах», реализуется в ряде типовых опорных контекстов, классы которых рассмотрены ниже.

1. Один из таких контекстов представлен глаголами движения, метафорически используемыми как глаголы запаха: *нести*, сов. в. *понести, тянуть*, сов. в. *потянуть*. При данных глаголах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олучают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обозначающие носитель или источник приятного запаха: *гниль, водка, гарь, гнильца, дым, душок, мясо, плесень, табак, хвоя* и др. например: *От него сильно **несёт** табаком и водкой* (Тургенев. Пётр Петрович Каратаев); *Кое-где у самой земли краснел огонёк костра плугарского стана, и **тянуло** горьковатым дымком* (А. Толстой. Детство Никиты). О наличии метонимического переноса говорит возможность следующей развёртки: *тянуть дымком → тянуть запахом дымка*. Ср.: *Из трюма несло холодом и запахом гнилой кожи* (Паустовский. Карабугаз); *Окна тогда ещё были открыты, из палисадника тянуло осенней свежестью и тонким винным запахом опавших листьев* (А. Куприн. Леночка).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рассмотренных структурах указанные глаголы движения используются как безличные.

2. Глаголы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семантических классов, метафорически используемые как глаголы запаха: *дышать, куриться, веять* и сов. в. *повеять, пахнуть, разить, садить, шибать* и др.,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дразделит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2.1. Глаголы *дышать, куриться, веять* и сов. в. *повеять*. При данных глаголах реализуется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целого ряда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обозначающих носитель или источник приятного запаха, таких, как *мёд, ладан, роза, духи* и мн. др. например: *[Дамы] нанесли с собой целые облака всякого рода благоуханий: одна **дышала** розами, от другой несло весной и фиалками* (Гоголь. Мёртвые души). Возможна следующ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Дамы **дышали** запахами роз*; ср.: *И душа моя – поле безбрежное – **дышит** запахом мёда и роз* (С. Есенин. Несказанное, синее, нежное); последняя цитата подтверждает реальность проведённой нам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2.2. При глаголе *пахнуть*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получают следующи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обозначающие источник какого-либо нейтрального запаха: *лист, трава, сласть, полынь* и др. например: *Весенние ветерки **пахнули** свежей травой и птичьими гнёздами* (А. Толстой. Детство Никиты). Получается та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Весенние ветерки пахнули травой → Весенние ветерки пахнули запахом травы*. Ср.*: Он прошёл в прохожую, **пахнувшую** на него знакомыми запахами нафталина и полыни* (Ичишев. Шахтёры). Возможность дан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доказывает наличие метонимического переноса.

2.3. При глаголах *разить, садить, шибать* реализуется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ʻсильный неприятный запахʼ. Например: *От неё [барыни] **разит** пудрой и пачулями* (А. Чехов. В вагоне). Здесь возможна следующая развёртка: *От неё **разит** запахом* (или даже *вонью*) *пудры и пачулей*.

3. Некоторые прилагательные, дающ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запаха: *[Княгиня Annette] всем бы взяла, если бы по временам, внезапно, как запах капусты среди **тончайшей** амбры* (ср.: *среди **тончайшего** аромата амбры*) не *проскакивала в ней простая деревенская прачка* (И. Тургенев. Дым).

4. Глаголы запаха: *благоухать, вонять, запахнуть, па'хнуть, провонять, провоняться, пропахнуть* и *попахивать*. Данные глагол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следующие группы.

4.1. *Па'хнуть, запахнуть, пропахнуть, попахивать*. При данных опорных словах этого класса реализуется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которые обозначают следующие объекты.

- Растения и их плоды: *ваниль, горох, лист, липа, мята, полынь, трава, хвоя, яблоки* и др., а также места, где растут растения: *лес, поле*.
- Гниющие либо разлагающиеся предметы: *гниль, плесень, болото, падаль* и т. д.
- Одежду: *калоши, овчина, шуба* и др.
-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колбаса, лук, мёд, чеснок, молоко* и др.
- Предметы парфюмерии: *духи, мыло, одеколон, помада* и т.д.
- Спиртное: *вино, водка, сивуха, коньяк, самогон* и др.
- Источники дыма: *табак, махра* и др.
- Различного рода выделения: *навоз, моча, пот* и т. д.
- Хим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дёготь, кислота, керосин, нафталин, клей, краска, лак* и т. д.
- Некоторых животных и насекомых: *клоп, мышь, скотина, собака* и др.

О том, что данны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е получают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ʻконкретный запах’, по иде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ледующе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Зато все кусты поднялись, малинник вошёл в силу, орешник совсем заглох, и отовсюду* ***пахло*** *свежим дромом, лесом, травою, сиренью* (И. Тургенев. Дворянское гнездо) → *Отовсюду* ***пахло*** *запахами дрома, леса, травы, сирени*. Реальность данной развёртки подтверждает следующее предложение: ***И как всегда****, сладко* ***пахло*** *здесь щемящими запахами леса* (И. Тургенев. Дворянское гнездо).

4.2. При глаголе *благоухать* реализуется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обозначающих источники приятного запаха: *донник, мята, ваниль, одеколон* (чаще ирон.) и т. д. например: *В центре осажденного Ленингарда сверкал глазурью и* ***благоухал*** *ванилью настоящий довоенный торт* (Крон. Дом и корабль) → *В центре осажденного Ленинграда сверкал глазурью и* ***благоухал*** *з а п а х о м ванили торт*. О возможности данной развёртки говорит следующий пример: *Строй* ***благоухал*** *запахами нафталина и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мыла* (Устьянцев. Почему море солёное).

4.3. Глаголы *вонять, провоняться, смердеть*, при которых реализуется метоним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таких слов, как *табак, требуха, падаль, йодоформ, ворвань, махорка, кожа, прель, йод* и подобных. Например: *Когда ему подарили первое ружьё, он с утра до ночи бухал по саду, на пруду, в лугах и до того* ***провонял*** *падалью и сад и дом, что Ольга Леонтьевна решила не выходить из своей спальни* (А. Толстой. Мишука Налымов).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глаголы запаха имеют определё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сочетаемость со словами лексико-семантической группы “Запах”. Например, говорят *пахнуть запахом*, *благоухать запахом*, однако не говорят **благоухать ароматом, благовонием*; *вонять (провонять, провоняться, смердеть) запахом/вонью* (это будет плеоназмом). Запрет на сочетаемость накладывается или возникающей тавтологией (*вонять вонью*), или плеоназм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е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с

глаголами запаха подаются трансформации развёртывания, а только те, в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лежат глаголы *пахнуть* и *благоухать*.

Сравнивая актив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етонимии в семантических микрополях приятного и неприятного запахов, заметим, что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 метонимическим формулам, действующим в микрополе неприятного запаха, образуется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наименований, чем в микрополе приятного запаха.

3. Метафорическ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оле “Запах”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структурных классификациях учитывается специфика плана выражения метафоры. Еще Квинтилиан отметил, что метафор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укороченное сравнение».

Метафорическ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можно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в рамках методики, предложенной В. П. Москвиным) по следующим семантическим параметрам: а) по основному субъекту; б) по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му субъекту; в) по метафорическим формулам; г) по степени семантической удалённости основного и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го субъектов («внешняя» и «внутренняя» метафора) (см.: Москвин, 1997 и 2000).

Как одно из средств вторичной номинации метафора активно действует и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оле запаха. К сожалению, хотя они и становились объектом изучения, до сих пор не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систематизации. Как известно, запах – это воспринимаемое обонянием, то есть практически ненаблюдаемое свойство объектов, которое очень трудно «изобразить» средствами языка. Видимо, обонятельные ощущения особенно часто обозначаются метафорически.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выше, одной из возможных классификаций метафор является их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по формулам переноса – в виде мотивационных рядов. “Группа метафор, образованных по одной метафорической формуле, именуется мотивационным рядом. …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одно семантическое поле обслуживается двумя и более мотивационными рядами” (Москвин, 1997, с. 26). Рассмотрим основные метафорические мотивационные системы, обслуживающие семантическое поле запаха.

1. В семантическое поле запаха процессом метафоризации наиболее широко вовлекаются глаголы движения, поскольку запах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о есть движется, хотя это движение и не поддается зрительному восприятию. Можно предложить следующую инвариантную формулу метафорического переноса: «движение конкретного предмет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В нашей картотек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глаголы, которые,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могут подвергаться метафоризации по данной формуле. Эти глаголы выражают разные метафорические образы. Основной образ,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й в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выше формуле, реализуется тремя вариантами.

1.1. «Субъектное движение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По этой формуле метафоризируются следующие непереходные глаголы движения: *броситься, донестись, идти, нестись, носиться, плыть, ползти, понестись, поплыть, поползти, разойтись, потянуться, тянуться, унестись, разнестись*. Эти глаголы при метафоризации выражаю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вместе с тем, как известно, они различаются тонкими нюансами зна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им данные глаголы делятся на три группы.

1) Глаголы однонаправл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броситься, донестись, идти, нестись, плыть, ползти, понестись, поплыть, поползти, скользить, потянуть, потянуться, разойтис, тянуться, унестись*. Среди них *нестись* выражает движение с большой скоростью, *понестись* – нач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паха, а удаление запаха в сторону характеризует слово *унестись*. *Донестись* часто сообщает, откуда или до кого, чего-либо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запах (обычно – из отдаленного источника). *Потянуть* обозначает начал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запаха в о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лова *нестись, донестись, понестись, унестись* выражают относительно бо'льшую скорость, чем слова *плыть, поплыть, скользить, тянуться, потянуть, ползти* и *поползти. Скользить* обозначает плавное движение, напр.: *В окно слышны свистки пароходов на Днепре, и* ***скользит*** *далекий запах травы, пыли, сирени, нагретого камня* (Куприн. Река жизни).

2) Глагол *разнестись/ разноситься* метафорически обозначает дисперсное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В саду начиналась вечерняя поливка цветов, и в свежеющем воздухе далеко* ***разносился*** *нежный аромат их* (Михайлов. Несколько лет в деревне).

3) Глаголы разнонаправл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также представлены всего одной единицей (*носиться*). *Носиться* выражает движение, как правило, нескольких запахов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напр.: *В огне яростно кипели котлы, густым облаком поднимался пар и дым, странные запахи носились по двору, выжимая слезы из глаз* (М. Горький. Детство).

1.2. «Объектное движение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Этой метафорической формуле подчинены переносные значения следующих глаголов: *нести, понести, разнести, принести, тянуть* и др. Например: *В воздухе стояла тишина; только лёгонький тёплый ветерок чуть пошевеливал сонные листья и разносил тонкий аромат цветущих трав и деревьев* (Н. Лесков. Леди Макбет Мценского уезда). Обязательным субъектом таких ситуаций является движение воздуха – ветер, ветерок, зефир и т. д глаголы, обозначающие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типа *тянуть, нести, веять* чем от кого), рассмотренные в 1 главе, исторически связаны с этим метафорическим рядом.

1.3. «Безличное объектное движение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По этой формуле реализуется метафорический перенос следующих переходных или непереходных глаголов: *нести, понести, унести, тянуть, потянуть*. Для идентификации данных глаголов релевантна трансформация обезличивания. Сравним следующие примеры: *Аромат инея и опавшей листвы тонко* ***потянул*** *по стойлам* (Куприн. Изумруд) → *Опасность миновала, все ужасы этой ночи прошли без следа, и им обоим весело и легко было идти по белой дороге, ярко освещенной луной, между темными*

кустарниками, от которых уже ***тянуло*** *утренней сыростью и сладким запахом освеженного листа* (Куприн. Белый пудель). 2.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как было отмечено выше, связано с движением воздуха, то есть с ветром («разносчиком» запаха); последний часто уподобляется дыханию. В связи с этим становится возможной следующая метафорическая формула: «дыхание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По данной формуле получают переносное значение: 1) два глагола: *дышать, дохнуть* и 2) одно отглагольное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дыхание.* Например*: Счастливый пышный край земли!.. Дыхание тысячи растений! И полдня сладострастный зной* (Лермонтов. Демон). То, что указанные слов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лучили значение ʻзапах, аромат’,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ю субституции: *И амброю древа дохнули. → И амброю древа запахли.* Субституция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слова *пахнуть* и *дышать* в указанном контексте синонимически сближаются.

3. Общие свойства дыма и запаха – медленное волнообразн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движение. Отсюда – следующий тип метафоризации в СП “Запах”. Данный метафорический перенос м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в виде такой формулы: «движение дыма (обычно от ароматических веществ) →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в нашей картотеке слова *куриться* и *кадить* получают переносное значение именно по данной формуле: *И вся степь курилась благовонием* (Гоголь. Тарас Бульба); ср.: *И вся степь пахла благовонием; А степь под пологом зеленым, Кадит черёмуховый дым* (С. Есенин. За тёмной прядью перелесиц…).

4. И вода, и запах двигаются; и вода, и запах прозрачны. Видимо,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может уподобляться движению воды. Это отражено не только в слов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но и в этимологических гнездах слов *течь* и *лить.* В нашей выборке представлены следующие глаголы, получившие метафорическое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данного типа, обозначающее проникновение запаха.

4.1. Переходные глаголы объектного движения *лить, источать*. Напр.: *В багрец и золото одетые леса Павловска, Царского Села, Петергофа, – окрестносте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источали нежный, горьковатый осенний запах* (Вишневский. Война).

4.2. Возвратные и непереходные глаголы *влиться, втечь, литься, течь, струиться, источаться, растечься.*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данных единиц анализируемому полю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следующей субституцией: *Льётся запах от цветов, ветром разносимый* (Мей, Сампсон) →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запах от цветов.*

5. Как было сказано,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часто уподобляется движению жидко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воды. Стойкий запах нередко уподобляется проникновению жидкости в пористое вещество. Отсюд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метафоризация таких глаголов, как *напитать, напоить, пропитать, пропитаться;* по нашим наблюдениям, данные глаголы чаще всего встречаются в форме пассива: *Теплый сладковатый воздух, напитанный запахом бензина и масла, сильными струями проносился над головой* (А. Толстой. Под водой). Думается, что стимулом для префиксации, посредством которой образованы глаголы *пропахнуть* и *провонять*, послужила именно та метафорическая идея, которая лежит в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пропитаться* (запахом).

6. С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человек воспринимает как удар. Поэтому сильный запах, который хотя не поддаётся зрительному восприятию, часто уподобляется конкретному предмету как удару. Объектом данного удара являе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орган обонятельного восприятия – нос, и его носитель – лицо. Отсюда возможен метафорический ряд *бить*, *бросаться, ударить, шибать* (в нос, в лицо), *разить*, *садить чем,* где перенос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 формуле "удар → сильный запах". У данных глаголов имеется интегральный признак 'ударить'. В некоторых контекстах интегральный признак меняется на 'сильно пахнуть': *В чашке зашипело, задымилось, едкий запах бросился в нос мне, я закашлялся, замотал головою, и он, колдун, хвастливо спросил: – Скверно пахнет? – Да!* (М. Горький. Детство.). Глаголы *разить, садить, шибать* употребляются и в безличном предложении: *От неё (барыни) разит прудом и пачулями* (Чехов. В вагоне). *Он забегал в ямщицкую, где прямо с порога шибало густым жарким запахом свежего хлеба, овчины* (И. Новик. Пушкин в изгнании).

В связи с проведенным выше мотивационным анализом заметим, что метафора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оле запаха действует очень активно.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ми являются мотивационные ряды (1), (2), (3) и (4), имеющие открытый характер. Мотивационные ряды (5), (6) непродуктивны, поскольку носят списочный характер (всего десять единиц) и дефектен в плане формообразования (единицы пятого ряда функционируют, как правило, только в форме пассива).

Вывод

В семантическом поле "Запах" метафора действует очень активно. Метафорическ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группируются в целый ряд метафорических формул.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имеются такие формулы, как «движение конкретного предмета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дыхание →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запаха», «движение дыма →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движение воды →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движение жидкости → движение запаха», среди которых первые четыре мотивационных ряда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ми, последний ряд непродуктивен, поскольку он носит списочный характер и дефектен в плане формообразования, поскольку единицы этого ряда функционируют только в форме пассива. Например: *Тёплый сладковатый воздух, напитанный запахом бензина и масла, сильными струями проносился над головой* (А. Толстой. Под водой).

Метонимические наименования запах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к средства обозначения конкретных запахов очень активно образуются по формуле «носитель / источник запаха → конкретный запах».

Метоним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анализируемого поля выполняют компрессивную функцию. Как показало исследование, метонимической свёртке здесь подвергаются прежде всего словосочетания с опорным словом *запах*: *Пью* ***горечь*** (< *горький запах*) *туберо́з, небес осенних* ***горечь*** (Б. Пастернак); *Каждый цветок, каждая травка испускала* ***амбру*** (< *запах амбры*), *и вся степь курилась благовонием* (Н. В. Гоголь). В приведенных фразах имеет место "максимальная функциональная

нагрузка языкового знака при минимальной затрате выразительных средств" (Алисова 1971, с. 268), иными словами то, что называют языковой экономией.

Образно-метафорические средства семантического поля "Запах"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декоративной функции: *Цвет садовый* ***дышит*** (ср. менее выразительное *пахнет*) *Яблонью, черешней* (А. Фет); – *Помнишь, какой из них [цветов]* ***лился***(ср. более шаблонное *шел, исходил*) *запах*, *сладкий, вкрадчивый и коварный* (И. С. Тургенев). Очень богат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алитра метафорических эпитетов к словам *аромат* и *запах*: ***Наркотические*** *ароматы парка* (М. Горький), ***нежно-вкрадчивый*** *аромат акации* (А. И. Куприн), ***пронзительный*** *снежный запах* (Ю. Друнина), ***застенчивый*** *запах рябины* (В. Лидин). Эту же функцию выполняют и метонимические эпитеты: ***сухой*** *запах ковыля* (А. И. Куприн), ср. *запах сухого ковыля*; ***лиловый*** *запах шалфея* (М. А. Волошин), ср. менее выразительное *запах лилового шалфея*.

301-1호

VII 세션 (중앙아시아 외국인 교수 세션)

사회: Piotr Horbatowski(한국외국어대)

≫ 발표 1

Об изменениях фор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а как объекта обучени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аудитории

Aliya Kuryshzhan(한국외대)

≫ 발표 2

THE DISTORTION OF MEMORIES IN KRISZTIÁN GRECSÓ'S NOVEL MELLETTEM ELFÉRSZ

Karisz Krisztina(한국외대)

Об изменениях форм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о временного языка как объекта обучения в иностранной аудитории

Алия Курышжан

Aliya Kuryshzhan

HUFS, Department of Central Asian Studies
aliya.kuryshzhan@gmail.com

HUFS, Global campus
18.11.2016

Новые формы визуал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языка. Инфограф ика. Анимация и гифы.
Эмотиконы /эмодзи, смайлы и значки - **Unicode Consortium**

Позиции и взгляды

Божанова Н.Г. Смайлики ка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система компь ютерно-опосредован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майлик является полноценной единицей интернет-языка наравне со словом е сте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Вятчина В. Школа аналитики и Онтологии 22.05.2016: *«Знако вая система эмотикон-смайлов по-прежнему будет развиват ься в качестве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эмоционал ьной подсистемы современного письменного языка».*

Тайлер Шнобелен (Tyler Schnoebelen) Стэнфорд университет: “идеограмма способна точнее выразить эмоциона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человека к чему или кому бы то ни было”.

Артемий Лебедев "Ководство "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веб-дизайнеров: «Уместно поставленный смайлик однозначно укажет на приподнятое настроение автора и поможет избежать мордобоя в случае рискованного заявления».

Анатоль Штефанович (Anatol Stefanowitsch), Берлин университет: смайлики все чаще используются в построении предложений и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человеческим мозгом не как иллюстрации, а как языковые единицы».

2015 году компания Swiftkey провела исследование эмодзи-поведения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Поиск работы с помощью смайлов

29.10.2016 · Раздел: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ь и мобайл · Comments Closed



http://startapy.ru/%D0%BF%D0%BE%D0%B8%D1%81%D0%BA-%D1%80%D0%B0%D0%B1%D0%BE%D1%82%D1%8B-%D1%81-%D0%BF%D0%BE%D0%BC%D0%BE%D1%89%D1%8C%D1%8E-%D1%81%D0%BC%D0%B0%D0%B9%D0%BB%D0%BE%D0%B2/

В течение 24 часов в сентябре 2016 года французский банк La B anque Postale предложил людям, ищущим работу, кое-что интер есное.
Им нужно было затвитить три смайла, описывающие их критери и поиска работы: в как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они хотят работать, уров ень их образования и в какой именно работе о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н ы. Затем банк отвечал им, предлагая подходящие существующие вакансии. Эта кампания проводилась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выросшего в эпоху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Ее целью было сделать поиск работы для миллениалов проще.
И это далеко не единичный случай. Многие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используют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для о бщения с клиентами и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Ссылка: http://www.springwise.com/finding-job-france-via-emoticons/



Назарланыңыз үшін көп рақмет!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ваше внимание!

Thank you a lot for your attention!

aliya.kuryshzhan@gmail.com
18.11.2016 HUFS

THE DISTORTION OF MEMORIES IN KRISZTIÁN GRECSÓ'S NOVEL *MELLETTEM ELFÉRSZ*

Karisz Krisztina(한국외대)

Introduction

The concept of memory is the core topic of numerous theoretical and literary works, which encompass different representations and explanations of it. The field of memory studies cannot be narrowed down and forced into one discipline. On the contrary, the urge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skill of remembering has inspired lively interdisciplinary discourse between scholars and researchers. The curiosity involved with finding the key elements of human memory has been present for a long time. The line of scholars that has participated in the aforementioned discourse began with Plato and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s and was followed by Locke, Bergson, Nietzsche and Freud. Since Freud and the golden age of psychoanalysis, memory and the process of remembering have had an unbreakable connection to the psychological realm. This new approach was also strengthen by a number of historical crises during the 20th century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hich has made us rethink and reconfigure the meaning of our existence and our place in the world (Rossington & Whitehead, 2007:1–14). The technological boom and the achievements accomplished in the field of neuroscience allowed us to know more than ever about the brain and its functions; however, the human memory still holds many undiscovered secrets as it constantly changes its nature, seeing that it is deeply bounded not only to our biology but also our social background.

It is not an easy task to define memory, but it is possible to capture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it. According to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memory is "the capacity of body or substance for manifesting effects of, or exhibiting behaviour dependent on its previous state, behaviour or treatment" (OED, 6b). This capacity is crucial for life, because it is the key to learning and using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our surroundings.

Based on the basic cognitive model, human memory has three tasks to perform: process (i.e. encode) the incoming information, store the encoded data, and access the storage and retrieve this data at an arbitrary

moment. A background component of this model is motivation, since the mind stores all of the data in order to use it and benefit from it at a future moment (Sutton, Harris & Barnier, 2010:211–213).

This model represents an ideal situation in which the encoding and processing of the incoming information are smooth procedures that happen without any difficulties.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several variables that affect the act of remembering which very often lead to the distortion of some of the stored memory, or which block one of the functions. In this paper I concentrate on these situations when the cognitive model cannot work properly. I analyse Krisztián Grecsó's novel from this point of view and explain how and why the distortion of memories happens, what effect it has on the narrator and the novel, and why or whether it is important to restore the original memories. I also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obtain truthful data about the actual happening through the process of remembering.

In their reader, Anne Whitehead and Michael Rossington point out that there is an alternative way of thinking about memory, which also has a long tradition in theory. It started with John Locke's idea that memory has a significant role in forming one's identity arises in philosophy (Rossington & Whitehead, 2007:2). However, psychological research shaped this idea and made it more complicated. Work with amnesiac patients made it clear that the existence of memories is not an absolutely necessary condition for a stable identity. Wiggins states that "memory is not irrelevant to personal identity, but the way it is relevant is simply that it is one highly important element among others in the account of what it is for a person to be still there, *alive*" (Wiggins, cited in Warnock, 1987:74).

The following account by an amnesiac patient supports Wiggins' idea:

My memory limitations are not so much a problem anymore. I don't mourn the loss of my memory as I can't remember what it used to be like. The condition has helped me to evolve, I think, into a different type of person (Wilson, 1998:133).

In my paper I examine how this realization can be relevant in a situation in which someone does not have the luxury of being in an amnesiac state, but lives with fractured pieces of history which are not consistent with his own experiences; in other words, when one suffers from a different kind of partial amnesia which was formed by traumatic events, shame, and lies. I analyse how this distorted history affects the narrator of Grecsó's novel, and see if his identity problems are the outcome of this problematic representation of the past alone or – as Wiggins suggests – consist of more variables.

The characteristics of identity problems in the novel

Grecsó's novel, *Mellettem elférsz* (There is space beside me) was published in 2011. As most of the other books written by Krisztián Grecsó, this novel also has a strong connection to the Hungarian countryside. The protagonist and narrator of the story is a young man, who – unlike the other men in his family –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moved from his small village to the capital city. However, even though he was able to

succeed in his career, his personal life is over-encumbered by disappointments and failures. He cannot find his place in the capital, but returning to the village is not an option either. This crisis of building up his social identity reaches its peak when his girlfriend leaves him. In this situation, he realises that he needs to find a way to rebuild the identity he had lost after leaving his village in order to find solid ground in his new home. He searches for safety and certainty in his and his family's past, believing in the concept that one's identity is also rooted in the lives of one's ancestors.

Before answering the main question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and analysing the process of remembering,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an overview of the main causes for the narrator's identity crisis. As stated before, it is firstly triggered by the loss of social safety. From the bystanders' point of view, he does not differ from someone who was born and raised in Budapest. While being an outsider was clearly visible during the time of his grandparents, this problem is no longer present in his generation. His appearance, education and social status shaped him into someone who seemed to be the same as every other citizen. However, the way he sees and defines himself set up a wall between him and his new home. Although his lifestyle has already separated him from the village, fragments of the connection still remained as a block that keeps him from finding his place in the new city. The tastes, smells and places of the village are also present in the narrator's life. The sights of Budapest are often mixed with the sites of familiar places from his childhood. These sensations and pictures of his former home are like a mist that veils the present reality.

Obviously, it is not extraordinary or wrong to maintain a connection with the place where he is from; however, it is interesting as to why this bond becomes unhealthy. The core of the problem is that the narrator's strong social insecurity and his inability to integrate follow from the fact that the village is not only a place where he was born and grew up, but also represents the whole history of his family. The lives of his ancestors are intermingling with the history of the village and also determining the narrator's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legends and stories that were hand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of the family only make sense within the village, and are not consistent with the present. This is firstly because the family stories are about great men – his father, grandfathers, and uncles – who should have had a bright and successful life, but all ended up as alcoholics, suffering from mental problems, and finally dying without any dignity. The present is not the continuation of the past as told in the family history, but it is like a curse for the narrator, who fears that he will have to face the same end as the other men in his family, regardless of his actions. Secondly, the stories and traditions of the village form a virtual reality which is only relevant while one is part of it. As soon as the connection to the origins of this reality loosens up, it cannot be considered as the "truth", and thus the certainty of life, the knowledge about the world, gets questioned. The narrator's inability to form a stable identity follows from this uncertainty of the representation of the world around him.

It is easily foreseeable and understandable that in this state the narrator turns to the only stable thing in his life, and he tries to build his identity upon his body and his appearance. However, these attempts fail every time he realises the changes that are natural consequences of time. He examines himself in the mirror or the window of shops and tries to place the substance that is him into this changing container of flesh and blood,

but realizes that, after losing weight or changing his hairstyle, he can no longer recognize himself. The body changes, and as he states, "his clothes are just like curtains, but no one stands behind them" (*Mellettem elférsz*. Transl. Karizs). The betrayal of the body becomes certain when he meets his grandfather's lover, and despite his attempts, he cannot find the attractive young woman in the face of the seventy year old lady in front of him.

The role of the body is also very significant from another point of view. As I mentioned previously, the fate, and especially the death, of certain family members, has a very strong impact on the narrator's life. The novel starts with clearing up his intentions and expectations towards his body:

> "I have made a treaty with my body. I want to be healthy, because the past is full of death, and I want to be strong enough to face it." (*Mellettem elférsz*:7. Transl. Karizs)

It is addressed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book, and it becomes even more important later, that the narrator is trying to avoid the pitiful way his relatives died. It is interesting that these deaths are not only traumatic for him, because they had lacked dignity and peace, but also because he was the one who found his grandfather's brother and his own uncle lying cold in their houses, just as he had witnessed the complete mental and physical breakdown of his father. However, his body is already giving him the warning signs— his shaking knees and hands and the trepidation of a nerve on his face are family characteristics, and he suffers from them in the same way his uncles, grandmother, and father did.

The dynamics of remembering and the distortion of memorie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or's identity crisis, his urge to retrieve the most important memories of the family, and to clear up and recompose the family history are rooted in two important factors. Firstly, the narrator attempts to define himself and find the core substance of his identity that would not fade along with the physical changes of his body. Secondly, he tries to find the cause of his relatives' problems and pinpoint the moment in which the destruction in their minds and bodies started, in order to change his own fate by correcting their mistakes. However the recollection of these memories does not start because of this strong determination but because of a coincidence, when he meets an editor who asks him to send an old family picture and an interesting story to his newspaper. In order to find the right story, he re-reads the memoirs of his grandmother, and at the end sends a picture of his grandfather's brother, Benedek, and tells his story about him being a monk and later a soldier and a survivor of the war. But all the family legends about Benedek are proven to be lies when he receives a letter from the monastic order claiming that Benedek had never been a member there. In his confusion, the narrator confronts his grandmother, and forces her to tell the truth about Benedek and explain why it was necessary for her to lie about his life.

From this point on the novel consists of three separate stories of three family members: the story of Benedek and his partner Sadi, the narrator's uncle Márton, and finally his maternal grandfather Domos. While it is the young man who shares the stories with the reader, he very rarely talks about his own memories. Because of his age, his experiences are only relevant in Márton's case— the grandparents' generation is too far from him to remember and he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their early life, so he has to rely on his sources. The main storyteller is his grandmother, Granny Juszti, but in the case of his maternal grandfather, he gets the information from Domos' old friend and his lover. Although the protagonist's aim is to discover the truth about his family's past, the fragmented stories that he hears are sometimes very far from reality. The causes of the distortion in memories are different in every story, but there are two key elements which I want to mention.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certain memories cannot be retrieved is trauma. Research concerning trauma and its consequences has proved that our minds process memories about a traumatic event differently from those of average experiences. According to van der Kolk & van der Hart, generally we have the ability to code our memories on a symbolic level using our language skills. That is, we process our experiences by turning them into narratives that we can give meaning to and fit into our interpretation of reality. However, fear or pain can cause these language skills to fade and change the way we process our memories. We are then unable to form narratives, which leads our brain store only fragmented pictures of the event, which are very clear, but on the other hand inaccessible in a conscious state (van der Kolk & van der Hart 1995: 158–162).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raumatic memories, many of the past events are dim. None of the family members know much about the grandmother's childhood as an orphan, and there are only fragmented narratives about the time of the war. There are testimonies about how the paternal grandfather tried to get back to his young wife but fell into the enemies' hands instead and spent years in a Siberian camp. There are also stories about how Benedek got injured during fights in the monastery, but there is no coherent knowledge about these specific years, his real fate and trials. Benedek's experiences in the religious order also have a traumatic aspect, and he and the whole family remain silent about them, just as they never talk about the war either.

It is also very important how the narrator holds very confusing traumatic memories about the aforementioned deaths of certain family members. He discovered Benedek's body as a child, when his father sent him to fetch some homemade vodka from the old man. These memories were completely erased by dissociation, and the narrator can only recall the moment of arriving at the house with the empty bottle. Later, already in his thirties, he is forced to search for his missing uncle, Márton, when the family suspects that something bad has occurred to him. Just as before, he finds a corpse which had been in the house for days, and that he cannot identify as his uncle. This part of the narrative is very interesting because he cannot tell it coherently, but constantly escapes into older memories about Márton and talks about those instead of the story at hand. At the key moment, when he finally has to reveal the conditions in which his uncle's body was found, he realises that he has no memory of many of the details. He does not remember entering Márton's bedroom

or calling the doctor and the police, he can only recall certain flashbacks to the questioning at the police station and some details about Márton's body: dirty underwear and a strange injury to his eye.

Besides the trauma that the family members had suffered during the decades, there is another important element that deforms the past and reality: shame. Shame can be described as an affect auxiliary and affects are defined as "sets of muscular, glandular, and skin receptor responses located in the face (and also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body) that generate sensory feedback to a system that finds them either inherently 'acceptable' or 'unacceptable'" (Thomkins, 1987:137). According to Thomkins' research on the affect mechanism, these physical responses of humans are caused by various triggers, which can vary widely depending on the person's family or cultural background and personality. However, the physical responses they have are biologically coded, and therefore they are the same for every human being. Shame is characterized as an affect auxiliary that "operates only after interest or enjoyment is activated" (Thomkins, 1987:144). In other words, shame is awakened by the incomplete reduction of interest, and it is always followed by the fear of being exposed. Besides its biological nature, shame also has a social aspect, which helps in understanding the reasons of this fear. As human beings, we want to be part of a group and be accepted by its members. We long for attention and the interest of others, therefore the reduction of this interest gives us a very strong and clearly negative judgement about ourselves. As a result of being revealed, we can be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group we wish to belong to. The fear of discrimination grows even bigger in the atmosphere of the countryside village, where everyone knows and judges the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where the expectations of society are accompanied by the village's own rules. It follows that shame is a significant factor in forming the public narratives about a person or a family, and has an important role in all three stories told in the novel.

When it comes to the paternal relatives, Benedek and Márton, the narrator obtains information about them from his grandmother. In the original family tales, they are both pictured as smart and ambitious men who had the chance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themselves. However, instead of the predicted – and also expected – success, they both failed to achieve their goals and ended up with serious mental problems that led them to depression and alcoholism. The details of their failures are not mentioned in the grandmother's original stories, which results in the discontinuity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When the grandmother is later forced to tell the truth that had been left out of her memoirs, it is revealed that the stories about these men were forged to keep their dignity and save them from humiliation.

In Benedek's case, there is a staggeringly simple but very difficult story behind the lies about his life as a monk. Benedek was in fact a member of a monastery, but only for a few weeks until a rumour started that he had had a homosexual relationship with his school friend, Sadi. According to the grandmother, the rumours were not true, at least not at the time, and the only truthful detail was Sadi's love for his friend. However, Benedek was banished from the monastery and had to return to the village, which was a source of great shame for him and his family, and also an unbearable disappointment for everyone in the village who had expected him to do something extraordinary and prove to the whole community that life could be more than what they

saw. After all this, Benedek also suffered the consequences of the war, and then joined another religious order for a short time, but never talked about the fact that everything he had experienced in the monastery was tainted by feelings of inferiority and humiliation. Finally, he returned to the village, and Sadi as a grown man, and spent his life with him. Unfortunately, after Sadi's death, he could no longer face the trauma of the war, the shame of his failures and the discrimination he felt in the village, and ultimately died as a result of serious alcohol problems.

The fate of Márton resembles that of Benedek's in many details. He and his brother – the narrator's father – also had great potential in their youth, and both the community and the family had high hopes for them. Even so, Márton was not able to graduate from university because of his weak nerves and, just as Benedek, he had to return to the village without fulfilling his own and the community's expectations. He could not succeed in his personal life either, after two failed attempts to build a family of his own he ends up being an old bachelor for the rest of his life. The story of his last years is like a replica of Benedek's fate, as he also seeks relief in alcohol and dies alone in his bed from alcohol poisoning.

The family and the village process these unsuccessful lives in a very typical way: they tailor the narrative about these people so that the acceptable parts are remembered while they simply remain silent about the events which do not fit their representation or expectations of reality. It follows that the unpleasant and disappointing details are left out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family. The grandmother does not lie in her memoirs, but there are things she does not mention. Moreover she is an author-like figure in the novel and is very talented at creating stories, which makes it possible to state that she is creating her own fiction, her own narrative of life, in order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people she loved.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recreation of the past is her way to live out her own trauma of being an orphan and the only outsider of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Although her grandson wants her to revoke her false narrative and tell him the facts, we cannot determine to what extent she can fulfil his expectations. On the one hand, she has lived her whole life in and according to the stories she had created, meaning that she may not necessarily be able to differentiate them from the facts. On the other hand, her Parkinson's disease and dementia affect her language skills, preventing her from outlining the facts clearly, and thus interfering with the creation of a new narrative.

Shame and envy – which intertwine very easily –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maternal grandfather Domos' stories too. However, unlike Benedek's and Márton's cases, the transformation of the facts is not meant to restore Domos' dignity but that of the storyteller. The narrator comes by the anecdotes about his grandfather through two sources: Andor, who lived in the same workers' dormitory as Domos, and Domos' lover, Zách Éva. In Benedek's and Márton's cases, the shame rose out of the fact that despite their potentials they could not achieve the higher social status they were aiming for. Unlike them, Domos does not have special talents and no one has high hopes for him; however, when he gets the chance, he succeeds at everything. After the Second World War, he was one of the construction workers hired from the countryside to rebuild Budapest after the bombings. Domos spent every week in the capital and he loved the city with all his heart. He also made his way very naturally through the unexpected hardships of the new and unknown city, which was even

more annoying for some of the people around him. Both Andor and Zách Éva envied his talent for this success, which he achieved with his partly humble and naive but nevertheless confident personality. Andor was ashamed because even though he could stay in Budapest for a lifetime, while Domos had to move back to the village, he could never set up as strong a social identity of being a capital citizen as his former workmate. Zách Éva's envy went even deeper. Domos' success was pure humiliation for her. She had felt that she should automatically succeed in certain situations because she had earned it with her social status. She wanted to picture herself as someone more valuable and influential than Domos the poor countryman, but her lover was able to outdo her in many ways, thus completely undermining her social dignity.

In order to appear more influential or powerful, Andor and Zách Éva lie almost baldly to the narrator. Andor wants the young man to think that he played a role in Domos' life and success, while Zách Éva tries to put on the act of a respected gentry woman. It is very interesting that her struggles are not utterly personal, but have a strong collective nature when examined from the angle of the political changes of post-war Hungary. Andor's lies are exposed when he mixes the dates, and his story loses all its factuality. Zách Éva, on the other hand, does not even try very hard to hide her act, and at one point openly admits that she had been telling lies whenever she could get the narrator to believe them.

Strategies of creating the family history

In the last part of my paper I want to analyse two important questions. Firstly, what strategy does Grecsó's narrator use to build a narrative out of the fragmented anecdotes? Secondly, do these anecdotes help him to unfold the truth about his past (and if so, how) and do they provide a basis for the identity he tries to recreate?

The narrator's first obtrusive attribute is that his memory is flawed, so that the recollections of the anecdotes are not controlled by strict rules. He is driven by the events of his present and also by the old stories which he tries to seek out. Most of his actions are motivated by his instincts, not logic. As he transforms the family anecdotes into his own narrative, it takes on the characteristics of psychoanalytic memory, where the fragments are connected through free association, thus the connections between them are not always clear or visible, and the narrative itself is not coherent either. With this strategy of narration, Grecsó's novel gives an important role to the reader as well, who – as it were – has to do the work of the psychoanalyst and identify the meaningful details of the past that are relevant to the narrator's present situation. Obviously, some help is provided for the reader. The narrator uses different strategies and source materials to make the family history as consistent as possible. As a solid and factual foundation, he uses the so-called "*printed schemes*" such as dates. He also merges his own memories into the storyline, which are probably more reliable than the grandmother's memoirs or the anecdotes; however, they are still very ambiguous due to the traumatic experiences attached to them. Moreover, because the narrator revisits these memories in order to interpret the present, as in autobiographical and memory narratives in general, past experiences might accumulate

meanings which are relevant from the present's point of view but were different or never existed at the time of the original event (Leiris, 1984:22). This problem is even more threatening if we consider that most of the stories are told and tailored by more than one person, and so are "suffused with others' memories – which are themselves suffused with other others' memories" (Freeman, 2010:263). This recognition becomes important, because the main sources are the aforementioned anecdotes and memoirs;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to what extent they are true. These three components are still not enough to outline the family history, so the narrator also uses his imagination to fill the gaps in the story. It is very interesting how he seems to be aware of details which could not have been available even for the grandmother, Andor, or Zách Éva, but which give a beautifully romantic hue to the stories. He also comments on some details, states when something is very clearly a lie (or what he simply assumes to be a lie), but on the other hand, he lacks the information required to make the corrections, and thus he only warns the reader. In this practice we can catch a glimpse of what is called the interpreter in the act. Michael Gazzaniga states that this is a "special device" that "reconstructs… brain events and in doing so makes telling errors of perception, memory and judgement" and also "tries to keep our personal story together" (Gazzaniga, 1998:2). The presence of the interpreter – if we can assume that the device was working in the case of all sources of the stories as well as the narrator – makes the family history highly unreliable.

This problem results i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use this kind of history as a basis of a new identity. As was mentioned before, the narration of the novel resembles the dynamics of psychoanalytic memory, which cannot be defined through the cognitive models, because it unfolds from a "constructed reality, half memory, half fiction". However, according to Roger Kennedy, a "literal and objective knowledge of everything that took place in the past is neither possible nor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subject's history" (Kennedy, 2010: 180–181).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state that the narrator does not need a linear storyline or all the details to understand his family or his present situation. However, he is unable to see himself as irrespective of the past, and that leads him to the realisation that also explains the title of the novel.

> "There is space beside me for anyone. Or anything. I imagine a fat, cube-shaped man, who utterly fills out his cube, there is no space next to him, and everything is his. […]But more should fit beside me than just my past, that is what I realised." (*Mellettem elférsz*: 277. Transl. Karizs)

As an answer to this, and aligned with Kennedy's remark, Zách Éva replies in the following way:

> "What do you want? […] What is the meaning of all this [investigating the past]? She has been feeling regret for Domos her whole life, and at the same time she has been happy to be rid of him. […] She feels and accepts these feelings, because that is her fate. But I must struggle with mine. Do I even have my own fate? How many times does she have to ask?" (*Mellettem elférsz*: 283–284. Transl. Karizs)

Probably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eatures of the novel lies in this conversation, when it is cleared up how discovering the past can lose its main function and become an obsession. Although it w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both the past and its connections to the present, the narrator cannot separate himself from the stories. On the last pages, his own life and Domos' love story converge completely. He waits for a woman at the same place where Domos had waited for Zách Éva decades ago. As we do not know if Zách Éva ever arrived to the meeting, the novel ends before the reader can find out whether the narrator's date ever shows up. With this ending, Grecsó leaves us in complete uncertainty, and the reader has to decide on their own if the narrator's life intertwines with that of Domos and submerges into the past for good, or if he manages to step out of the reality of the old stories, and starts his own independent future.

REFERENCES

Freeman, Mark 2010: Telling Stories: Memory and Narrative – Susanna Radstone and Bill Schwarz (ed.) *Memory. Histories, theories, debat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Gazzaniga, Michael 1998: *The Mind's Pas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ennedy, Roger 2010: Memory and the Unconscious – Susanna Radstone and Bill Schwarz

(ed.) *Memory. Histories, theories, debat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Leiris, Michel 1984: *Manhood: A Journal from Childhood into the Fierce Order of Viri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ossingtonm Michael & Whitehead, Anne (ed.) 2007: *Theories of Memory. The Reader*.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Sutton, John; Harris, Celia B. & Barnier, Amanda J. 2010: Memory and Cognition – Susanna Radstone and Bill Schwarz (ed.) *Memory. Histories, theories, debates*.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Tomkins, Silvan S. 1987: Shame – Donal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New York: Guilford.

van der Kolk, Bessel A. – van der Hart, Onno 1995: The Intrusive Past: The Flexibility of Memory and the Engraving of Trauma – Cathy Caruth (ed.) *Trauma. Exploration in Memory*.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Warnock, Mary 1987: *Memory*. London and Boston: Faber.

Wilson, Barbara A. 1998: 'When Memory Fails' in Fara and Patterson op. cit., p 113 – 133.

LITERATURE

Grecsó, Krisztián 2011: *Mellettem elférsz*. Budapest: Magvető.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411호

VIII 세션 (통번역 세션)

사회: 방교영(한국외대)

≫ 발표 1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에 대한 러시아 수신자 반응 연구
- 번역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서유경(한국외대)

≫ 발표 2

근대 러시아 문학 번역과 번역가들 - 1930~1940년대를 중심으로

유정화(한국외대)

≫ 발표 3

희곡번역 과정 연구: ANT를 중심으로

윤현숙(한국외대)

1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에 대한 러시아 수신자 반응 연구
- 번역 수업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슬라브학회 동계학술대회

2016. 11. 18. 금

서유경

2

INDEX

1.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 현황
2.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문제
3. 러시아 독자의 반응 분석
4. 결론

3

한국 문화콘텐츠란?

문화 기술이 미래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되면서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같은
서로 다른 이질적 장르로 구성된
한류 중심 소재 영역들을 통칭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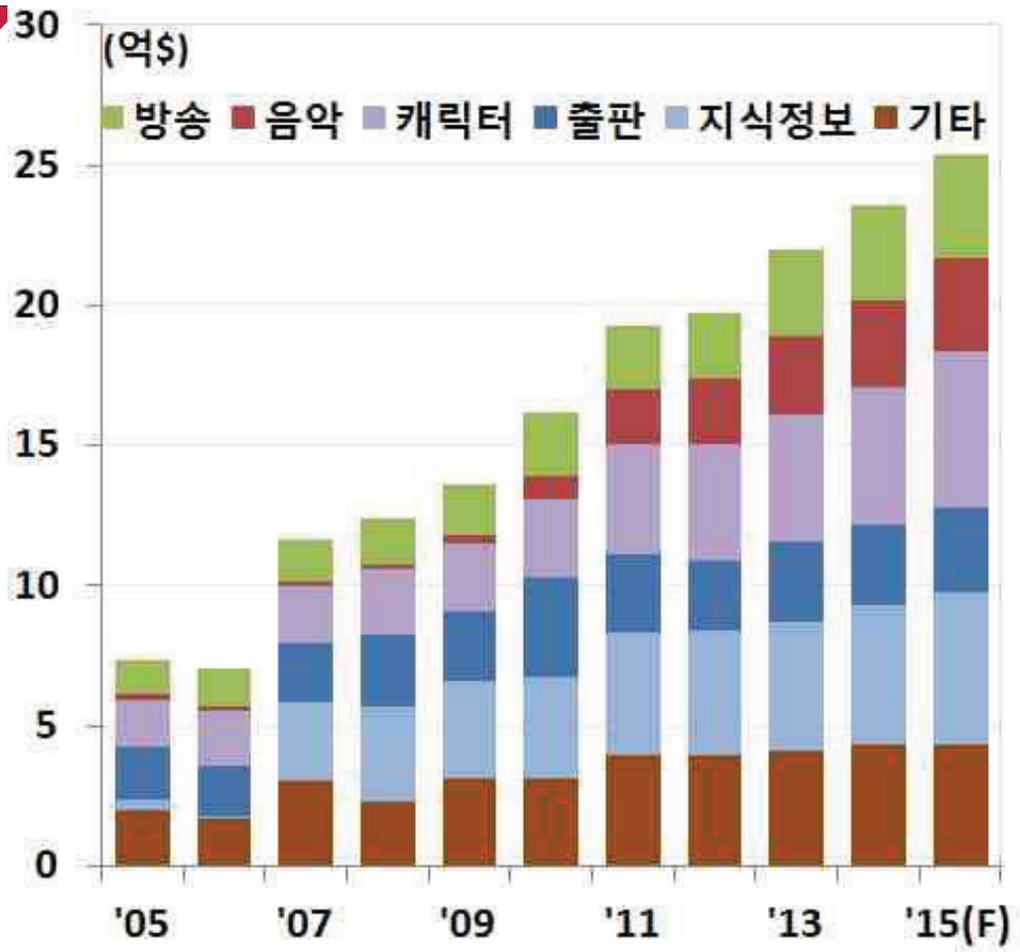
(김평수, 2014: 18)

4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① 설립목적: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표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
② 주요활동/업무: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마케팅 지원**,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CT 기술개발, 투융자지원 등
③ 2009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디지털콘텐츠사업단과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

5



한국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 현황

6

한국문화콘텐츠의 러시아 진출 현황

Смотри бесплатно дораму онлайн!

Дорамы - это азиатские сериалы, самыми популярными из которых являются япон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и одни из самых рейтинговых телепередач на восточных телеканалах обрели ярых поклонников во всех частях мира. Несмотря на название 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жанры дорам: детектив, романтика, комедия, ужасы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Наш сайт создан для таких же фанатов дорам, как и мы. Здесь можно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найти дораму по душе, посмотреть онлайн, а также обсудить. У нас вы с легкостью найдете интересных собеседников, потому что наш портал является местом сбора всего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любителей дорам.

Полнота каталога целиком и полностью зависит от Вас! **Мы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за добавление новых сериалов, исправление описаний, а также добавление ссылок и видео.**



Каждый может добавить дораму в каталог!

http://doramatv.ru/

7

한국문화콘텐츠 번역의 문제

① 번역은 '절감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생각
② 수출하는 업체가 알아서 번역해라
③ 콘텐츠만 팔고 번역은 현지 업체가 알아서
④ 번역 결과물에 대한 감수나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⑤ 인터넷으로 실시간 올라오는 Fansub 번역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2&aid=0000015064

8

한국 문화콘텐츠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독자(수신자)들이 기대하는
한국문화콘텐츠 번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9

한노 문화콘텐츠의 번역 문제

➢**번역의 문제란?**

① **기능적으로 충분한 도착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번역사가 번역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로 객관적 또는 간주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문제(Nord 1997a: 141)

② **화용**적, **문화**적, **언어**적 번역 문제 + 언어 유희와 같이 특정 텍스트에만 나타나는 **텍스트-특수**적 번역 문제 등이 있다(정호정 2007/2011: 163)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문제
1 광고카피의 수사법(대조)

부탁-청탁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선물-뇌물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단합-담합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정과 의리-부정과 비리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볼 땐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청렴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11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문제
2 한국홍보 텍스트의 문화 간극 중개

-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하늘을 덮은
- 제주 **들불 축제**
- **정월대보름**

⑥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빛깔 제주인의 **‘정(情)’**

⑦ 언어유희: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는 지세라는 뜻의 **‘섭지’**, 코끝처럼 바닷가로 불쑥 튀어나온 땅이라는 뜻의 **‘코지’**

12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문제
3 시사만화 속 함축된 배경지식과 언어유희



말아먹고
(경제를 말아먹다.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다’ 말아먹다 vs ‘국물에 타서 먹다’ 말아먹다)

조작하고 – (여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기치고 – (국민 박근혜 공약 파기)

농단해도 – (인사권 비선 실세 정윤회 사건)

찍소리 못하면서… 왜 나만?
땅콩
내꺼 (재벌 2세의 기업 인식)

13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문제
4 문학 장르적 특성 살리기: 한국의 시와 러시아의 시

1. 내재율의 한국시 vs 외재율의 러시아 시
2. 러시아시의 특징

- 리듬과 음악성이 매우 중요
- 두운과 각운, 특정 모음과 자음이 의도적으로 비치되면서 음악성이 생겨
- 강세와 음절수의 일정한 반복
- 낭송에 최적화 되어야 시로 인식됨

❖ **어느 러시아의 문인의 지적**: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시를 읽고 있자니 도저히 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예술 번역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14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문제
5 노래 번역: 노래의 음절과 러시아어 어절 및 강세 일치



(12.0*8.5)cm

15

한노 문화콘텐츠 번역의 제문제
6. 자국화와 이국화

내 이름은 김삼순

1) «Меня зовут Ким Самсун»
2) «Меня зовут Ким Чхи»
3) «Меня зовут Матрёна»

16

한노 문화콘텐츠의 사용자로서 러시아 독자의 반응 조사

17

현지 독자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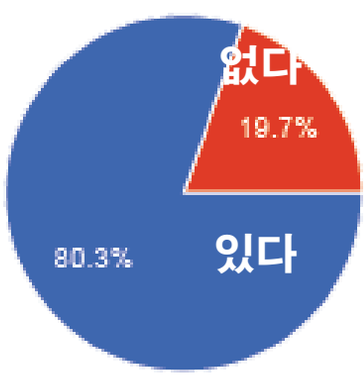
1. 설문 대상 자료
① 문학(시): 류시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② K-pop: 임재범 '고해'
③ 전통 음악: '밀양 아리랑'
④ TV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2. 설문 조사 진행
① 이메일로 설문지 배포
② 총 61명으로부터 설문 응답 수거'

3. 설문 조사의 목적
언어 차원을 넘어선 번역 문제에 대한 현지 독자의 기대 및 반응 조사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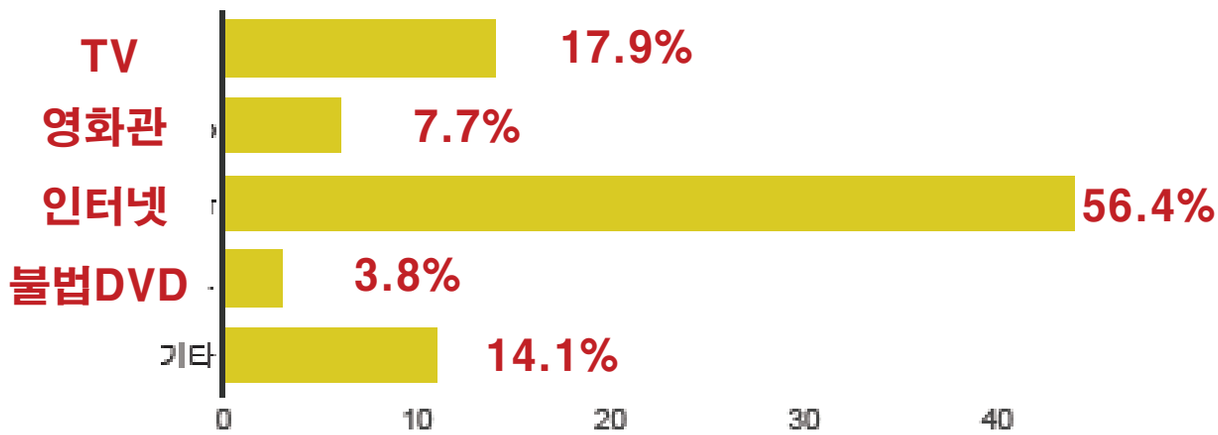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접해 본적 있습니까?



Да	49	80.3%
Нет	12	19.7%
Что такое контенты культуры?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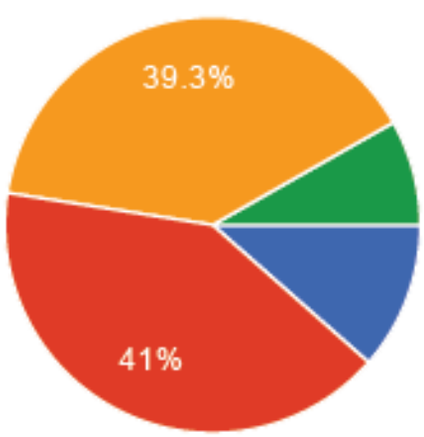
19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접해 본 경로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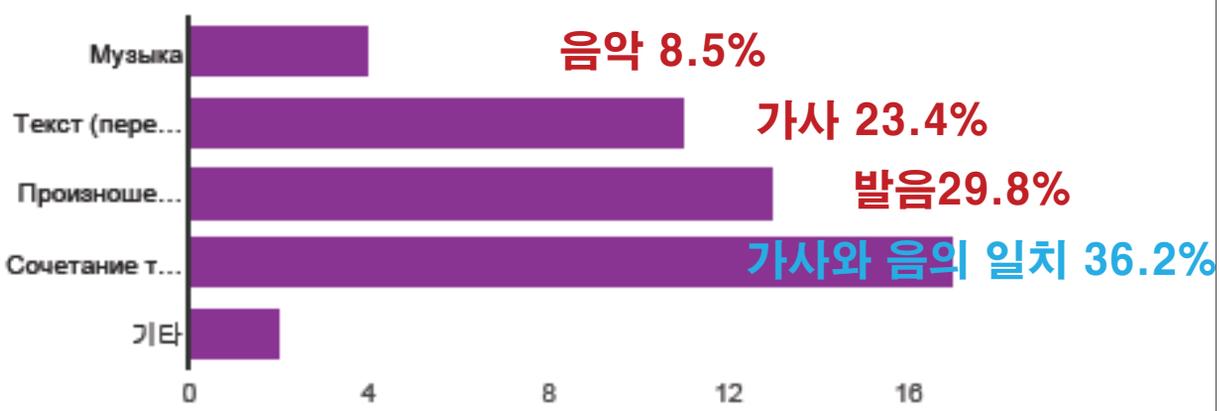
'고해' 의 러시아어 번역에 노래의 장르적 특성이 잘 전달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7	11.5%
그렇다	25	41%
보통	24	39.3%
아니다	5	8.2%
전혀 아니다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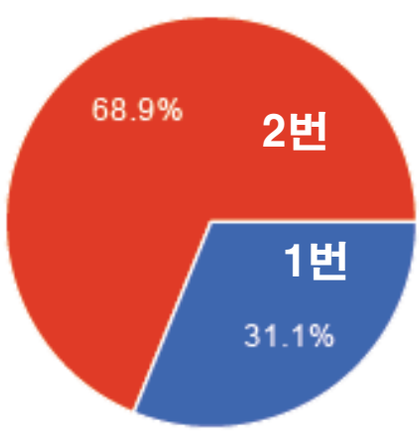
21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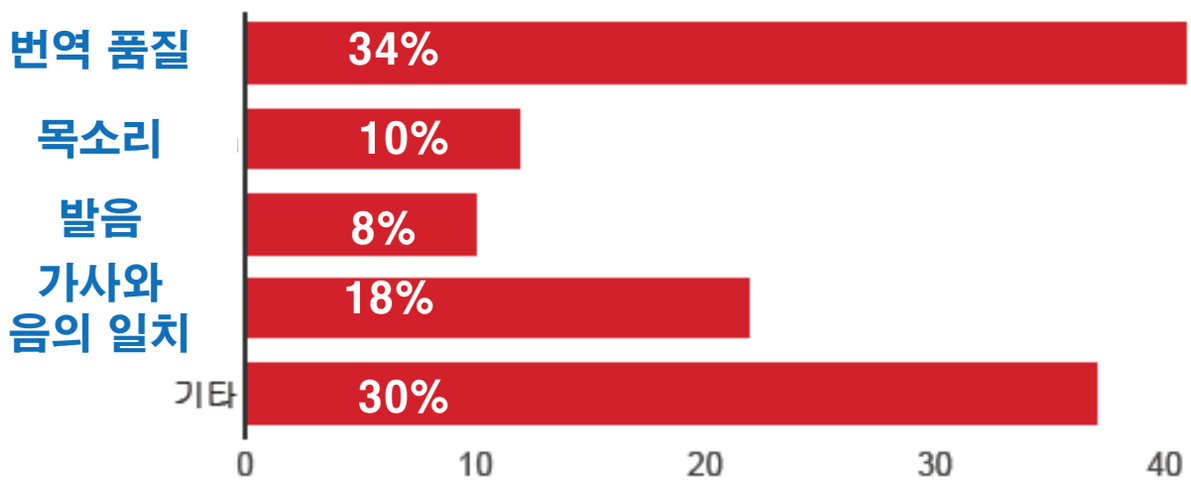
22

밀양아리랑 1 vs 밀양아리랑 2 중 더 마음에 드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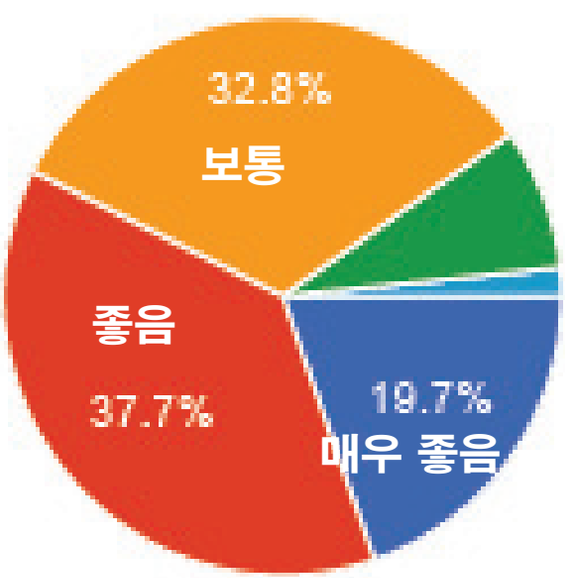
23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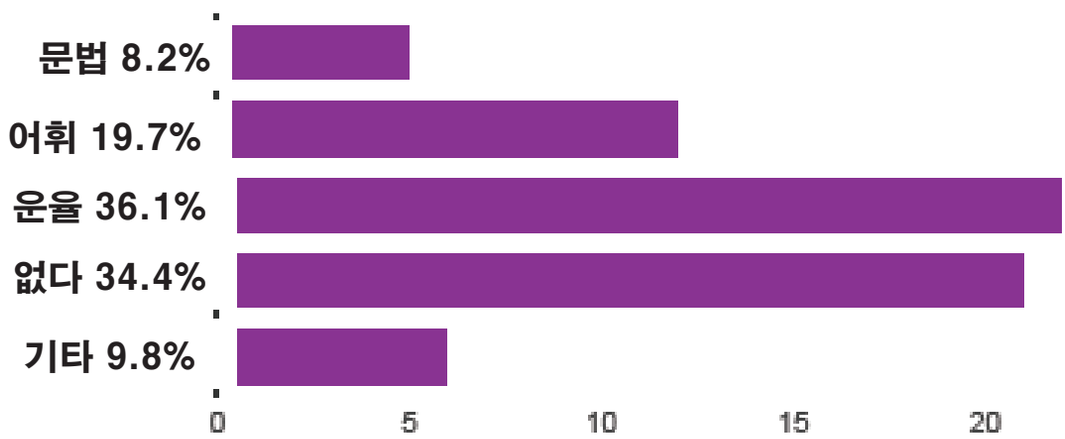
‘그대가 곁에 있어도... ‘
이 번역에 시의 장르적 특성이 잘 표현되었습니까?



Отлично	12	19.7%
Хорошо	23	37.7%
рмально	20	32.8%
Плохо	5	8.2%
нь плохо	0	0%
Не знаю	1	1.6%

25

‘그대가 곁에 있어도… ‘
이 번역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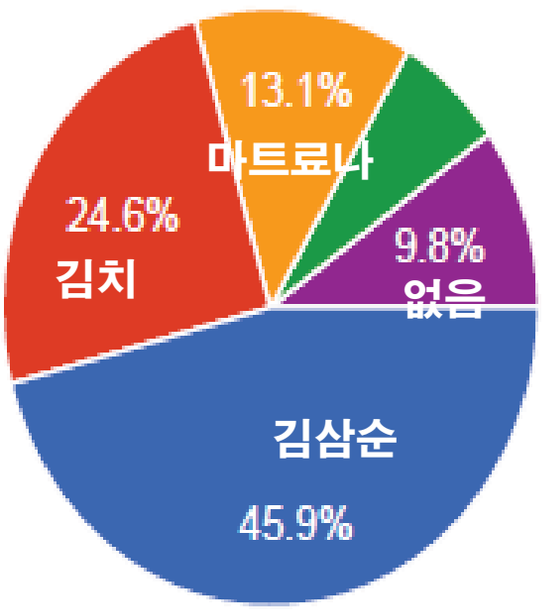


26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 ‘내 이름은 김삼순’ …..일 것이다.

코미디	44	72.1%
비극	4	6.6%
로맨스	4	6.6%
풍자	5	8.2%
기타	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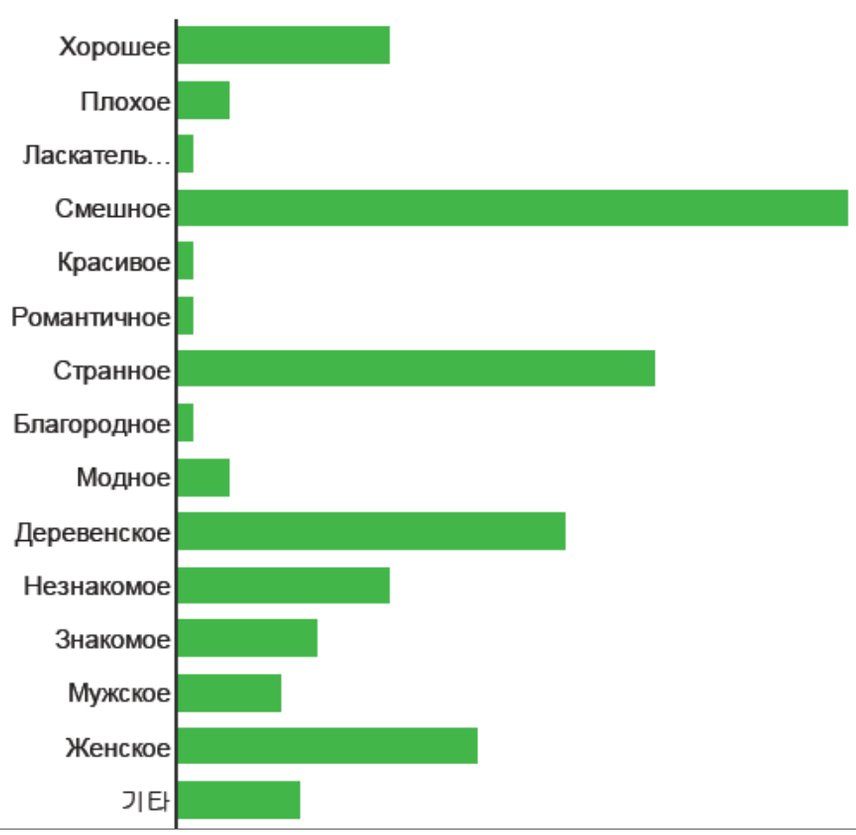
내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을 대체할 만할 이름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은?



Ким Самсунг	28	45.9%
Ким Чхи	15	24.6%
Ким Матрёна	8	13.1%
Ни один из вариантов	4	6.6%
Не понятен вопрос	6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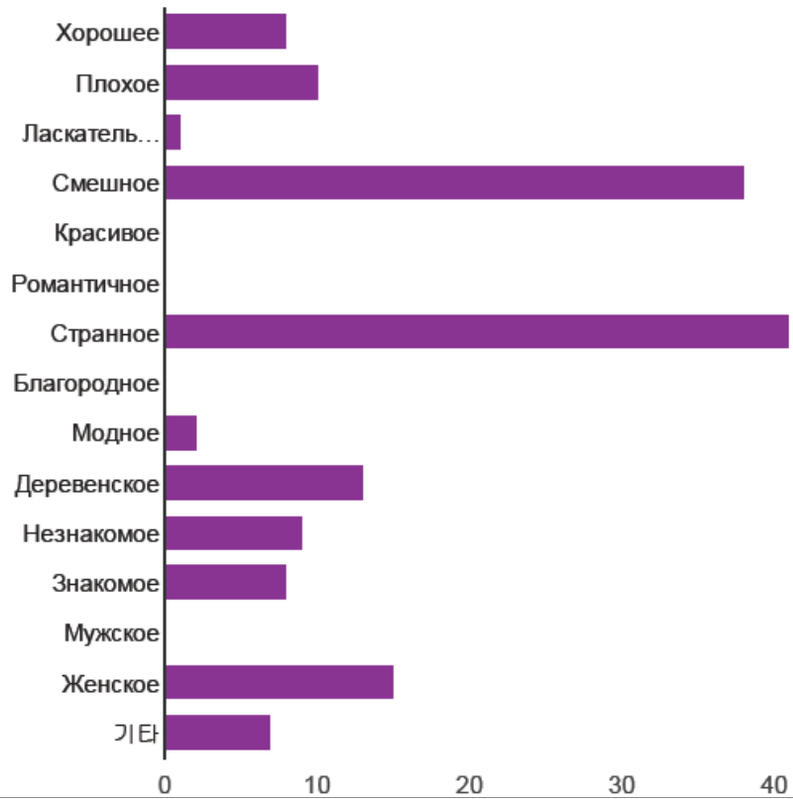
28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이 주는 이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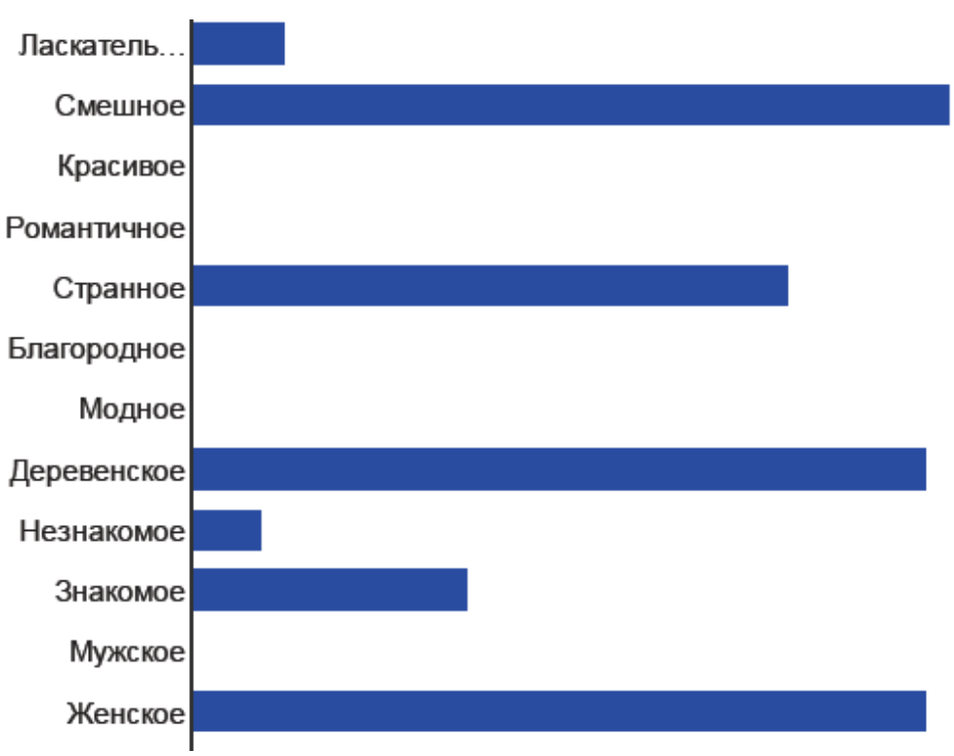
29

‘내 이름은 김치’로 했을때 ‘김치’가주는 이미지는?



30

‘내 이름은 마트료나’로 했을때 ‘마트료나’가주는 이미지는?



31

한국 문화콘텐츠 번역의 문제

- 번역 대상: **한국의 문화 콘텐츠**
- 언어 방향: **아웃바운드** 번역(한국어에서 외국어로)
- 텍스트 특성: 정보 제공 + **커뮤니케이션 효과**
- 등가 방향: 정보 등가 + **텍스트의 기능, 효과**
- 전환 대상: 언어 요소 + **문화 요소, 문체 등**

32

한국문화콘텐츠 번역에 대한 러시아 독자의 기대

도착 텍스트 장르와 기능적으로 등가
한국적, 아국적인 요소가 살아있는 번역

33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참고문헌

김영순 외. (2010). 『문화 산업과 문화콘텐츠』. 북코리아.
김평수 외. (2012). 『문화콘텐츠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스.
백승국 지음. (1999). 『문화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할미디어.
최연구. (2006).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정호정. (2008/2011). 『제대로 된 통역번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김평수. (2014). 문화산업의 기초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 인터넷 자료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콘텐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4941&cid=42219&categoryId=511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32&aid=0000015064

근대 러시아 문학 번역과 번역가들 - 1930~1940년대를 중심으로

유정화(한국외대)

1. 1930년대 번역문학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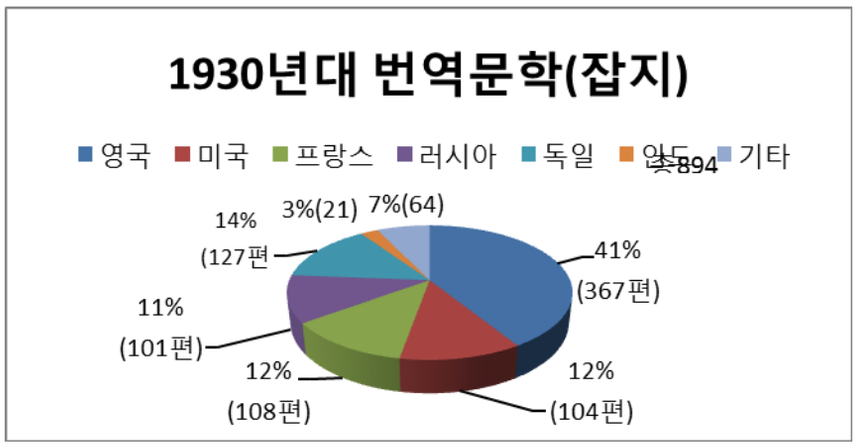
서양번역문학이 소개되기 시작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러시아 문학 번역이 비전공자와 영역이나 일역에서 출발한 중역이 대부분이었다면 1930년대는 러시아어 전공자의 번역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기이다. 또한 러시아 문학 도입기에는 문학작품보다는 사상 및 정치적 활동 소개가 다수였다면 1930년대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번역 소개되었음은 물론 이러한 작품과 작가에 대한 비평이 전문적 수준으로 소개되었던 시기이다.

1930년대 러시아 문학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번역의 암흑기라 부를 수 있는 1930년대 중반이전까지 급증한 잡지의 도움이 컸다. 이 시기는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세계문학이 조명받던 시기로 이후 1930년대 중반에 시작된 일제의 잡지 발간 탄압으로 잡지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문학은 물론 문학번역도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1930년대 조선인이 발행한 잡지수는 228종에 달했는데 이후 다시 소량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한때 16종으로 까지 줄어든 것을 보면 당시의 문학이나 잡지에 대한 탄압이 어떠한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30년대 번역문학은 1920년대와 비교하여 잡지 게재분은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단행본은 겨우 21편에 불과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김병철(1975:692)

연도	1930	1931	敢倠澡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잡지	149	90	117	141	127	111	61	16	28	54
단행본	5	0	0	4	1	3	2	2	1	3

한편 1930년대 잡지에 소개된 번역문학의 수는 총 894편으로 가장 많은 작품은 영국작품으로 총367편에 이른다. 그 뒤는 프랑스 작품으로 총 108편이고, 그 뒤에 미국 문학, 독일문학에 이어 러시아 문학은 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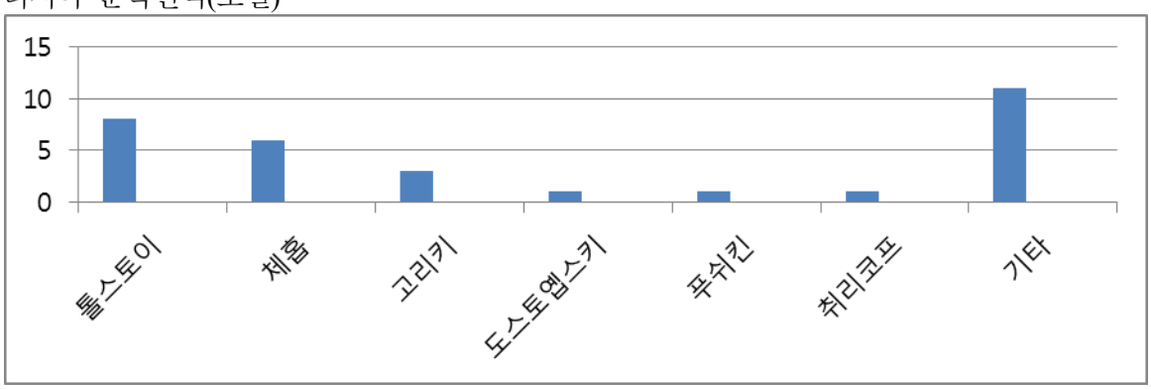
김병철(1975)은 1930년대 번역문학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번째는 1930년대는 잡지를 통한 번역문학이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하였다는 점이고 이와 같은 움직임을 이끈 사람들은 대학에서 외국문학을 전공한 이른바 해외문학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이전 시대의 번역문학에서의 역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번역태도 각성을 촉구하였다.

> *...시장에 나도는 譯小說이나 한다는 書籍 책장속에 갓득한 譯小說가튼 것 막상 내용을 펴보면 모다 그몰골이다.....이런 것은 譯者의 無誠意라기 보다 無知를 드러낸것이다....아무리 중역이라도 원작자의 이름도 알리우지 않고 뻔뻔스럽게 창작인지 번역인지 흐릇한짓을 한 그들의 솔직지 못한 태도에 분개함을 이기지 못한다. 중역도 큰 문제, 중역으로 오는 오역은 더욱 큰 문제이다. 섯부른 창작보다도 진실한 의미의 번역을 필요로 하는 것은 현금 우리 처지로서는 더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출판가의 무성의와 번역가의 결핍(缺乏)으로 우리의 번역계는 지극히 비참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하나의 조그만 일로 돌리겠는가*
>
> 1930년 3월 18일자 중외일보 강영한 <역자의 무성의>(김병철, 1975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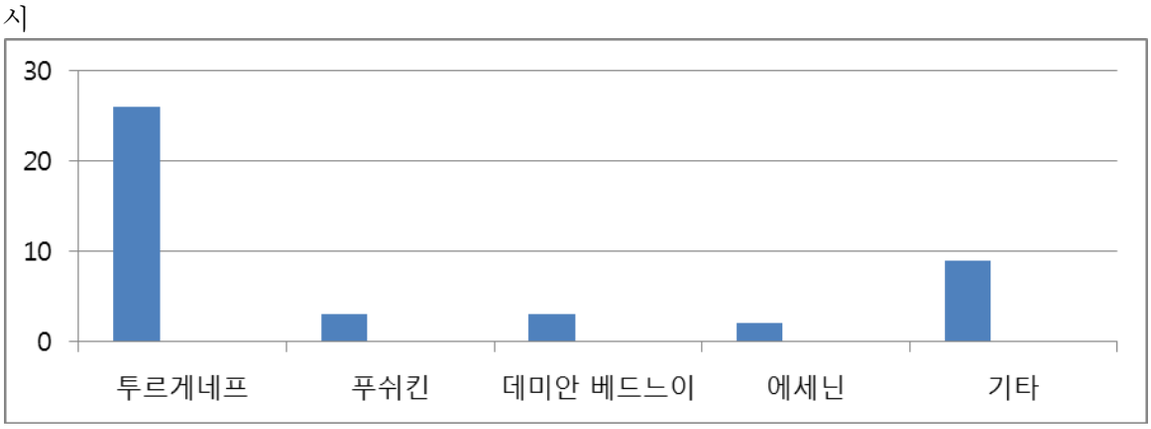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1930년대 번역문학작품에는 이전시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원작자 미상, 역자미상 대신 번역가 이름은 물론 원작자 소개나 출처 등도 명기한 작품을 다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작품 번역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번역문학에 과한 이론적 전개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내용에 있어 논쟁과 단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차원이 높은 세계문학과 우리 문학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 1920년대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1930년대 러시아 문학번역

러시아 문학번역(소설)



시



희곡

원작가	작품명	번역가	출처	연도
체홉	곰	함대훈	조선일보	31
〃	구혼	함대훈	신조선	32
〃	기념제	함대훈	조선일보	33
고-고리	검찰관	호연당인	학생	30
대아두이치	난혼재판	한득수	비판	30
쁠로-크	가설극장	함대훈	제1선	32

2.1. 번역논쟁

이상의 1930년대 번역문학의 특징 외에 또하나 두드러진 것은 번역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1930년대 외국어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 해외문학파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여 차후에는 번역무용론과 번역유용론 간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해외문학파를 비판한 현민과 송강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해외문학파들의 번역이 이전에 소개된 작품을 다시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며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번역이라고 평가절하하였고, 또한 해

외문학파라고 해도 이들의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한국어 실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의 번역이 단편에만 이르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였다.

"그들이 지금까지에 소개한 작품은 거의 90퍼센트가 해외문학에 대한 문외한인 우리로서도 이미 십년이전 또는 그보다도 이전에 재독삼독한 것이었다....물론저자는 일본말로 벌써 옛날에 번역된 문학의 ABC라도 그것을 조선말로 옮기는 것은 일본어를 해득(解得)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계몽(啓蒙)이 된다고 말할 것이다.

현민『해문학파의 재출발』, (동아일보 1933.10.5)

"해외문학파의 이제까지의 번역은 화려한 상아탑 예술에만 그것도 기히 좁은 범위의 단편적인 것에 거의 국한되여 잇다. 진보적작품이 간혹 번역되는 일이 잇기는 햇으나 우리가 公認하고 있는 해외문학파일원에 소소된 사람에 의한 것은 별로 없엇다.

다음으로 한말 더할 것은 어학력에 관해서다. 이때껏 해외문학파중의 아모도 장편문학을 번역한 일이 없는 것은 객관적사정도 잇을 것이다. 번역해도 발표할곳이 없고, 출판할곳은 더구나 없으며 또 대중이 읽어주지도 안을는지 몰르는 것 등등-그러나 이것이 혹시 그들의 역량의 부족에서 온온 것 아닌가 의아되는 점도 잇다. 그리고 疲等의 번역에만흔 부족이 잇는 것은 외국어능력의 미숙에도 원인이 잇겟지만...

송강『해외문학파에 대한 數言』(동아일보 1935.4.20)

이에 더 나아가 국역무용론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김동인을 들 수 있다.

"적어도 중등교육까지 바든사람은 화(和文)을 모르는 사람이 업슬뿐더러 조선문을 더렵혀 화문만치 이해하지를 못하는 현상이다. 이덕택에 우리는 외국문학을 우리의 손으로 조선문으로 이식할 번거로운 의무를 면할 수가 잇섯다. 우리의 내용이 유실되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여 세간사리에 부족이 업슬만치되고도 여력이 잇다면 혹은 장식품존재로서 우리글로 이식된 외국문학도 소유하엿스면 더 조흘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급한 세간사리도 장만치 못한 형세로 장식품존재가지는 어느 한가에 마련할 여가가 업섯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소학중학에서 화문을 배우노라고 애쓴 그 의무의 대상으로 우리는 외국문화를 조선문으로까지 이식치 아니하고도 흡수와 음미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귀한 노력까지 안코도 능히 할 수가 잇다.

김동인『번역문학』(해일신보, 1935.8.31)(김병철, 1975 재인용)

국역무용론에 대해 날선 비판으로 응대한 사람은 러시아어 전공자이자 번역가로 유명한 함대훈이었다. 함대훈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통해 국역무용론을 비판하고 번역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일전 현민은 해외문학파의 재출발이란 논문에서 해외문학파의 번역은 자기가 십년전에 일일문으 읽은 것이나 번역한다고 자기의 문학연구역사가 길다는 자가광고적 연설과 아울러 해외문학파의 무능적태도를 詰難하엿다. 현민의 독서범위가 얼마나 광범한지 몰거니와 그러면 현민이 십년전에 읽은 작품이라 하여 우수한 문학을 조선이 이식할 필요가 없을가? 현민은 지식이 해박하여 이미 세계명저를 모로리 통독햇으려니와 그런 독서력없는 일반대중은 또한 고전의 명저를 조선어로 이식하는 것을 요망한다. 더구나 원무에서 직접역(譯)되는 것을 요구한다. 설사요구가 적다해도 문학적 견지에서 해외문학연구가는 당연히 이러한 명저를 번역해야 할것이다. 현민이여! 일본서 최근 섹스피어가 다시 개역이되고 이미 중역된 톨스토이 전집이 잇고 고리키 전집이 잇음에 불구하고 또 원문에서 직접 역으로 이들 전집이 출판되엇든 것을 명석(明晳)한 두뇌를 가진 현민은 여하(如何)히 해석하는가? 그러면 중역이 잇다고 또다시 직역으로써 출판하는 것은 부즐없는 일이라 할가? 아니다 중역에서 말살된 그나라 문학의 훈향(薰香)을 직역으로서 좀더 살리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우리는 쌍수를 들어 찬양할 것이며 중역이나마 없는 우리 문단에는 이런 명작들이 원문으로부터 우리 말에 의해 직접역이 되는 것을 크게 깃버할 일인 항시조선문학운동에 커다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함대훈(동아일보 1933.11.11)

2.2 러시아 문학 번역가

러시아문학작품 번역가들을 살펴보면 그 이전시대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역자미상, 중역이 다수 발견된다. 이들 중에는 1920년대와 마찬가지로 김억, 최남선등이 다수의 작품을 번역하였는데 특히 김억의 경우는 시 번역에서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인 번역작품 수를 보이고 있다. 이들 외에 새롭게 등장한 이들은 변영로, 박태원, 김상용, 이영철 등이 있고, 최경숙, 김자혜 등 여성 번역가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영어를 전공한 자들로 중역이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 들 외에 이하윤, 김진섭, 정인섭 등 해외문학파에 속하는 문학평론가들도 러시아 문학작품 번역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의 번역도 영역이나 일역의 중역이었다. 한편 전공자로는 함대훈, 이선근, 김온 등이 있다. 이 중 번역작품수나 번역의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함대훈으로 함대훈은 이후 번역작품 뿐 아니라 러시아 문학에 관한 논평가로도 활약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번역작품이 19세기 작가에 국한되어 있고, 단편 번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3. 1940년대 번역문학

1930년대 후반 시작된 번역의 침체시기는 194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다. 식민시기였던 1945년까지는 일본의 문화탄압으로 대부분 친일 편향의 잡지만 존재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문학뿐 아니라 세계문학 소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러시아 문학은 5년 동안 5편의 소설 만이 번역되었으며 모두 중역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박태원이 1940년 톨스토이의 『바보이완』이라는 작품

을, 백석이 1942년 잡지 『야담』, 『조광』에 “엔·바이곱프”의 작품 두 편을 각각 번역하였고 기타 솔로호프, 쿠루이로푸 작품 등이 있다. 이처럼 빈약하기 짝이없던 문학은 해방이후 소련이 한반도 북쪽을 통치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3.1 1940년대 번역문학

소설

원작가	작품명	번역가	출처	연도
고리키	여름밤	缺	신문예	45
	論敎	缺	신문예	46
코론타이	삼대의 연애	조태심	문화창조	45
체홉	이백만원	최필봉	청년예술	48
투르게네프	연기	구근생	협동	46
니콜라이치호노프	승리	윤규보	신세대	46
일랴에렌부르크	전쟁의표정	채정근	신천지	46
올가프르쉬	첫승리	채정근	부인	47
콘스탄틴시모놉프	오늘에우리들은어찌만나리?	채정근	신천지	47
〃	촛불	채정근	민청	49
시모노프	水中橋	최정문	민청	47
이스바흐	열째자식	채정근	문학논평	49
나데즈다째르또봐	아침햇빛	채정근	부인	49
톨스토이	안나카레니나	缺	신태양	49
보리스파리냐-크	성탄제	缺	체신문화	47
우호	정착된기차-나의倔强	최장학	신천지	47
포스토브스키	시월밤	脈波	새한민보	49
칼씽	최후의 一線	缺	국방	50

김병철(1975)

4. 정리

1930년대와 1940년대 러시아 문학번역작품의 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가진다. 1930년대에는 그 이전 시대에 비해 다양한 작가들과 다양한 작품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문학잡지가 꾸준히 증가한데 그 원인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외국어 전공자들이 해외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학의 조류를 형성하며 전공외국어로부터의 직접적인 번역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러시아 문학번역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표적인 러시아 번역가로 함대훈을 들 수 있다. 함대훈은 일역으로 인한 번역의 무용성을 주장한 작가 및 평론가들에 맞서 번역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 한가지는 전문적 평론의 번역이 한편 1940년대의 상황은 이와는 크게 다르게 변화하는데 무엇보다 해방 전 극심한 문화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문학을 비롯한 해외문학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방이후 한반도 이북을 소련군이 통치하게 되면서 정치성이 강하고 소련의 색채가 강한 작품들의 번역이 급증하였다.

희곡번역 과정 연구

ANT를 중심으로

2016. 11. 18.

한국외대 윤현숙

목차

1. 연구동기와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희곡번역 과정, ANT
3.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4. 사례분석
   인간행위자 분석: 인터뷰
   비인간행위자 분석: 텍스트 비교·분석
5. 결론

연구동기

희곡번역



다락방 번역자의 외로운 작업??

연구목적

희곡번역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이론적 배경: 희곡번역 과정

희곡번역

page to page　　page to stage



Transposition

Zuber-Skerritt(1984: 3)

이론적 배경: ANT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

- 1980년대 초반
- 브루노 라투르, 미셸 칼롱, 존 로우와 같은 과학기술학자
- 사회를 인간과 비인간의 이질적인 실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보는 이론
- 핵심 연구방법: 행위자 추적하기

↓

번역과정의 다양한 행위자들 및 그들의 상호작용

ANT의 핵심 개념

- 행위자(actor)
  - 어떤 행위를 하는 실체
  - 어떤 행위자에 대한 정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겪은 다양한 과정 속에서 형성**

- 네트워크(network)
  - 성격이 아직 미결정된 실체들 사이의 비구체화된 관계들의 집합
  - 행위자의 행위능력은 고립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그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 번역(translation)
  - 이질적인 네트워크의 건설 과정
  -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즉 **다른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에 맞게 치환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행위**

연구자료

- 연극 <벚꽃동산>

2015. 8. 25-30 세종문화회관

고려대 110주년 기념 극회 선후배 합동공연

- 선정 이유

이 공연이 희곡번역 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결과물

연구방법

- 인간행위자 추적하기

  번역자, 윤색자, 연출자 인터뷰

- 비인간행위자 추적하기

  텍스트 비교·분석(TT1-TT6)

사례분석: 번역자 인터뷰

1. 공연 제작 전체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 시점은?

처음 공연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에 많이 참여. 작품 선정 시 본인은 벚꽃동산이 너무 많이 한 작품이라 반대했으나 연출자가 주장

2. 연출자의 수정에 대한 생각은?

연출자의 일방적인 삭제는 없었음.

수정에 대해서는 많이 싸우려고 했으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바빴고 또 최종 결정은 연출의 몫이므로 번역 의도를 밝히기는 했지만 연출의 최종결정 수긍

3. 윤색본에 대한 생각은?

문어적 느낌이 강함, 이러한 유려한 문체나 품격 있는 표현대로 배우가 발화하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음. 본인은 하층민의 대사의 경우 더 상스럽고 비문도 많이 넣고 싶었으나 수정. **윤색자가 있어 좋은 점은 이상한 부분을 많이 찾아 다시 검토할 수 있었다는 것.**

4.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번역자와 연출자는 어느 정도 협력해야 하는가?

번역자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하여 연출가와 협력하며 공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 다만 최종 결정은 연출의 몫

사례분석: 윤색자 인터뷰

1. 배우들의 리딩 시 참여는?

전체 리딩 시 1번, 부분 리딩 시 2번 참여. 배우들의 대사를 들으면서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체크하여 연출자와 논의하고 이를 대사에 반영.

2. 희곡번역자에게 바라는 점은?

윤색자가 있는 경우는 원문에 대한 정확하고 충실한 번역 및 상세한 각주.
윤색자가 없는 경우라면, 공연에 쓸 수 있는 번역이 되도록,
번역자가 윤색자의 역할도 같이.

3. 적절한 무대언어로 만들기 위해 비중을 둔 부분은?

배우의 호흡을 고려한 대사. 이를 위해 문장 짧게, 문장 기호(쉼표, 행갈이),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간략하면서도 이어지는 행동지시문.

4.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번역자, 윤색자, 연출자의 상호작용은 ?

번역자는 정확하게 번역, 윤색자는 이것을 알맞은 무대언어로 옮기고,
최종 결정은 연출자.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음,

사례분석: 연출자 인터뷰

1. 기존 번역본이 많은데 새로 번역본을 만든 이유는?

말하기에 길고 수식이 많아 배우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대본이 별로 없음.
한국어로 옮겼을 때 그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출로서는 커다란 문제. 한국의 희곡 전문 작가가 체홉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대본 작업

2. 번역자와 윤색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생각은?

중간에서 번역자와 윤색자가 하는 걸 보니 말투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상이.
두 개를 조율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결국 윤색자가 번역본을 참고해서 정리하는 방향. 각색이 아니라 윤색 작업

3. 가화성(speakable), 행동성(actable)을 살리는 번역이 되려면?

번역자는 정확하게 번역하고 윤색자는 이것을 말하기 좋게 옮기는 것,
사실 이 순서가 맞는 작업인 것 같음.

4. 공연의 전 과정에서 번역의 중요성은 ?

번역자가 드라마터그로 참여했기 때문에 작업 가능. 번역자만큼 작가, 시대,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음. 배우에게는 단순히 쓰여진 정보뿐 아니라 쓰여진 정보 사이의 정보 필요, 연출자가 다 못하므로 번역자의 도움 필요.

사례분석: 텍스트 비교·분석

TT1	TT2	TT3	TT4	TT5	TT6
번역본	TT1에 대한 윤색본	TT2에 대한 번역자 수정본 & 이에 대한 연출자 코멘트	TT3의 연출자 코멘트에 대한 번역자 수정본	TT1-4에 기반한 최종 윤색본	TT5에 기반한 최종 공연대본
번역자	윤색자	번역자, 연출자	번역자	윤색자	연출자
2015.01.	2015.05.	2015.05.	2015.06.	2015.06.	2015.07.

1) 제목 설정

1. 체리농원
2. 벚꽃동산
3. 벚꽃동산
4. 벚꽃동산
5. 벚꽃동산
6. 벚꽃동산

2) 간결한 현대식 표현

에삐호도프

1. 이런 게 바로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어요?
2. 이런 걸 뭐라고 해야 할지….
3. 나오다 뺨까지 맞는 그런 꼴이 아니겠어요?
4. 이런 게 바로 국 쏟고, 뺨까지 맞는 격 아니겠어요?
5. 이런 걸 뭐라 해야 할지….
6. 이런 걸 뭐라 해야 할지….

3) 인물간 관계 설정(존대/반말)

에삐호도프

1. 정원사 아저씨가 이걸 갖다 주래, 식당에 꽂으라고.
2. 정원사가 갖다 주라더군요. 식탁에 꽂으라고.
3. 정원사가 갖다 주래. 식탁에 꽂으라고.
4. 정원사가 갖다 주래. 식탁에 꽂으라고.
5. 정원사가 갖다 주라네요. 식탁에 꽂으라고.
6. 정원사가 갖다 주라네요. 식탁에 꽂으라고.

4) 시각적 배치

로빠힌

1. 흰 조끼에 노란 구두까지 신고 있어도
2. 흰 조끼에 노란 정장 구두까지 신고 있다니
3. 흰 조끼에 노란 구두까지 신고 있어도
4. 이렇게 아무리 쫙 빼 입고 있어도
5. 흰 조끼에 정장 구두까지…
6. 흰 조끼에 정장 구두까지…

5) 예스러운 호칭

피르스

1. 마님께서 여기서 커피를 드시겠다는데. … 옛날 나리께서도 빠리에 가셨었지.
2. 부인께서 커피를 찾으시는데. … 주인 어르신도 옛날 빠리에 가셨었지요.
3. 마님께서 여기서 커필 드시겠다는데. … 옛날 주인 나리께서도 빠리에 가셨었지요.
4. 마님께서 여기서 커필 드시겠다는데. … 옛날 주인 나리께서도 빠리에 가셨었지요.
5. 부인께서 커피를 찾으시는데. … 주인 어르신도 빠리에 가셨었는데.
6. 부인께서 커피를 찾으시는데. … 주인 어르신도 빠리에 가셨었는데.

결론

희곡번역

⇩

행위자들
(제작자, 번역자, 윤색자,
연출자, 연기자, 관객)의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네트워크

참고문헌

- 김환석. (2001). STS (과학기술학) 와 사회학의 혁신. *과학기술학연구*, *1*(1), 201-234.
- 최수연. (2016).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욱 엮음. (2010). 인간· 사물· 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 Callon, M. (1993). Variety and irreversibility in networks of technique conception and adoption. *Technology and the wealth of nations: Dynamics of constructed advantage*, 232-268.
- Latour, B. (1992). Where Are the Missing Masses? The Sociology of a Few Mundane Artifacts, in Wiebe E. Bijker and John Law (eds.),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Cambridge: MIT Press, 225-58.
- Zuber-Skerritt, O. (Ed.). (1984). *Page to stage: theatre as translation* (Vol. 48). Rodopi.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301-1호

IX 세션 (한국외대 대학원생 세션 2)

러시아 역사 및 교육 담론, 그리고 경제협력

사회: 강윤희(국민대)

≫ 발표 1

극동에서 러-중 경제협력의 동인: 푸틴시대를 중심으로

정두호

≫ 발표 2

2차대전 당시 소련 소수민족의 전쟁참여: 훈장 수훈자와 민족부대 분석

양성민

≫ 발표 3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개혁 정책에 관한 소고

대통령 연례교서와 주요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조성연

극동에서 러-중 경제협력의 동인: 푸틴시대를 중심으로

정두호(한국외대 대학원생)

Ⅰ.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992년 옐친의 중국방문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우호국가' 관계를 설정한 이후 지속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현재 푸틴-시진핑 시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견미·반패권주의라는 동일한 가치관에 기저해서 유사 이래 최고의 황금 밀월기를 구가하고 있다. 실제로 양국은 북한·이란·시리아 문제 등 주요 국제적 이슈가 부상할 때마다 공고한 연대를 과시했다.[1)]

과거 푸틴1, 2기 집권기간 양국 간의 많은 회담들이 있었고 수많은 조약들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에서는 군사·외교 분야와 다르게 엄청난 잠재적 협력 가능성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요 저해요인으로 중국 위협론, 극동지역과 동북3성의 인프라 부족과 투자환경미비 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푸틴집권 3기에 들어서 푸틴은 중국과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동방정책"에 따라 2012년도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고 2015년, 2016년 두 번의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2015년 동방경제포럼 이후 푸틴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과 선도개발구역법을 각각 발효시켰다. 동방경제포럼 이후 극동지역에서의 러·중 협력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국제수송회랑의 구체화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중국을 잠재적 수요자, 또는 고객으로 상정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거대한 자본투자가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중국의 투자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중국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중국도 2013년 시진핑이 국가 주석에 오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실무적 관계 발전 시도, 천연가스 공급 합의와 일대일로 전략 추진은 실용적 차원의 양

1) 홍완석,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30권 2호(2014년) 103쪽.

국 관계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현 푸틴3기의 신동방정책들이 과거와 달리 신 밀월관계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도 긍정적인 큰 효과를 내고 있는 있는지 과거 푸틴집권 1,2기와 현 푸틴3기의 극동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의 성격을 비교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 푸틴1,2기와 3기를 구분한 이유는 2000년도 푸틴1기부터 러·중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지만 경제협력은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았다. 반면에 메드베데프 시기(2008-2012)에 이은 푸틴3기는 신동방정책을 강조하며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논문의 분석적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푸틴1~2기의 러·중 경제협력을 살펴봄으로써 양국 협력의 배경과 성격을 분석하고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메드베데프 집권기에 이은 현 푸틴3기의 러·중 협력을 알아볼 것이다. 4장에서는 메드베데프 시기를 거친 푸틴3기의 러·중 경제협력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에서 어떻게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푸틴1,2기와 푸틴3기를 비교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Ⅱ. 선행연구 및 분석 틀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본 주제에 대한 연구방향과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중국 관계발전을 동북아 및 한반도와 연결시킨 논문들이 있다. 둘째, 러시아-중국 간 관계발전을 정치·에너지·군사·경제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셋째, 러시아-중국 양국 간 관계발전을 지역 안보기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넷째,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그리고 미국 요인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이 있다.

그중에서 양국의 경제 관계에 대한 논문은 크게 무역, 에너지협력, 교통물류협력과 지역개발협력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역분야에서 있어 김상원(2011)은 2000년 푸틴이 취임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2001년 7월에 러·중 우호협력 조약에 서명하면서 경제 및 무역협력을 촉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 에너지협력에 있어 윤익중(2015)은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푸틴의 신동방정

2) 김상원,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협력 강화와 문제점 연구: 무역, 투자,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

책과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해 “시베리아의 힘”을 체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에너지협력에 영향을 끼치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시적인 협력 결과가 단기간 내에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3] 조정원(2012)은 양국의 천연가스 협력을 서기동수 프로젝트(1998-2002), 중앙아시아 가스관, 알타이 가스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전략과 전략적, 경제적 고려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교통물류협력에 있어 성원용(2009)은 양국사이에 에너지와 교통물류 분야는 상호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잠재력과 의지를 어떻게 현실로 전환시킬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하였다.[5]

외국 논문에서 중국학자들은 극동을 개발시키려는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러·중 협력에 있어 새로운 기회(New opportunity)라고 전망하고 있다. Feng(2013)은 아·태지역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이 중국과 다른 아·태 국가들의 자원, 환경, 토지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았다.[6] Xing Guangcheng(2012)은 러시아의 아·태전략은 중국과의 폭넓은 관계 발전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동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안보 형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7] Zhao Huasheng(2016)는 과거 20년 동안 러시아는 중국의 독점적 경제력을 우려하면서 중국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꺼려했다. 그러나 푸틴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극동의 개발은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두드러졌다고 보고 있다.[8]

다수의 러시아 학자들은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들도 있다. Titarenko는 2014년 5월 양국 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상호협력을 양국 간 관계발전에 중요한 요소로서 분석하였다.[9] Titarenko와 Petrovsky는 세계안정과 양국 간 발전을 위하여 양국의 절대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0] Ivanov는 양국 간의 발전에

아논총』 제16권 2호(2011년), 54쪽.

3) 윤익중·이성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중국 간 에너지협력의 정치·경제적 의미: 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0(4), (2015년), 262쪽.

4) 조정원, “러·중 에너지 관계 변화의 정치경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7(3), (2012년),

5)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對 중국 경제관계: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6권 1호(2009년), 243-289쪽.

6) Feng,S, “A Sino-Russian Relationship Facing the Future of Asia-Pacific,” Russian Studies, (2), 2013.

7) Xing Guanchang, “The New Changes in Russia’s Asia-Pacific Strategy and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5), 2012

8) Zhao Huasheng, “Sino-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and Central Asia Since 2012,” Eurasia Border Review, (6), 2016.

9) М. Титаренк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саммит-2014: новый этап стратег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убликации ИВД РАН –2014. – 23 мая).

비해 양국 국민 간의 정서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11]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푸틴1,2기와 비교하여 현 푸틴3기의 신동방정책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 가지 이슈 즉 에너지, 교통, 지역개발 등을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양국의 관계를 전 방위적으로 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 및 투자, 에너지 분야, 교통로를 중심으로 과거 푸틴 1~2기부터 현재 푸틴3기까지 살펴봄으로써 극동지역에서 러·중 경제협력의 패턴과 속성을 분석하여 푸틴 1~2기와 푸틴3기의 양국관계를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푸틴 1~2기와 푸틴3기의 러·중 경제협력을 분석하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관계와 배경 그리고 정책을 중심으로 푸틴 1~2기와 푸틴 3기를 비교할 것이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

	협력적(우호적) 성격	독자적(비우호적) 성격
경제협력 필요	전면적	제한적
경제협력 불필요	제한적	단절

출처: 필자작성

10) М.Л. Титаренко и В.Е. Петровский, “Россия, Китай и новый мировой порядок,” *Международная жизнь,* март (2015). сс. 24-44.

11) Андре Иванов,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Дата: 17.08.2015(СОЮЗ МЕДВЕДЯ И ДРАКОНА)http://www.km.ru/world/2015/08/17/strany-briks/763005-soyuz-medvedya-i-drakona (검색일: 2016.9.4)

Ⅲ. 푸틴 1~2기 러·중 경제협력의 배경과 동인

1. 푸틴 1~2기 경제협력의 배경

1990년대 극동 지역의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일본 자본과 유럽과 미국 자본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1991년 미쓰이물산과 맥더모트, 마라톤 석유가 사할린 해상유전 프로젝트 신청을 위한 MMM그룹을 만들었고 1992년 1월 사할린의 해상유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1995년에는 엑소모바일과 일본의 이토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데코 컨소시엄, 러시아의 SMNG, RN 아스트라가 사할린-1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하고 사할린 섬의 원유, 가스 개발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도 일본, 유럽, 미국 자본의 극동 지역 에너지에 대한 투자 협의와 시도가 계속되었다. 러시아 옐친 정권이 급진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 가정에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국내 자본만으로 사할린의 에너지 투자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연방정부는 2000년대 푸틴이 집권하면서 일본과 유럽, 미국 자본에 유리하게 되어 있던 러시아 자원개발의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2003년 6월 생산물 분배 계약을 개정하여 외국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러시아 기업들과 수익을 분배하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일본, 유럽, 미국 지본 중심의 극동 러시아 투자의 다원화를 시도하기 위해 앙가르스크-다칭 송유관 제안을 시작으로 극동 지역 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12)]

2. 러 · 중 경제협력의 성격

극동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푸틴 1~2기 극동개발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단독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실질적인 극동개발에 동참하려는 동북아 국가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러·중 간 투자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많은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행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푸틴1-2기 시대 (2000-2007년)의 양국의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12) 조정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2016년), 222-225쪽.

2.1 경협 촉진요인

(1) 지리적 인접성

경제협력의 촉진요인은 양국의 지리적 인접성을 꼽을 수 있다. 양국은 4,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며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정러시아와 청나라 간 일련의 불평등 조약에 의해 획정된 영토·국경 문제가 2004년 10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동북국경확정에 대한 추가합의문서에 조인함으로써 국경문제가 해결되었다.[13] 극동지역에서는 국경무역의 활성화 때문에,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연방주체들이 중국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2) 경제상호보완성

다른 요인으로 양국은 에너지 자원과 공산품을 주로 수출입하는 대외무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동북 지역은 극동 러시아에 비해 인적 자원과 자금,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이 높아진 국민들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와 각종 내구소비재에 들어가는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극동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와 광물 자원, 목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생활용품과 각종 내구 소비재에서 여전히 약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무역과 경제 협력은 서로의 강점을 살리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14] 또한 극동개발에 많은 노동력 수요에 대해 중국은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 정치적 성향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있어 양국은 1990년대부터 양국 간 주요 관계는 계속 발전을 더해 왔다. 1992년 말 옐친의 중국 방문 시 '실질적 동반협력관계' 발전에 합의하였다. 이 선언에서 옐친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국으로 인정하였고 옐친과 장쩌민은 양국 간 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장 이후 양국 간 관계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항하며, 전환기 체제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였다.[15] 두 나라의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체계가 수직적이거나 권위주의적이며, 그로 인한 시간단축은 물론 '거래비용'의 감소요인 등을 고려할 때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될

13)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16쪽.
14) 조정원, 중국 동북3성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362쪽.
15)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235-236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16)]

<표 1> 러·중 관계 발전과정 (1992-2007년)

1992년	옐친 방중	“실질적 동반협력관계”로 발전
1994년	장쩌민 방러	“21세기 건설적 동반자관계 발전”
1996년	옐친 방중	“21세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2001년	장쩌민 방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002년	푸틴 방중	북한과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2003년	후진타오 방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강화 확인
2004년	원자바오 총리 방러	경제·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 합의
2004년	푸틴 방중	동북 4,300km 국경확정
2005년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
2006년		러시아의 해로 지정
2007년		중국의 해로 지정

출처: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을 바탕으로 필자 재구성

2.2 경협 저해요인

(1) 중국위협론

경제협력의 저해요인은 러시아 내부에 ‘중국위협론’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인 인구유입, 경제력 확장 등이 있다. 극동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지만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은 수많은 인구수에 비해 영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중국인의 유입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표 2>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 추이 (1989-2007) (단위: 천 명)

연도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인구	7,950	8,011	7,518	7,136	6,832	6,634	6,508

출처: 러시아 통계청 www.gks.ru

<표 3> 러시아 극동 남부 지역의 중국 노동 이민 추이 (1993-2006) (단위: 천 명)

지역	1993	1995	1997	1999	2001	2005	2006
연해주	7.329	8.349	6.964	6.374	9.639	15.578	10.386
아무르주	0.693	0.699	0.663	0.634	0.312	3.646	4.529
하바롭스크	2.795	3.251	0.819	0.973	1.254	3.612	2.483

16) 한종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43쪽.

유대인자치주			0.327	0.467	0.550	0.684	0.770
합계	10.017	12.299	8.773	8.448	11.755	23.520	18.168

출처: 조정원, "중국 동북3성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 364쪽.

위의 표와 같이 감소하고 있는 극동주민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중국이민자들 때문에 극동지역이 중국에 잠식될 것이라는 위협론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극동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자로 중국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극동의 투자매력이 에너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중국에게 있어 큰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극동이 중국의 “자원 공급처”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러시아 내부에 존재한다. 중국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중국기업의 대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진출에 대해 러시아인의 66%는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러시아 내 인구증가에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71%이며, 중국 소비재의 수입을 반대하는 요구도 61%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17)]

(2) 극동개발의지 저조

양국 경제협력의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는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의지가 낮다는 것이다. 푸틴 집권 전반기의 멀티벡터외교가 동방정책과 서방정책 간에 모호성이 있었고 중국에는 러시아의 멀티벡터적 접근이 서방에 강조점을 둔 세력균형정책이라는 의도가 있었다. 물론 푸틴도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자원민족주의와 국가중심의 개발 정책 중심이었다.[18)] 중국의 극동지역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러시아의 조세 및 이민정책이 보다 엄격해지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등 중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고조되었고 러시아 지역들의 투자기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도 대러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19)]

3. 푸틴 1~2기 경제협력 분야

3.1 무역

러·중의 교역관계가 부침을 거듭한 1990년대와 달리 2000년 들어 2000~2007년간 양국 간 교역 증가율은 연간 약 30%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러시아경제가 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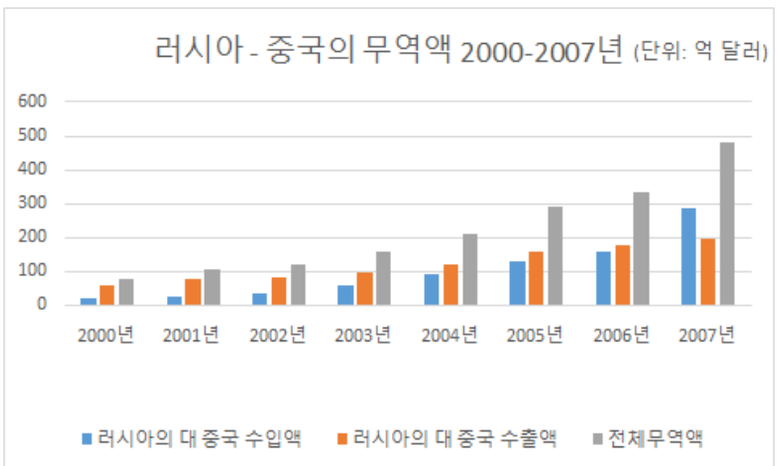
17) 한종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전망, 142쪽.

18) 윤성학,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1-4쪽.

19) 한종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00-101쪽.

체제전환기의 혼란을 극복하여 안정을 되찾고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양국의 견해의 차를 좁히고 의사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고위급 인적교류의 강화, 경제협력 현안을 다루는 대화채널의 구축 등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양국 간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20]

<그림 2> 러시아 – 중국의 무역액 2000-2007년



출처: 러시아 통계청 www.gks.ru

3.2 투자

2004년 하바롭스크에서 양국 간의 투자협력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시작된 '러중투자포럼'은 200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2차 회의로 이어졌고, 2007년 6월에는 '러중투자 교역협력' 원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7년 9월에는 소치에서 제4차 러중투자포럼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대러 투자와 관련하여 러시아측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그것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자본투자가 몇몇 대규모 프로젝트로 집중되는 국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극동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2~3%를 초과하지 않으며, 게다가 이들마저도 상당수가 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극동 러시아 지역과의 교역에서 30%에 가까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20)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對 중국 경제관계: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252쪽.
21)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對 중국 경제관계: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258-262쪽.

<표 4> 중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중국	해외투자	금액	2.1	1.9	15.8	13.4	9.2	20.2
		(%)	(0.36)	(0.25)	(1.39)	(0.47)	(0.18)	(0.34)

출처: 성원용 262쪽.

극동지역에서 양국 간의 가장 두드러지는 협력은 에너지협력이다. 중국은 에너지 수요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안정된 에너지원 확보,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안보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표 5> 러·중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	중국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사할린-3 베닌스키광구 (공동개발)
원유도입	2006년 1,000만톤 원유 도입(철도수송)
원유도입	2009년부터 최대 3,000만톤 원유도입 (송유관수송)
중국가스(CNPC)	2005년 로스네프트에게 60억 달러를 제공하고 2010년까지 중국에 약 5천만톤의 석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영석유기업(Sinopec)	2007년 3월 러시아의 로스네프트사와 같이 사할린-3 (베닌스키광구) 프로젝트를 위해 베닌 홀딩(Venin Holiding)사를 설립했는데 그 지분은 로스네프트사가 74.9%, CNPC사가 25.1%이다. 지질조사 비용은 SInopec이 75% 상당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가스 (CNPC)	2007년 9월 러시아의 루코일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 정제 및 가공 그리고 제3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출처: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 중국 경제관계

1994년 중국의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는 러시아 정부와 양국 간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999년 양국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 위치해 있는 코빅타 가스전을 개발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양국 간의 가스관을 건설하여 중국으로 수송 및 공급하는 이르쿠츠크 PNG사업에 합의하였다. 이르쿠츠크 PNG사업은 코빅타 가스전에서 중국으로 20bcm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측의 동 사업에 대한 승인 보류와 가스프롬(Gazprom)의 2003년 통합가스공급시스템(UGSS Unified Gas Supply System)발표로 동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22] 그리고 2004년 9

22) 윤익중·이성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중국 간 에너지협력의 정치·경제적 의미: 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250쪽.

월 양국 간 총리 회담에서 중국 총리 원자바오(Wen Jiabao)는 러시아 극동과 동시베리아의 가스전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양국 간의 교역 및 투자의 다양성 차원에서 정부가 양해각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중국의 CNPC는 2006년 3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총 수송능력 연간 약 60-80bcm의 2개 가스 파이프라인(서부노선, 동부노선) 건설에 대한 가스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서부노선과 동부노선을 통해 연간 68bcm을 공급하기로 중국 측에 약속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가스협력 사업은 양측 간에 가스공급가격 수준에 있어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는 유가연동에 의해 결정되는 대유럽 가스공급 가격수준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러시아는 약 350~400달러/1000㎥를 제안한 반면 중국은 중앙아시아 가스도입 조건과 같거나 이보다 유리하지 않은 한 러시아 가스를 무리하게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00~250달러/1000㎥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양국은 서부노선과 동부노선의 우선건설에 있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서부노선을, 중국은 동부노선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각각 제안했었다. 러시아가 서부노선(알타이노선)을 통해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하려면, 중국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까지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중국의 서기동수 가스관)의 잉여수송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중국 정부와 가스관 소유, 운영사인 중국 국영기업 CNPC의 결정에 달려 있다.[23] 중국은 대안으로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와 LNG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도입에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국의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 간의 교역은 주로 철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양국 간에는 이미 양국 간에는 이미 자바이칼스크-만주리, 그라제코바-수이펀허 간 철로로 국경통과가 실현되었다.[24] 양국 간의 교역의 중심에는 극동 러시아와 북한 동부 국경 지역과 인접한 지린성 훈춘시가 있다. 그러나 교통망의 미비로 교역의 어려움을 겪었다. 훈춘시는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 이니셔티브 (GTI)의 프로젝트로 건설한 훈춘-마할리노 철로를 2002년에 개통하면서 극동 러시아와의 인적 교류,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2004년 5월 철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극동 러시아와의 교류에 어려움이 있었다.[25]

또한 2002~2003년 중국은 러시아 측에 자루비노 항구 수용 규모를 40배로 확장해주는 조건으로 자루비노항의 49년 임대를 요청했을 때, 러시아 측은 블라디보스토크 배후에 강력한 경쟁항이 등장하고 물류 회랑까지 중국에 빼앗길 것을 우려해 거절하였다. 2007년 러시아가 관세율을 인상하고 통관 절차를 2배 이상 복잡하게 만들어 기존 통관 수익이 5배 축소

23) 위의 글, 251쪽.

24)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 중국 경제관계 277쪽.

25) 조정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2016년), 235쪽.

되자 극동지역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연해주의 물류 인프라가 무용화되고 나호트카의 자유경제지대가 정체되어 산업 전반이 퇴보하고 인구 감소 또한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나호트카를 북한의 나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에 임대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등장하였다.[26)]

Ⅳ. 푸틴3기 러·중 경제협력의 배경과 동인

1. 푸틴3기 경제 협력의 배경

푸틴 1-2기와 푸틴 3기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먼저, 푸틴3기 이전 메드베데프 정부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은 극동개발에 필요한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러시아 연방정부의 관심이 금융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자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담의 규모도 크게 축소되었다. 실질적인 사업 축소 및 연기라는 과거의 극동개발이 재현될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2012년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북아 국가들의 극동개발의 참여와 투자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27)]

동북아 국가들 중 러시아와 가장 두드러지게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었다. 2012년에 푸틴은 메드베데프에 이어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그 후 첫 순방국가로 중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3년에 중국에서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올랐고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였다. 중국 푸단 대학교의 교수이자 러시아·중앙아시아 센터장인 Zhao Huasheng은 양국의 지도자가 바뀐 후, 중국-러시아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28)] 동북3성(지린 6.5%, 헤이룽장 5.7%, 랴오닝 3%)은 2014년부터 2014년 중국 전체의 성장률7.4%를 밑돌면서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정부는 노공업 기지인 동북3성을 발전시키려는 동북부 균형개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왕양 부총리는 러시아 극동개발 전략이 중국 동북지방의 재활성화 전략과 일치하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30일 베이징에서 소집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동북지역 등 노 공업 기지를 전면적으로 진흥할 데 관한 의견을 심의 통과시켰다.

---

26) 최명해·임수호·이대식,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점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51쪽.

27) 윤성학,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6-7쪽.

28) Zhao Huasheng, “Sino-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and Central Asia Since 2012,” p. 103.

푸틴3기의 주요 사건으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을 합병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와 투자 제한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 재원 조달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자본이 러시아의 원유 설비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극동 지역에 대한 에너지, 물류 투자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극동 지역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했던 일본과 2000년대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9]

2 푸틴 3기 경제협력의 성격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친 푸틴3기의 극동개발은 협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양국은 2009년 9월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동북지방 간 협력 프로그램 (2009-2018)을 채택했다. 이 문서는 ①통관소 설치, 국경 인프라 건설·재건축 ②교통분야 협력 ③협력지대 조성 ④노동분야 협력 강화 ⑤관광분야 협력 ⑥지역 협력 중점 프로젝트 ⑦인문사회분야 협력 ⑧환경보호분야 협력 등 8개 협력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기존에 중국 측이 제안한 대러시아 "육로, 항만, 세관, 일체화" 프로젝트에서 강조한 변경지역의 세관 건설뿐 아니라 교량, 도로, 철도 대교 건립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 강요(2009-2018)는 동북 3성을 주 대상으로 작성되어 사실상 205개의 모든 프로젝트가 GTI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30] 협력적 성격을 띠는 푸틴3기에서 양국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2.1 경협 촉진요인

(1) 신동방정책

양국 협력의 촉진요인은 “신동방정책”에 따라 극동개발정책의 성격이 바뀐 것이다. 신동방정책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대내적인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신동방정책"은 메드베데프 집권시기에 나와 2012년 푸틴 재집권기 때 승인되고 강화되었다. "동방정책"은 러시아 외교에서 처음으로 나온 용어가 아니고 1990년 이후에 종종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에 쓰이던 “동방정책”의 의미는 유럽과의 관계에서 레버리지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국가들이 1

29) 조정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247쪽.

30) Yang Cheng, “Do national Policies Contribute to Regional Cross-border Integration?: The case of the program of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Russia’s Far East and Eastern Siberia (2009-2018) in Jing Huang and Alexander Korolev (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ssia's Far East and Siberia(Palgrave macmillan, 2015). 202-228쪽.

순위였고 아시아는 차 순위였다. 푸틴1기 기간에 푸틴은 러시아는 지리학, 문화, 경제 관계에서 유럽국가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동방정책은 과거와 성격이 다르다. 21세기 아·태지역의 정치, 경제 그리고 안보의 중요성은 뚜렷해졌다. 그러면서 아·태지역의 빠른 발전이 러시아의 경제의 촉진제로 작용하기를 러시아는 바라는 것이다.[31)]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극동지역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 2012년 5월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극동지역개발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였다. 2012년 5월부터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던 유리 트루트네프를 2013년 8월 31일부로 극동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표 겸 부총리로 격상하여 임명하였고 이와 함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단체인 '비즈니스 러시아' (Деловая Россия)의 공동대표인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ksander Galushka)를 극동개발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32)] 푸틴 대통령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3가지 우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제약을 제거하고 지역 간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하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건설, 교통 및 농업 개발, 원료-에너지 복합체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한 원료 가공 및 현대적 생산 시설 구축 등 전통적인 분야 및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선도경제구역의 설립이다. 투자 및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유치를 유치하는 것이다.[33)] 2013년 2월에 발표된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개념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개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작년 2015년 9월 대통령령으로 개최한 동방경제포럼 (Eastern Russia Economic Forum)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다자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태평양을 향한 무대라고 할 수 있다.[34)]

(2) 상호이해증진

푸틴1-2기의 양국 경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양국은 노력하고 있다. 계속 제기되었던 위협론에 대해 푸틴은 "나는 중국위협론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다. (중략) 우리는 중국과 논쟁을 원치 않는다. 중국은 신뢰할

31) Zhao Huasheng, "Sino-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and Central Asia Since 2012," p.106-107.

32) 변현섭,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슬라브연구』 30권 4호, (2014), 쪽.

33)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검색일:2016.9.24)

34) http://2korea.hani.co.kr/426248(검색일:2016.9.15)

수 있는 파트너이다."[35] 라고 뉴스 언론에서 밝혔다. 러시아 연방 이민국장(director of Russia's Federal Migration Service)인 라마다노브스키(Romodanovskii)는 이민자가 매년 1300~14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3/4은 CIS국가에서 왔으며 1/10은 유럽에서 왔고 중국에서는 40만 명 정도라고 언급하였다. 대부분은 단기간 체류이며, 정착한 사람은 68만 명 정도라고 덧붙였다. 즉 실제 중국 유입 위협은 없다고 언급하였다.[36]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호의를 갖는 러시아인들의 의견은 이미 나타난바 있다. 중국위협론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37]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여행자, 비즈니스맨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의 인식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상으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38] 2012년도에 푸틴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러시아에게 있어 위협이 아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39]

실제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러시아 국내에서 일어나는 중국위협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민간의 전통적인 민족적 반감정서를 완화시키고 국민 차원에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즉, 양국은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에서의 소통과 이해를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40]

2.2 경협 저해요인

35) “Interv’iu predsedatelia pravitel’stva rossiiskoi federatsii V. V. Putina [Interview with the Prime Minister of the Russian Federation, V. V. Putin]” October 17, 2011. http://premier.gov.ru/events/pressconferences/16755/ (검색일:2016.10.5)

36) Ivan Rodin, “FMS oprovergaet nalichie kitaiskoi ugrozy, glava vedomstva Konstantin Romodanovskii nevidet ni zasil’ia migrantov, ni ikh uskorennoi kriminalizatsii [Federal Migration Service Denies the Existence of a Chinese Threat: Head of Department Konstantin Romodanovsky does not See the Dominance of Migrants nor their Rapid Criminalisation],” *Nezavisimaya Gazeta*, http://www.ng.ru/politics/2012-03-22/3_fms.html (검색일:2016.10.5)

37) In a poll held by the All-Russian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VTSIOM) in January, 2015, as many as 51% of those polled said China had the friendliest attitude towards Russia. This figure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six years – from 23% in 2008. See: “China Friendliest Country for Russia, the US – Most Hostile – Poll Russia,” *Itar-tass*, January 28, 2015. http://itar-tass.com/en/russia/773856 (검색일:2016.10.5)

38) 김상원,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협력 강화와 문제점 연구: 무역, 투자,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69쪽.

39) “V. V. Putin, Rossiia i meniaiushchiisia mir [Vladimir Putin.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February 27, 2012. http://premier.gov.ru/events/news/18252/ (검색일:2016.10.7)

40)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2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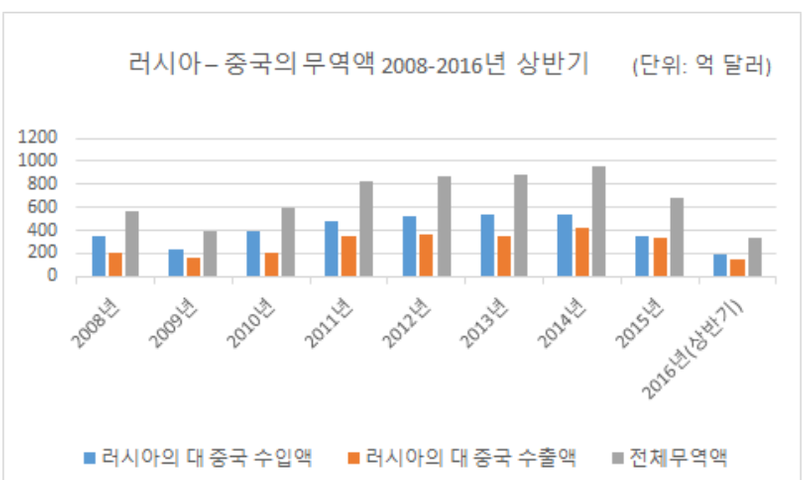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조업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극동지역의 질적 경제성장은 인적자본 형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극동지역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제조업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업구조 중심으로 바뀌었다. 극동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극동경쟁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논의는 고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구조조정 및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외국인투자는 불가피하다.[41]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 중국 기업들이 극동 시베리아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농업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곳으로 보고 있다.

3. 푸틴3기 경제협력 분야

3.1 무역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의 러·중 무역액은 95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2015년에는 러·중 무역액 1,000억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인하여 러시아의 해외 공산품 수입 가격의 인상, 중국의 대 러시아 수출 손실이 발생하면서 2015년 양국의 무역액은 680억6500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에 비해 큰 감소폭이 있었다.

<그림 3> 러시아 – 중국의 무역액 2008-2016년 상반기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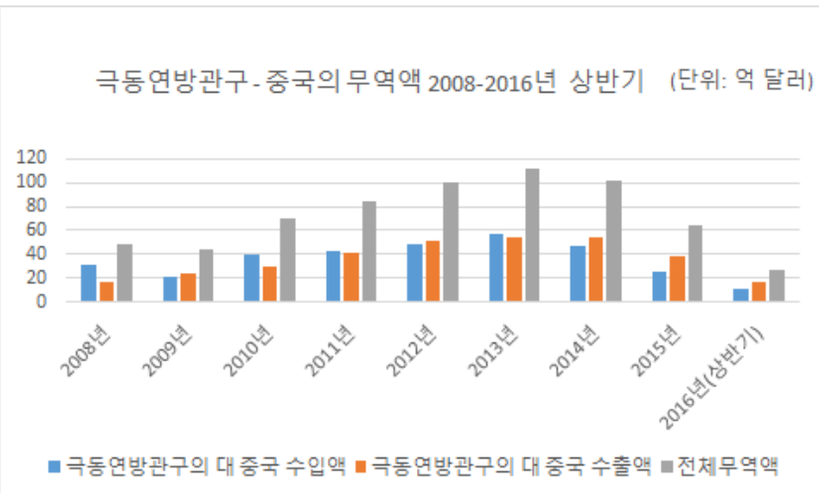
출처: 러시아연방 관세청 극동지부 http://dvtu.customs.ru/

극동 연방 관구에서 2008년 중국의 무역액은 48억 100만 달러로 일본 (68억 4,000만 달

41) 윤성학,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6쪽.

러), 한국(58억 2,800만 달러)에 이어서 3번째 무역 파트너였고 2009년에는 극동 연방 관구의 대 중국 공산품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액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공산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에 중국과 극동 연방 관구의 무역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중국의 공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 연방 관구로의 수출이 다시 감소하면서 무역액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42] 그러나 <표 5>을 보면 극동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중국, 일본, 한국이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중국의 감소폭이 다른 두 국가에 비해 적으며 2016년 상반기는 23.17%로 무역의 비중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무역액은 줄었지만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 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극동연방관구 - 중국의 무역액 2008-2016년 상반기 (단위: 억 달러)



출처: 러시아연방 관세청 극동지부 http://dvtu.customs.ru/

<표 6> 극동연방관구의 3대 무역 파트너 교역 비중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반기)
중국	26.6%	24%	27.75%	27.7%	26%	25%	23.17%
일본	26.4%	22.7%	23.2%	27.1%	26.27%	27.75%	21.83%
한국	23.8%	28.6%	28.2%	24.7%	26.2%	24.44%	22.51%

출처: 러시아연방 관세청 극동지부 http://dvtu.customs.ru/

(검색일: 2016.10.10)

또한 이른바 “보따리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다. 공식통계에는 보따리 무역이 집계되지 않

42) 조정원, "200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러시아 무역, 투자의 현황과 특성," 러시아학 관련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2016), 9쪽.

고, “국경시장 관리자”(representatives of transboundary markets)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국의 헤이룽장 성과 러시아의 아무르 주 사이에 2006년 공식무역액은 2억 3,170만 달러이다. 그러나 보따리무역까지 포함되었을 때, 6억 4,28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에서 보따리 무역을 포함했을 때, 국경무역규모가 공식통계의 2~3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철도, 교량 등 초국경 인프라 건설을 통해 극동과 중국의 동북지방 간 교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마할리노 철도가 재가동되었고, 아무르 주의 블라고베셴스크와 헤이룽장 성의 헤이허를 연결하는 교량, 유대인 자치주와 헤이룽장 성을 연결하는 철교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43)]

3.2 투자

2008년까지 이 지역에서 미미했던 중국의 직접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인 2009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극동에 있어 중국의 투자는 주로 에너지, 물류 인프라, 항공기 제작. 조선업, 첨단기술, 지역경제구역(regional economic zone)이다.[44)]

극동 러시아에서 중국 기업은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1,750억 루블을 투자하여 같은 기간 극동 러시아의 외국 투자 누적액 1조 2,280억 루블의 약 13.5%를 차지하였다. 중국 주요 기업들의 극동 지역에서의 투자와 활동은 유럽 파트보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이윤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7> 중국의 대극동 지역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러시아연방	109,628.9	300.390.4	120,640.7	591,101.4	212,236.2	253,764.6
극동연방관구	13,126.8	24,806.1	28,318.3	24,620.7	26,600.2	70,179.7
사하 공화국	-	-	-	50.9	-	-
캄차카 주	2.0	576.3	833.9	1,063.5	1,982.6	222.2
프리모리예 주	2,2279.1	1,6277.4	5,152.1	20,294.3	12,281.3	15,027.7
하바롭스크 주	1,412.6	0.6	0.8	657.7	981.8	10,974.7
아무르 주	3,982.9	7,277.1	10,149.8	20,115.4	7,160.0	31,215.3
마가단 주	3,876.7	4,664.0	-	146.9	402.9	-

43) 제성훈 외 3명,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23, 180쪽.

44) Pan Xinming, "China's Approach to the Cina-Russia Cooperation," in Jing Huang and Alexander Korolev (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ssia's Far East and Siberia(Palgrave macmillan, 2015).

사할린 주	159.3	9,936.1	8,348.9	7,525.0	901.5	192.7
유대인 자치주	1,414.3	724.6	3,832.8	4,727.0	2,890.1	12,547.1
추코트카 자치구	-	-	-	-	-	-
이 지역에서 중국의 FDI의 비중	0.5%	6.1%	4.9%	4.8%	6.0%	5.9%

출처: 러시아 극동자바이칼지역과 한국의 대응 p.177쪽.

중국의 직접투자를 연방주체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아무르 주 등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프리모리예 주, 유대인 자치주, 하바롭스크 주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즉 중국과 국경을 접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45)]

최근 수년간 투자협력 강화가 주요 협력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양국은 2001년 말 공동투자펀드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12년 6월 중·러 투자펀드(China-Russia Investment Fund)를 설립했다. 해당 펀드 조성을 위해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와 중국투자유한책임공사(China Investment Corporation)가 각각 10억 달러를 출자했다. 펀드의 70% 이상은 러시아와 CIS지역의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나머지 약 30%는 중국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46)] 이에 따라 2013년 10월 중·러 투자펀드는 아태지역 최대 임업상품 수출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REP(Russian-Forest Products) Group의 지분 42%를 인수했다.[47)]

중국의 투자 증가는 주로 상호 협력 확대에서 비롯되었는데 먼저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가 시작이다. 러시아는 250억 달러의 자원연계차관(loan-for-oil)을 2009년에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20년간 러시아가 매년 1,5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게 20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로스네프트는 석유를 900만 톤 공급하는 조건으로 150억 달러를 차관 받았다. 러시아석유회사는 매년 600만 톤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100억 달러를 차관 받았다. 로스네프트는 매년 3,1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하고 중국개발은행으로부터 20억 달러를 차관 받기로 중국과 2013년 3월 22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48)]

---

45) 제성훈 외 3명,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23, 178쪽.

46)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2012), “RDIF and CIC Launch Russia-China Investment Fund” (6. 5), http://rdif.ru/Eng_fullNews/99 (검색일: 2016. 11. 10)

47)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2013b), “RCIF buys 42% stake in RFP Group” http://rdif.ru/Eng_fullNews/769/ (검색일: 2016. 11. 10)

48) Pan Xinming, "China's Approach to the Cina-Russia Cooperation," pp. 114쪽.

2014년 5월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시베리아에서 극동 하바롭스크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총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 힘'이라 불리는 동부노선의 가스공급에 합의했다. 이 동부노선을 통해 러시아는 연간 38bcm(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30년 동안 공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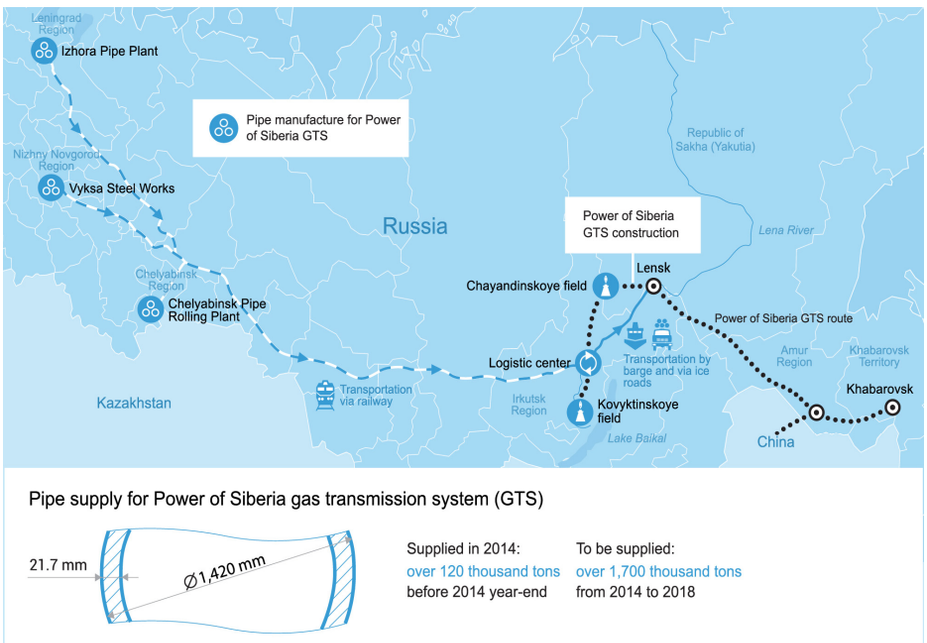
양국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매년 수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개최하며 도입 가스 가격수준과 결정방식, 시점, 노선, 가스 공급권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간 가스협상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대서방 공동 대응 차원 측면에서 양국 간 가스계약 타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가스프롬과 CNPC간 가스공급계약이 마침내 2014년 5월 말 중국 상하이 러·중 정상회담에서 체결되었다. 양국 간 가스협력이 마침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49]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동부 지선과 동부 지선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완료되면 <그림 5>에 나온 바와 같이 아무르에서 중국 동북 지역의 헤이룽장성 헤이허로 천연가스 수출이 가능하다. CNPC는 헤이허로 들어올 천연가스를 중국의 양대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로 운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석유는 헤이허-상하이-베이징 구간의 공사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난방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많은 두 개의 대도시로 천연가스가 운송되면 중국은 러시아 천연가스의 최대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50]

49) 윤익중·이성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중국 간 에너지협력의 정치·경제적 의미: 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249쪽.

50) 조정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이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러시아연구』, 26권 1호, 2016년, 228-229쪽.

<그림 5>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노선도



출처: “Pipe Supply for Power of Siberia gas transmission system,” *Gazprom website,* http://www.gazprom.com/f/1/press/infographics/gazprom-infographic-pipe-suply-en.jpg (검색일: 2016.10.15.)

<표 8> 러시아와 중국 에너지 협력 내용

기업	에너지 협력 주요 내용
국영 석유기업 시노펙(Sinopec)	러시아의 천연가스가공 및 석유화학 제품 기업인 시부르와 전략적 투자 협정 체결. 루스코예 석유가스전과 유루브체노-토롬스코예 석유가스전 개발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49% 인수
로스네프트(Rosneft)	2013년 7월 중국에 기존 원유 수출량을 2배로 증가하는 계약 체결. 25년간 2,700억달러 규모
중국가스(CNPC)	2014년 11월 러시아 주요 유전 Vankor의 지분 10% 인수
중국 국영기업 BEH (Beijing Enterprises Holdings)	로스네프트와 러시아 유전 공동 개발에 관한 체결 체결. BEH산하 기업인 베이징 가스(Beijing Gas)가 로스네프트 산하 기업인 베르크네촌스크(Verkjnechonsk)의 지분 20%매입
중국 국영 석유기업 켐차이나 (Chem China)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건설하는 동북석유화학기업(VNHK)이, 지분 40% 매입. 두 회사는 원유공급 계약을 체결해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최대 240만 톤의 원유를 로스네프트가 공급하기로 함
중국가스(CNPC)	가스프롬은 중국 내 지하 가스 저장시설 건설과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추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사의 투자협력 사업을 확대 합의

출처: 필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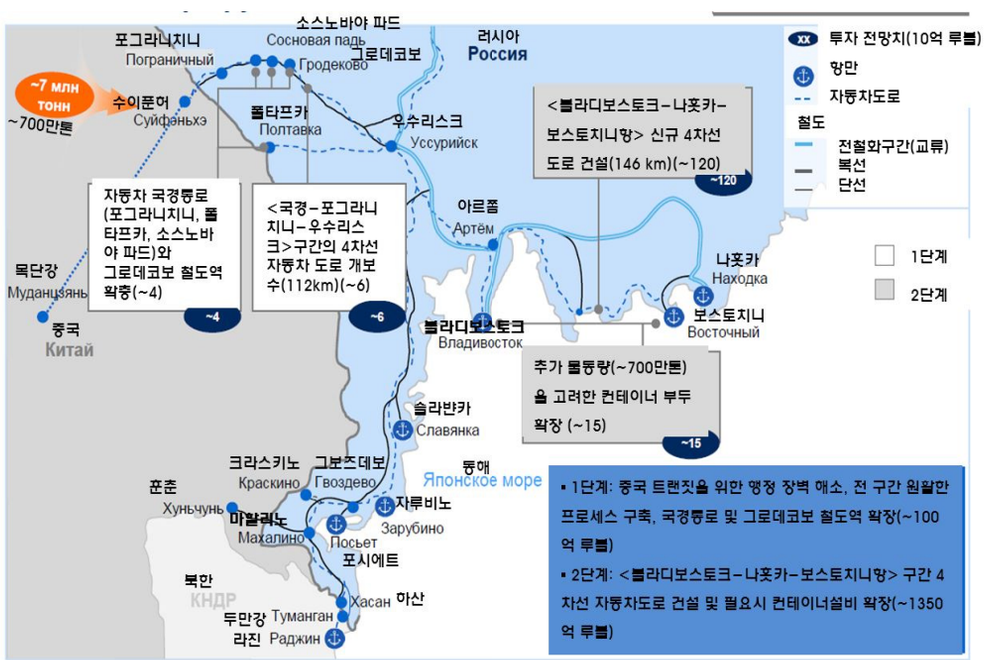
양국의 또 다른 주요 투자분야로 물류협력을 들 수 있다. 러시아는 연해주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하여 물류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아·태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기능을 재편하겠

다는 의미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극동지역의 제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아·태지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선도개발구역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51]

중국도 송유관, 가스관 건설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중국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시스템의 구축이다. 중국은 수이펀허 세관을 중심으로 한 육로, 철로를 통해 극동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 체계의 미비는 극동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이며 특히 양측 간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산 석탄 교역에도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극동 러시아와의 육상,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52]

양국은 두 개의 국제교통회랑인 프리모리예 (Primorye)-1, -2를 설정하고 있다. 프리모리예-1은 하얼빈-수이펀허-그라제코바-블라디보스토크항/나호트카항/보스토치니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그림 6> 프리모리예-1 구간 및 프로젝트 진행현황



출처: 엘레나 코레츠 자료 재인용

51) 변현섭,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1호(2016), 3쪽.

52) 조정원, “2008년 금융위기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231-232쪽.

프리모리예-2는 창춘-지린-훈춘-끄라스키노-지루비노-해상수송로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그림 7> 프리모리예-2 구간 및 프로젝트 진행현황



출처: 엘레나 코레츠 자료 재인용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항만이 없으므로, 랴오닝성의 다롄항이 주요 항만의 지위를 점해왔다. 그러나 이 루트는 처리능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장거리 육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생산된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대안으로 지린성, 헤이룽장성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의 극동항만 및 북한의 나진, 청진항을 경유하는 루트의 이용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중국은 이 국제수송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의 확대는 극동 지역과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경제 협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2013년 12월 훈춘-마할리노 철로(프리모리예-2)의 재개통하였다. 철로는 훈춘을 기점으로 종점인 러시아 하산의 크라스키노 현 마할리노 역까지 전체 26.7km(중국 국내 구간 8km, 러시아 측 구간 18.7km)로 구성되어 있다. 훈춘-마할리노 철로는 중국 지린성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린성과 러시아 간의 인적 교류와 물류 운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훈춘-마할리노 철로가 재개[53]하면서 훈춘-러시아 양방향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여객 운송과 물동량 처리 능력이 제고되었다.[54] 또한 수이펀허 신역사 개통으로

53) 훈춘-마할리노 구간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 Золотое звено가 부적합한 통행구간 설비로 철도 운행을 중단하여 개통이 불가능했다. 이후 2010년 이 기업이 파산된 후, 2011년 여름에 관할권이 러시아 철도공사로 이관되면서 9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54) 조정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러시아연구』 제26

인한 러시아 광궤 열차의 진입, 하얼빈과 시베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정기 열차가 개통되면서 중국의 대 러시아 무역의 중심인 헤이룽장 성에서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체계가 정비되는 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6년 상반기에 러시아 극동 철로 국경 세관에서 중국으로의 화물 운송량이 600만 톤을 돌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2015년 상반기보다 운송량이 12.3% 증가한 수치이다.[55]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 동북 지역과 극동 러시아와 연결되는 항만, 철로의 정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국의 화력발전소와 철강 회사들의 러시아 석탄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중-러 육상 수송에서 각 국의 관리 기관에 각각의 관련법규에 따른 신청이 필요해서 통관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시차 및 업무시간의 차이로 때문에 국경 개방시간이 불일치했다. 통관시간이 하절기는 3.5시간, 동절기는 4.5시간이다. 협력에 있어서 문제점은 주로 러시아 세관 측의 처리능력부족 및 소극적 자세 등에서 주로 기인했다. 메드베데프는 올해 2016년 초 세관메커니즘을 재정비할 수 있는 권한을 극동개발부에 위임해서 화물운송이 기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도록 요구했다.

2025년 프리모리예-1 노선을 통한 연해주와 헤이룽장(흑룡강)성 간 대외무역량은 곡물, 컨테이너 물류, 기타 화물 등 연간 약 8,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프리모리예-2는 자루비노 항만 개발 (Big Port Zarubino)프로젝트를 비롯해 중국 창춘-훈춘 철도와의 연계 철도 및 국경과 자루비노항 항구를 잇는 4차선 도로건설 등이 포함되며, 2025년쯤 프리모리예-2를 이용한 자루비노항 경유 연해주 내부 물동량은 약 17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츠는 자루비노항이 최대 2,300만톤 규모의 추가 물동량을 고려한 곡물 터미널 건설. 최대 1,500만톤 규모의 기대용량을 고려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 항만능력을 6,000만톤 규모로 증설하는 거대항만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린성 정부와 러시아 숨마(Summa)그룹의 자루비노 항만 개발 프로젝트(Big Port Project)는 그런 점에서 프리모리예-2 프로젝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자루비노 항만 운영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의 숨마그룹과 지린성 사이에 자루비노 프로젝트를 위한 의향 협정서가 조인된 것은 2014년 5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시점이었다. 이어 2014년 10월 13일 제18차 러-중 총리 정례 회담에서 숨마그룹과 지린성은 훈춘에 물류센터를 조성키로 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숨마그룹과 차이나머천트그룹(CMG) 사이에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를 위한 협력 의향서가 조인됐다. 이에 따르면 자루비노 항만 현대화를 통해 확보할 총 계획 물동량은 최소 6000만톤에서 최대 1억톤이며, 이 가운데 최대 60%는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중남부

권 1호(2016년), 236쪽.

55) 조정원,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러시아 무역, 투자의 현황과 특성," 19쪽.

연해지대로 가는 화물로 예상됐다. 자루비노 항만 개발 프로젝트에는 중국 동북3성 통과화물 처리를 위한 항만 개발, 훈춘-자루비노간 철도 도로 개선, 훈춘 내륙항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56]

<표 9> 극동 러시아와 중국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철로, 교량

명칭	구간	거리	현황
훈춘-마할리노 철로	훈춘-마할리노	26.7km	2013년 12월 운행재개
헤이룽장대교	블라고베셴스크 -헤이허	1km	2015년 여름 착공 예정
퉁장 철로 대교	샤레닌스키예-퉁장	31.62km	2014년 2월 26일 공사 시작, 2016년 완공 예정
창춘-블라디보스토크 도로	창춘-블라디보스토크	865.8km (중국: 574km) (러시아: 291.8km)	2014년 11월 개통
훈춘-창링즈 -블라디보스토크 고속도로	훈춘-창링즈 -블라디보스토크	14km	2015년 개통

출처: 조정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237쪽.

2014년 5월 중·러 투자펀드가 아무르 철교(railway bridge) 건설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해당 철교는 아무르 강을 가로질러 양국 국경을 넘는 최초의 철교가 될 것이다. 또한 아무르 주의 블라고베셴스크와 헤이룽장 성의 헤이허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도 착수되었다.[57]

Ⅴ. 결론

이 글은 국제사회에서 신밀월기로 평가받고 있는 현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푸틴3기의 극동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동방정책"이 양국협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푸틴1~2기에서 러·중의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경제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며 고위급 인적교류의 강화로 양국 간 교역 증가율이 연간 약 30%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극동에서 양국의 협력도 90년대 일본, 유럽과 미국 자본 중심의 에너지 투자에서

56) http://2korea.hani.co.kr/media/428161(검색일:2016.09.15.)

57) http://www.fpri.org/article/2013/11/the-russian-far-east-and-china-thoughts-on-cross-border-integration/ (검색일: 2016.11.10)

투자 다원화를 위해 러시아는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극동에서 도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구조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무역규모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스프롬과 중국의 CNPC는 2006년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총 수송능력 60-80bcm의 2개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가스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서부노선과 동부노선의 우선건설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스협력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통물류협력에 있어서 양국은 교통망 인프라 낙후와 통관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2~2003년 중국측의 자루비노 항구 임대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훈춘-마할리노 철로가 2004년 중단되었다. 2007년 러시아 관세율이 인상되고 통관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양국 교역의 어려움을 겪었다.

극동에서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는 “중국위협론”이 존재한다. 극동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자로 중국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에너지 분야 투자에 따라 극동이 중국의 “자원 공급처”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러시아 내부에 존재한다. 또한 러시아의 서북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극동에서 인구이탈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이 지역으로 중국인들이 대거 이민하면서 중국인들의 증가가 극동에 대한 중국의 “평화적 점령”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위협론 이외에도 투자환경문제와 이데올로기 측면이 존재한다. 러시아의 조세 및 이민정책이 엄격하여 기업환경이 악화되는 등 중국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며 투자기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러시아의 멀티벡터외교가 동방정책과 서방정책 간에 모호성이 존재했으며 푸틴 1~2기 극동개발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단독적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요인들이 푸틴 1~2기의 러·중 경제협력에서 저해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독자적 성격을 띠었던 극동개발이 협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2009년 양국은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중국 동북지방 간 협력 프로그램 (2009-2018)”을 채택했다. 푸틴3기에 들어서서 푸틴은 아·태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동방정책”을 표명하였다. 폴 크루그먼의 신무역이론에 따라 극동 경제의 낙후성은 극동 인구의 이탈을 야기하며 극동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아·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동지역의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여 극동을 개발시키는 것이다. 푸틴은 극동개발부를 설립하고 동방경제포럼을 2015년과 2016년에 개최하는 등 극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신동방정책과 함께 2013년 시진핑 정부의 중국 동북부 균형개발 정책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 평균 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동북3성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극동개발과 연계하는 것이다. 또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는 러·중 관계를 최고조로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

극동 연방 관구에서 2008년 중국의 무역액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3번째 규모였지만 그 이후로 규모는 계속 커졌다. 2014년부터 유가하락으로 무역액은 줄어들었지만 유가하락요인을 없앴을 때, 중국은 2016년 상반기 무역 비중이 23.17%로 극동연방관구에서 가장 큰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외국자본투자유치를 위해 선도구역개발법을 2015년 3월 30일 발효하여 입주기업에게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협력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10년 동안 공급가격에 대한 이견을 보였던 가스협상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으면서 급속히 진행되었다. 결국 2014년 5월 상하이 정상회담에서 푸틴이 중국의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동부노선의 가스공급에 합의했다. 교통협력에 있어서 물류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아·태지역의 중계무역 중심지로 기능을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러시아는 2015년 10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법을 발효하였다. 중국도 물류 체계의 미비가 러시아 산 석탄 수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3년 훈춘-마할리노 철로가 재개하면서 여객 운송과 물동량 처리 능력이 제고되었고 2016년 상반기 화물운송량이 600만 톤을 돌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는 그 전년도 상반기에 비해 운송량이 12.3%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 러시아 측은 적극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푸틴1~2기의 주요 저해요인과 같이 푸틴3기에서도 “중국 위협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은 “중국 위협론”에 대해 “중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해 호의를 갖는 러시아인들의 의견도 설문에서 나타난 바 있으며 푸틴-시진핑 체제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이 중국의 위협론이 다 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 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과거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저해요인으로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제조업으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외국인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와 광물 자원, 농업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저해요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굳건한 협력관계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극동에서 양국의 상호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상기의 러·중 협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러시아 극동 개발이 러시아의 지정학적 과제이며 러시아의 발전 동력을 역동적인 아·태 국가와 협력을 통해 찾고자 하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극동 개발과 접목될 수 있다. 러시아 극동 개발은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지만 재원의 20%만을 러시아 정부가 지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80%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통하여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협력이 강화되어야만 실현가능성이 높다.[58] 하지만 1998년 러시아 모라

토리움 시기와 비교하여 한국은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국과 일본의 극동개발 투자에 비해 극동투자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분야를 주시하면서 극동지역 투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야 하며 그에 맞는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양국의 견해의 차를 좁히고 의사결정을 단순화할 수 있는 고위급 인적교류의 강화, 경제협력 현안을 다루는 대화채널의 구축 등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 노력이 병행할 때, 한·러 관계의 관계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8) 이상준, "러시아 극동 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2015년) 233쪽.

참고문헌

김규륜 외 7명.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통일연구원, 2007.

김상원.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협력 강화와 문제점 연구: 무역, 투자,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6권 2호(2011년). 51-76쪽.

김우준. "중국 동북3성과 시베리아, 러시아극동지방간 관계." 『현대중국연구』. 5집 1호. 2003년. 159-180쪽.

김재관. "미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중·러의 대응." 『고려대학교 평화연구논집』. 제23권 2호.2015년. 163-206쪽.

_____.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요인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제59권 2호. 2016년. 116-155쪽.

박병인. "중·러 에너지협력의 조건과 전망." 『중국학연구』. 35집. 363-388쪽.

변현섭. "러시아 극동지역개발 전략으로서 선도경제구역 설립의 의미와 전망." 『슬라브연구』. 제30권 4호. 2014년. 59-79쪽.

_____. "러시아 자유항 제도 도입의 전략적 의미와 협력 방안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32권 1호. 2016년. 1-30쪽.

서종원. 『중국 창지투 개발정책과 동북아 물류체계 변화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1년.

성원용. “푸틴시대 러시아의 對 중국 경제관계: 에너지와 교통물류 협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제16권 1호. 2009년. 234-289쪽.

_____.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지역 개발과 동북아 지역협력: 가능성, 제약, 발전을 위한 조건."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1호. 2012년. 1-38쪽.

_____.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중·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연구." 『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151-208쪽.

_____.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교통체계와 동북아 경제협력." 『비교경제연구』. 제14권 2호. 99-144쪽.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53집 3호. 2013년. 427-463쪽.

_____. "러-중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정책." 『전략연구』. 제20권 3호. 2013년. 95-132쪽.

유동원. "중·러 전략동반자관계와 경제협력." 『영남국제정치학회보』. 9집 2호. 2006년. 251-270쪽.

윤성학.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년.

윤익중. “러시아-중국 간 신 밀월관계의 발전과 한계 : 푸틴과 시진핑 체제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39권 3호. 2015년. 221-267쪽.

윤익중·이성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중국 간 에너지협력의 정치·경제적 의미: 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30(4). 2015년. 235-272쪽.

이상준, "러시아 극동 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러시아연구』. 제25권 2호(2015년) 229-252쪽.

이용권·이성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발전 심화 요인 분석: 에너지 자원협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집 2호. 2006년. 215-237쪽.

장덕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 2014년. 229-266쪽.

제성훈. "러시아 대 중국정책의 지정학적 지향 : 2000년대 양국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3집 제4호. 2009년. 379-405쪽.

제성훈 외 3명.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4-23. 1-292쪽.

조정원. “러·중 에너지 관계 변화의 정치경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슬라브학보』.27(3). 2012년. 279-312쪽.

_____. “중국 동북 3성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 협력의 현황과 전망.” 『러시아연구』. 제23권 2호. 2013년. 243-273쪽.

_____. "2008년 이후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러시아 무역, 투자의 현황과 특성." 2016 러시아학 관련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2016년.

_____.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동 러시아의 에너지, 물류 투자의 현황과 계획." 『러시아연구』. 제26권 1호. 2016년. 219-254쪽.

주재우.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동맹 승화 가능성과 21세기 동북아." 『역사비평』. 112호. 2015년. 21-46쪽.

최영진.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진출의 교두보: 훈춘과 쑤이펀허 통상구의 비교연구." 『중소연구』. 제37권 1호. 2013년. 129-166쪽.

한종만.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비교경제연구』. 제15권 2호. 2008년. 113-149쪽.

홍완석. "2014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정치적 함의와 한반도," 『슬라브연구』. 제30권 2호 (2014년) 89-117쪽.

Feng, S. “A Sino-Russian Relationship Facing the Future of Asia-Pacific.” Russian Studies. (2). 2013.

Pan Xinming. "China's Approach to the China-Russia Cooperation." in Jing Huang and Alexander

Korolev (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ssia's Far East and Siberia.* Palgrave macmillan. 2015.

Paul Krugman.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9. 1979.

Yang Cheng, “Do national Policies Contribute to Regional Cross-border Integration?: The case of the program of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Russia’s Far East and Eastern Siberia (2009-2018) in Jing Huang and Alexander Korolev (e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Russia's Far East and Siberia(Palgrave macmillan, 2015). 202-228쪽.

Xing Guanchang. “The New Changes in Russia’s Asia-Pacific Strategy and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5). 2012.

Zhao Huasheng. “Sino-Russi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and Central Asia Since 2012.” Eurasia Border Review. (6). 2016.

Hao Tian. Sino-Russian Relation: Conflict and Cooperation. Lehigh University, 2015.

Marta Carlsson, Susanne Oxenstierna and Mikael Weissmann. China and Russia – A Study on Cooperation, Competition and Distrust. FOI, 2015.

Титаренко, М.Л. и Петровский, В.Е. “Россия, Китай и новый мировой порядок.” Междунар одная жизнь. март (2015). сс.24-44.

Титаренко, М.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й саммит-2014: новый этап стратеги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убликации ИВД РАН –2014.23 мая.

러시아연방 관세청 극동지부 http://dvtu.customs.ru/

러시아연방 통계청 www.gks.ru

Андре Иванов, Свободная Пресса. Дата: 17.08.2015(СОЮЗ МЕДВЕДЯ И ДРАКОНА) http://www.km.ru/world/2015/08/17/strany-briks/763005-soyuz-medvedya-i-drakona (검색일: 2016.9.4)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http://www.kremlin.ru/news/46522(검색일:2016.9.24)

http://2korea.hani.co.kr/426248(검색일:2016.9.15)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50006&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3&row=60(검색일:2016.9.30)

Ivan Rodin, “FMS oprovergaet nalichie kitaiskoi ugrozy, glava vedomstva Konstantin Romodanovskii nevidet ni zasil’ia migrantov, ni ikh uskorennoi kriminalizatsii [Federal Migration Service Denies the Existence of a Chinese Threat: Head of Department Konstantin Romodanovsky does not See the Dominance of Migrants nor their Rapid Criminalisation],” Nezavisimaya Gazeta, http://www.ng.ru/politics/2012-03-22/3_fms.html (검색일:2016.10.5)

“Interv’iu predsedatelia pravitel’stva rossiiskoi federatsii V. V. Putina [Interview with the Prime Minister of the Russian Federation, V. V. Putin]” October 17, 2011. http://premier.gov.ru/events/pressconferences/16755/ (검색일:2016.10.5)

In a poll held by the All-Russian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VTSIOM) in January, 2015, as many as 51% of those polled said China had the friendliest attitude towards Russia. This figure ha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six years – from 23% in 2008. See: “China Friendliest Country for Russia, the US – Most Hostile – Poll Russia,” Itar-tass, January 28, 2015. http://itar-tass.com/en/russia/773856 (검색일:2016.10.5)

“V. V. Putin, Rossiia i meniaiushchiisia mir [Vladimir Putin. Russia and the Changing World],” February 27, 2012.

http://premier.gov.ru/events/news/18252/ (검색일:2016.10.7)

2차대전 당시 소련 소수민족의 전쟁참여 : 훈장 수훈자와 민족부대 분석

양성민(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Ⅰ. 서론
Ⅱ. 소비에트연방영웅
Ⅲ. 영광훈장
Ⅳ. 민족부대
Ⅴ. 결론

Ⅰ.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훈장 수훈자와 민족부대를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소수민족의 2차대전 참여를 연구하는 것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특히 다민족국가 소련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민족이 일치단결했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슬라브인이 기여한 바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이 연구는 그 빈 틈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훈장 수훈자, 민족부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소련 소수민족의 전쟁참여를 분석할 것이다.

2장에서는 소비에트연방영웅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서는 영광훈장 3회 수훈자를 분석하고 2장의 소비에트연방영웅과의 차이점을 비교한다. 4장에서는 민족부대를 분석한다. 2, 3장의 훈장에 비해 민족부대는 소수민족의 전쟁 참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지 않았음을 논증한다. 5장에서는 본론을 요약·정리한다.

이 글을 '상징'이 수행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전개할 것이다. 상징은 복잡한 의미를 모호하게 나타냄으로써 감정을 환기하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행동을 유도하는 사물·행위·언어적 구성물을 말한다. 문화적 표현의 기본 단위이기도 한 상징은 다양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나 조직은 상

징을 통해 다른 개인·조직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만족을 얻으며 다른 집단·사람에 대해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1)]

이러한 상징은 보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는데, 특히 정책을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징정책은 특정한 사건·현상·언어·개념 등을 활용해 정책의 대상집단에 대해 무형적·간접적·정신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상징정책은 정책대상집단이 정책에 느끼는 순응성을 높이거나 심리적 만족감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2)]

II. 소비에트연방영웅(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1934년 5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가 제정[3)]한 소비에트연방영웅 칭호는 소련에서 주어지는 각종 훈장 및 칭호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것이었다. 이 칭호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영웅적인 공(геройского подвига)을 세운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었는데, 소련 전 기간 동안 이 칭호를 받은 인원은 총 12,77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중 91.88%(11,739명)는 2차 대전 참전용사에게 지급되었다. 소련의 역사에서 2차대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거대함을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다.

[그림 1] 소비에트연방영웅 메달[4)]



1) 서운석, 프랑스·독일의 국가통합 상징기제로서 보훈 연구, 유럽사회문화 제8호, pp.215-216, 2012.

2) 정원섭·정원희, 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 국가보훈 상징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8권 제2호, p.161, 2011.

3) https://ru.wikisource.org/wiki/%D0%9F%D0%BE%D1%81%D1%82%D0%B0%D0%BD%D0%BE%D0%B2%D0%BB%D0%B5%D0%BD%D0%B8%D0%B5_%D0%A6%D0%98%D0%9A_%D0%A1%D0%A1%D0%A1%D0%A0_%D0%BE%D1%82_16.05.1934_%D0%93%D0%B5%D1%80%D0%BE%D0%B9_%D0%A1%D0%A1%D0%A1%D0%A0(검색일 : 2016.11.10)

4) http://lezgi-yar.ru/_nw/23/88469334.jpg(검색일 : 2016.11.10)

[표 1] 분야별 연방영웅 수여자 수[5)]

수훈 분야	수훈자 수	비율(%)
제2차 세계대전	11,739	91.88
소련-핀란드 전쟁(1939-1940)	416	3.25
국제 분쟁 해결(스페인, 중국, 할힌골, 한국, 헝가리,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278	2.16
항공기술 발전	135	1.05
우주 탐사	84	0.65
극지 탐사	55	0.43
각종 기념일 및 우방국 국가원수	40	0.31
국경 수비	34	0.26
테러 대응	9	0.07
대외정보 업무	7	0.05
체르노빌 사건 처리	6	0.04
1991년 헌정 위기	4	0.03
합계	12,776	100.18

전쟁 당시의 수훈자 수를 민족별로 나누어 보면, 80%는 슬라브인(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게, 나머지 20%는 비슬라브인에게 수여되었다. 연방영웅 칭호 수훈자들의 명단을 모은 인명사전을 보면, 모든 수훈자의 민족을 일일이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그 중 한 명을 발췌한 것이다.

> 시아반도프 사만드 알리예비치, 1909년 11월 20일 아산잔(지금의 터키 카르스 주) 출생. 농민 가정. 쿠르드인. 1931년 소련공산당 입당. 고등교육 수료. 아르메니아공산당 알라베르드스키 군위원회(райком) 제1서기. 1941년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레닌학생과정 수료. 1941년 6월 입대. 1941년 7월 전투 참여. 제755소총연대 정치부연대장(제1벨라루스전선군 제48군 제217소총사단). 1944년 벨라루스 작전 동안 유능하게 당의 정치업무를 조직하고 병사들을 독려함. 1944년 7월 9일 나레프 강 좌안 교두보 전투 당시 젠벤디즈(폴란드)에서 대대를 지휘하여 적의 반격을 격퇴함. 1945년 3월 24일 소비에트연방영웅 칭호 수훈.
>
> 1945년 중령 전역.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근무. 소련 최고소비에트 대표. 예레반 거주 및 근무. 레닌 훈장 1회, 붉은깃발 훈장 2회, 조국전쟁 1급훈장 2회, 조국전쟁 2급훈장 1회, 붉은별 훈장, 명예휘장 2회 수훈.[6)]

인명사전을 보면 이처럼 민족이 항상 둘째 줄에 언급되고 있다. 이는 소련에게 민족정책이 큰 중요성을 갖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소련은 기존에 민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던 개념들을 민족으로 분류하면서 민족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는 이른바 “여권 민족주의”에서 여실히 알 수 있다. 소련의 모든 국민은 여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이외에 민족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소련 시민은 자신의 이름을 바꿀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5) http://warheroes.ru/stats.asp를 바탕으로 저자가 편집.(검색일 : 2016.11.07)

6) Бабаков А.А.(руководитель), *Геро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том 2,* Воениздат, p.451, 1986.

민족을 바꿀 수는 없었다. 민족은 바꿀 수 없는 지표였기 때문이다.[7]

이처럼 인위적인 민족 정체성은 그 전까지 민족의 개념을 인지하지 않고 살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 창설 이후 실시된 인구통계는 올덴부르크 등의 구 제국 출신 민족지학자들이 수행했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씨족·부족의 개념이 민족 개념으로 격상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8]

그렇다면 이 칭호는 상징으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이 칭호를 수훈한 인원이 나고 자란 곳에는 그 사람의 흉상이 세워지고,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기는 등 그의 존재를 영구히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길을 지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사람의 흉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아래에서는 어느 민족이 몇 명씩 이 칭호를 받았는지 살펴본다. 위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칭호를 수훈한 인원이 11,739명인데, 아래의 표에서는 11,670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수훈자들의 민족을 공식적으로 구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수훈자의 부모가 각기 다른 민족 출신이거나, 소련 외부의 이민족이 소련으로 이민해 온 경우도 많다. 그런 인원을 어느 민족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여러 자료의 관점이 달랐다. 예를 들어 공식 인명사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인으로 분류되는 수훈자들 중에는 쿠르드인 혈통이 많은 편이다. 이는 쿠르드인이 남코카서스, 특히 아제르바이잔 남서부에 대거 이주했기 때문이다.[9]

뿐만 아니라 열람 가능한 자료도 구체적인 수치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히 수훈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슬라브인 수훈자 수에서 변동이 심하다. 아래에서는 여러 민족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참고했다. 다른 자료는 1명씩 수훈한 민족을 제외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칭호는 지금의 러시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1992년 3월 20일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연방영웅 칭호를 창설했다. 현재 러시아는 공이 현저한 이에게 '러시아연방영웅(Геро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이 칭호는 러시아연방 수립 이전에 공을 세운 인원에게도 지급되는데, 소련 당시 현저한 공을 세웠음에도 당시 수훈받지 못한 이들까지 함께 치하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 칭호를 수훈한 마고메드 누르바간도프(Магомед Нурбагандович Нурбагандов, 1985-2016) 경찰 중위는 다르긴인으로 다게스탄에서 준동하는 테러 세력에게 붙잡혔다가 총살되었다.[10] 이처럼 소비에트연방영웅 칭호는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이름만 바뀌어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이 훈장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지금의 러시아도 이 칭호를 국가통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

7) 구자정, "소비에트 연방은 왜 해체되었는가? - 소련의 "이중 체제"와 "민족 창조 정책"을 통해서 본 소련 해체 문제의 재고," 역사학보 제210호, 2011.6, pp.391-392.

8) Hirsch, Francine, *Empire of Nations : Ethnographic Knowledge and the Making of the Soviet Uni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39-41, 2005.

9) http://www.ethno-kavkaz.narod.ru/kurdistan26.html(검색일 : 2016.11.11)

10) http://warheroes.ru/hero/hero.asp?Hero_id=23367(검색일 : 2016.11.11)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 반도에서는 올해 5월에 크림 반도 출신의 연방영웅 수훈자 37명을 기리는 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가지기도 했다.[11] 크림공화국 총리 세르게이 악쇼노프가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만큼 크림 공화국 차원에서도 중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훈장이 현재의 러시아에 갖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2] 민족별 연방영웅 수훈자 수(1955년 기준)[12]

러시아	8160	체코	6
우크라이나	2089	프랑스	4
벨라루스	309	압하즈	3
타타르	161	체르케스	3
유태인	108	야쿠트	3
카자흐	96	핀란드	3
조지아	91	폴란드	3
아르메니아	90	투바	2
우즈벡	69	하카스	2
모르도비야	63	카라차이	2
추바쉬	44	발카르	2
아제르바이잔	43	몰도바	2
바쉬키르	39	불가리아	2
오세트	33	슬로바키아	1
다게스탄 제민족	25	집시	1
마리	18	루신	1
투르크멘	18	바스크	1
리투아니아	15	벱스	1
타지크	15	아시리아	1
라트비아	12	쿠르드	1
키르기즈	12	투르크-메스헤티	1
코미	10	스반	1
우드무르트	10	아바진	1
독일	10	쿠만딘	1
에스토니아	9	나나이	1
그리스	9	쇼르	1
부랴트	8	에벤키	1
칼미크	8	텔레우트	1
카바르다	8	고려인	1
카렐[13]	8	카라칼팍	1
크림타타르	7	위구르	1
아디게	7	둥간	1
체첸	6		
65개 민족		11,670명	

위의 표는 민족별로 연방영웅 수훈자 수를 분석한 것이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이 네 가지 있

11) http://glava.rk.gov.ru/rus/index.htm/news/334869.htm(검색일 : 2016.11.11)

12) https://www.proza.ru/2009/08/16/901를 바탕으로 저자가 편집.(검색일 : 2016.11.07)

13) Baron, Nick, *Soviet Karelia : Politics, Planning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1920-1939*, Routledge, 2007.

다. 첫째, 소련의 구성공화국을 구성하는 민족 외에 러시아 내의 자치공화국을 구성하는 민족들에서 수훈자가 대거 배출된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타타르인·모르도비야인·추바쉬인·바쉬키르인의 약진이 돋보인다. 이는 이 자치공화국들이 전장과 가까이 있었으며, 1550년대 이후 러시아에 합병되면서 러시아와 함께한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다.[14] 1552년 카잔 칸국이 모스크바 공국에 병합당한 뒤 칸국에 살던 타타르, 모르도비야, 추바쉬, 바쉬키르인들은 그대로 모스크바의 시민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모스크바의 지배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 바쉬키르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끌어들여 여섯 번(1662, 1681, 1704, 1735, 1755, 1834)이나 러시아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15] 이처럼 러시아 민족과 오랜 충돌을 겪은 뒤에야 러시아의 지배를 수용했던 민족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러시아의 조국 수호 전쟁에 크게 기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유태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16] 비슬라브 민족들 가운데 수훈자 수가 가장 많다. 이는 전쟁 당시 유태인 인구가 소련 내에서 이미 많았기 때문이다. 전쟁 전 마지막으로 실시된 1939년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유태인은 3,100,949명으로 소련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민족이었다.[17]

셋째, 코카서스의 3개 구성공화국 중에서 유달리 아제르바이잔 수훈자 수가 적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 당시 3개 민족 중에서 아제르바이잔인이 가장 심하게 배척당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코카서스 전선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인들로 편성된 민족부대를 전선에서 후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휘관들 사이에서 발생할 정도였다.[18] 이 부분은 4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넷째, 시베리아 민족들[19] 또한 표에서 다수 확인된다. 부랴트인 8명, 야쿠트인 3명, 투바인·하카스인 2명 외에도 쿠만딘인(Камзараков Д.К.)·나나이인(Пассар А.П.)·텔레우트인(Четонов А. С.)·쇼르인(Куюков М.М.)·에벤키인(Увачан И.П.)이 각 1명씩 훈장을 받았다.

위에서 말한 대로 다민족국가 소련에게 민족 개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었다. 국경 내의 수많은 민족들을 이념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상징이 필요했다. 특히 나라가 외침에 의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는 그 이념적 상징이 더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래서 활용된 것이 전쟁 전부터 수여되던 소비에트연방영웅 칭호이다. 전체 수훈자의 91%가 2차대전 시기에 칭호를 받았을 만큼 이 칭호는 전쟁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부여되었다. 이 칭호를 수많은 민족의 군인들

14) Steinwedel, Charles, *Threads of Empire: Loyalty and Tsarist Authority in Bashkiria, 1552-1917*, Indiana University Press, 2016.

15) *Ibid.*

16) Arad, Yitzchak, *In the Shadow of the Red Banner: Soviet Jews in the War Against Nazi Germany*, Gefen Publishing House, p.4, 2010.

17) http://demoscope.ru/weekly/ssp/sng_nac_39.php?reg=0(검색일 : 2016.11.12)

18) Безугольный А.Ю., «Националь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в РКК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Июль 2014.

19) 제임스 포사이스,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출판사, 2009.

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내의 수많은 민족들이 소련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참전한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III. 영광훈장 3회 수훈자(полных кавалеров ордена Славы)

1943년 제정된 영광훈장[20]은 연방영웅 칭호처럼 군사적 공적이 현저한 인원에게 지급했던 훈장이다. 연방영웅이 사병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에게 지급된 것과 달리, 영광훈장은 오직 위관급 이하의 초급 간부와 사병에게만 지급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제국 시절의 성 게오르기 훈장처럼 영광훈장도 3개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처음 수여받는 인원은 3급을, 두 번째는 2급을, 세 번째는 1급을 지급받는 훈장이었다. 영광훈장을 1회 수훈자 997,815명, 2회 수훈자는 46,473명인데 비해, 3회 수훈한 인원들은 2,678명에 불과하다.

[그림 2] 영광훈장 메달(좌에서 우로 1회, 2회, 3회 메달)[21]



이 훈장은 군공이 현저한 인원에게만 지급된 만큼 지급 기준이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아래는 그 기준의 일부이다.[22]

개인화기로 적 10-50명 사살;
대전차총으로 적 전차 2대 이상 파괴;
대공포나 기관총으로 적 항공기 3대 이상 격추;
적 장교 포획;
야간 기습에 참여해 적 물자 파괴;

---

20) http://www.libussr.ru/doc_ussr/ussr_4466.htm(검색일 : 2016.11.12)
21) http://acepilots.com/medals/soviet/mil_files/glory.jpg(검색일 : 2016.11.12)
22) Бабаков А.А.(руководитель), *Кавалеры ордена Славы трех степеней*, Воениздат, 2000.

정찰 중에 유용한 정보 획득;

[표 3] 민족별 영광훈장 3회 수훈자 수[23)]

러시아	2015	카라칼팍	3
우크라이나	359	몰도바	3
벨라루스	62	코미	3
타타르	49	라트비아	2
카자흐	30	크림타타르	2
모르도비야	20	오세트	2
아르메니아	20	타지크	2
우즈벡	15	카렐	2
추바쉬	13	쿠미크	2
유태인	9	그리스	1
아제르바이잔	8	다르긴	1
바쉬키르	7	카바르다	1
키르기즈	7	아바진	1
우드무르트	6	중국	1
조지아	6	아디게	1
투르크멘[24)]	6	리투아니아	1
부랴트	4	노가이	1
마리	4	체첸	1
폴란드	3	야쿠트	1
하카스	3	투르크-메스헤티	1
40개 민족		2,678명	

우선 민족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영광훈장과 소비에트연방영웅 칭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방영웅 칭호가 65개 민족에게 주어진 데 반해 영광훈장은 2/3에 불과한 40개 민족에게만 수여되었다. 연방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기준이 '영웅적 공적'으로 모호한 반면, 영광훈장은 오직 전투 중의 공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표는 3회를 모두 수훈한 인원들만 포함하고 있다. 2회 이하 수훈자 중에는 다른 민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물론 연방영웅 칭호와의 유사점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유태인 수훈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유태인이 소련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 말기인 1944년 12월 당시 소련 공군 장성 및 장교들을 민족별로 분류한 결과, 러시아인(102,844명/68%)·우크라이나인(28,902명/10.1%) 다음으로 유태인의 비율이 높았다(7,149명/4.73%). 이는 벨라루스인(5,818명/3.85%)보다도 높은 수치였다.[25)]

이 훈장이 중요한 이유는 소련군에서 활약한 소수민족 병사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소수민족 출신 군인이 고급 장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소련이 수립된 후 소련군에서

23) http://www.warheroes.ru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제작.(검색일 : 2016.11.07)

24) Annaorazov, Jumadurdy, "Turkmenista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25, p.57, 2012.

25) https://www.proza.ru/2012/03/22/628(검색일 : 2016.11.11)

는 언제나 러시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러시아인의 수가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의도적으로 비슬라브인들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26] 그런데 독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슬라브인들을 군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지만 소수민족 출신자들은 일단 수가 적었기에 영관급 이상의 고급 지휘관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27] 계급이 높은 고급 간부는 적었지만, 최전선에서 싸우는 인원은 많았다. 영광훈장은 이런 소수민족 출신자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강했다. 요컨대 소비에트연방영웅이 소련군 전체에 두루 적용되는 상징이라면, 영광훈장은 하급 간부와 병사 및 소수민족 출신자들을 위한 상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IV. **민족부대**(Национальные воин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РККА)

소련군에는 민족부대라는 것이 있었다. 1938년 3월 7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는 군내에 민족부대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멘인으로 구성된 민족부대가 만들어졌다.[28]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 이후로는 민족부대의 수가 급증했다. 그렇다면 민족부대는 구체적으로 어느 민족에서 얼마나 편성되었는가? 아래의 표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표 4] 민족별 민족부대 편성[29]

	합계	참전				미참전(편성 미완료, 해산)		
		군단 사령부	소총 사단	여단 /연대	기병 사단	소총사단	소총여단	기병사단
아제르바이잔	5		5					
아르메니아	4		4					
조지아	9		5	1		3		
타지크	4				1		2	1
투르크멘	7		2	1	1		1	2
우즈벡	15			2	1		7	5
카자흐	5			3				2

26) Glantz, David M, *Colossus Reborn : The Red Army at War, 1941-1943*, University of Kansas Press, pp.548 549, 2005.

27) 2차 대전 당시 슬라브인·유태인이 아닌 장성은 특히 수가 적었다. 유명한 인원들로는 오세트인 연방영웅 플리예프 대장(Плиев И.А., 1903-1979), 에스토니아인 페른 중장(Пэрн Л.А., 1903-1974), 바쉬키르인 샤이무라토프 소장(Шаймуратов М.М., 1899-1943), 우즈벡인 연방영웅 라히모프 소장(Рахимов С.У., 1902-1945), 리투아니아인 발투시스-제마이티스 소장(Балтушис-Жемайтис Ф.Р., 1897-1957) 등이 있다. Parrish, Michael, *Sacrifice of the Generals: Soviet Senior Officer Losses, 1939-1953*, Scarecrow Press, 2004.

28) Arad, Yitzchak, *In the Shadow of the Red Banner: Soviet Jews in the War Against Nazi Germany*, Gefen Publishing House, p.7, 2010.

29) http://voina.com.ru/index.php?p=33를 바탕으로 저자가 직접 제작.(검색일 : 2016.11.07)

키르기즈	3							3
에스토니아	3	1	2					
리투아니아	1		1					
라트비아	3	1	2					
칼미크	2				1			1
바쉬키르	2				1			1
체첸-인구쉬	1							1
카바르다-발카르	1				1			
중국	1			1				
		2	21	8	6	3	10	16
		37				29		

다른 민족들과 달리 발트 3국에서는 다른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군단사령부도 편성되었다. 소련에 가장 늦게 편입된 발트 3국은 유럽이 주목하는 지역이었다.[30] 그래서 스탈린은 이 지역에서 일반적인 사단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군단 사령부를 편성하고 그 예하에 각 민족부대를 편성하게 했다. 특히 라트비아 군단사령부는 전황이 소련군에게 유리해진 1944년에 편성되었다. 민족부대가 편성된 이유가 나날이 악화되는 전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이 지휘부는 전쟁 수행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편성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련이 자국의 민족정책 상황을 타국에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부대를 편성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족부대는 2, 3장에서 상술한 연방영웅 칭호나 영광훈장만큼 효율적이지는 못해서 편성 및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특히 여러 민족을 한 부대에 모으다 보니 언어와 문화가 달라 충돌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민족부대는 전황이 위급한 1941-1942년에 코카서스 지역에서 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31] 아제르바이잔인들로 구성된 민족부대는 지휘부에 의해, 심지어는 동료 병사들에게까지 차별받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코카서스 전선군 사령부의 지휘관들 사이에는 '아제르바이잔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32]

민족부대가 개인에게 수여되는 칭호나 훈장보다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은 당시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다. 민족부대 자체가 편성되던 전쟁 초기는 어떻게든 독일의 진격을 늦추어야 했기에 전장에 최대한 빨리 병력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족부대를 완전히 편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족부대는 편성을 일부만 마친 상태에서 타 부대로 소속을 변경한 채 전장으로 나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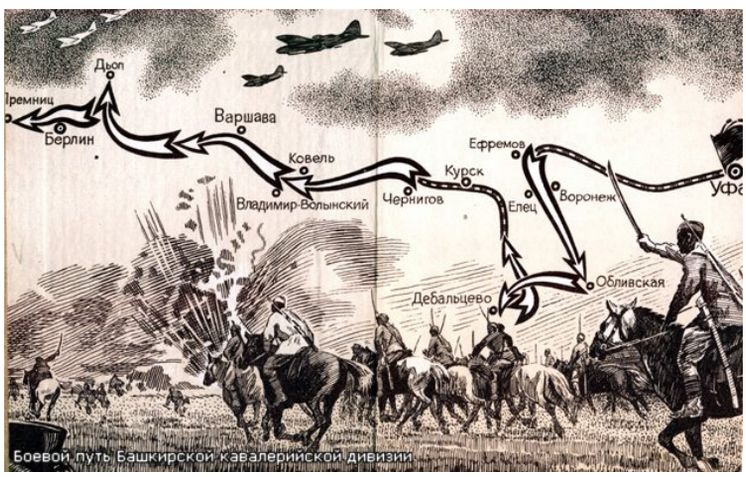
---

30) Arad, Yitzchak, *In the Shadow of the Red Banner: Soviet Jews in the War Against Nazi Germany*, Gefen Publishing House, p.7, 2010.

31) Grechko, Andrei, *Battle for the Caucasus (Reprint edition)*,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1.

32) Безугольный А.Ю., «Националь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в РКК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Июль 2014.

[그림 2] 바쉬키르 제112기병사단의 활약[33)]



편성이 미완료된 29개 부대들은 편성에 활용된 병력자원을 타 부대로 차출당해 편성을 중단하고 결국엔 해산당한 경우가 대다수였다(투르크멘 제97·98기병사단, 우즈벡 제99·100·101·02·103기병사단, 타지크 제104기병사단, 카자흐 제105·106기병사단 등). 그 외에 독일군의 진격이 늦추어진 1942년 말기 이후로 편성된 민족부대들은 편성된 뒤에도 해당 지역의 예비 부대로 남아 참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조지아 제276·296·349소총사단 등).[34)]

V. 결론

소련의 역사에서 2차 대전은 변곡점과도 같은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는 슬라브인 못지않게 비슬라브인들도 대거 가담했다. 다민족국가인 소련이 전쟁에서 비슬라브인들을 배제하고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쟁에 참여한 비슬라브인들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상징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었다. 위에서는 그 상징을 소비에트연방영웅 칭호, 영광훈장 3회 수훈자 및 민족부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934년 만들어진 소비에트연방영웅은 소련의 수많은 훈장 및 칭호 중에 가장 격이 높은 것이었다. 영광훈장은 전쟁 중기인 1943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했다. 이 훈장이 연방영웅 칭호와 가장

33) https://www.google.co.kr/search?q=%D0%9D%D0%B0%D1%86%D0%B8%D0%BE%D0%BD%D0%B0%D0%BBD1%8C%D0%BD%D1%8B%D0%B5+%D0%B2%D0%BE%D0%B8%D0%BD%D1%81%D0%BA%D0%B8%D0%B5+%D0%BF%D0%BE%D0%B4%D1%80%D0%B0%D0%B7%D0%B4%D0%B5%D0%BB%D0%B5%D0%BD%D0%B8%D1%8F+%D0%A0%D0%9A%D0%9A%D0%90&biw=1366&bih=622&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jDt9KZl6bQAhULvrwKHflRA5gQ_AUIBigB#tbm=isch&q=112+bashkir+cavalry+division&imgrc=Za0nBmBFHig9xM%3A(검색일 : 2016.11.11)

34) Glantz, David M, *Colossus Reborn : The Red Army at War, 1941-1943*, University of Kansas Press, pp.600-02, 2005.

다른 점은 위관급 이하의 하급 간부 및 병사에게만 수여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광훈장은 영관급 이상의 고급 장교로 진급할 가능성이 슬라브인보다 낮은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기여를 뚜렷히 드러내 주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민족부대는 앞의 두 가지보다는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민족부대가 창설되던 시기가 전쟁 초기였는데 이때는 어떻게든 독일군의 진격을 늦춰야 했으므로 민족부대의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완전 편성 전에 예하 부대가 차출되거나 그로 인해 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 동안 창설되었던 66개의 민족부대 중 29개가 전투에 참여하지 않거나 해산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련의 소수민족들은 슬라브인들 못지않게 2차 대전을 수행하는 데서 큰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의 러시아에는 20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비슬라브인들도 러시아군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쟁 당시 소수민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러시아군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참고문헌

구자정, “소비에트 연방은 왜 해체되었는가? - 소련의 “이중 체제”와 “민족 창조 정책”을 통해서 본 소련 해체 문제의 재고,” 역사학보 제210호, 2011.6, pp.355-403.

김혜진, 『러시아의 민족 1 - 북서부 & 볼가-우랄 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5.

서운석, “프랑스·독일의 국가통합 상징기제로서 보훈 연구”, 유럽사회문화 제8호, pp.215-236, 2012.

송준서, “대중잡지 『불꽃(Огонёк)』에 나타난 소비에트 병사 이미지의 정치적 함의 1944-1953,” 노어노문학 제21호 제3집, 2009.9, pp.295-320.

신보람, “대조국전쟁 시기 우즈베키스탄의 전시 후방 역할 - 현지화(localized)된 소비에트 전쟁 프로파간다와 그 속에 나타난 후방으로서의 우즈베키스탄 연구,” 슬라브학보 제31호 제3집, 2016.9, pp.147-182.

정원섭·정원희, “상징적 국가 보훈정책의 활성화 방안 : 국가보훈 상징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제8권 제2호, pp.159-178, 2011.

제임스 포사이스,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솔출판사, 2009.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제국의 변경에서 - 시베리아 이야기』, 민속원, 2015.

Abramov, Vladimir, “Mordovia during the Second World War,”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21, 2008, pp.291-363.

Annaorazov, Jumadurdy, “Turkmenista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25, 2012, pp.53-64.

Arad, Yitzchak, *In the Shadow of the Red Banner: Soviet Jews in the War Against Nazi Germany*, Gefen Publishing House, 2010.

Baron, Nick, *Soviet Karelia : Politics, Planning and Terror in Stalin's Russia, 1920-1939*, Routledge, 2007.

Bole, Elena, “The Komi ASSR During the Great Patriotic War : The Demographic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Branches of Industry,”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Vol. 22, 2009, pp.177-194.

Grechko, Andrei, *Battle for the Caucasus (Reprint edition)*, University Press of the Pacific, 2001.

Hirsch, Francine, *Empire of Nations : Ethnographic Knowledge and the Making of the Soviet Uni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Glantz, David M, *Colossus Reborn : The Red Army at War, 1941-1943*, University of Kansas Press, 2005.

Parrish, Michael, *Sacrifice of the Generals: Soviet Senior Officer Losses, 1939-1953*, Scarecrow Press, 2004.

Steinwedel, Charles, *Threads of Empire: Loyalty and Tsarist Authority in Bashkiria, 1552-1917*, Indiana University Press, 2016.

Бабаков А.А.(руководитель), *Кавалеры ордена Славы трех степеней*, Воениздат, 2000.

Бабаков А.А.(руководитель), *Геро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омплект из 2 книг)*, Воениздат, 1986.

Бабаян Д., «Красный Курдистан :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Аспекты Создания и Упразднения», 21-й Век, № 2, 2005.

Безугольный А., Бугай Н., Кринко Е, *Горцы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2012.

Безугольный А.Ю., «Националь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в РКК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Июль 2014.

Кирсанов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формирования Красной Армии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 – 1945 годов», Новая и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1995.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개혁 정책에 관한 소고
대통령 연례교서와 주요 정책문서를 중심으로

조성연(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과정)

Ⅰ. 들어가는 말

러시아 교육정책에 대한 국내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1990년 이후 러시아 교육에 관한 연구물로는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교육의 변화,[1] 북한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체제전환의 사례로 러시아교육의 경험을 다룬[2] 논문들이 있으나, 현대 러시아 교육정책에 집중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모든 정책들이 그렇지만, 교육정책역시 복잡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된다. 세계화, 정치구조, 경제, 인구구조, 이념 지형 등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교육 분야의 과제들을[3]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연구는 러시아를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러시아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정기적인 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하다. 주요 교육연구기관의 국제교육동향 자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점도[4] 러시아 교육 관련 연구의 미진함을 보여준다. 교과교육 또는 영재교육 연구에서 러시아 교육 사례를 들거나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 역시 연구물이 적다.[5] 한국과 러시아 교육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러시아

1) 박태성 “서구식 교육제도의 도입과 러시아의 교육개혁”(1997), “현대 러시아교육의 변화”(2001), “러시아 학교에서의 정교교육(2009), 러시아 대학의 기능과 교육현장의 변화- 사립대학의 성장을 중심으로”(2011), 성수정 “전환기 러시아 교육개혁의 성격 분석”(2012/석사) 참조.

2) 신효숙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2012) 참조

3) 이종재 외 3, 『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2014) p.18

4)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외교육동향을 파악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해외교육동향에서 국가별 교육동향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캐나다, 핀란드이며(2016.11월 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교육동향 조사에서는 러시아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교육평가 관련 보고서나 동향 제공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php
http://www.kice.re.kr/boardCnts/list.do?boardID=1500205&m=030207&s=kice&searchStr=

5) 러시아 교과교육을 다룬 논문 사례로는 지리 평가특성(이간용, 2014), 수학영재교육현황- 미국·중국·러시

교육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유용한 자료의 제공, 시기/ 지역/ 학교급/ 분야 등을 고려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 정보에 근거한 러시아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개혁[6] 정책의 흐름을 개관하는 것이며, 이는 이 시기 러시아 교육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 작업이다. 연구대상 시기를 2000년부터로 설정한 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이 푸틴 집권 이후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1990~1992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교육학자 Э. Д. Днепров가 러시아 교육개혁의 역사를 구분하면서 2000년 이후를 '점진적 재건과 안정화 시기'라고 했듯이[7], 러시아 정부는 이전 시기의 많은 정책적 시도와 혼란을 정리하면서[8]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관련 법, 행정체제, 재정 운용 등 방대한 정보의 분석이 요구된다. 러시아 교육정책 고찰을 위한 출발점에서 이 글은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통령 연례교서(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와 교육정책 주요 문서를 중심 자료로 하였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9] 매년 의회에서 국가 상황을 설명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을 발표하는 연례교서는 분야별 정책의 핵심과제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교육에 대한 내용도 해당 시기의 정책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문서와 자료들 또한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거시적·포괄적 개혁[10] 수준의 계획을 담고 있는 정

아·이스라엘 비교(옥보배, 2014/석사)이 있음.

6) 관련 문서나 논문 등에서 교육 개혁(реформа), 현대화(моденрнизация), 교육 발전(развитие)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책 명칭이나 설명에서는 교육 개혁보다는 교육 발전, 교육 현대화를 주로 쓰고 있으나, 언론 보도나 설문 등에서는 여전히 개혁이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7) 그는 러시아 교육의 새로운 역사는 1984년 '학교 개혁'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4개의 시기(페레스트로이카 시기, 1991년 8월 자유민주주의 혁명 시기, 1990년대 초~ 개혁 쇼크 시기, 2000년 이후 점진적 재건과 안정화 시기)로 구분하였다.
Днепров Э.Д.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олитика. Новейш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ом 1., 2006. С. 25

8) 1990년대 러시아 교육은 교육과정 개혁 논쟁 속 교직원 임금 체불, 장비와 교사 부족(1990년대 교원양성기관 졸업생의 반수 정도만 학교에 근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령기 아동 수 증가, 교육비용 증가 및 고등교육 부패 문제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Edwin Bacon. 김진영 외 역. 『현대러시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15), p.126

9) Конституцяи РФ / Глава 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Стаья 8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е) обращается к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с ежегодными посланиями о положении в стране, об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внутренне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http://www.constitution.ru/10003000/10003000-6.htm(검색일 : 2016.11.13.)

10) 거시적·포괄적 개혁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으로, 대체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추진된다. 패러다임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 이러한 개혁은 그 정책적 파장도 해당 영역을 넘어 전 사회에 미친다.

책문서를 선정하여 살펴보도록 하며, 특히 러시아 교육개혁 정책에서 의의가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 중요계획 – 교육(Приоритет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Образования", 이하 ПНПО) (2005)'을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러시아 교육개혁 정책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정책의 맥락과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대통령 연례교서와 주요 교육정책 문서를 활용하면서, 연례교서를 발표한 대통령을 기준으로 푸틴 1, 2기/메드베데프 시기/푸틴 3기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다.

1. 푸틴 1, 2기 교육정책

푸틴 대통령이 2000~2006년 발표한 연례교서 중 교육에 대한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대통령 연례교서의 교육 관련 내용 요약(푸틴 1,2기)

일시	교육 관련 내용
2000.7.8[11]	형식적으로는 무상교육이나, 실제적으로는 유상교육. 저소득층이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취학전교육 상황이 열악함.
2001.4.3[12]	평생교육, 계속교육 강조. 세계화와 새로운 기술 발전 시대에 교육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를 변화시켜야 하며,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에 사회 전체가 참여해야 함. 학교장 책무 강조. 외적으로는 무상교육이나, 실질적 유상교육으로 폐해 발생. 무상교육 분야를 명확히 정하고 공정하게 보장하며, 유상교육은 법적 근거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국가 교육표준 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서비스 재정 지침 도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학위와 교육 품질 관리를 위한 독립적 시스템 구축. 빈곤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 도입 등 교육기회 확대 추진.
2002.4.18[13]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교육 수요 증가하고 있음 (2001년 대학생 수 증가)
2003.5.16[14]	-
2004.5.26[15]	"교육 발전(развитие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을 국가의 중요과제로 강조. 러시아 교육이 선도적 발전을 계속해야 함. 국제 경쟁 속 교육의 실용성 중요. 전문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노동시장과 거의 연계되고 있지 못하며, 수준도 저하되고 있음. 국가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력은 부

안병영·하연섭,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서울: 다산출판사. 2015), p. 437

	족하고, 빈곤층, 특히 벽지 학생들이 좋은 교육 받기 어려운 상황임. 개혁의 성과를 교육의 품질, 접근성, 노동시장 요구 지표를 고려하여 측정해야 함. 부모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자신의 학업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입학 전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 졸업 후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적 수요에 대한 예측 필요. 교육지침이 세계적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되, 러시아가 선도적인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계속 강화해야 함. 고등교육과 연구 발전이 중요하며, 고등교육기관의 학술과 연구활동의 통합을 지속 추진.
2005.4.25[16]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교육 접근성과 품질 향상,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006.5.10[17]	- (출산 장려 관련 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 언급)

푸틴은 첫 연례교서에서 러시아교육의 위기상황,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01년과 2004년에는 많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주요 계획과 연계하여 보면, 2001년 언급 내용은 2002년 확정한 《2010년까지의 러시아 교육 현대화 구상》, 2004년 발언은 2005년 발표한 《국가 중요계획-교육》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의 러시아 교육 현대화 구상(Концепция модер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период до 2010 года)》은 2002년 2월 11일 교육부령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가적 문제로 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내용의 대부분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평의회(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연구진의 교육개혁 문제에 관한 발표[18]를 근거하고 있다. 이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2010년까지의 러시아 교육 현대화 구상(2002.2.11.)》 개요

항목		주요 내용
1. 러시아 사회 발전에서 교육의 역할	1.1 러시아 교육과 세계적 발전의 경향 (Россий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тенденции ми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러시아 교육은 선진국 교육과 경쟁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적극적 역할 복원, 필수적인 자원의 분배와 효율적인 활용을 포함하여 심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교육현대화가 반

11)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480 (검색일 : 2016.11.13.)
12)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216 (검색일 : 2016.11.13.)
1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567 (검색일 : 2016.11.13.)
14)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998 (검색일 : 2016.11.13.)
1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2494 (검색일 : 2016.11.13.)
1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2931 (검색일 : 2016.11.13.)
1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7 (검색일 : 2016.11.13.)
18) 2001.8.29. Доклад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президиу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опросам реформы образования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905 (검색일 : 2016.11.13.)

(Роль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 구상은 러시아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임.
	1.2 교육체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 (Новые социальные требования к системе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세계 기준을 고려한 교육체제의 본질적 변화 요구됨 - 사회 발전 속도, 사회적·정치적 선택 기회의 확대 - 정보사회로의 이행, 간문화적 상호활동 확대 - 국제사회 협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제문제 빈발 - 급격한 경제변동, 경쟁 심화 등으로 직업능력 향상, 근로자의 재교육, 직업 이동성 증대 독립국가연합 국가들과의 내실있는 교육협력 발전과 공통적 교육영토의 보존,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지원 중요
	1.3 러시아 교육체제의 현황과 현대화 필요성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й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ее модернизации)	학교는 발전하는 사회에 요구되는 개인 발전의 장이 되어야 함 교육이 국가 안정과 복지를 위한 경제 성장과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 교육은 사회통합, 문화 전승과 발전에 기여해야 함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재능있는 아동의 육성도 중요 교육을 위한 인적·정보·물적·재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 보장되어야 함
	1.4 교육현대화의 목적과 기본과제 (Цели и основные задачи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교육현대화는 전국가적 과제. 사회의 교육 분야 관심이 교육시스템 자체의 분야 관심과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 현대화와 발전의 방향 규정은 교육계와 교육기관 틀 안에 갇혀서는 안 됨. 교육현대화의 목적은 안정적 교육시스템 발전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 교육현대화의 전략적 목표는 교육시스템과 국가 경제, 과학, 문화, 보건, 모든 관계 기관과 사회단체, 학부모와 교육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과정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음
2. 교육정책의 우선과제 (Приоритеты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2.1 좋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 (Обеспе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арантий доступност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이 복잡한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항상 보장되지는 못했음. 법적·경제적 여건을 만들면서 교육권 실현 방안을 구현해 나갈 것
	2.2 보통교육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보통교육 현대화가 지향하는 것은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인성, 인식과 창의 역량의 발전. 러시아와 소비에트 학교의 풍부한 경험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과학·수학, 인문, 예술 교육의 훌륭한 전통을 보존해야 함. 현대적이며 새로운 교육의 품질과 내실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요건 구축 과제들 제시
	2.3 전문교육 개선을 위한 기반	전문교육의 내용과 구조의 본질적 현대화를 해야 함

	구축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전문교육 쇄신의 기본 요인으로 경제·사회 분야, 과학, 기술, 연방과 지역 고용시장의 발전 요구와 장기적 발전 요구가 부각되고 있음. 고용시장의 현재와 장기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국제 경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최적의 전문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고용시장 전망, 전문교육 기관의 순위 등의 정보가 국민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함.
	2.4 교육에서 효과적 경제시스템 마련 (Формирование эффектив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образовании)	국가 경제의 우선 과제로 교육현대화를 진행하면서 국가는 재정 지원을 점차적으로 증대해 갈 것.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한 부분에서 재정간 연결의 투명성 확보
	2.5 교육 분야 우수 인력 확보 Обеспечение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ми кадрами, их поддержка государством и обществом	교육 종사자의 물질적 상황의 개선과 사회적 위상의 향상 교원 복지 개선 교사의 전문성 향상
	2.6 교육행정 주체 간 책무 배부 기반에서 발전 관리 (У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ем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основе распределени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между субъектам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국가·사회시스템으로서 교육의 개방성, 지배-고용 모델에서 상호 책무성 모델로, 교육정책 모든 주체의 역할과 그 상호작용의 강화 교육 시스템은 국가·사회의 협력 분야임. 교육 관련 주체들 모두 각자 교육 시스템 기능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갖어야 함. 이와 함께 교육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필수가 되는 여건 창출을 위한 책임도 져야 함
3.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추진 단계와 실현 방안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этапы и меры реал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교육현대화 – 사회의 적극적 협업 속에서 실현되는 대규모 국가 프로그램. 당면 요구와 장기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러시아 교육의 달성으로 이어져야 함. 1단계(2001-2003)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 회복 – 국가는 교육현대화의 출발을 보장해야 함 : 법·규정 정비, 교육내용 쇄신과 교육 품질 관리 체제 마련, 교육재정 지원 구조 정비, 사회 지원을 위한 교육의 역할 강화, 촌락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전문교육 개편 및 고용과의 연계 강화, 민간의 교육기관 설립 및 투자 독려, 교사의 사회적 위상 향상, 물질적 지원 확대와 전문성 향상 지원, 교육학·교육방법 혁신 2단계(2004-2005) 전 단계에 제시된 정책의 종합적 실행 3단계(2006-2010) 교육 현대화의 초기 성과 실현

러시아 교육은 현대화를 이루어야하며, 바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뿐 아니라 새로운 러시아, 국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과제를 반영하여 전 사회적 참여 속에서 교육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상의 골자이다.

‘교육 현대화 구상’에서 2001-2003년에는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회복하고, 2004-2005년에는 이전 단계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종합하는 정책의 실행을 예고했는데, 2004-2005년 수립된 정책이 《국가 중요계획-교육》 이다. 정치와 경제의 안정 속에서 국민복지와 러시아의 미래 발전에 대한 전망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 계획은 ‘건강, 주거, 농공복합단지 발전’과 함께 교육을 국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이 시기 러시아 교육정책의 흐름은 2000~2002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분석하고, 선진화 필요성을 명확히 하면서 그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2004년[19] 이후 러시아 교육 발전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개략할 수 있다.

2. 메드베데프 시기의 교육정책

【표 3】 대통령 연례교서의 교육 관련 내용 요약(메드베데프 시기)

일시	교육 관련 내용
2007.4.26[20]	-
2008.11.5[21]	전문인력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 교육시스템이 역할을 해야 함. 과거의 성과는 세계에서도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추락한 상황이며 러시아 경쟁력의 심각한 위협 요인임. 러시아 교육발전 정책은 정부에 의해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 «새로운 학교» 계획 마련 - 1)교육내용의 개편. 빠른 시일 내 새 세대 교육지침을 개발 완료하기 바람(지연되고 있음). 2)보통교육 지침과 함께 영재 발굴/지원 시스템 구축. 3)교사가 핵심. 훌륭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어야 함. 새로운 세대의 교사 충원이 더 중요함. 2010년 교사의 해 선포. 교사가 사회에서 존경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교사 스스로도 학생들에게 세심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함. 4) 학교 외형과 내용 모두 변해야 함. 러시아 학교는 교육내용 뿐 아니라 학교 건물, 시설 등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학교에 있는 것이 심리적·신체적으로 편리하고 편안하게 해야 함. 정부는 학교 업무 원칙, 계획 수립, 물적·기술적 기반 조성 절차도 개발하고, «국가

19) 2004년에는 교육부가 교육과학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로 재편되었고, 연방교육감사원(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обрнадзор)이 설립되는 등 교육행정 체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http://минобрнауки.рф/%D0%BC%D0%B8%D0%BD%D0%B8%D1%81%D1%82%D0%B5%D1%80%D1%81%D1%82%D0%B2%D0%BE (검색일 : 2016.11.13.)

	중요계획-교육» 실현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를 총체적으로 활용할 것. 5) 학생 시기에 평생 건강이 형성됨. 학생들의 건강 상황이 열악함. 가정 요인도 많지만, 학교 교육활동이 중요함. 건강에 유의하여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009.11.12[22]	연구기반 확충, 경쟁 체제에서 최신기술 연구 지원. “새로운 학교” 사업 – 2010년 교사의 해. 학생별 발달 상황 체계적 기록. 학교 시설 및 환경 등 종합적 현대화. 주당 3시간 이상 체육 활동.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애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 자율성의 확대. 대상 학교는 학교장 계약을 통한 책무성 강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등함을 법적으로 강화. 학교 선택의 기회 확대. 원격교육과 추가교육을 통해 우수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 교사교육 현대화. 고학년/전문 분야는 교수법을 이수하지 않은 강사도 수업 가능(단기 교육 후 계속 근무할 수 있음)
2010.11.30[23]	현대화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것. 유아교육기관 부족으로 출생 전부터 입학 대기 등 문제. 유치원 신축, 시설 보강, 대안적 교육 시설 등 추진.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 중요. 교사, 학부모, 동문, 학생이 참여하여 학교의 비전을 만들어야 함. 국가적 영재 발굴, 지원 시스템 구축. 지금 세대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방식, 기술을 교육에 활용해야 함. 문화활동,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는 체험활동, 스포츠 강조.
2011.12.22[24]	“새로운 학교” 사업 지속 추진. 젊은 세대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총체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학교는 학업 뿐 아니라 학생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대적 교수법을 익히고 합당한 보수를 받는 젊은 교사 세대가 형성되어야 함. 지난 20년간 누적된 고등교육의 극단적 양상을 바로잡아야 함. 교육 수준과 연구역량에서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현대적 대학 체계를 만들어야 함.

메드베데프는 연례교서에서 교육현대화를 강조하였고, 이 시기 《새로운 학교(Националь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инициатива - Наша Новая Школа)[25]》 계획이 수립되었다.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이 방안에는 현대화와 혁신적 발전만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풍요로운 삶은 보장해 줄 것임을 명시하고, 학교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학교”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발전 목적에 부응하는 선도적 기관. 과거의 가치 뿐 아니라 미래에 유용한 기술도 학습할 수 있어야 함.

– 모두를 위한 학교. 어느 학교에서나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화를 보장할 것. 학생들의 연령 특성을 고려하고, 단계별 다양하게 학업이 이루어져야함.

---

20)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203 (검색일 : 2016.11.13.)

21)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968 (검색일 : 2016.11.13.)

22)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5979 (검색일 : 2016.11.13.)

2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9637 (검색일 : 2016.11.13.)

24)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4088 (검색일 : 2016.11.13.)

25) 2010.2.4. Пр-271 http://минобрнауки.рф/документы/1450 (검색일 : 2016.11.13.)

– 새로운 교사들. 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도 높아질 것.

–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 개방적 운영

– 현대적 인프라. 독창적 건축과 디자인 건물, 급식, 미디어자료실, 도서관, 기자재, 인터넷 등 개선

– 개별 교육기관과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교육 질의 평가에 대한 현대적 시스템도 갖추어야 함.

아울러 보통교육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4】 보통교육 발전의 기본방향

항목	주요내용
새로운 교육표준 (Переход на нов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стандарты)	학교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하고, 학생들의 성취, 이를 위한 학교의 여건에 대한 요구사항 각 교육프로그램은 필수 부분과 학교에서 구성할 부분으로 구분 교육인프라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여건 만들어져야 함 교육표준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질의 평가 시스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함
영재 지원시스템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поддержки талантливых детей)	재능있는 아동의 발굴·지원을 위한 다각적 시스템 구축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선택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통신·야간·원격 학습 지원 방안 올림피아드와 경연 체제, 학생의 개별 성취를 고려하는 대입전형 체제 발전 필요 재능 지원 시스템 발전 – 기숙학교, 대학부설교육센터, 방학 프로그램, 연구회 등 다양한 활동 영재교육 활동을 고려한 재정 표준 마련 – 교육기관과 학생 특징을 고려하여 결정
교사 충원, 역량 강화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учительского корпуса)	교육계 지원을 위한 정서적·물질적 지원 체제 도입하여 젊고 역량있는 교사들을 확보 교사 위상 향상 – 올해의 교사, 2010년 ‘교사의 해’로 선포 교사 보수 재정 확대, 우수교사 유인 및 동기 부여를 위한 보수 체계 마련 교사 교육 현대화, 정기적 연수 및 계속교육 시스템
학교 시설·환경 개선 (Изменение шко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학교가 교과활동, 체육활동이 충족되는 창의·정보센터 기능하도록 지원. 장애아동 통합 교육 가능한 환경 마련. ‘스마트’ 학교 건축으로 개선. 학교 시설·위생·급식·안전 요건 정비, 촌락학교의 학교버스 등 효율적 통합체제 마련
학생 건강 증진 (Сохране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здоровья школьников)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에서 학교의 역할 중요 새로운 체육활동 표준을 도입 – 아동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당 3시간 이상 체육활동
학교의 자율성 확대 (Расшире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и школ)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구현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 2010년부터 교육프로젝트 우수학교, 자율 전환 학교들부터 자율성 부여 재정 결산, 활동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 학교장과 성과 계약 학교 선택의 폭 확대. 원격교육을 활용한 우수 강의 수강 지원.

연례교서와 《새로운 학교》 계획을 통해서 메드베데프의 현대화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도 반영되고 있으며, 많은 교육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의 역할 강화, 학교의 현대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요 과제, 즉 교육내용과 방법의 혁신, 역량있는 교원 확충, 학교 인프라 개선, 영재 발굴·지원,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며 교육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 마련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핵심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3. 푸틴 3기의 교육정책

【표 5】 대통령 연례교서의 교육 관련 내용 요약(푸틴 3기)

일시	교육 관련 내용
2012.12.12[26]	정부는 전문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를 개발·도입할 것. 보수 인상을 통해 교육, 의료 등의 분야로 인재를 유인. 최근 3년간 의대 경쟁률이 경제, 법률 분야를 앞섰음. 우수한 학생들의 사범대 진학도 늘고 있음. 재능과 역량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정부는 학교의 기본교육, 보육 기능 발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바람.
2013.12.12[27]	전문교육 전반의 조정 필요. 직업교육과 산업체와의 연계 중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데, 대학은 질적 측면에서 이 요구에 부응해야 함. 청년층의 교육 의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나, 이에 부합하지 못 하는 대학들이 많음. 재정부에서 대학의 수입을 파악하고 있으며, 곧 합당한 기준을 제시할 것. 러시아의 수준 높은 교육을 동포들과 CIS국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체제 필요. 원격교육 기반 조성도 중요. 노동시장의 변동이 많음.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직장이나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 조성.
2014.12.4[28]	전국적 졸업 작문 평가 첫 시행. 중요한 평가이며, 교육부는 작문과 예게 평가 결과를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사의 책무성과 학생들의 학습동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바람. 예게는 벽지에 살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정의 재능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음. 국내·외 대회에서 성과를 보이는 등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기회를 사전에 제시해야 함. 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학생들 중 연 5천명에게 대통령 장학금 제공. 학교밖 추가교육 시스템이 축소되어서는 안 됨. 예술, 기능, 창의력 센터들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 아동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있어야 하며, 훌륭한 전문가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함. 과밀학교·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취학전교육기관 문제도 해결해야 함.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정부는 다각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2015.12.3[29]	인구정책 관련 취학전교육 여건 개선되고 있으나, 개별 가정에는 어려운 여전히 많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별한 관심 지시. 재능있는 학생들이 지역, 부모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2015.9.1. 소치 ‘시리우스’ 영재교육 센터에서 학생들과의 만남 언급).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임. 단,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중앙, 지방정부는 협력하여 대비해야 함. 학생 수용, 시설 개선 문제도 유념, 전문적이며 열의있는 교사들의 역할, 다양한 활동 등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며, 예전 교육(소년단원, 청년기술자동아리 등)의 장점도 현대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 기술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 2019년 카잔에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기술인력의 경쟁력 향상 지원 - “청년 전문가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시스템 제안. 교육은 국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함. 국민들의 요구와 함께 경제, 발전 전망의 수요도 고려. 학생들은 전문 분야에서의 성취와 함께 정신적, 도덕적 중심을 지닌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하도록 준비해야 함

다양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새로운 계획의 수립보다는 기존 정책의 효율적 실행, 실질적 성과에 대한 요구의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과 함께 러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인성, 도덕교육을 강조한 부분도 관련 정책내용을 검토해볼 부분이다.

이 시기 교육정책 문서로 살펴볼 자료는 국가사업계획(госпрограмма)[30]《교육발전 2013-2020》이다.[31] 이 형태의 계획은 예산과 정책 주체 등이 명료하고, 단계별 달성 지표 등이 제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높다. 교육과학부가 책임 기관이며, 30개 기관이[32] 참여하고 있다. 계획에는 사업 목적, 목표, 성과지표, 사업 단계, 예산, 기대효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5개 세부과제(подпрограмма)로 구성되어 있다.[33]

2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7118 (검색일 : 2016.11.13.)

2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9825 (검색일 : 2016.11.13.)

2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47173 (검색일 : 2016.11.13.)

29)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864 (검색일 : 2016.11.13.)

30) 2016년 11월 기준 5개 영역(Новое качество жизни / Инновационное развитие и модернизация экономики /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 Обеспеч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Эффектив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43개 госпрограмма 시행 중
http://programs.gov.ru/Portal/ (검색일 : 2016.11.13.)

31) http://programs.gov.ru/Portal/programs/passport/2 (검색일 : 2016.11.13.)

32) 문화부 등 25개 정부기관, 모스크바국립대학 등 5개 교육기관

33) 2011년부터 실시한 2개 계획도 문서에 포함되어 있음.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011 - 2015 годы; федеральная целевая программа "Русский язык" на 2011 - 2015 годы

【표 6】 <러시아 교육발전 2013-2020>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전문(직업) 교육 발전 "Развит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세부과제 2	유초중등 교육 발전 "Развити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щего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세부과제 3	교육평가 체제 발전 및 교육시스템 정보 투명성 향상 "Развитие системы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розрачности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세부과제 4	청년들의 사회활동 활성화 "Во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в социальную практику"
세부과제 5	동 계획의 실현 "Обеспечение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013 - 2020 годы" и проч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об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2013 - 2020 годы"

각 세부과제도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로 세부과제 2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표 7】 세부과제 2(Развити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щего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개요

책임기관	교육과학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참여기관	학술기관청(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нау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문화부(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농업부(Министерство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철도청(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외무부(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예술 아카데미(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художеств) 교육 아카데미(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бюджетное учреждение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образования")
목적	유·초·중등교육 시스템에서 현대적이며 질 높은 교육, 아동의 적극적 사회화를 위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목표	- 유초중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균등한 기회(접근성, 수용성)를 보장하는 교육 네트워크와 재정·경제 운영체제 구축 - 졸업 후 고도기술 경제상황에서 계속적 학습과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 교원집단의 인적 구성과 역량의 혁신, 교원의 업무수준 향상과 부단한 전문성 계발에 대한 동기 부여 체제 조성 - 학생의 사회 역량, 시민 의식, 건강한 생활방식의 형성을 위한 잠재적(비공식적) 교육 인프라 현대화

성과지표	- 유아교육기관의 아동 수용률(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2개월~3세 아동 수 /2개월~3세 전체 아동 수), % - 유아교육기관의 전체 학생 수에서 사립 유아교육기관의 비중, % - 새 유아교육 지침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있는 3~6세 아동 유아교육기관의 아동의 비율, % - 5-18세 아동의 추가교육 프로그램 참여율(5-18세 전체 중 추가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비중), % - 유아교육기관 교원 1인당 학생 수, 명 - 보통교육 전체 교사 중 35세 미만 교사의 비중, % - 보통교육 전체 학생 중 연방 국가교육지침에 따른 보통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 % - 보통교육 전체 학생 중 1부(오전반)에서 공부하는 학생 비중, % - 보통교육 교원 1인당 학생 수, 명 - 보통교육에서 학습하는 전체 장애아동 중 특수(교정)학급이 아닌 학급에서 학습하는 장애아동 비율,% - 전체 학생 중 교육 수준의 국제 비교 평가에서 교육 기본 수준에 도달한 러시아 학생의 비중, % - 국가(지역) 교원의 월평균 보수 처우, % - 전체 초·중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중 초·중등 보통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하며 올림피아드와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의 비율, % - 모든 학생 중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 % - 모든 학생 중 공통교육 기관에서 조직된 스포츠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 비율, % - 5~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스포츠 또는 기술 관련 추가 교육 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 비율, % - 전체 기관(보통교육기관, 추가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 중 화재경보, 연기경보, 소화전을 보유한 교육기관 비율 , % - 전체 기관(보통교육기관, 추가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관) 중 비디오관찰 시스템을 보유한 교육기관 비율, % - 해당 기관(도시/농촌) 전체 중 수도관, 중앙난방, 하수시설을 보유한 보통교육 기관 비율, % - 인터넷 정보망에 연결된 전체 보통교육 기관(도시/농촌) 중 접속 속도가 1메가비트/초 이상인 보통교육 기관 비율
사업 시행 단계	1단계 2013.1.1. ~ 2015.12.31 2단계 2016.1.1. ~ 2018.12.31. 3단계 2019.1.1. ~ 2020.12.31
투입 예산	общий объем бюджетных ассигнований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составляет 148950037,8 тыс. рублей, в том числе: на 2013 год - 106343083,6 тыс. рублей; на 2014 год - 16782517,5 тыс. рублей; на 2015 год - 4170081,1 тыс. рублей; на 2016 год - 3646433,2 тыс. рублей; на 2017 год - 4001676,8 тыс. рублей; на 2018 год - 4290085,5 тыс. рублей; на 2019 год - 4674691,7 тыс. рублей;

	на 2020 год - 5041468,4 тыс. рублей
기대효과	- 2016년 3~6세 아동 유아교육 참여 100% - 2018년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연방 유아교육 국가 지침에 따른 유아교육 제공 - 국가(지역) 보통교육 교육기관 교원의 평균 보수를 해당 지역 평균 보수 수준으로 인상 - 국가(지역) 유아 교육기관 교원의 평균 보수를 해당 지역 보통교육 분야 평균 보수와 동일하도록 끌어올리기 - 국가(지역) 추가 교육기관 교원의 평균 보수를 2018년까지 해당 지역 교사 평균 보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 교육성과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학생들 간 학업성취 격차 축소 - 국제 비교(PIRLS, TIMSS, PISA, ICCS) 평가에서 성취도 향상 - 2020년까지 추가교육 받는 5~18세 미만 학생 수 비율의 해당 연령 인원의 70~75%, 추가교육 프로그램 발전 - 재능있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 실현 - 모든 장애아동에게 원격 교육과 사이버 학습 형태로 보통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이 가능한 여건 조성 - 우수 교사 증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교육 시스템의 효과성 향상을 지향하는 방안에 제시된 인적 잠재력 발전을 위한 기타 지원 방안 실현 - 보통교육 프로그램 3부제 운영 해소 -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필수적인 장애물 없는 교육기관 만들기

러시아 교육과학부에서 2015년 5월 발표한 2012-2014년 교육과학 분야 주요 성과를 통해서도 러시아 교육정책의 관심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34)]

【표 8】 2012-2014년 러시아 교육과학부 업무 성과

항목	내용
교원 보수 증액	1. 유치원, 학교의 젊은 교사들 증가 : 2012년 대비 2배 증가 2. 25-30세 교사 수 증가 : 47개 지역 5%, 25개 지역 10%
예게 시스템 구축	1. 정보 안정성 향상, 예게 시행 기술과 자료 배송 현대화 2. 인터넷에서 자료 유출과 예게 순례 차단
교육인프라 문제 해결	1. 장애아동의 원격 학습 : 8500개 학교에 설치 2. 현대적 요구에 적합한 환경에서 학습 : 학교의 12만 실 수리, 3만5천교 인프라 개선, 4만 학교 도서관을 위한 6천만 장서 구입 3. 촌락학교 학생 수송 : 5300 학교버스 구입
실무교육 다목적센터 (МЦПК)	1. 47개 연방주체에 178개 МЦПК 설립 2. 74개 연방주체에 총 262개 МЦПК 운영
취학전교육 접근성	1. 유치원에 수용인원 증가 : 2013-2014년 787,000명. 2015년 1분기 10만 명. 015.4.1. 취학전 교육 참여 95.3% 2459 사립유치원 운영

34)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Минобрнауки России за период 2012-2014 годов (2015.5.21.) http://минобрнауки.рф/пресс-центр/5608 (검색일 : 2016.11.13.)

	2. 60만 이상의 젊은 엄마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음
새 교육표준 도입	1. 수학교육 발전 구상 마련 2. 러시아역사 학습방법 결정(러시아역사협회), 3개 러시아역사 교과서 승인 3. 교사 전문성 표준 개발(러시아 최초) 4. 2014년부터 초급학년 교육표준 – 새 교과서 준비 완료. 72만명의 교사가 자격연수 수료
국제기능올림픽 참여	지난 2년간 60개 주체가 러시아 기능올림픽 경연에 참여 준비 표명 2014년 5월 러시아 기능올림픽 제2회 국내대회에 39개 주체 참여
추가교육 발전	5~18세 아동청소년 64%가 다양한 형태의 추가교육 참여
대학의 국제평가순위 향상	1. ARWV 순위 : МГУ 공통 84위, 수학 26위. СПбГУ 수학 101-150위 2. THE(자연과학 분야) : МГУ 56위, МИФИ 95위, НГУ 85위 3. 12개 대학이 2014년 QS 순위에서 순위 상승(3개 대학은 처음 포함)

개략적으로 보면 유아교육 여건 개선(인구문제와 밀접한 과제), 과밀 학교 문제 해결, 시설 개선, 새로운 교육내용, 영재교육, 교원 역량 향상 및 처우 개선,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 및 학교 경영의 책무성 강화, 노동시장과 연계한 전문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책으로서 교육의 큰 방향은 중앙정부에서 선도하나, 보통교육 관련 사항은 교육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Ⅲ. 국가 중요계획 “교육”(ПНПО)

1. ПНПО 정책의 형성과 실행

2005년 발표한 ПНПО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러시아 교육개혁 정책의 흐름에서 중요한 진보로 인정받고 있다.[35] 이 정책이 수립·발표된 2004-2005년은 2004년 5월 푸틴 2기가 시작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고도성장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다. 2004년 연례교서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고속 발전,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 해결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장기적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 2005년 9월 5일 4개 분야에 대한 국가 중요계획(Приоритет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ПНП) - ‘교육(Обрзование)’. ‘건강(Здоровье)’, ‘주거(Жильё)’, ‘농공복합단지 발전(Развитие АПК)’가 발표된 것이다. 이 계획은 러시아정부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국민 생활의 일상적 문제 해결과 함께 장기적 성장을 고려하여 마련한 국가 계획이다.[36]

35) “2005 год ознаменован новым шагом в развит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реформ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ъявлена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ом.”
http://sinncom.ru/content/pnpo/index.htm (검색일 : 2016.11.13.)

푸틴 대통령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 분야들이 국민 삶의 질과 사회적 정서를 정하는 영역이며, 인구 문제와 인적자본 발전의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현재 경제적 성과와 안정성에 만족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고민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37]

- 러시아 교육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우리는 러시아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기반을 구축해야 함.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대학, 초중등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특별한 방안이 필요함. 향후 2년간 이 학교들을 위해 실험설비, 프로그램 지원, 교실 현대화와 교사 양성 현대화에 상당액이 배분되어야 함.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십 개의 대학과 수천 개의 초중등학교가 기회를 갖게 될 것. 이 기간 안에 최소 2만 학교는 인터넷 접근하게 할 것. 2008년이면 이런 학교가 3만개 이상, 러시아 모든 학교의 반 이상 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대적 교육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 군복무자들이 초급 전문교육을 특별 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어야 하며, 계약직(군인)은 고등교육기관 입학 준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

- 2006~2007년에 남부, 시베리아 연방관구에 이미 운영 중인 대학과 학술센터 기반으로 새로운 대학의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를 당부함. 아울러 모스크바 지역과 페테르부르크에 경영 인력 양성을 위한 경영대학원 신설 문제도 해결 할 것. 지방정부와 사립 투자가들도 이런 계획 참여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 판단함. 이와 관련하여 당부하고 싶은 것은 – 이는 완전히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이며 교육 센터여야 함. 완전히 현대적인 수준이어야 함. 대학의 학술 수준을 본질적으로 향상해야 하고, 혁신 인프라 발전을 고려하여 경제와의 연관성도 보장해야 함. 러시아 대학 교육이 높은 수준의 전문가에게도, 특히 외국인과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매력적이어야 함. 주도적이고, 유능하며, 역량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학생들을 위한 5000개 이상의 개별 장학금이 만들어질 것.

- 유념해야 함 : 대학생, 대학원생을 탄탄하게, 일류로 육성하는 것은 기초과학 발전의 필수 요건. 청년들의 과학으로 유입시키는 일이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하고, 연구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8월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직원들의 보수 향상 지침을 시행했음. 2006-2008년 일부 항목 예산 감축 상황에서도 훌륭한 학술 인력들의 월 보수는 평균 3만 루블까지 인상해어야 할 것이며, 러시아 과학 발전의 전망과 역동성이 달려 있는 젊은 연구자 세대의 보수는 체감될 수 있도록 증액되어야 함.

- 교사의 낮은 보수는 러시아 학교의 핵심 문제 중 하나임. 향후 3년 동안 예산 분야에

36) http://national.invur.ru/index.php?id=1 (검색일 : 2016.11.13.)

37)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утина по поводу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2005.9.5.)
http://national.invur.ru/index.php?id=335 (검색일 : 2016.11.13.)

서 실제적으로 1.5배 보수 증액에 대한 원칙적 결정이 이루어졌음. 교사의 보수가 수업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보수 체제로 이행해야 함. 그 기본은 교육(수업)의 질. 2006년에 이른바 교육 과정 표준 재정으로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예산은 학생을 기준으로 함. 이와 병행하여 학급 담임에 대한 매월 금전적 보상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것. 특히 초급 학년 교사에게. 총 백만여 교사가 될 것. 학생 훈육/인성교육은 큰 능력이 요구되는 교사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 만 명의 우수 교사를 위한 10만 루블 규모의 매년 격려금을 편성할 것을 제안함.

여기에 덧붙여 당시 교육과학부 장관 프루센코는 ПНПО 추진에서 선도가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38)]

- 오늘날 러시아에서 모두가 교육과 과학에서 변화가 매우 필요하고, 이 변화가 서로 밀접해야 함을 알고 있음. 대통령 발표에 담긴 지시 중 일부는 이미 몇몇 연방주체에서 실행되고 있음. 튜멘, 사마라, 야로슬라블, 크라스노야르스크, 추바시, 다른 지역들에서 표준재정체제로 이행했고, 교사 보수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음.
- 교육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와 동시에 선도가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함. 교육의 질은 교사, 교장, 총장들 각자에 달려있음.
- 혁신을 지향하는 대학들은 교육과 과학 체제 변화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선도로서의 책무성을 지녀야 함. 이를 위해 추가적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결정에서 보다 큰 자율성이 주어져야함. 국가와 사회 앞에 대학 지도자들의 책무성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여기에는 이를 완성하는 책무성도 포함됨.
- 우리도(당국도) 형식적인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가와 학생을 기만하는 대학들에게 보다 엄중한 입장을 취할 것임. 그러므로 국가 자원의 활용에 대한 공적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음(국립학교의 몇 몇몇 분원, 일부 사립학교 폐쇄. 이것은 시작일 뿐)
- 혁신적 대학과 학교를 선정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실무진, 전문가, 학술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는 것을 강조함. 교육 질에 대한 시민기구의 영향, 변화에 대한 교육기관의 준비도가 높아져야 함. 오늘날 여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감독/행정 위원회가 많고, 그 기능과 역할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통해 추가적 자원을 교육으로 유입하는 것이 가능했음
- 청년들이 유입되는 경우에만 이런 모든 수단들이 효과적일 것.
- 물론 모든 변화에서 핵심은 교사였고, 앞으로도 교사임. 지역 수준에서 지원하는 우수교사의 확대와 함께 학급 지도교사 활성화가 원칙적으로 중요. 오늘날 학급 관리에 대해 추가 수당을 받고 있고(원칙적으로 본봉의 10%, 110-250루블),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봉급이 편성되었음. 학급 지도교사의 보수 인상은 기본 봉급 외 별도이고, 젊은 교사들을 학교

38) Выступление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Ф Андрея Фурсенко в Кремле 5 сентября 2005 г http://depedu.tyumen-city.ru/vajno/nacionalynii-proekt-obrazovanie/vistuplenie-ministra-obrazovanii-i-nauki-rf-andrei-fursenko-v-kremle-5-sentibri-2005g./ (검색일 : 2016.11.13.)

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단임.

- 대통령 연설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교육과 과학의 현대화, 발전의 과정을 질적으로 가속화할 것. 물론 공동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며, 러시아 미래의 교육의 더 나은 모형을 만들고, 국가의 단일 교육영토의 발전을 보장해야 함. 연방 정부, 지역과 지자체 행정 조직, 시민 기구의 합의가 중요함.

이러한 내용은 2005년 11월 14일 근거 법령을 시작으로 2006-2007년 여러 문서를 통해 확정, 시행되었다. 여기에는 혁신적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교육기관 지원(2006.2월), 우수교사를 위한 보수 증액 관련(2006.5월), 교육현대화 추진 지역에 대한 지원(2006.12월) 등이 포함되었다.[39]

ПНПО 기본 방향은 교육 분야에서 혁신 확산, 학교에 인터넷 연결, 영재 지원, 군 복무자를 위한 초급전문교육 운영, 국립 대학 네트워크와 경영대학원 설립, 학급담임에 대한 추가 보수 지급, 우수교사 확산, 촌락지역 학교버스 운행, 낙후지역 학교의 설비 지원이다.

2. ПНПО의 성과와 영향

ПНПО 실행 후, 2008년 2월 교육과학부 장관 프루센코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ПНПО가 러시아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촉매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학교 시설의 현대화, 정보화, 재정 지원의 투명성 향상, 교사 보수시스템의 개선, 연방대학[40] 설립의 시작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41]

---

39) Распоряж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4 ноября 2005 г. № 1926-р.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4 февраля 2006 г. № 89 «О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недряющих инновацио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мая 2006 г. № 269 «О порядке распределения 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субвенций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юджетам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выплату денежного поощрения лучших учителей».
Протокол заседания президиума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протокол № 2 от 21 декабря 2006 г.).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 декабря 2006 г. № 850 «О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дготовки рабочих кадров и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чаль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недряющих инновационны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а такж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0 декабря 2007 г. № 903).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0 декабря 2006 г. № 848 «О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недряющих комплексные проекты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1 декабря 2007г. № 826).
Горшков М.К., Шереги Ф.Э.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Образование»: оценки экспертов и позиция населения. – М.: ЦСП, 2008. с. 11

40) 연방대학은 2016년 11월 현재 10개교가 있다. 최초 연방대학은 2006년 설립된 시베리아연방대학이며, 최

그러나 2012-2014년 조사에 근거한 ПНПО 관련 보고서에서는 이 계획이 지역 교육 발전 프로그램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ПНПО가 제시한 방안들이 도시의 교육 발전 프로그램에 적합하며, 충분한 재정지원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였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계획이 의미있는 점은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하면서 국가 권력기구의 상호협력과 추진단계 전반의 관리,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반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는 것이 필요했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인 구조에서, 능률성이 보장되었다 점을 들었다. ПНПО를 러시아연방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8년까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담긴 개별 과제들은 러시아 교육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연방주체들은 제체 ПНПО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42]

Ⅳ. 맺는 말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많은 논쟁과 제안이 이어졌으나, 체제이행기 혼란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학교현장은 극심한 위기를 겪었다. 2000년 푸틴 집권 후 추진된 교육개혁 정책의 목적은 누적된 교육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 뿐 아니라 러시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선도하는 교육의 기능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인구문제 해결과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교육 분야의 총체적 개선, 혁신이 필요했다. 교육의 접근성, 품질과 수준,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개혁의 핵심이었다. 연방정부는 표준 관리, 재정 지원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정책을 시행했고, 선도 그룹을 선정하거나 시범 지역으로부터 확산해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교육개혁의 장기구상을 제시한 이후, 정책은 핵심과제들을 우선 추진하고, 종합방안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법과 제도의 정비, 관계기관의 재구조화, ПНПО 같은 대규모 계획과 사업들이 준비되었다. “Наша Новая Школа”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학교 현대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의 사회적 기능 확대, 지역과 학교의 연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교육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국가재정프로그램과 교육과학부의 다양한 사업들은 많은 세부과제에 대하여 성과

근 설립된 학교는 2014년 8월 설립된 크림연방대학(Крым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В. И. Верна́дского)이다. http://www.edu.ru/vuz/federal (검색일 : 2016.11.13.)

41) Итоги реализации приоритет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адачи на перспективу(Москва, 28 февраля 2008 г.)
http://voskrschool.ucoz.ru/news/2008-03-07-14 (검색일 : 2016.11.13.)

42) Старкова Екатерина Андреевна, ПРИОРИТЕТ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ОБРАЗОВАНИЕ»: ПОНЯТИЕ, СОДЕРЖАНИЕ И ЦЕЛИ, Science Time. 2014. № 11. С. 350-355.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러시아 교육정책을 개관한 것은 이러한 교육정책의 형성과 변동을 보다 깊이있게 연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관련하여 향후 다각적이고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본다.

첫째, 분야나 정책과제별 세밀한 연구이다. 예를 들어 교원 문제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 위상 향상 노력과 함께 우수교사 충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을 고려한 연구이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연방정부의 교육정책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각 연방 주체, 그리고 하부지역 단위, 각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 적용되고 있는지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인구문제와 지역격차 문제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기별 대내외 정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공공적 활동으로서 교육은 막대한 재정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 상황은 곧 교육과 교육정책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특히 교육과 경제의 문제에 대한 다각적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자원 양성 문제도 이에 해당한다.[43)]

넷째, 법·제도적 측면으로, 우선 러시아 교육법의 내용과 그 변천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 유형, 교육행정 기관의 현황과 기능, 기관 간 협력 양상은 교육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이다.

다섯째, ‘교육’ 관련 개념, 국민인식, 교육정책에 대한 국내외 평가 등도 중요한 연구과제다. 특히 러시아 정책당국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 사회와 러시아 교육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시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러시아 교육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분야를 연계하여 접근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러시아 지역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한국·러시아 교육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타당한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43) 이종재 외 3, 『교육정책론』, p. 20

참고문헌

1. 저서

안병영·하연섭.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 서울: 다산출판사. 2015

이종재 외 3, 『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2014

Edwin Bacon. 김진영 외(역). 『현대러시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15

Горшков М.К., Шереги Ф.Э.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Образование»: оценки экспертов и позиция населения. – М.: ЦСП, 2008.

Днепров Э.Д. Образование и политика. Новейш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Том 1., 2006.

2. 논문

박태성, “서구식 교육제도의 도입과 러시아의 교육개혁”. 『슬라브학보』 12(1). 1997 207-243쪽.
“현대 러시아교육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2001. 241-277쪽
“러시아 학교에서의 정교교육”. 『슬라브연구』 25(1) . 2009. 43-68쪽
“러시아 대학의 기능과 교육현장의 변화- 사립대학의 성장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6(2). 2011. 91-115쪽.

성수정, 전환기 러시아 교육개혁의 성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학위논문(석사)). 2012.

옥보배, 수학영재교육의 현황 :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나라와 비교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학위논문(석사)). 2014

이간용, “러시아의 지리 평가 특성 분석 : 국가통합시험(ЕГЭ)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1). 2014. 131-146쪽

Старкова Екатерина Андреевна, ПРИОРИТЕТ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ОБРАЗОВАНИЕ»: ПОНЯТИЕ, СОДЕРЖАНИЕ И ЦЕЛИ, Science Time. 2014. № 11. С. 350-355.

3. 책의 장

신효숙.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교육개혁 경험”. 이장로, 김병로(편),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파주: 한울. 2012. 23-84쪽

4. 인터넷 자료 (최종 검색일 : 2016.11.13.)

http://edpolicy.kedi.re.kr/EpnicGlobal/Epnic/EpnicGlobal.php

http://www.kice.re.kr/boardCnts/list.do?boardID=1500205&m=030207&s=kice&searchStr=

http://www.constitution.ru/10003000/10003000-6.htm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90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480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21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56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199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2494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2931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20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196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5979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9637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408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711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9825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47173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50864
http://минобрнауки.рф/%D0%BC%D0%B8%D0%BD%D0%B8%D1%81%D1%82%D0%B5%D1%80%D1%81%D1%82%D0%B2%D0%BE
http://минобрнауки.рф/документы/1450
http://programs.gov.ru/Portal/
http://programs.gov.ru/Portal/programs/passport/2
http://минобрнауки.рф/пресс-центр/5608
http://sinncom.ru/content/pnpo/index.htm
http://national.invur.ru/index.php?id=1
http://national.invur.ru/index.php?id=335
http://depedu.tyumen-city.ru/vajno/nacionalynii-proekt-obrazovanie/vistuplenie-ministra-obrazovanii-i-nauki-rf-andrei-fursenko-v-kremle-5-sentibri-2005g./
http://www.edu.ru/vuz/federal
http://voskrschool.ucoz.ru/news/2008-03-07-14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307호

X 세션 (지역학 세션)

대러 제재 하 한 · 러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홍완석(한국외대)

≫ 발표 1

한 · 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 방안: 외교안보적 관점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발표 2

한 · 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 방안: 경제협력 및 사회교류 관점

이상준(국민대)

≫ 발표 3

러·일 관계의 최근 변화 동향과 한반도에의 함의

김정기(한양대)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방안 : 외교안보적 관점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원)

1. 문제의 제기

최근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뤄진 전후 질서의 틀을 깨는 사건들로 우리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꼽아 왔다. 그런데 금년 들어 국제정치, 국제질서의 측면에서 커다란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6월 가시화된 브렉시트(Brexit), 즉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전후 통합과정을 밟아온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또 다른 사건은 11월 9일 미국 대선에 비주류이자, 아웃사이더의 입장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현상이자 국제질서에 커다란 충격과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정치 환경 변화가 각국의 대외정책과 관계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국제질서 향배에 '불확실성'을 낳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대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년 2016년은 아관파천 120주년을 맞이한 해로 우리에게 국제정세와 관련해 남다른 감회와 반성, 회환, 다짐 등 많은 교훈점을 던져 주었다. 미래를 가꾸어 보려고 노력해 본 시기이도 하다. 지난 2월 3일 아관파천에 담긴 역사적 교훈을 재조명하고 되새기기 위해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는 "21세기 아관파천 재조명: 한러관계와 한국외교의 미래를 묻다"라는 제하로 '아관파천 120주년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1)]

국제정치, 국제정세는 시대의 흐름과 변함없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늘 변화하고 진화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2017년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시대는 미-러, 미-중, 미-EU, NATO관계를 비롯해 국제질서 구도와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분과의 대주제는 "대러 제재 하 한러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또한 발제 제목에서 보

1) 제1회의: 아관파천 재조명, 제2회의: 아관파천의 21세기 데자뷔 제3회의: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과 한러 협력 등 발표 내용은 아관파천 120주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2016.2.3) 참조.

듯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양국관계가 뭔가 순탄치 않고,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국제정치의 변화상과 국제질서 재편을 염두에 둔 가운데 그간의 한러관계를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 측면에서의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러관계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다룰 때, 흔히 우리는 한러수교 20주년, 25주년 등의 중요한 기점을 설정하고 나름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해 왔다.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10년은 수교 20주년이었으며 수많은 문화, 예술행사를 통해 상호 정서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은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 130주년,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 1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전년도의 경우 수교 25주년을 맞았고,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2] 통해 양국민간 문화적 교감을 갖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내년인 2017년도는 소연방시절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1937년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담긴 여러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학술적, 문화적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글의 구성은 먼저 긴 호흡으로 70여년의 한러관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검토해 본다. 이어 한러 양국 간 공동이해는 무엇인지? 서로에게 임하는 전략적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가 이뤄진 이후 한러관계의 현주소를 탐구해 본다. 이어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한계요인들 살펴보고, 끝으로 미래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책적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러관계 변화 71년

가. 한러관계의 역사적 전개

한·러 양국관계는 수교 이전과 이후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역사적 맥락에서 보아 1884년 구한말부터 시작된다. 구한말~제정러시아 시기(1884~1917년)의 양국관계는 한국의 경우 청・일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러시아는 부동항 획득과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였다. 이 시기 양국관계는 '제정러시아의 주도적 접근에 대한 조선의 수동적 대응 양상'이라는 비대칭적 성격을 띠었다.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러일전쟁(1904~5년), 한일합방(1910년)으로 사

2) 임수석, "유라시아 친선특급: 한반도 통일과 유라시아 시대를 위한 대장정," 『외교』 제115호(2015년 10월), pp.184-189; 홍완석, "2015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의미, 성과, 과제," 『슬라브연구』 제32권 3호(2016), pp.31-53. 참조.

실상 관계가 종결되고, 볼셰비키 혁명(1917년)으로 소연방이 수립된 이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시까지 상호 잊혀진 대상으로 유지되었다.

소련부터 냉전시기 동안에는(1945~1990년) 한국은 대미 중심의 안보정책을 펼치고,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을 통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등 냉전체제하 한러관계는 적대·단절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과 공식 수교('48.10) 및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여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이어 1985년 3월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동북아 지역내 새로운 경협 파트너 모색과 함께 한국의 북방정책이 맞물려 1990년 9월 양국 간 외교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게 되었다.

수교 이후(1990~2016년)의 한러관계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집약해 볼 수 있다. 먼저 1990년 9월 한러수교 이후 2015년 현재까지 한러관계는 공식적 명칭으로 보면,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1994년)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 동반자관계'(2004년) ⇨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2008년)로 변모해 왔다.

성격적 측면에서는 ① 기대 ⇒ ② 답보 내지 소강 ⇒ ③ 냉각·악화 ⇒ ④ 재조정 ⇒ ⑤ 진전 ⇒ ⑥ 재도약 도모 등의 6단계로 전개되어 왔다.

[표 1] 한러수교 이후 양국관계 전개 동향

시기	관계	성격	목표·양태		주요 내용
			한국	러시아	
1990-1994	수교 및 관계정상화 시기	법적, 제도적 기반 형성	북방정책 추진, 안보전략적 이해	경협 파트너 모색 한국중시 외교	한러수교(90.9) 대러 차관 30억 달러 옐친 방한(92.11) 한러 기본관계 조약(92) 김영삼 대통령 방러(94.6)
1994-1998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	답보·소강 상태	북핵문제 대두로 脫러시아화	경제적 실익 대북접근 선회	4자회담 KEDO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취임(98.8)
1998-1999	상기 지속	냉각·악화	4강 균형 조정 노력	남북한 균형정책 경협 확대	한러 외교관 맞추방(98.7) 러 모라토리엄 선언(98.8)
1999-2004	상기 지속	재조정 (복원)	남북관계에의 긍정적 역할 활용, 대북 포용정책 지지 확약	남북러 3각 경협, 남북한 균형외교	김대중 대통령 방러(99.5) 남북정상회담(2000.6) 푸틴 방한(2001.2) 對韓 부채 상환 타결(2003) 6자회담에 러시아 참여
2004-2008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포괄적 동반자	새로운 관계 설정 및 진전	경협 등 전방위 실익 도모	경협 증진, 균형외교 견지	노무현 대통령 방러(04.9) 정상회담 정례화 푸틴 대통령 방한(05.11) Action plan(05)

2008-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재도약 도모	경협, 북핵문제 해결과 통일에의 긍정적 역할 활용	남북러 3각 경협 현실화, 극동시베리아에의 투자 유치, 균형외교 견지	이명박 대통령 방러(08.9) 한러대화(KRD) 한러 전략대화(08.12)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10.11)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12.9) 박근혜 대통령 방러(13.9) 푸틴 방한(13.11) 비자면제협정 발효(14.1) 박근혜 대통령 방러(16.9) : 블라디보스톡 한러 정상회의

나. 한러관계 71년의 특징

수교 이후 한러관계는 26주년을 맞이한 현재 다소간의 부침을 겪었지만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협력과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외교적 수사와 말로만의 성찬'이 무성하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시키지 못한 가운데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내실화하지 못하는 등 기대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정상회담과 그 후속조치 사안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양국 정상회담은 한러관계 협력 증진에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외교적 역할과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러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은 샌프란시스코 회담(90.6)을 비롯해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2016.9)에 이르기까지 점차 정례화되는 단계를 밟아왔다. 앞으로도 한・러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정상회담을 통한 한・러 미래 비전 제시, 新행동계획의 성안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고위급 인사 교류가 꾸준히 증진되고 있다. 그간 체르노미르딘 총리, 미로노프 상원의장, 셀레즈노프 하원의장, 마트비옌코 상원의장, 나리쉬킨 하원의장, 이바노프 국방장관, 라브로

3) 한러관계와 연관된 연구로는 김태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협력』, 동아시아협의회 보고서(CEAA Report) (2006.3).; 윤익중,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및 한러관계 이해를 위한 다면적인 고찰," 「슬라브학보」, 제19집 1호(2004.6), pp. 309-333.; 홍완석,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2001), pp. 343-363.; 홍완석,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슬라브연구」, 32권 3호(2015),pp. 63-90.; 신범식,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2014.8), pp. 1-26.; 신범식,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2010), pp. 235-278.; 장덕준, "러시아의 재부상과 동북아," 「아시아리뷰」, 2집 1호(2012), pp. 63-93.; 장덕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 방안,"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2016 여름), pp. 75-119. 외 다수 참조.

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측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한 바 있다. 우리측 고위급 인사들도 방러 하였으며, 한러포럼 및 한러대화(KRD)의 정례화도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적 교류가 보다 체계성을 갖추고 정례화 되어 가는 방향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여론 주도층간 상호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교류로의 질적 제고도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교역 동향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00년 28.3억 달러, 2004년 60억 달러, 2008년 180억 달러, 2009년 100억 달러, 2010년 178억 달러, 2011년 211억 달러, 2014년 258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2015년에는 16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9월 현재 95억 달러를 기록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모습을 띠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투자 미비는 현대자동차의 상트 페테르부르크 공장 건설, 롯데호텔과 백화점 완공, 칼루가 지역에의 한국공단 건설 등 다소 진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중・일과의 교역 규모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크게 증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는 수교 10주년(2000년)과 20주년(2010년)을 기념해 개최된 문화축전에서 보듯 비교적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최근에는 한국의 공공외교, 문화협력의 중요성 인식 및 푸틴정부의 '루스키 미르'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공공외교 전개와 맞물려 양국 간 공공외교와 문화 협력은 크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비자면제협정이 발효되어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회성, 분절적 성격이 두드러져 앞으로 체계성, 지속성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5]

다섯째, 군사안보 부문은 일정한 한계 속에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장차관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군인사 교류 및 재난, 구조 등을 다루는 합동군사훈련 측면에서는 증진을 이루고 있지만, 첨단 무기 구입과 방산 협력의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여섯째, 그간 한・러 간에는 TSR, TKR 연결사업, 가스관 건설, 전력망 구축 등 남・북・러 3각 경협 사안이 논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양국관계는 '양비론'의 관점에서 보아 상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① 양국 협력관계 초기 '안보 對 경협'의 상호 접근 시각과 우선순위의 차이; ② 한국의 對美 중시의 외교안보 틀 속에서의 對러 협력의 한계성; ③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올바른 이해 부족; ④ 정책 지속성 및 약속 실천 미약; ⑤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특성으로 시장질서 未정착; ⑥ 對美 전략 차원에서의 한반도정책 전개; ⑦ 북한의 대한 인식 차이의 존재 등이 양국관계 발전의

4) 영화제, 연극제 등 예술 문화 공연 이외에 한러 친선특급(200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정도 300주년 한국주간(2003년), '한러수교 20주년 기념 문화축제'(2010년), '2014-2015년 한러 상호방문의 해 기념', 고려인협회 주관 모스크바~시베리아~남북한 횡단 자동차 랠리 행사(2014년). 뉴라시아 원코리아 자전거 평화원정대 행사(2014년).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2015년) 등 다수

5) 조한범, 김현택, 서동주,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귀담아 듣고 새겨 봐야할 내용들이다.

전체적으로 한러관계는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 구도의 측면에서 한・미, 한・중, 한・일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반도통일에의 긍정적 역할 기대 등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며 미래의 호의적 외교 대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3. 한・러의 공동이해와 걸림돌

가. 한・러의 공동이해와 과제

한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체제전환 이후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가치적 동질 국가로서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중재자와 조력자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이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우리에게 있어 향후 극동시베리아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자본, 기술, 경영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자 도전을 창출하는 블루오션에 해당된다. 좀 더 크게 보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점증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역내 균형과 안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러시아와는 기존 '대륙세력 對 해양세력' 사이의 경쟁적 구도를 넘어서 역내 국가들의 공유 이익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지역 협력 모델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남북러 3각 경협, 남북러중 4자 경협, 한・중・러, 한・러・일 등 소다자 협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대외정책 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저지, 남북한의 反러시아화 방지, 6자회담에서의 러시아 역할 강화, 한국에 대한 북한 지렛대 활용 등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잘 아는 바처럼 한반도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남북한과 동시에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對남북한 균형 접근 및 등거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이익 측면에서는 아태지역 경제권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며,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출과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6] 러시아는 유로-태평양(Euro-Pacific) 국가로서 아태지역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에너지, 교

6) 이상준,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러시아연구」, 제25권 제2호(2015), pp. 229-252.; 우평균,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한중일의 정책: 현황 및 한국의 방향성,"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2010), pp. 223-255.;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경제발전 2025'계획 승인(2012.3) 외

통인프라 및 물류, 식량 안보, 해양자원, 교육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푸틴정부가 펼치는 신동방정책,[7] 선도개발구역의 설정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건설, 동방경제포럼의 연례적 개최 등도 이의 연장선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국의 對러 외교의 중심적 과제이자 지향점은 경쟁자가 아닌 상호 협력과 동반자적 성격으로 우호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양국 간 공유이익을 전략협력을 통해 현실화하는 것"이 核心이다.[8] 이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양자, 지역적, 글로벌 이슈 차원에서 내실화시켜 나가는 것과 연계된다. 북핵문제, 한반도통일 등 남북한 안보 현안에 있어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제고 및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증대, 역내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러 간 전략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는 점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나. 대러 제재 이후 한러관계 현주소

2014년 이후 한러관계는 다음과 같은 불협화음 요인이 다소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5월 모스크바 전승 70주년에의 불참과 중국 베이징 행사에의 참석으로 외교적 불만을 가질 상황이 내재되었다. 상대적으로 중국과 비교해 관계 증진의 한계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밖에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참석하지 않아 일본, 중국, 북한과 비교되었다.

둘째, 북핵문제를 둘러싼 공조와 이견의 혼재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하고, 북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에도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세부적으로 보면 조건없는 6자회담의 재개, 북한 체제를 흔들만한 과도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도 6자회담의 대체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거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9]

셋째, 러시아는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 다소 소원해진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에는 북한이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는 북러관계 긴밀화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 핵실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는 등 양비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넷째, 박근혜정부가 남북러 삼각경협의 대표적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나진~하산 물류 프로

7) 장덕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2014), pp. 229-266.; 이성규, 윤익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의 신동방정책," 「동서연구」, 제26권 3호(2014), pp. 159-184. 외.

8) 신범식 외,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5), pp. 142-146.

9)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2015.1.26),

그램의 중단과 이에 대한 러시아 측의 강한 유감 표명을 꼽을 수 있다. 3차례에 걸쳐 시험운행이 실시되는 등 현실화될 수 있었는데, 러시아로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문이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그램은 2013년 11월 한・러 공동성명에서 체결된 사안으로 비록 우리 측이 사전 통보 형식으로 對러 외교적 격식을 갖췄지만 러시아 측의 유감 표명에서 보듯 실망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270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중 러시아측의 요구로 제재 항목에서 제외된 부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인 사안이었던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는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속적으로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이며, 조건부 배치론을 들어 러시아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섯째, 오바마 집권기 미・러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 한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들 수 있다. 미・러와 한・러는 별개의 관계이지만, 유관국 간 관계의 성격과 대러 제재의 연장선 속에서 동조화되는 모습을 띠면서, 한러관계 발전에도 일정정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에 대해 다소 우호적인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미러관계가 이전에 비해 대립과 갈등이 약화되는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향후 미·러 간 최대의 현안으로는 첫째,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평가; 둘째,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의 대러 제재 해제 여부; 셋째, 시리아 내전 상황의 휴전 내지 종료; 넷째, NATO 동진에 대한 조정 여부; 다섯째, IS 등 국제테러에 대한 공조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푸틴 대통령과의 호감적인 리더십 이해를 토대로 대러 관계 개선 내지 재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같이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는 가운데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일정 부문 인정해 가면서 국제현안에 대해 공조 내지 협력하는 모습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미・러 간 협력 분위기가 이뤄진다면, 이는 한러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2015년 이후 양국간 무역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이며, 아울러 對러 투자 역시 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여타 요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의 한러관계는 위의 불협화음 요인으로 인해 답보 내지 소원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현재 푸틴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과 관심사는 △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대러 제재 해제와 경제난 극복, △ 시리아 내전 종식을 비롯한 중동 문제 해결, △ 미, 유럽연합, NATO와의 관계 재조정 및 대처, △ 중국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대응, △ 일본 아베 총리 訪러의 활용과 러일관계 도약 등이며, 이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하고 있다. 한러관계와 한반도문제에 전력을 투사할 입장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외적 행보는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역내 정세를 관리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의 역내 긴장 고조 국면에 대해 양비론적 견해 표명과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전과 같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겉으로 대북 비판을 하지만, 북한과의

기존 관계 긴밀화 동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사드 배치 반대, 북한체제 붕괴 방지, 평화체제 논의, 북・중・러 경협 등 중국과 공조가 가능한 부문에 있어 협력해 나가면서 남・북, 미・북 간 중재자적 역할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관련, 중요한 점은 역내 여타국가에 비해 영향력이 작다고 러시아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제법, 국제규율(비핵화, WMD 확산 금지, 안보리 결의안) 준수・이행 등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러시아의 한국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어 있고, 다소 소원한 상태에 있는 한러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러 모두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4. 맺음말 : 정책적 고려사항

이미 언급했듯이 그간 한러관계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지금도 이와 같은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9월 3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세 가지 언급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0)]

> 하나.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신동방책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서로 만나는 극동지역에서 한・러 간 협력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소중한 파트너로서 양국의 서로에 대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
> 둘. “한・러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이 지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 셋.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반도와 동북아, 극동, 유라시아,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

일면 한・러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전략 협력 내용과 과제 등 다면적 함의를 담고 있다고 본다.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각종 단・중거리 미사일과 SLBM 시험발사를 하였으며,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하는 등 역내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현재는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비판과 함께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10)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참조. http://www.1.president.go.kr/util/pop_print.php.(검색일: 2016.9.6).

있으며, 역내 정세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띤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국제안보 질서 재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질서 변화 상황을 염두에 둔 한러관계의 발전 모색이 긴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한·러간 주요 현안과 과제는 △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성안, △ 남북관계, 한반도 통일에의 러시아의 긍정적 역할 제고, △ 북한 인권문제(러시아내 북한노동자, 탈북자), △ 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 △ 극동지역을 포함한 경협 증진 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로 집약해 볼 수 있다. 또한 미러관계 변화 향배와 관련, 어떻게 부정적 파급영향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등의 물음에도 답을 구해야 한다.

바람직한 대러 정책 방향과 정책 고려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첫째, 푸틴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이해와 新동방정책에의 조응이다. 한러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동방정책의 정합성 살리기 및 지속적인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푸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한국을 염두에 둔 그랜드 디자인과 접맥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로서는 산업다각화와 해외투자 유치로 집약되는 '經濟우선주의'를[11] 취하고 있는 푸틴의 관심사를 원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엔 안보리에서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 채택에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 핵실험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판적 입장이며,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한 상태로 실질적 대북 압박을 이끌어낼 내용이 포함되는데 조력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긴요하다.[12]

셋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정례화이다. 블라디보스톡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항으로, 북핵문제 관련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며,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간 전략대화 정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5년 9월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 訪韓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국가안보실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밖에 1.5트랙의 한・러 전략대화의 재개, 2+2(외교+경제) 전략회의 개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사드 관련, 지속적인 對러 설득과 이해 제고 노력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역내 군사적 균형을 해치는 일로 공식 평가(7.8)하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 이전에도 라브로프 외무장관,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

11) 전자는 수입대체산업 활성화, 후자는 선도개발구역, 경제특구 활성화 도모이다.

12)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윤병세 장관과의 회담에서(9.13) "북한은 무조건 비핵화해야 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태도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의 표현인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 등이 공개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중국과도 정책 공조를 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의 사드 관련 비판적 입장과 자세는 중국에 비해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가 생존권 차원의 자위적 결정이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토대로 對러 설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가두마 선거 이후 구성된 의회 신지도부에 대한 초빙 외교의 추진이다. 9월 18일 치러진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서 기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승을 거두었다.[13] 바체슬라브 볼로딘이 새로운 하원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의회 지도부 진영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한・러 의회 간 의원외교 활성화 차원에서 상・하원의장 등 초빙외교를 펼치는 것이다. 한・러는 금년 4월 19~20일 모스크바에서 제1차 유라시아국회의장 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17년도에는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한・러 양자 경협 합의 사안의 발굴과 구체적 실천이다. 남북관계 정체적 분위기를 감안해 기존 남북러 3각 경협의 틀을 대체하는 한・러 양자 경협 프로젝트의 발굴과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對러 투자와 경협 진척 상황을 염두에 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의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14]

이 부문과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 작업은 이미 많이 이뤄졌다. 이를 테면 한・러 공동사업 모델로 유망한 분야는[15] △ 제약 및 의료장비 등 보건 분야, △ 농산물 생산, 농자재와 농기계 생산,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 △ 어업 쿼터와 연계, 수산업(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 전력망 현대화 사업, 발전소 건설 투자, 전력회사 지분 인수 등이 있다. 또한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의 북극 항로 개발 분야에의 활용 및 북극항로 거점 항구에 극지 항해용 선박 수리・검사장 건설, △ 극지용 어로 방비 선용품 개발 등 공동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북극해 항해 및 선박 관리 전문 인력, 자원 수송 전문 인력 양성 등 인적 교류 등도 중요하다. 이밖에 △ 한국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한·러 공동 펀드 및 투자 플랫폼 조성),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FTA 체결, △ 러시아의 수입대체산업 구조 조정에의 참여 등도 포함된다. 특히 금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21개의 경제 관련 MOU의 세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일곱째, 북극항로 개척 등 유라시아 진출 협력 모색이다. 북극해역 공동연구 및 정보 공유를 비롯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확대해 나가는 등 향후 북방물류 개척의 측면에서 한・러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

13) 총 450석 중 통합러시아 343석, 러시아공산당 42석, 자유민주당 39석, 정의당 23석, 여타 정당이 3석을 획득하였다.(www.cikrf.ru)

14) 중국은 100억 달러 규모의 중·러 농업 개발펀드 조성, 동북 3성과 연해주 연결 교통로 건설을 포함해 10여개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중이며, 일본은 5월과 9월 러·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對러 투자 증대 확약, 농업 부문, 유통 인프라 건설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15) 변현섭, “한러 극동지역 발전 방향 모색: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부쳐,” Russia-Eurasia FOCUS (2016.7.25.). 외

여덟째, 역내 소다자주의 협력의 활성화이다. 중장기 역내 국가발전과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기제로서 한·일·러(환동해 네트워크 구축·개발 협력), 한·중·러(동북 3성, 연해주, 강원도 3각 벨트), 한·중·일 + 러시아 등 다양한 소다자주의 국제 협력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끝으로, 對러 공공외교의 지속 전개이다. '루스키 미르' 등 최근 러시아의 對韓 공공외교 전개에 조응하는 한편, 차세대 한반도 연구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류를 통한 역사와 문화 부문의 상호 이해 제고 등 한국 나름대로의 對러 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위의 실천 방안들이 만능의 보검은 아니며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러관계에 관심을 갖고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제자는 올해 초 아관파천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점을 되새긴 적이 있다.[16)]

> 첫째, 한반도를 위요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잘 조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니면 이를 선도해 타개해 나가는 것도 방책이다... 둘째, 강력한 국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기본이며 당연한 것이다. 국력신장과 자강이 중요하다. 21세기, 22세기 국력의 요소는 다양하다. 군사력에 더해 경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국민의 질, 거버넌스 운영, 문화의 힘, 사이버 지식 정보 등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요소도 포함된다... 셋째, 여전히 중요한 자산으로 외교력, 위기 대응력 갖추기이다. 이에는 결집된 국론과 창의와 통합의 리더십, 세계를 보는 넓은 세계관과 사고체계 갖추기 등 정치철학적 요소도 포함된다. 주요국들의 전략적 이해와 입장을 잘 파악하고, 용(用)미・러・중・일의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 미래의 역사에 더 이상 아관파천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끝 문장으로 "단견에, 단편적인 사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심연에 흐르는 커다란 흐름과 대세를 알고 잘 가꾸어 나가, 또 다른 100년 뒤에는 새로운 국가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길 기대한다"고 매듭을 지었다. 이는 현재도 유효하며,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겨본다. 미래 한러관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더 크게 도약하길 기대한다./끝/.

16) 서동주, "한・미・중 삼각구도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의미," 「슬라브학보」, 제31권 2호(2016), pp. 140-141.

참고문헌

한국과 러시아 정부(기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

www.mofa.go.kr,

www.mcst.go.kr,

www.kotra.or.kr,

www.kita.net.

www.kremlin.ru,

www.mid.ru,

www.cikrf.ru,

www.scrf.gov.ru,

주러 한국대사관(rus-moscow.mofat.go.kr),

주한 러시아대사관(www.russian-embassy.org),

기획재정부.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2013.7.9)

기획재정부. '제14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개최 결과' 보도참고자료(2015.10.23)

김태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러협력』, 동아시아협의회 보고서(CEAA Report) (2006.3).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참조. http://www.1.president.go.kr/util/pop_print.php.(검색일: 2016.9.6).

변현섭. "한러 극동지역 발전 방향 모색: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부쳐," Russia-Eurasia FOCUS (2016.7.25.).

서동주. "한・미・중 삼각구도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의미," 「슬라브학보」, 제31권 2호(2016), 115-146.

신범식 외.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협력』 (서울: 한국외대 지식출판원, 2015),

신범식.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지역정치," EAI 국가안보패널 연구보고서(2014.8), pp. 1-26.

_____.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제26권 제1호(2010), pp. 235-278.

우평균. "러시아 극동개발 프로그램과 한중일의 정책: 현황 및 한국의 방향성," 「슬라브학보」, 제25권 4호(2010), pp. 223-255.

윤익중.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및 한러관계 이해를 위한 다면적인 고찰," 「슬라브학보」, 제19집 1호(2004.6), pp. 309-333.

이상준. "러시아 극동개발과 남북러 3각 협력," 「러시아연구」, 제25권 제2호(2015), pp. 229-252.

이성규, 윤익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의 신동방정책,” 「동서연구」, 제26권 3호(2014), pp. 159-184.

임수석. “유라시아 친선특급: 한반도 통일과 유라시아 시대를 위한 대장정,”『외교』제115호 (2015년 10월), pp.184-189.

장덕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동북아,” 슬라브학보, 제29권 1호(2014), pp. 229-266.

_____. “러시아의 재부상과 동북아,” 「아시아리뷰」, 2집 1호(2012), pp. 63-93.

_____.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대러 협력방안,” 「중소연구」, 제40권 제2호 (2016 여름), pp. 75-119.

조한범, 김현택, 서동주.『한국의 대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서울: 통일연구원, 2013).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검색일: 2015.11.17)

한국무역협회.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 (검색일: 2015.11.17)

한국무역협회. “한러수교 25주년,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Trade Focus*, Vol.14, No. 37(2015.9).

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 극동개발 추진현황과 한러 경제협력 방안.” *Issue Report* (2015.6.24.).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편. 아관파천 120주년 특별학술회의 자료집(2016.2.3).

홍승아. “미리 보는 2016년 러시아 경제.” Kotra 모스크바무역관 (2015.11.17.).

홍완석. “2015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 의미, 성과, 과제,”『슬라브연구』제32권 3호(2016), pp.31-53.

_____. “푸틴 시대 러시아의 신 한반도전략,”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3호(2001), pp. 343-363.

_____.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조건과 과제,” 「슬라브연구」, 32권 3호(2015), pp. 63-90.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 방안: 경제협력 및 사회교류 관점

이상준(국민대)

1. 한러 관계의 대외환경 변화

□ 트럼프 당선과 러미 관계 변화 가능성

◦ 보호무역주의 강화 vs. 유라시아 대륙 초국경 협력 강화

- “Make America First Again”이라는 선거구호에 따라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오바마는 TPP와 관련된 의회 비준을 포기함에 따라 TPP는 폐기됨.
- NAFTA, 한미 FTA 역시 미국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폐기를 협상카드로 하여 일부 조항에 미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재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도 환율 조작국 지정은 면하였지만 관찰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중기적인 원화가치의 상승을 통해 내수 증진을 강제할 것임.[1)]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시사점

  ①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미국이외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 간 협력의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1) 미 재무부는 ①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무역수지불균형), ②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경상수지 불균형), ③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3가지 기준을 도입해 주요 교역대상국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조작했는지를 판단하여 3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고 2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과 같이 무역·경상수지 불균형 요건이 적용됐고, 대만은 무역수지불균형과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었음. 심층분석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②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을 통한 유라시아 역내 통합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또 다른 대외정책인 <일대일로>를 통해 유라시아 내륙 국가의 인프라 확충과 중국 상품 수출시장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

③ 러시아 역시 대 유라시아 연합을 강조하면서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지리적 범주를 확장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

④ 다만 중국의 유라시아 정책이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의 출구, 과잉설비 및 생산설비의 해외이전, 자원획득,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또 낙후된 서부지역 개발을 촉진하려는 경제적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달리 러시아는 소련의 지리적 범위를 다시 회복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러시아 경제의 부활에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음.

⑤ 앞의 ④에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즉 러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 대외정책은 유라시아 내륙 국가의 발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유라시아 저발전의 덫”에 갇힐 수도 있음. 냉전시기 소련의 대외경제협력은 제3세계 국가의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양 진영이 제공하는 원조만을 탐닉한 결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까운 지원만이 남게 되었음. 그 결과 소련 붕괴 당시 소련은 서방국가에 약 천억불의 부채를 가지고 되었고 제3세계로부터 거의 동일한 규모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음.

◦ 대러 제재 지속 혹은 부분완화 혹은 해제

- 트럼프의 당선은 미러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지 러시아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음. 대선 운동 당시 트럼프는 러시아 정치 지도부와의 대화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언급함.
- 트럼프가 반글로벌주의적 애국주의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강제적으로 세계에 보급하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한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를 적으로 삼지 않고 공통의 이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를 찾자는 트럼프가 푸틴과 협상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함.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은 외교정책도 이익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 독점적인 이익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라는 점에서 미러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음.
- 대러 제재 관련 시사점

① 반러 성향이 강한 클린턴의 당선보다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 미러 관계의 부정적인 기류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에 대한 반감도 적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해법도 민스크 협정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②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하여 도입된 대러 제재의 철회 또는 부분적이며 단계적 해제가 있을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러한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③ 러시아는 미국과의 교역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의 대러 제재에 반발하여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고 미국 역시 러시아와의 교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음. 하지만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 러시아와 미국 간 교역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낙폭을 기록하였음. 그 결과 러시아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3.3%에서 2015년 3.7%로 증가하였음.

④ 트럼프의 석유생산 및 수출자유화로 인해 유가하락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져서 러시아 경제의 침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러일 관계의 개선

◦ 아베의 소치와 블라디보스토크, 푸틴의 일본 방문

- 2016년 5월 6일 아베는 소치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였음. 북방영토 문제를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일본은 극동 지역의 발전에 관한 포괄적 접근을 제안하고 8개 항목의 협력 방안을 논의함.
- 8개항은 다음과 같음.

① 극동지역의 산업 발전: 아태 지역을 향한 수출 기지화를 위한 협력. 항만, 농지 개발, 수산물 가공, 제재소, 공항 정비 등

② 의료산업 지원

③ 도시 건설 협력: 쾌적하고 청결하며 살기 편하고 활동하기 좋은 주거환경,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교통 정체 해소, 상하수도 정비, 도시교통망과 우편 네트워크 정비, 재개발 토지의 개발 등

④ 러일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 비즈니스 매칭, 벤처 지원, 직종 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관의 설립 등

⑤ 에너지 협력: 석유 및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개발 협력. 생산 능력의 확충, 석유제품의 다변화와 관련된 협력.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기존 협력을 능가하는

연계 강화 등

⑥ 상징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⑦ 원자력, IT, 러일 양국의 지혜를 결집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⑧ 러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증대: 대학과 청소년들의 교류 및 관광객의 증가, 스포츠 문화 등에서 인적 교류를 근본적으로 확대

- 9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서는 소치에서 제안한 8개항에 대한 협력을 다시 확인하고 매년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8개 협력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며 평화협정의 체결 하는 등 러일 관계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나가자고 제안함.
- 11월 19-20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활용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며 12월 15일에 푸틴 대통령이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을 방문해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임. 푸틴은 2005년 이후 11년만에 일본을 방문함.
-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하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쿠릴 4개 영토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공동 경제활동을 벌이는 문제와 인적 교류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일 관계 개선의 시사점

①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봉쇄정책의 균열을 기대하고자 하면서 또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G7 회원국의 일원인 일본을 끌어들여 미국의 대러 제재를 완화하기를 바람

② 또한 극동에서 중국과 한국의 투자가 기대한 만큼 속도를 내지 않게 됨에 따라 극동개발에 필요한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③ 일본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러시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해양세력들의 대륙세력 사이의 분할은 계속 있었음. 냉전체제에서 미중 데탕트가 대표적인 사례임.

④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대규모 금융완화, 신속한 재정 지출, 공격적인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제시하며 일본을 디플레이션에서 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일본은행이 연간 50조엔이나 되는 대규모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1월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는 중국의 주가 하락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유지할 수 있는 동력도 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⑤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나 재정확대 정책이 일본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

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정지출 등으로 아베노믹스의 난관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임.

⑥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 트럼프의 당선 등을 감안한다면 영토이양이 아니더라도 영토 공동개발 및 성과에 따른 이양 등을 전제로 대대적인 협력 가능성은 없지 않음.

□ 러중 관계 밀착 지속

◦ 역사상 최고의 관계 언제까지?

- 러중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있지만 러시아가 중국과 정치·군사적 동맹관계를 만들어 발전시킬 가능성은 낮은 실정임.
- 중국은 러시아의 첨단무기 관련 기술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양국 간 소규모지만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의 모습을 감안한다면 양국은 느슨한 형태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러시아가 중국이 원하는 만큼 접경지역에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에 소극적인 점과 중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수준만큼 극동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은 러중 양국간 협력을 대대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 러중 관계 밀착의 시사점

① 중국은 일대일로는 극동과 동시베리아를 포함하고 있지 않게 됨에 따라 일대일로와는 별개로 동북 3성과 동해로 연결하는 차항출해 전략과 중국 북부 물류를 북극의 자원개발과 연결시키는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략적 스탠스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대적인 협력이 농업, 물류 등 중국입장에서 가장 실익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③ 러중 초국경 인프라 협력으로 다시 주목하고 있는 프리모리예 1, 2는 나진-하산 물류망 연계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음. 다만 프리모리예 1로 연결되는 나홋카항, 보스토치니 항, 프리모리예 2로 연결되는 자루비노 항이 대대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항만 물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국경 물류 협력에 연관되는 거점 개발에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④ 중국은 야말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면서 북극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북극 개발과 관련하여 중국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일본은 항로운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포지션을 항만현대화와 선박건조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2. 우리의 대러 경제 및 인적교류 적극 추진 필요성

□ 대러 제재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대러 제재는 외교적 고립화, 주요 인사들의 비자발급 중단, 주요 기업인과 국영기업의 자산 동결, 에너지 설비 및 관련 기술 접근 제한, 글로벌 자본 금융 시장 자금조달 금지,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된 경제교류 및 특정 인프라 투자금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서방제재로 인한 경제손실은 2014~15년에만 1,000억 달러로 러시아 1년 예산의 약 절반 규모
  ① 개인 149명과 기관 및 기업 37개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 진행
  ② 2014년 7월 이후 러시아 5대은행의 채권거래, 주요 에너지기업의 물자, 기술, 자본 이전, 군수기업의 수출입 등이 금지된 상황

[표 1] 에너지 분야 기업 제재

	미 재무부 EO 13662 Directive 2 (금융)	미 재무부 EO 13662 Directive 4 (기술)	미 상무성 수출통제	EU 금융규제	EU 기술규제
Transneft	○			○	○
Gazprom		○	○		
사할린 3		○	○		
Gazpromneft	○	○	○	○	○
Lukoil		○	○		
Novatek	○				
Rosneft	○	○	○	○	○
Surgutneftgaz		○	○		

자료: 미재무부, 미상무부, EU

- 제재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결과로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외국기업들이 생겨났음.
  ① 자동차 산업은 2014년 10% 감소에 이어 2015년 상반기 판매량이 35%(당초 전망 10%내외 감소)까지 감소하면서 이미 외국계 자동차 회사 GM과 르노는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현지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임.
  ② 2013년 한국보다 러시아 판매가 많았던 쌍용자동차 역시 잠정적으로 러시아 시장 판매중단을 결정하였음.
- 제재의 효과는 금융과 에너지 분야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러시아 기업과 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서방의 대러 제재로 발생하는 경제손실의 규모는 정치적인 이유로 엇갈리게 평가되고 있음.
  ①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역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음.
  ② 서방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는 유가 하락과 상승 작용하여 어느 정도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대러 제재의 성격에 따른 시사점
  ① 러시아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주요 인사와 국영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접근을 봉쇄하였기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② 중국이 자원, 농업 등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분야의 기업(예를 들어 CNPC 등)들이 미국 혹은 유럽시장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 참여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손실보다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관련 분야로의 자본여력이 있다면 제재의 영향을 피할 수 있음.
  ③ LS 네트웍스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현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LS 네트웍스가 러시아와 CIS 국가만을 상대로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등을 하고 있기에 서방의 대러 제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었음. 물론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난으로 비롯된 환율상승으로 생기는 위험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여 최근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금 재설계하는 일이 있었음.
  ④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극동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극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함.
  ⑤ 러시아의 신용상태가 낮은 상황이라서 러시아측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한국기업이 수주하더라도 수출입은행 혹은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들이 글로벌 기준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기에 러시아 관련 사업으로 자금 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다자 관계 관리

◦ 동북아 차원의 개발 협력 기금 마련
- 아시아 지역에는 ADB, AIIB가 있지만 ADB는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등 아시아 저발전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AIIB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와 극동러시아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금융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동북아 차원의 개발협력 기금 조성에 중일 관계가 걸림돌이 될 경우 환동해 개발기금 등 한러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도 한 방편임.

◦ 동방경제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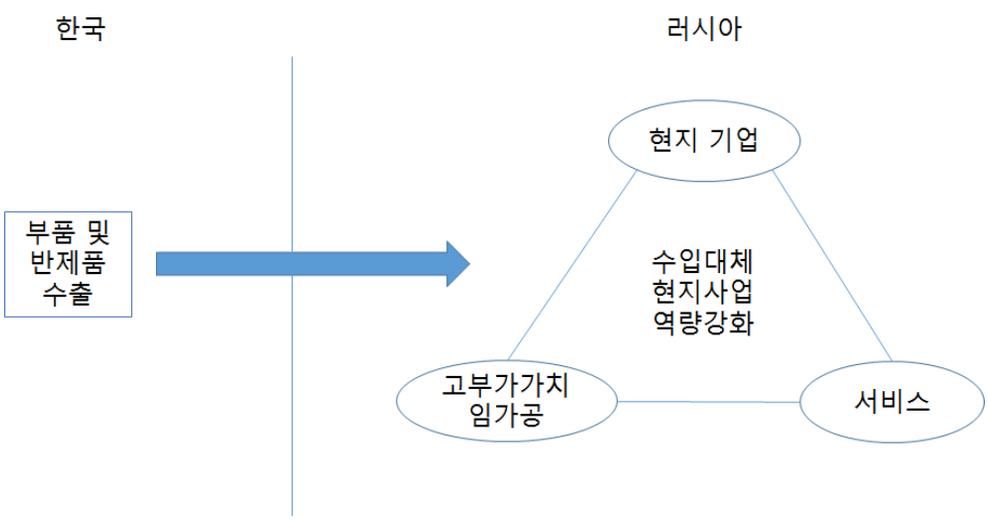
- 러시아가 매년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을 3자(한러일), 4자(한러중일), 5자(한러미일중) 정상 혹은 고위급 회담의 기회로 삼으면서 역내 경제협력의 플랫폼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 지난 9월 아베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매년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12월 푸틴의 일본 방문 성과에 따라 이러한 회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러 간 양자 관계 개념 설정

◦ 자원-상품 무역구조 전환 및 러시아 무역정책 활용

- 한러 무역의 양자적 관계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발전전략을 감안한 한러 산업통상 협력 모델의 전환적 사고가 필요함 ([그림 1] 참조).
- 극동개발에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을 연계하여 현지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상품 수출 중심의 대러 무역은 중국기업의 추격 뿐 아니라 일본의 극동개발 참여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 등 융복합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1] 산업내 무역 증진에 의한 러시아 시장 진출 방안



-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가능한 분야는 ① 의료보건 서비스 및 의약품, 의료 장비, ② 식품 포장 및 식품 유통 서비스, ③ 온라인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④ 과일, 조경화훼, ⑤ 농업, 양돈, 수산물, 원산지 추적 유통 서비스 등임.

◦ 한-EAEU FTA 추진과 무역-투자 연계 방안 마련

-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이 산업간 무역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위기시마다 부침을 심하게 겪을 수 있으며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내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역과 투자가 결합된 형태의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과거의 국제협력이 상호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국가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메커니즘, 전략적 산업협력을 위한 공동의 기금 조성에 의한 협력이 필요함.
- 러시아가 극동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인프라+제조+무역이 패키지로 이루어지는 협력 방식이 추진되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건설 및 투자 진출과 연계할 수 있는 각종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랜트, 인프라 건설 분야 진출과 연계 가능한 건설자재 분야, 네트워크 구축 분야와 연계 가능한 IT 관련 부품 분야, 식품가공 산업과 연계한 식품가공 기계 분야, 농업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농자재나 관련 기계 등은 수출과 연계한 투자가 병행될 필요가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2)]
- 이를 위한 공공성격이 강한 국책금융기관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정부의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대부투자(Loan)를 시작할 필요 있음. 또는 특정사업을 위해 발행된 러시아정부 국채 또는 공기업의 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을 통한 간접투자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투융자 플랫폼의 실질적 활용 방안 마련

-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30억불 투융자 플랫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러시아측 파트너 은행인 VEB은행이 제재대상은행이었기 때문임.
- 러시아측 파트너가 가진 리스크가 투융자 플랫폼이 작동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지만 2년 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파트너 은행의 교체, 민간 차원에서 bottom-up으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태만도 있었음.
- 극동개발과 관련된 제도적인 리스크와 금융조달의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융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은 투자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다소 위험을

2) 김학기, 김계환, 『중앙아시아 산업구조와 한-중앙아시아 산업협력 전략』, 산업연구원 (2010)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여 극동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할 것임.

◦ 한러 양자관계 중심의 협력 사업개발 및 추진

- 투자대비 경제성과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수산업에서의 양자 사업 개발은 유효할 것임.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또 최근 중국에서의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투자에 따른 자본회수기간이 빠르다는 점에서 수산업 분야로의 참여와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분야의 투자 역시 가장 많은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곡물 건조기, 엘리베이터 등 농산품 보관, 운영과 관련된 투자, 농수산물 연계 항만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 극동지역의 항만개발과 관련하여 극동의 항만을 소유/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지분상호교환을 통해 우리 동해안 항만과 극동항만 간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극동 인프라 및 북극항로 개발의 거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극동러시아 물류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 상품의 수출 증대 및 제품 이미지 제고를 가능하게 하는데 한국 물류기업은 유통되는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화물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극동러시아 진출시 현지기업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인적 교류 확대

◦ 러시아 정부는 현재 지도 엘리트를 조금씩 교체하면서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추구하고 있음.

◦ 2015년 유라시아 친선특급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인적교류와 문화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 정부 간 협의 채널 구축 및 정보교환

◦ 러시아 정부 정책과 관련된 통합 정보 부재로 인해 민간기업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있음.

◦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확보하여 러시아 정부 정책 관련 법규 변화 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유통 필요함.

□ 러시아 극동개발, 상품-자원 수출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일방의 잘못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측의 비논리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비난에 논리적·사실적 대응도 필요함.

◦ 극동지역에 투자할 경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한국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시장에의 통합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도 있음.

러·일 관계의 최근 변화 동향과 한반도에의 함의*

김정기(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1. 서론 : 문제의 제기

2016년은 러·일 양국이 1956년 10월 19일 일·소 공동선언[1]을 통해 국교를 회복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러시아 소치(5.6) 및 블라디보스토크(9.2-3)를 방문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 정상으로서는 7년만에 오는 12월 15일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2016년은 양국 관계에서 변화의 분기점이 되는 등 상당한 의미를 지닌 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러·일 양국은 영토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국 모두 시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경제적 협력 등을 통해 문제해결 기반을 조성해 왔고 노력의 결과들이 나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항상 영토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반면 러시아는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이를 통한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성을 갖고 움직인 것은 대부분 일본이고 소련/러시아는 남쿠릴 열도(일본 : 북방영토)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다소 수동적으로 부응하면서 경제협력과 투자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다만 2012년 이후 러시아도 동방 중시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 아베 총리의 대러시아 협력 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소련/러시아와의 협상에서 국제 상황 및 양국 관계 상태, 러시아의 태도 등에

---

* 이 글은 슬라브유라시아 학회 동계세미나(2016년 11월 19일)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각주 및 참고 문헌 미표기 등 아직 학술논문 상태로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후 전면적인 수정을 할 예정이므로 부족하더라도 양해 바라며, 인용을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1) 양국이 국제법상 전쟁상태를 종결하고 국교를 회복하며 일소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영토문제는 평화조약 체결 후에 소련이 시코탄, 하보마이, 구나시리, 에토로후 등 4개 섬 중 시코탄, 하보마이 2개 섬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을 전제로 평화조약 교섭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따라 정책 방향을 달리하였다. 굳이 구분한다면 1960년대는 정경일치론[2], 1970년대는 정경분리론[3], 1980년대는 정경일치론(전반)과 확대균형론(후반)[4], 1990년대는 다층적 접근론[5], 2000년대는 포괄적인 협력론[6], 2010년대는 정경분리론과 실질적 행동론[7]을 통해 對러 관계를 조율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대러 정책 기조와 함께 미·러 관계, 국제 정세, 북방영토 협상 기조를 둘러싼 일본 내 노선 대립과 러시아의 강경 입장 등에 따라 러·일 양국 관계는 "관계 악화 → 회복과 개선 → 활성화·정상화 → 소원화(냉각) → 악화" 등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이어져 왔다. 2010년 이후 양국 관계도 이러한 패턴에 따라 관계 소원화(메드베데프 대통령) → 개선 노력(일본 아베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 활성화 → 소원화 및 냉각 → 개선 노력 → 회복 및 획기적 발전 등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2016년 들어 러·일 양국이 활발히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행보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다 1) 이들 양국이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영향력이 큰 데다 2) 미·러간 대립 심화로 신냉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3) 러시아의 지정학적 회귀와 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 시도, 4) 일본의 안보법제 완료, 5) 미·중 간 동아시아 질서 주도권 다툼 심화, 6)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 지속 등이 얽히면서 **역내 안보경색**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차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정책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동북아에서 "미·일 對 중·러"구도 형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내재하고 있는 현재의 글로벌 및 지역안보 상황에서 일·러 양국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가늠하는 것은 역내 정세안정 여부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양국이 과연 영토문제 해결 실타래를 풀어 진

2) 정경일치론은 정치와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러·일간 경제협력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정책 노선이다.

3) 정경분리론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러시아에 접근을 한다는 것으로, 영토문제에서 진전이 없어도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노선이다. 실제 1970년대는 일본이 소련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시기이다.

4) 1980년대는 소련 아프간 침공 등으로 미소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경일치론 으로 회귀했으나, 후반에는 소련의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정치와 경제가 균형을 잡으며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확대균형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5) 1990년대는 소련이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자리하면서 영토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강화하는 다층적 접근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6) 2000년대 포괄적 협력론은 정치대화, 평화조약, 국제무대, 경제, 치안방위, 문화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하자는 2003년의 일·러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영토문제 해결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7) 2010년대는 평화조약 체결과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되 대규모 경제협력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협력 계획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정책 노선으로, 아베총리는 이를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한 우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국가 간 교류 수준에 머물 것인지 등 양국 관계 수준에 대한 판단은 물론이고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 양국의 전략적 입장과 향후 전망, 그리고 동북아 및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까지 상당히 많은 국내 논문들이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홍완석(2003년), 제성훈(2009년), 최일봉·석주희(2012년), 최태강(2013년) 등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양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 열도(일본 : 북방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8] 이는 영토문제가 양국관계를 좌우하는 핵심사항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국관계에서 경제협력, 극동개발 진출, 에너지 협력 등으로 나누어 별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글들은 최근 들어 발표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관점들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2. 최근 러·일 관계 개선 동향 및 특징

가. 관계개선 모색 추이 : 양국의 새로운 접근 움직임

일본은 아베 총리가 물러난 2007년 이래 5명의 총리가 교체되면서 대러시아 외교는 추진 동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0년 11월 1일 일본과 영토분쟁중인 남쿠릴 섬(러시아)/북방영토(일본)를 방문했다. 러시아가 실효지배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쿠릴열도사회경제발전 사업'을 점검해 본다는 명목을 내세워 소련 및 러시아 지도자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남쿠릴 열도의 하나인 구나시리를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러·일 양국 관계는 활력을 잃은 데다 분쟁 도서를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소원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기 집권(2012년 5월 7일)과 아베 일본 총리의 2기 집권(2012년 12월 26일) 시기가 겹치면서 양국 정상들이 그간 소원 상태에 있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개선 움직임을 나타냈다.

2013년 러·일 관계는 4월말 아베 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시작으로 역동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4개월여 만에 일본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조약 체결 문제는 물론 경제 및 에너지 협력 확대, 외교·국방 장관 협의체(2+2)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에게 안보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을 비롯하여 농업, 의료, 도시환경, 수송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모두 러시아와 안보

8)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정 보완 시 전문가들의 논문 주제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할 예정이다.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는 등 이전과는 다르게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양국 수뇌가 2013년에 G8, G20,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5개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외교 및 국방 장관 2+2 회담"을 개최하여 향후 아태지역 블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안보 구조 구축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안보 분야에서 단숨에 긴밀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일본으로서는 러시아 산업구조 개혁과 관련 자본협력을 통해 양국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2013년 러시아와 일본 간 무역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348억 불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2014년은 미·소 수뇌의 냉전 종결 선언 25년이 되는 해로 러시아와 일본 양국 관계에서 명암이 엇갈렸다. 푸틴 대통령이 소련 붕괴로 상실된 강대국 위상 회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소치 동계올림픽(2월 7일)에 아베 일본 총리가 전격 참석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의 체면과 입장을 살리며 5번째 회담을 가졌다. 양국 간 전례 없는 황금의 밀월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일본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로 양국 관계는 다시 급격히 냉각되었고 정치, 경제, 무역 등 제 분야 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크림 병합(3월 18일)은 미국·유럽과 러시아간에 대립을 격화시켰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가 시행되었다. 결과적으로 러·일 관계는 이 사태의 영향으로 소원화 되기 시작했다. 일본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러시아 제재에 서방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무역, 정치 등에서 양국 관계가 뒷걸음질 쳤고, 그간 아베 총리가 5회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성과와 신뢰도 퇴색되었다. 2014년 양국 무역규모가 전년대비 1.8% 감소한 342억불(일본 측 통계)로 전년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부정적 여파가 양국 관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은 각종 포럼과 경제인 교류, 정치대화 등 계속 대화를 이어왔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 애썼다. 특히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모두 각종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쌍무 및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4년 11월 북경 개최 APEC 정상회의 계기로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15년 일본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민간 경제교류를 담당하는 '러·일 비즈니스 협의회' 의장(2014년 12월)과 경제개발부·극동개

9) 당시 모스크바 주재 일본 비즈니스 클럽과 일본 무역 협회가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55.9%가 제재조치의 영향이 '있다', 22.6%는 '없다'라고 대답했으며, 또한 투자환경면에서의 리스크는 '환율 불안'이 78.5%(이전 실시 조사치는 48.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불안정한 정치·사회정세'가 74.2%(이전 조사치 37.1%)에 달했다.

발부 차관(2015년 2월) 등이 일본을 방문하여 정재계 인사들과 경협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2015년 일본 방문 추진은 러시아 제재 지속 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국의 협력 의지는 **2016년** 들어 더욱 두드러졌다. 일본 아베 총리가 2번(5월 6일 소치 비공식 방문, 9월 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여 국제 및 지역 현안과 경협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12월 15일에는 푸틴 대통령의 일본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상하원 의장과 경제개발부·극동개발부 장관 등, 일본의 경제 관료 등이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 준비는 물론 회담 후속조치 이행, 양국 관계 개선 등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물론 노골적으로 일본은 북방영토 반환 성사를, 러시아는 대일 경협 확보를 서로 최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큰 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러 양국 수뇌는 2013년 이래 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개최한 정상회담 회수가 현재 12회에 이르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이다. 그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그러하다는 점에서 양국의 관계 변화 모색에 대한 의지가 느껴진다.

나. 관계 개선의 실례

(1)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인식 공유

현재의 국제정세는 글로벌 역학구도 측면에서 볼 때 국제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주요국간 상호 경쟁과 견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EU와 러시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동아 지역의 IS 테러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핵심 이익 축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북아 정세는 미일동맹 긴밀화에 맞서 중·러 전략협력 강화 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일 간 상호 대립과 대화가 혼재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4차, 5차의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북제재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국면 지속으로 관계개선 여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및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일본**과 **러시아**는 글로벌화 과정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지정학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국제관계가 다극화·다층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의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대한 독자적 주도 능력이 줄어들고 대신 아태지역으로의 힘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분쟁 이래로 중국이 동아시아 역내 현상유지 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있어 안보상 중국의 파워를 견제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안보 법제 완료 이후 남동중국해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대치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일본**은 러시아가 중국을 활용한 다극화 질서체제 구축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균형 유지 및 미국 견제 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동아시아 역내 러시아의 위상 강화 및 입지 제고를 위해서는 역내 국제질서 재편 개입, 일본 활용,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국제경제 협의체 관여, 對아세안 협력 기반 강화, 일중/미중 갈등 조정, 한반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도 중국에 대해서는 다극화 질서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대상이지만 중국의 미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다는 속내를 내보이고 있다. 따라서 對중 일면 공조·일면 견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물론 러시아로서도 이러한 복잡 다기화 된 동아시아 대외환경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일본 모두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2) 남쿠릴 열도/북방 영토 문제[10] 해결 의지 피력

그간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러일 양국의 협상은 협상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쌍방이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수많은 영토협상을 통해 양국은 3가지 공식 합의를 이루었고 나머지 대담한 타협안을 제시한 비공식 제안들도 있었지만 일본이나 러시아 모두 서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방안들이었다.[11]

우선 공식 합의한 3가지 사항은 1) 평화조약 체결 후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을 반환하기로 한 1956년의 일소 공동선언 2) 4개 섬에 대한 귀속 문제를 해결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1993년 동경선언(옐친 대통령 일본 방문), 3) 일소 공동선언과 동경선언을 확인해 영토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2001년 이르쿠츠크 성명(푸틴 대통령 서명)이다. 이러한 공식 합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 등에서 일본은 “4도 일괄·즉시 반환론”을 주장하다 최종적으로 “2도 선행 반환, 나머지 2도 동시병행협의”로 선회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4도 반환 불가, 일소 공동선언 원칙”을 고수하면서 만약 일본이 “4도 러시아영토 귀속을 확인한다면 평화조약 체결, 시코탄과 하보마이 2도 반환” 내용의 교섭 용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토문제가 항상 양날의 칼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타협 의지에도 불구하고 제안들이 수용될 수 없었다.

그리고 비공식 제안 타협안들은 “1992년 비밀제안(2도 반환, 추후 2도 협상 : 일본이 4도 반환이 아니라며 거부)”, “1998년 가와나 비밀제안(4도 일본 주권 인정, 나중 반환 : 러시아 4도 반환이라며 거부)”으로 자국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되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차

---

10) 러일간 영토문제는 구소련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걸쳐 일본 홋카이도 북부에 위치한 남쿠릴 열도 4개섬(일본은 북방영토로 호칭 : 시코탄, 하보마이, 구나시리, 에토로후)을 점령한 데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일본은 일본고유의 영토라며 소련 및 러시아에 계속 반환을 주장해 왔고 소련/러시아는 이를 거부해 왔으며,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통해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반환하여 일본과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키로 했으나 일본의 4도 반환 주장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1) 공식, 비공식 제안 등 러일 양국의 영토협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홍완석, 쿠릴 4도 분쟁 영속화 요인 고찰, 2003”, “최태강, 아베시대 러·일 관계 : 영토교섭의 해법은 있는가?, 2013”을 참조

원에서 1) 2도 + 공동개발론, 2) 면적 균등론, 3) 3도반환론, 4) 4도 추후 반환론 등이 제시되었지만 비공식 타협안들과 마찬가지로 2도(러시아), 4도(일본)라는 원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되었다.

그러나 2012년 재집권한 푸틴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모두 영토문제 관련 대화 의지를 나타내면서 양국 간에 영토교섭이 재개되었다. 양 정상은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 해결해 보자는 타협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무승부'라는 유도 용어를 사용하면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아베 일본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5월 6일 8개항의 협력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관계 강화 및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영토문제 해결로 이어간다는 협력 전개 방식을 설명한 데 이어 9월 2일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영토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평화협정에 서명하여 이 문제를 미래세대로 넘기지 말자'고 강조하였다. 일본으로서는 12월 15일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영토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러시아에 영토문제 해결 계획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토문제에 타협을 시사하고 있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러시아가 2개 섬을 반환하고 나머지 2개 섬은 공동 통치(주권은 일본 귀속)하는 "2+공동개발론", "일본이 강력한 통치권을 갖는 다는 조건하에 4개 섬 공동 통치", "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3개 섬 공동통치" 등의 방안을 일본이 구상하고 있다는 설을 흘리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일본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환영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할 것', '러시아는 일본에 팔 것이 없다' 는 등의 표현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 전문가들은 '일본이 자신들의 구상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흔들기', '일본에 유리한 진전으로 비칠 영토 공동통치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공개적으로 심어주려는 의도일 가능성', '공동 통치 구상은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 방안' 등 이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일본의 극동투자 용의에도 불구하고 쿠릴열도 영유권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가 주장하는 '2도 반환', 일본이 주장하는 '4도 인도' 방식으로는 영토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전문가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분쟁을 단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듯이 보인 다'라며 '공동 통치라는 용어의 의미를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공동 통치를 공동경제구역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며, 공동경제구역에서는 러시아의 영유권이 완전하게 유지되지만 특별법에 의거 일본기업들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 일본은 공동 통치를 '러시아의 쿠릴열도 영유권 축소로 간주'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만약 푸틴 대통령이 타협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도 타결을 위해 양보할 의사가 있다면, 서로 윈-윈이 가능한 방안으로 “2+공동통치(공동경제구역)” 형식으로, **일본**은 “**4도 주권론”**에서 “**2도 주권+2도 사용권 확보**”로 일부 양보하고, **러시아**는 “**2도만 반환**”에서 “**2도 반환+2도 제한적인 사용권 부여**”로 양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번 방문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 진전”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고 양측이 양보 가능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세밀히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민여론상 이것마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방영토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홍완석은 “쿠릴 4도 분쟁 영속화 요인 고찰(2003년)”에서 러시아가 완강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1) 군사·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 2) 안보적 고려, 3) 영토반환 원칙의 문제, 4) 일본에 대한 역사적 앙금, 5) 러시아 사회의 보수 우경화 현상, 6) 국경 콤플렉스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홍완석은 북방영토 문제가 단순한 일러 양자 수준이 아닌 미러일 3국간 세력 방정식 속에 이해되어져야 하고 러시아의 견고한 미일 동맹체제에 대한 안보적 우려가 다소나마 해소되는 상황에서만 러시아가 전향적으로 양보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 보아 국민지지도가 아무리 80%대 수준이고 국내 정치적 기반이 탄탄한 푸틴이라고 해도 이러한 제반 고려요소를 일본이 대규모 경협 투자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2도 반환’은 이미 조약상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인도해야 하는 점, 그리고 어차피 나머지 구나시리, 에토로후 섬을 개발해야 하는 점, 막대한 극동개발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한다면 러시아는 일본보다는 오히려 그리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아베 총리가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4도 반환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리고 2도를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해결해야할 사안이 그만큼 많아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내셔널리스트들은 고유의 영토인 북방 4도 고수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제대로 해낼지 의문이다.

(3) 새로운 경제 협력 도모

【일본의 접근】

러시아와 일본은 2016년 들어 미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치를 급상승시키고 있다. 5월 6일 러시아 소치를 비공식 방문한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의 회 담을 가졌다. 아베의 의도는 러시아와의 냉각된 관계를 해소하고 영토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있다. 푸틴 대통령도 일본의 의도야 어떻든 접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 부응했다. 회담 내용은 1) 양국의 다양한

정치경제 관계와 글로벌 이슈 논의 2) 각종 국제회의 계기 고위급 수준의 대화와 방문 합의 3)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초청에 아베 총리 참석 수락 4) 아베 총리의 8개 우선 경제협력 플랜 제안과 이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기대감 표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이 제시한 8개 우선 협력 플랜은 (1) 건강한 기대수명의 연장, (2) 거주 및 생활하기 쉽게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 개발, (3) 중소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 확대, (4) 에너지, (5) 러시아의 산업다변화 및 생산성 제고, (6) 극동지역에 산업 및 수출 기반 개발, (7) 첨단산업 분야 협력, (8) 민간 교류 확대 등으로서,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평화조약 체결과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되 경제협력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국 모두에게 냉기류가 흐르던 관계를 일거에 전환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매우 만족스러운 만남 이었다.[12)]

아베 일본 총리의 2016년 2번째 러시아 방문은 제2차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정상회담 개최이다. 아베 총리는 동방경제포럼개최 하루 전날인 2016년 9월1일 러·일간의 경제협력을 담당할 '러시아 경제협력 담당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으로 경제산업성 장관이 겸직하게 하는 매우 호의적인 모습을 러시아에게 보여주었다. 아베 총리는 신설 장관이 러시아와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유의미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면서 신설 부처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였다. 9월 3일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기조연설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성을 빼고 이름인 블라디미르라고 호칭하며 친밀함을 과시하면서 '70년 동안 지속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다음 70년간 지속될 일·러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매번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나 투자를 논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13)]

【러시아의 호응】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일본과 협의한 경제협력 관련 사안에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준비에 나서고 이를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계기에 타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등 전례 없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임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2차 동방경제포럼 성과[14)]를 정리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에

12) 변현섭, "러시아 극동개발과 한-러 협력 활성화 방안:최근 일본의 극동지역 진출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제 3회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 프로시딩(2016)

13) 변현섭(2016)

14) 2016년 9월 2-3일간 개최된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는 1조 8,500억 루블(약 3조 1579억 원) 규모의 214개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2015년 투자 1조 8,00억 루블(약 3조 663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4,600명이 참석하여 1차 동방경제포럼 때보다 1.5배나 많았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장 많은 사절단은 일본(246명), 중국(227명), 한국(128명) 이었다. 포럼에 207명의 러시아기업 대표와 94명의 외국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978명의 기 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착수한데서 알 수 있다.

러시아 측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과 관련, 먼저, 러시아는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일본의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한 **러·일 공동 플랫폼 설립에 관한 협정** 서명을 성과로 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 비즈니스 지원센터**'(Japan business support center)를 설립하기로 하였다.[15)]

두 번째는 푸틴 대통령이 일본 측의 대러시아 경협 전담부서 설치에 부응하여 러시아도 일본과의 경제협력 발전을 담당할 러시아 측의 파트너로서 대표자의 권한과 임명을 제안하도록 지시한 점이다. 러시아가 양국의 경제협력만을 위해 장관급 자리를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것으로 그 만큼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일본 아베 총리가 제시한 8개 협력 플랜이 극동지역의 개발 우선순위와 80%가 일치하고 있다고 이를 높게 평가(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교류 및 협력 확대, 극동에서의 산업 및 수출기지 개발 등은 동방경제포럼의 주요 협력 의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중소기업분야에서 협력 플랫폼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네 번째는 9월 7일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여 경제산업성 장관 겸 러시아 경제협력담당부 장관인 세코 시로시게와 '5개 그룹[16)]의 18개 분야에 걸친 양국 간 경제관계 강화 계획'과 '극동에서의 러일 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등 일본과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5개 그룹 18개 분야는 아베가 제시한 8개항 협력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고 사업 시행을 단계별로 구분하는 등 보다 구체화시킨 경협 프로그램으로 2016년 12월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할 계획이다.

---

15) 러·일 공동 플랫폼 설립에 관한 협정은 러시아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청과 일본 국영 국제협력은행(JBIC) 간에 체결된 것으로,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 아르투르 니야즈메토프는 9월 26일 동 협정 이행을 위해 '일본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극동지역에 설립하기로 "러시아 경제현대화에 관한 러-일 자문 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극동개발의 우선분야에 일본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러-일 산업간 투자 플랫폼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다.

16) **5개의 그룹**은 프로젝트별 기본 특성을 바탕으로 구분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높은 단계의 검토 프로젝트로 극동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일본기업의 투자와 같이 이미 실행되고 있거나 다음 단계로 실행 과정이 이행 할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들 또는 매우 높은 수준의 검토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에 일본 측의 금융 지원)들을 포함한다. **두 번째 그룹**은 주제별 협력 투자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러-일 도시 환경 발전에 관한 펀드 조성, 해양 바이오 분야에서 러-일 양식 펀드 조성, 공동의 산업공단 조성들을 포함한다. **세 번째 그룹**은 극동 의료 발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 내시경 시술 및 재활센터 설립에 관한 것이다. **네 번째 그룹**은 인프라 개발이다. 러시아-일본-한국-중국 간의 그레이트 에너지링 구축의 첫 번째 단계로서 사할린과 홋카이도 간의 에너지다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다섯 번째 그룹**은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북극항로 개발과 우주선 발사장 인 '보스토치니'를 기반으로 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설립과 같은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다. 관계 변화 모색 과정상의 특징

첫째, 양국 지도자의 관계 개선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아베 일본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시작되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후에 모리 전 총리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러시아 방문 여건을 조성하여 성사시키고, 공식 및 비공식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일관성 있게 강한 대화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정치, 안보분야 대화에도 응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본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둘째,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모두 자국 내 정치적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의 경우 '레바다-첸트르'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84%에 달하는 등 2014년이래 8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의석수가 450석 중 343석으로 2/3 개헌 선을 넘었다. 집권 4년 차인 일본 아베 총리도 국민지지도가 50% 안팎의 탄탄한 지지(11월 7일 마이니치신문 48%, 요미우리신문 58%)를 받고 있고 의회 내 개헌논의도 76%가 긍정적이라고 답하는 등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고 있다.

셋째, 양국 모두 관계 개선 필요성에 인식하고 양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어느 일방의 접근이 아니라 양국이 서로 의기투합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이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는 극동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협의에 나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넷째, 접근 방식과 관련 정경분리론에 입각한 대규모 경협 제안과 실질적 이행 등의 "새로운 접근법"(New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가 강조한 "새로운 접근법"은 평화조약 체결과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되 대규모 경제협력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며 제시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방식이다.

다섯째, 일러 양국이 서로 경협 방안을 조율하고 이를 푸틴 대통령 일본 방문 시 합의하고 확정키로 한 점이다. 러시아가 일본이 제시한 8개 협력 분야와 관련 구체적인 검토를 마치고 18개의 주제별 사업 항목과 우선시행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및 일본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섯째,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러 관계가 新냉전으로 까지 거론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내 러시아전문가들은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 도모는 국익문제임을 들어 미국을 적극 설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곱째,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 시점이 일본이 안보 법제 완료이후 방위정책 강화 및 군사력 건설 등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슷한 시기여서 주목된다. 일본은 현재 중국이 군비 강화 도모와 함께 동·남중국해에서의 영토 확장과 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등 역내 패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중 대립과 일중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정세 유동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제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여덟째, 일본이 북방영토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해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이라는 점을 굳이 숨기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관계 인사들은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 고위관리들에게 영토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영토문제의 존재를 부각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 측의 의중을 가늠해 왔다.

3. 양국의 전략적 입장과 전망

가. 관계개선 배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 변화 모색 움직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특징을 망라해 보면 현시점에서 러일 양국이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배경을 읽을 수가 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익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며, 그 대상의 하나가 일본이라는 경제 강국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도 중요하지만 역내 일원인 러시아라는 국익 및 안보 요소를 간과해서는 일본의 입지를 제대로 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러일 양국 모두 현재 복잡한 국제정세와 자국 내 경제 정치 환경에서 서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화해 보면, **일본**으로서는 첫째, 영토문제 해결과 평화조약 체결, 둘째, 동아시아 역내 안보 입지 강화, 셋째, 러·중간 관계 강화 우려에 따른 중국 견제, 넷째, 러시아 에너지 자원 확보 및 북극 진출 기반 구축, 넷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 및 원만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고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복합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로서는 첫째, 동방정책 추진에 걸맞게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 강화, 둘째, 우크라이

나 사태이후 국제적 고립현상 타개, 셋째, 일본의 대규모 경협 및 투자재원 확보와 이를 통한 극동·북극 지역 개발 촉진, 넷째, 일본을 이용한 중국의 경제협력 견인 등을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파워가 커지고 대립과 갈등도 심화되면서 미중 양국의 존재감은 부각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역내 러시아의 위상과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러시아가 대일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고민이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내재해 있는 것도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선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성과도출 가능성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 협력은 양국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특히 미국 등 서방의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도 아닐뿐더러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공동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는 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 등도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의 자원공급기지로 전락할 가능성과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스트렐쵸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여기에다 러시아는 중국의 G2로의 급부상이 향후 러시아를 중국의 아류로 인식케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측면의 우려가 내심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과 함께 다극화된 국제질서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의 도전을 견제하고 전략적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오히려 향후 자신을 옥조이는 상황으로 반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나. 양측의 전략적 입장과 전망

러일 양국 관계의 미래는 상술한 대로 영토문제 해결의 향배와 양국 지도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달려있다. 현재 양국 정상은 탄탄한 국민적 지지와 함께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상태로서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매우 강하다. 또한 양국의 가장 핵심사안인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진전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과거와는 달리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한 공통분모가 커지면서 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역내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개발 및 수

송, 극동 개발 등 경제협력이 장기 플랜에 따라 시행되도록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 긍정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러일 양국관계는 협력체계 구축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7년에는 획기적으로 관계 발전이 이루어지는 한편 전략적인 측면에서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러일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본과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스트렐쵸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등).

다만 강한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따라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 미러 관계가 개선될 지 여부와 영토문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등이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 등 일본 국익과 연계된 사안임과 동시 중국 견제라는 긍정적 측면을 들어 미국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러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 역내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일본과의 관계 강화가 전략적 측면은 물론 정치,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지정학적, 전략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운신의 폭 확대를 가능케 할 것이며, 이는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강대국 입장에서 동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게 할 것이다. 둘째,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에 대한 일본의 제재 강도를 완화시키고 일본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난 극복과 국제적 고립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것은 바로 과도한 고립을 방지하기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일본의 첨단 과학기술 유입과 경제적 진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극동시베리아와 일본과의 철도 및 도로, 에너지망 연결로 동북아내 물류 시스템 역량을 확충시킬 것이다. 다섯째, 과도한 중국 의존에 대한 부담 완화와 함께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세력 확대를 견제할 지렛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의 러시아 부담을 더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 중국은 러일 관계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아베 정권이 안보 법제를 완료한 후 적극적인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러일 관계 개선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對日 경협 진전과 이를 통한 극동개발 촉진, 일본의 영토문제 해결 및 중러 관계 견제를 들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러일 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것은 일러 관계가 사실상 중국의 대내외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서 이다. 즉 에너지 및 극동개발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러시아의 입지가 다져지는 데다 역내 위상이 제고 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내 역학 구도에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중국 지지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가장 주요한 대외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의 경우이다. 첫째,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은 동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적 세력 팽창을 저지하고 **러시아와의 영토문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또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적극적인 관계 형성으로 주요 외교 파트너인 미국 및 중국과의 상호 관계에서 자국의 입지를 보다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최근 일본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성이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자연스럽게 중러 협력 강화를 제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경협 플랜 시행은 극동 개발과 북극지역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며, 일본의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여섯째, 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로서도 대아태 에너지 수출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외에 일본은 러·중의 반 서방 축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러시아가 강력한 반일 의식을 가진 중국과의 정치적 접근을 강화하는 것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와 일본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역내 모두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아태지역에서 지역안보구도, 중국의 부상, 북한 도발, 경제협력 등 역내 주요 현안과 관련 중요 행위자로서 공통의 이해와 책임을 공유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강대국이라는 위상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대국으로서 다양한 안보·경제 분야 협력 틀을 구축하여 역내 국가 간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통해 테러리즘, 해적 행위, 마약 밀수 등의 신안보 위협에 능동적 대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IMEMO 연구원).

또한 러일 양국은 관계 강화를 통해 군사 핫라인 설치, 상호 전략 및 국방 대화, 공동 군사훈련 검토 등 안보 및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는 중국의 급부상이 아태지역 전략 환경에 중요 이슈로 대두되었고, 동시에 기회와 도전에 직면케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중국의 군사적 능력 강화와 독단적인 행동이 역내 해양 분쟁을 야기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고립주의 경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편승하여 일본과의 안보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강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역내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 확대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한반도 문제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중재자 및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자 등의 역할에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 한반도에의 함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러일 관계는 동아시아 역내 질서 재편 흐름과 양국의 상호 국익 확대 측면, 그리고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를 감안할 때 변화의 높은 파도에 올라탄 형국, 즉 관계 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일 관계는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미러 관계 수준에 따라 그 수준도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쌍무적인 관점에서 영토문제와 경제협력에서 전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토문제의 경우 양국 정상간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협상진전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물론 영토문제가 양국 모두 국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적극적인 타협 노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합의사항 원칙적 이행 의지와 세계 전략 구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설사 완전 타결은 어려워도 협상 진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향후 반드시 타결한다는 수준으로 기대감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협력의 속도와 폭이 과감해질 것이며, 극동 및 북극 지역 개발 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역내 질서 재편의 관점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일본을 통한 러시아의 대미 관계 개선 가능, 러시아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 신냉전 회피 여건 조성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일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끔 협력구도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협력 구도는 강대국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동아시아에서 역내 국가들의 분쟁야기 등 일방의 독단적 행위를 적절히 견제하기도 하고, 대립적일 경우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모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조치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중국의 과도한 군사적 개입 행위를 저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 역내 안보정세 불안,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및 현대화에 대한 침체 분위기 형성 가능성 등 한반도 및 극동에서의 부정적 측면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러일 주도로 한미중과의 북핵 관련 5자 회담 주선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문제에 관한 다양한 대화 재개 방안 모색 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일 관계 개선과 강화는 우리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주도로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자원개발과 물류 현대화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과 진출의 효용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일본과 러시아의 철도, 도로, 에너지망 연결은 결과적으로 남북러 3각 연결 협력을 무산시킬 수 있

다.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과 상대적으로 한국의 극동개발 참여 등이 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우리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일이 북한 핵 문제 처리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를 배제한 채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러일 관계 강화에 따른 긍부정적 파급을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긍정적 측면은 긍정적 측면대로, 부정적 측면은 부정적 측면대로 선순환 되는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러일 관계 강화를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에 활용하고, 역내 역학구도 변화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의 입지 강화 기회로 삼는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극동지역 진출은 우리에게 악재로만 보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진출 분야, 경험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진출 환경이 나아질 때를 대비하여 러시아 측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일러 3국이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어 역내 문제 협의 및 극동개발 진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러 관계 강화로 인해 우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주시하고 러일 관계를 이용하는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 끝.

2016년 한국슬라브 · 유라시아학회 동계학술회의
2016년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 국내학술회의

411호

XI 세션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 HK세션 2)

러시아 인문공간의 제한성과 잠재력(II)

사회: 송준서(한국외대)

≫ 발표 1

마리 디아스포라의 이중신앙

김혜진(한국외대)

≫ 발표 2

러시아 제7기 국가두마 선거와 선거제도 개편의 제도효과

장세호(한국외대)

≫ 발표 3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북극 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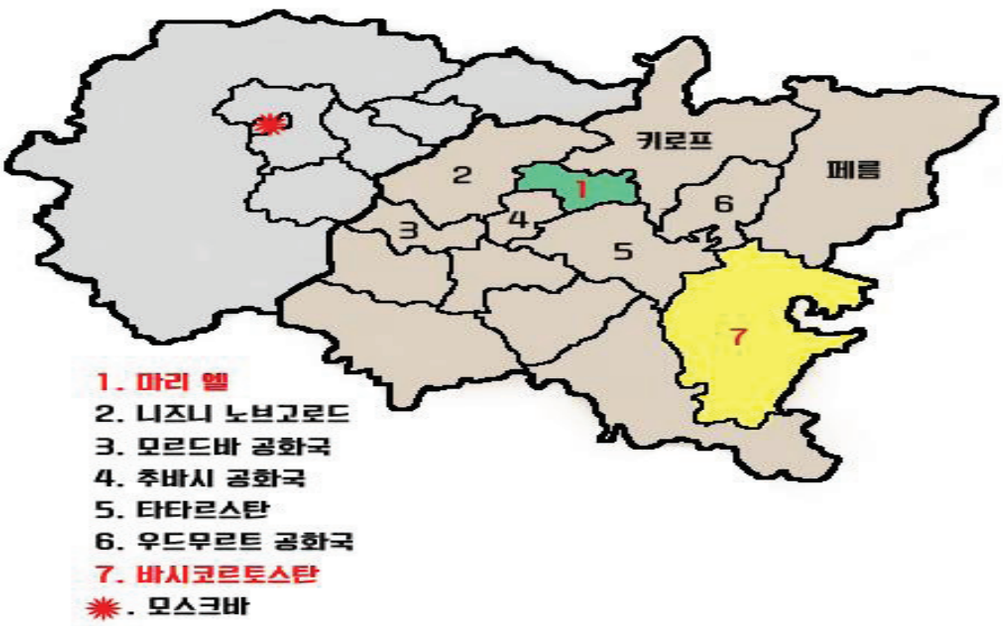
라승도(한국외대)



마리인

- 핀-우그르계
- 체레미스(Черемисы, Церемисы)
- 산지/초지/동(東) 마리 그룹
- 마리-엘 공화국
- ‘유럽 유일의 이교도’
- 전통신앙 보존
  - 신성한 숲에서 나무에 기도
  - 나무를 통해 기도가 하늘에 다다른다는 믿음

마리 엘 공화국



마리인의 신앙 변화

과거 → 18~19 C → 소비에트 시기 → 소련 붕괴 이후

전통 신앙	→	강제 정교화	→	종교 탄압	→	전통신앙 부흥

전통신앙 관련 마리 용어

- Ошмари: «белый народ мари»
  - 마리인 전체를 일컫는 용어
- Чимари: «чистые мари»
  - 타 종교를 수용하지 않고 조상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마리인
- Марла вера: 정교수용 + 고대 마리 신앙
- Рушла вера: 러시아 정교

마리 엘 공화국 전통신앙 복원

- 91년 '신성한 숲' 보존법
- 91년 전통신앙 센터 '오쉬마리-치마리' 공식 등록
- 전통신앙 체계화 시도
  - 카르트(성직자) 양성 프로그램
  - 의례 통일화, 기도문 편찬 등
- 민족운동처럼 발전

‘정스러운 숲’ (Священная роща, кюсот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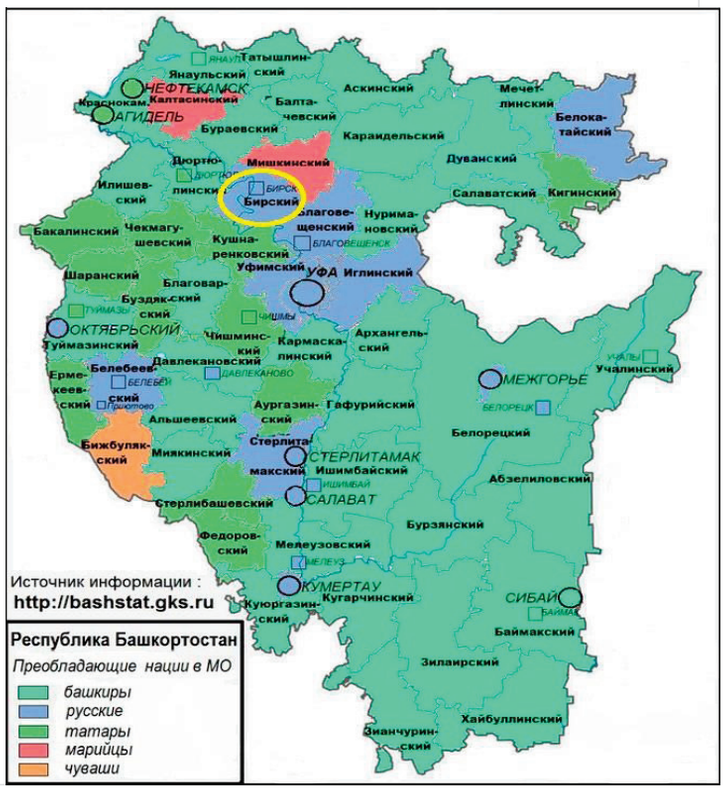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 바시키르인
- 튀르크계 공화국
- 이슬람
- 다민족 사회
- 민족구성 비율(2010년 인구조사기준)

러시아인	바시키르인	타타르인	마리인	우크라이나인
36%	30%	25%	2.6%	1%

바시코르토스탄 내 마리인

- 18~19세기 이주
- 동부 마리인
- 이주 원인
  - 강제 정교화
  - 전통신앙 탄압
- 주요 거주지
  - 공화국 북서
- 약 십만 명 거주





Чи Мари

- Настоящие Мари
- Истинные Мари
- 전통신앙 고수
- 마리어
- 마리인 민족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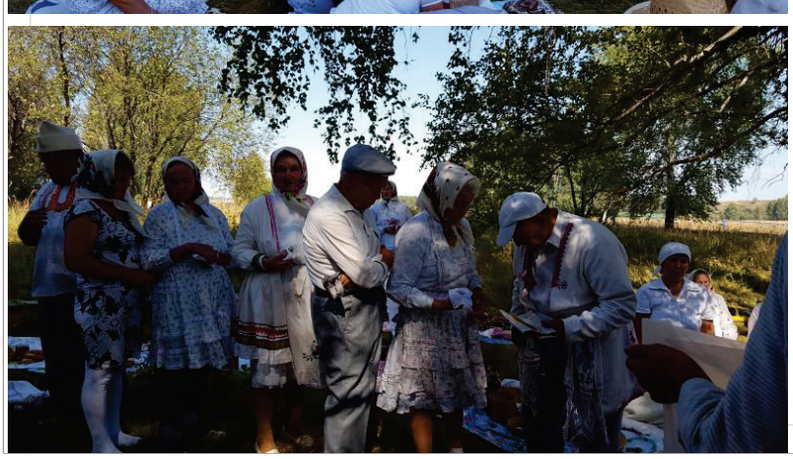
타타르화된 마리인

- 타타르 환경
- 타타르어 구사
- 타타르인과 결혼
- 타타르 문화 동화
- 마리 전통신앙 고수
- 마리인 민족정체성

전통신앙 의례

- 제례 전 담배, 음주가무, 욕설, 고성방가 금지
- 목욕제계, 깨끗한 흰옷(또는 밝은색 옷) 착용
- 제례 장소 내 불결한 행동 금지
- 동물(말, 양, 거위, 닭 등) 제물
- 블린, 크바스 준비
- 카르트 주재
- 의례 후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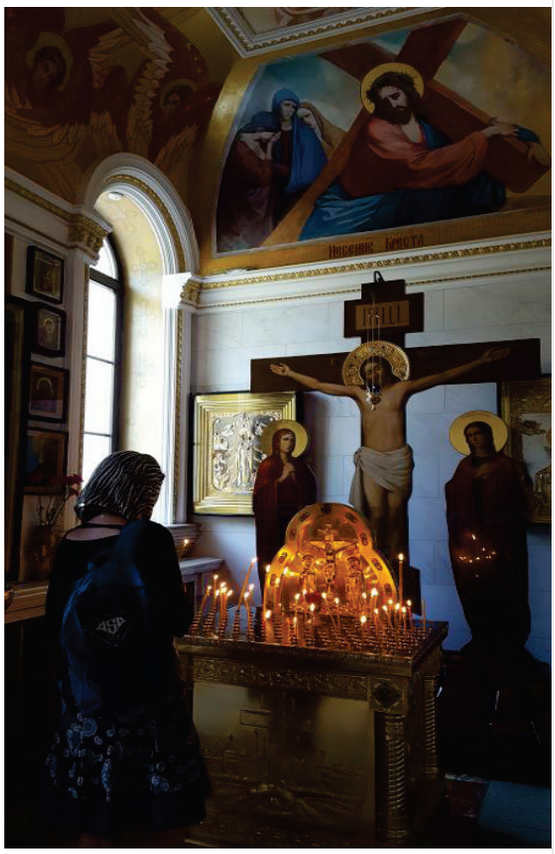


정교도 마리인

- 19세기 말~20세기 초 정교 세례
- 정교 축일
- 정교 성자 경배

  예. Ильин День

  - Илья Юмо(신)에 기도



마리인의 이중신앙

- 마리 엘 공화국 내 종교 분포

정교도	전통신앙(치 마리)	이슬람
67.3%	14%	5%
468,171명	97,504명	34,823명

(2010년 총인구: 696,459명)

: 많은 정교도 마리인이 마리 전통신앙도 따름

- 마리 디아스포라

  : 대부분 이중신앙자(двоеверы, двоеверцы)

마리인의 이중신앙

- 범신론적 자연관에 바탕을 둔 마리 전통신앙 + 러시아 정교
- 전통신앙 최고신 '오쉬 쿠구 유모'와 정교의 최고신, 기타 자연신과 정교 성인을 동일시
- 마리인 세시풍속 또는 전통 축일을 정교 축일로 통합

결론을 대신하여

- 마리 디아스포라 종교 생활
  - 정교와 전통신앙 사이에서 균형
- 정교도로서 러시아적 가치 공유
- 전통신앙은 마리인의 민족유산으로 마리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마리 디아스포라를 단결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


감사합니다.

러시아 제7기 국가두마 선거와 선거제도 개편의 제도효과

장세호(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I. 들어가며

지난 2016년 9월 18일 러시아 전역에서 제7기 국가두마 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해당 선거를 통해 450명의 의원(임기 5년)이 2003년 이후 13년 만에 '혼합선거제' 방식으로 새로 선출됐다. 2016년 러시아 총선은 2011년의 정당성 위기, 2014년의 우크라이나 위기와 크림 병합 이후 치러지는 선거였다. 더불어 이 선거가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연방 차원의 선거이자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2016년 9월 23일 러시아연방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제7기 국가두마 의원 선거는 47.88%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 14개 정당이 참여하여 6개 정당이 차기 국가두마에 진출했고 여당 통합러시아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

먼저, 225석의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5% 진입장벽을 뚫고 차기 국가두마에 진출한 정당은 4개였다. 여당 통합러시아가 54.20%의 높은 득표율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러시아연방공산당(13.34%), 러시아자유민주당(13.14%), 정의러시아(6.22%)가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통합러시아가 140석, 공산당이 35석, 자민당이 34석, 정의러시아가 16석을 획득했다.

다음으로, 225석의 지역구 의석 가운데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총 6개였다. 여당 통합러시아가 203석을 확보한데 이어, 공산당과 정의러시아가 각 7석, 자민당이 5석, 원외정당 로디나(Родина)와 시민강령(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이 각 1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1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결국, 통합러시아가 전체 450석의 하원의석 가운데 76.2%에 해당하는 343석의 헌법적 다수의석을 확보한데 이어, 공산당이 9.3%의 42석, 자민당이 8.7%의 39석, 정의러시아가 5.1%의 23석, 로디나와 시민강령이 각 0.2%의 1석, 그리고 1명의 무소속 의원이 의석을 확보했다.

---

1) "Об установлении общих результатов выборов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дьмого созыва" Приложение к постановлению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3 сентября 2016 г. № 56/541-7.

이번 총선은 분석적 측면에서 다음의 몇 가지 의미와 쟁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11년 총선 이후 초래된 이른바 '대표의 정당성' 문제의 핵심인 투명한 선거, 경쟁적 선거, 정당한 선거의 관철 여부이다. 둘째, 통합러시아(크레믈린), 주요 야당들의 선거 캠페인 전략에 대한 분석이다. 셋째, 통합러시아의 '개방형 예비경선' 실시의 정치적 의미이다. 넷째, 이번 총선에서 전러시아인민전선(ОНФ: 이하 인민전선)이 갖는 의미와 효과이다. 다섯째, 푸틴체제의 '안정성' 문제와 러시아 정치체제의 포괄적 발전 전망이다. 여섯째, 러시아 선거제도 개편의 제도효과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상기 언급된 분석적 의의와 쟁점을 중심으로 2016년 러시아 총선을 포괄적 수준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특히, 2011~2014년 사이에 진행된 국가두마 진입장벽의 7%에서 5%로의 하향 조정(2011년 11월), 정당 창당·등록 조건의 완화(2012년 4월), 국가두마 구성방식의 혼합선거제 복원(2014년 2월)과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어떤 제도효과를 나타냈는지 분석코자 한다.

II. 2016년 총선 시행 개요

2016년 국가두마 의원 선거는 본래 일정을 약 3개월 앞당긴 9월 18일(일) 러시아 전역에서 실시됐다. 사실 제7기 국가두마 의원 선거는 2008년 하원의원의 임기를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함에 따라 본래 2016년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봄 제6기 국가두마에서 총선 일정을 9~10월로 앞당기는 방안이 최초로 논의된 후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졌고, 2015년 7월 대통령의 승인으로 2016년 9월 18일(셋째 주 일요일) 실시가 확정됐다.[2)]

2016년 국가두마 의원 선거는 2003년 이후 13년 만에 '혼합선거제' 방식으로 치러졌다. 혼합선거제의 실시는 2014년 2월 '연방법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 대하여"'의 개정에 대한 하원, 상원의 승인,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해당 선거제도는 총 450개 의석 가운데 각각 절반에 해당하는 225석을 '비례대표' 방식과 '지역구' 방식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1석선거구) 상대다수제' 방식으로 선출한다(장세호 2014, 240-241).

비례대표 의석(225석) 배분은 비례대표 득표율 5% 이상의 정당에 한하여 이뤄진다. 즉, '법적 최소요건'(legal threshold, 이하 원내 진입장벽)은 비례대표 득표율 5%로, 이는 2011년 7%에 비해 2% 완화된 것이다. 비례대표 득표율이 5%를 넘지 못한 정당의 지지율 합에 해당하는 의석은 이를 초과한 정당들이 획득한 지지율에 따라 재분배한다. 비례대표 득표율 5%를 넘은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 할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партийная фракция) 구성의 권한이 주어진다.

2) 향후 러시아 총선은 헌법 또는 관련법 개정이 없는 한 앞으로 매 5년마다 9월 셋째 주 일요일에 치러지게 된다.

<표 1> 제7기 국가두마 참여 조건(정당*과 개인)

① 직전 국가두마에 진출한 정당
② 직전 국가두마 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3% 이상이었던 정당
③ 러시아 연방주체 중 하나 이상의 지역의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
④ 200,000명(1개 연방주체 내 최대 7,000명)의 추천인 서명을 확보한 정당
⑤ '①', '②', '③'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당 소속의 지역구 입후보자
⑥ 참여를 희망하는 선거구 유권자의 3%의 추천인 서명을 확보한 무소속 입후보자

* 러시아에서 모든 선거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정당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공식 등록 정당의 수는 74개이다.[3)]

** ③의 조건은 기존 "최소 18개 지역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 참여가 확정된 정당은 총 14개였다. 이는 2011년의 7개에 비해 2배 증가한 수치이다.[4)] 참여 정당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Родина, ② Коммунисты России, ③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④ Единая Россия, ⑤ Зеленые, ⑥ 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⑦ ЛДПР, ⑧ ПАРНАС, ⑨ Партия Роста, ⑩ Гражданская сила, ⑪ Яблоко, ⑫ КПРФ, ⑬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⑭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참여가 확정된 정당의 투표용지 배열 순서는 전국에 생방송되는 공개추첨 방식에 의해 이뤄졌으며, 그 순서는 상기 언급된 순서와 같다.[5)]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획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러시아연방 선거구는 지역구 의석수인 225개로 나뉜다. 여기서 각 연방주체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선거구를 보장한다. 각 선거구는 1석선거구로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각 선거구별 기준 유권자수는 488,455명이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유권자수 109,902,583명을 225로 나눈 것이다. 2015년 10월 2일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모스크바가 15개, 모스크바 주가 11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크라스노다르 주가 각 8개, 크림(세바스토폴 1개, 크림 공화국 3개) 4개, 나머지 32개 주가 1개, 26개 주가 2개, 6개 주가 각각 3개 지역구를 구획 받았다.[6)]

---

3) 러시아연방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Списо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http://minjust.ru/nko/gosreg/partii/spisok (검색일: 2016.08.15.)

4) 선거 참여를 위해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한 정당은 총 17개였다. 그 가운데 '④'의 방법에 의해 총선에 참여코자 했던 Воля, Великое отечество, Союз труда 이상 3개 정당은 '추천인 서명'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등록이 거부됐다. 각 정당은 각각 200~40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과 입후보를 희망하는 선거구의 '지역구 후보자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12일 총 14개 정당의 총선 참여를 확정했다.

5) "Партиям указали их место" *Газета.ru* (2016.08.12.)

6) 이 안은 2015년 10월 20일 국가두마 승인, 2015년 11월 4일 대통령 승인을 통해 확정됐다. 러시아에서는 개인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동시 출마가 가능하다. 더불어, 총선 참여 조건 '⑥'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속 선거구 유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기준 유권자 49만 명의 3%에 해당하는 약 1만 5천명의 추천인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III. 제7기 국가두마 선거 평가

1) 통합러시아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하원 의원정수의 76.2%에 해당하는 343석의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했다. 이 수치는 현대 러시아 역사상 특정 정당이 획득한 가장 많은 의석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러시아의 압승은 무엇보다 '크림 컨센서스'(Crimean consensus)와 재도입된 '혼합선거제'의 제도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년간 러시아 정치를 주도한 어젠다는 '크림 컨센서스'였다.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 자국이 연루된 국제 문제에서 러시아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주권과 국경, 국가이익 등의 이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Ruznetsov 2016). 이들은 적어도 푸틴의 적극적 대외정책 노선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당연히 크림 컨센서스의 최대 수혜자는 푸틴과 통합러시아였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다수의 러시아 유권자들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로 말미암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당 통합러시아를 선택했다.

또한, 통합러시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였다. 통합러시아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54%의 득표율로 약 62%의 의석을 차지했다. 다시 말해서, 통합러시아는 득표율과 의석배분율 측면에서 약 8% 정도 과대대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5%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군소정당들이 획득한 득표율에 해당하는 의석을 원내 진출이 확정된 정당에게 획득한 득표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러시아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특성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통합러시아는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들의 약 13% 사표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최대 정당으로서 가장 많은 1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획득한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러시아는 재도입된 지역구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나타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합러시아는 전체 지역구 의석(225석)의 약 90%에 해당하는 203석을 확보했다. 사실상 지역구 의석을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이다.

필자가 한 학술논문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완전비례대표제에서 혼합선거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한편, 2011년 이후 분출한 대내외적 민주주의 강화 요구의 대응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변화'와 '정치적 보상구조'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고려한 크레믈린의 목적의식적 정치공학의 산물이었다. 다시 말해서, 최소한 단기적 관점에서 혼합선거제도는 현 집권세력과 통합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라 할 수 있다(장세호 2014, 247-250).

2000년 푸틴 등장 이후 추진된 중앙집권화 정책과 권력의 수직적 계열화로 말미암아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크레믈린의 통제하에 놓여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시행되어온 완전비례대표제의 영향으로 원내 3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은 전국적 범위에서 지역구를 운영해온 경험

이 극히 일천한 상황이다. 반면, 그동안 방대한 행정자원의 후광에 힘입어 튼튼한 지역적 토대를 구축해온 통합러시아와 인민전선은 그 조직적·재정적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다.[7] 실제로 통합러시아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개방형 예비경선에 지역 차원에서 명망을 획득한 인민전선 출신의 정치인, 사회단체 대표자,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여한바 있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지역구 선거가 '소선거구 상대다수제'로 치러졌다는 점이다. 이는 각 선거구별로 1명의 당선자를 1차 투표로 결정하는 선거제도이다. 특히 14개 정당이 경쟁했던 이번 총선에서 각 지역구는 일반적으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최대 정당으로서 통합러시아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결국, 통합러시아의 지나친 지역구 의석 독식이 우려될 정도였고, 이런 점을 반영해 통합러시아 지도부는 원내 3야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지역구에서 자당 후보를 내지 않기도 했다.[8]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역구 선거에서 통합러시아의 압승은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공산당이 일부 전통적 강세 지역 지역구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거나, 일부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여당의 암묵적 지원 아래 지역구 의석을 획득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공산당을 비롯한 원내 3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원내에 진출하여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했지만, 직전 선거에 비해 많은 의석을 상실하는 등 몹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근본적 한계로부터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첫째, 이들 정당은 이른바 '체제 야당'(системная оппозиция)이라는 개념의 회자가 웅변하듯, 이미 푸틴체제 내로 편입되어 러시아의 집권세력과 일정 정도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확립된 '크림 컨센서스'는 이들 정당이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여당과 현 집권세력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공세의 수위를 제한했다. 둘째, 원내 3야당은 리더십 교체와 인적자원의 확대재생산, 정책적 호소력 강화의 측면에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왔다. 예컨대, 주가노프(Геннадий Зюганов), 지리놉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 미로노프(Сергей Миронов) 이상 3야당의 지도자는 십수 년째 여전히 자신의 지위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셋째, 이들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와 지역구 선거 모두에서 여당 통합러시아와 비교하여 매우 취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구 선거에서의 야권 단일화도 요원한 상태였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을 모은 것 중의 하나는 공산당과 자민당의 제2당 지위 확보 경쟁이었다. 실제로 선거 기간 중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초·중반 정당지지율은 자민당의 제2

7) 물론 통합러시아 현직 의원들 가운데에도 '지역구 운영' 경험을 가진 이들의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8) 2016년 2월 통합러시아 사무총장 네베로프(Сергей Неверов)는 자당 후보를 입후보 시키지 않음으로써 일부 지역구를 다른 정당에게 양보하는 신사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는 발표한바 있다. 러시아 내 보도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는 18개 선거구에서 자당 후보를 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 등극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Ruznetsov 2016). 그러나 밤새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던 끝에 공산당이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확보율에서 근소하게 자민당을 앞섬으로써 제2당 지위를 수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원외 야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관심을 끌었다. 선거 전 발표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원외 정당들은 1% 내외의 매우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냈다.[9] 따라서 이들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게 예상됐으며, 총선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10]

비례대표 선거에서 좌익 성향의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Коммунисты России)과 '정의를 위한 러시아 연금자당'(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비교적 높은 2.27%, 1.7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당 가운데에는 '야블로코'만이 1,99%의 득표율을 획득했을 뿐 나머지 정당들의 득표율을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지역구 선거에서 자유주의의 성향의 일부 정당이 이른바 현 체제에 "분노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효과적으로 결집시키면서 일부 전략지역 선거구에서 어느 정도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선거 결과, 10개 원외 야당 가운데 '로디나'(Родина) 소속 주라블료프(Алексей Журавлев)가 안닌-보로네시 주 선거구에서 당선됐으며, '시민강령'(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 소속 리팟 야이후트디노프(Рифат Шайхутдинов)가 네프테캄스크-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선거구에서 당선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성향의 도시 유권자를 고려한 '게리맨더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Макаренко, Колесников 2016).

2) 제7기 국가두마 선거의 투명성과 정당성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의 시행 여부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1년 총선 직후 '총선 무효화'와 '반 푸틴' 구호를 내건 대규모 부정

9) 당시 레바다 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지율 1% 이상을 기록한 정당이 단 하나도 없었으며, 여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1%를 기록한 정당은 야블로코와 시민강령 둘뿐이었다.

10) 이번 총선에 참여한 10개 원외정당이 획득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Родина(1.51%), Коммунисты России(2.27%),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1.73%), Зеленые(0.76), Гражданская платформа(0.22%), ПАРНАС(0.73%), Партия Роста(1.29%), Гражданская сила(0.14%), Яблоко(1.99%),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0.59%). 러시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Результаты выборов по федеральному избирательному округу" 참조. http://www.vybory.izbirkom.ru/region/region/izbirkom?action=show&root=1&tvd=100100067795854&vrn=100100067795849&region=0&global=1&sub_region=0&prver=0&pronetvd=0&vibid=100100067795854&type=242 (검색일: 2016.10.10.)

11) 실제로 이들 원외 야당 가운데 상당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총선에 참여하고, 오히려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즉 일부 연방주체 지역의회 진출에 힘을 집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지역에 현실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규탄시위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분출했고, 이는 '체제 위기'의 명백한 징후로 받아들여졌다. 대규모 저항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너희는 결코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You do not even represent us!)라는 슬로건은 러시아의 대의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Pozhalov 2016).

이런 점에서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크렘린의 최대 과제는 투명하고, 대중적이며, 경쟁적인 선거를 만드는 것이었다. 아니 최소한 러시아 대중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해야 했다.[12)]

예컨대, 통합러시아는 5월 22일 러시아 선거 역사상 최초로 자당 소속의 400명 비례대표와 225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유권자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대규모 '개방형 예비경선'(всенародный праймериз: 이하 예비경선)을 실시했다. 물론 여기서 유권자의 참여 폭을 대폭 넓힘으로써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가 강조됐다.

또한, 이번 총선을 앞두고 푸틴이 그동안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추로프(Владимир Чуров)를 해임하고 대중적 신망이 두터운 저명 인권운동가 팜필로바(Элла Памфилова)를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팜필로바는 취임 직후 중앙선관위의 대대적 개혁을 약속하는 한편, 실제로 문제가 된 일부 기초단체의 선거를 무효화하고 그 책임을 물어 모스크바 시 선관위원장을 해임한바 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투표소에 다수의 CCTV 설치, ② 대규모 참관인 조직, ③ 핫라인 설치, ④ 선거법 위반 사전 징후 점검, ⑤ 선거법 위반 시 즉시·강력 대처의 5대 방안을 발표했음. 이와 함께, 전국 투표소에 5,500여 개의 전자투개표시스템(КОИБ: комплексы обработки избирательных бюллетиней)을 설치했다(Белуза 2016).

필자의 눈에 이번 총선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역할은 기존 선거과정에 비해 훨씬 두드러져 보였다. 특히, 선거 당일 팜필로바가 전국 투개표 상황을 실시간 지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선관위 직원의 직접적 부정투표행위 등 다양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존재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시간으로 제보되고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중앙선관위와 검찰이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해당 총선의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제7기 국가두마 선거의 투표율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흥미롭게 지켜볼 부분 중 하나는 투표율이다. 투표율은 이번 총선 결과

12) 2016년 총선 문제를 사실상 책임졌던 대통령행정실 부실장 볼로딘(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은 "구체적 득표 결과보다 선거결과 자체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 "우세의 정도가 미미하더라도 선거에 대한 신뢰가 압도적인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낫다."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는 이번 총선을 대하는 크레믈린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볼로딘은 총선에서 통합러시아의 압도적 승리 이후 대통령행정실에서 국가두마로 자리를 옮겨 하원 의장에 취임했다.

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지만 여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의 성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투표율 문제는 투표에 대한 '가치'와 '동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컨대, 레바다 센터가 최근 수행한 '투표 동기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 유권자들에게 투표 행위의 정치적 의미가 일정 정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투표가 의무라는 입장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표현 공간이라는 입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습관처럼 투표한다는 입장은 늘어났다. 이러한 인식이 여론재단이 총선 1달 전 시행한 조사에서 31%의 유권자가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래 표와 같이, 역대 총선 투표율은 50% 중반에서 60% 초반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7기 국가두마 선거의 투표율은 47.88%로 약 12.5% 하락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역대 국가두마 선거 투표율 현황

국가두마 기수	년도	투표율	선거제도
1	1993	54.81%	혼합선거제
2	1995	64.4%	혼합선거제
3	1999	61.85%	혼합선거제
4	2003	55.75%	혼합선거제
5	2007	59%	비례대표제
6	2011	60.4%	비례대표제
7	2016	47.88%	혼합선거제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투표율은 두 가지 양면성을 동시에 지닌다. 예컨대, 높은 투표율은 선거의 정당성을 제고하고, 유권자의 현 체제와 정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반대로 높은 투표율은 때때로 유권자들이 기존 질서와 체제에 대한 적극적 도전의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위험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의 집권세력은 2016년 총선에서 낮은 투표율 전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선거일이 12월에서 9월로 변경된 것도 '투표율 관리'라는 요소가 고려된 조치라 판단된다(Макаренко, Колесников 2016). 여름(7~8월)에 장기 휴가를 보내는 러시아적 특성상 이러한 선거일 변경은 투표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크림 컨센서스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선거 판세를 좌우할 논쟁적 이슈가 적었고 대체로 통합러시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던 선거 분위기도 투표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하에서 소위 관리가 용이한 국가 공무원,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투표 비율이 증가했고, 이는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4) 통합러시아의 공개 예비경선

통합러시아가 5월 22일 러시아 전역에서 실시한 예비경선은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점 중 하나이다. 통합러시아는 2007년부터 당 내부적으로 '폐쇄형 예비경선'(closed primary) 제도를 시범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자와 지역구 후보자를 당원은 물론 일반 시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개방형 예비경선'(open primary)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해당 경선은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에게도(타당 소속 제외) 경선 입후보를 허용했다. 또한, 통합러시아 당원이나 후원인이 아닌 일반 시민도 자신의 당적과 상관없이 예비경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총 2,777명의 참여자가 400개의 비례대표, 225개의 지역구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예비경선에 참여한 유권자 수는 1천 50만 명으로 이는 전체 유권자의 약 9.5%에 달했다.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40% 이상의 새로운 인물들이 통합러시아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고 한다. 또한, 238명의 통합러시아 소속 현직 의원 가운데 100여 명이 예비경선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패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대규모 공개 예비경선은 크레믈린의 입장에서 ① 새롭고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발굴, ② 후보 추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화 제고, ③ 당 차원의 선거 역량 동원, ④ 지역 단위의 총선 준비 상태 점검이라는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Simonov 2016; Макаренко, Колесников 2016; Reuter 2016, 3). 이번 예비경선에는 인민전선 출신 활동가를 비롯해 많은 수의 비당원이 출마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통합러시아는 한편, 자당 소속 기존 의원들의 상당 비율을 예비경선을 통해 새로운 인물과 세대로 교체하려 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 기존 의원과 당원에 대한 일종의 '각성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번 총선의 핵심 과제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의 수행인바, 예비경선 과정에서 지역 차원의 총선 준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에 관성적·음성적으로 행해져오던 행정자원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코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13]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크레믈린과 당 지도부가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 선택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결정하는 하향식 필터링 메커니즘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Sakwa 2016). 추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크레믈린과 통합러시아는 대체로 설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민전선의 총선 참여

2011년 푸틴의 대권 복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민전선은 이번 총선에서도 비중 있

13) 대통령행정실은 예비경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공정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는 역할을 수행했다.

인민전선의 발족 목적은 푸틴이 2012년 대선을 여당 통합러시아와의 밀접한 연계 없이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함이었다. 2011~2012 선거주기가 종료되고 인민전선의 지위와 역할 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었다. 대체로 대안은 첫째, 친 푸틴 PR 조직으로 남는 것, 둘째, 독자 정당화, 셋째, 상기 두 안의 절충안으로 전국 규모의 시민사회단체로 등록하고 추후 정국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결국, 3안이 채택되었고 통합러시아는 2013년 6월 사회단체로 공식 등록했다. 이후로도 인민전선은 85개 연방주체 전 지역에 지부를 두고 방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친 푸틴 세력의 우산조직으로 기능해왔다(장세호 2013, 11-12).

이번 총선에서 인민전선은 통합러시아가 시행한 예비경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인민전선은 혼합선거제 시행에 따라 기층 지역에서 대중적 활동 경험을 갖고 사회적 권위를 획득한 인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인재 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했다. 예컨대, 인민전선 중앙본부 공동대표 고보루힌(Станислав Говорухин) 등의 핵심 지도부는 물론 다수 활동가들이 예비경선에 참여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14] 그리고 이들 가운데 약 90명이 제7기 국가두마에 진출했고, 7명이 산하 위원회 위원장으로, 16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15] 이러한 수치는 제6기 국가두마(약 80여 명) 때와 비교하여 다소 늘어난 수치이다.

14) '리아노보스티' 보도에 따르면, 인민전선 간부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 통합러시아 후보로 출마하는 대표적 인물들은 다음과 같음. 비례대표: 중앙본부 공동대표 고보루힌(Станислав Говорухин(모스크바)), 중앙본부 공동대표 티모페예바(Ольга Тимофеева (스타브로폴 변강)), 교육·문화 실무그룹 대표 두하니나(Любовь Духанина(모스크바)), 집행위원원장 게타(Антон Гетта(로스토프 주)), 중앙본부 위원 바실리예프(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프스코프 주)), 대통령령실행모니터링센터 소장 니콜라예프(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이르쿠츠크 주)), 중앙본부 위원 겸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코스텐코(Наталья Костенко(크라스노다르 변강)), 모스크바 지역본부 공동대표 사니나(Наталья Санина(모스크바 주)), 무르만스크 주 지역본부 공동대표 쿠사이코(Татьяна Кусайко(무르만스크 주)), 알타이 변강 지역본부 공동대표 에르몰렌코(Марина Ермоленко(알타이 변강)). 지역구: 중앙본부 위원 에피모프(Виталий Ефимов(모르도비야 공화국)), 보건모니터링센터 소장 고보린(Николай Говорин(자바이칼 변강)), 랴잔 주 지역본부 공동대표 크라소프(Андрей Красов(랴잔 주)), 랴잔 주 지역본부 위원 미티나(Елена Митина(랴잔 주)), 모스크바 지역본부 공동대표 리사코프(Вячеслав Лысаков(모스크바)), 소아외과의사 겸 인민전선 전문가 모로조프(Дмитрий Морозов(모스크바)), 스타브로폴 변강 지역본부 조사위원회 위원 카자코바(Ольга Казакова(스타브로폴 변강)), 페름 변강 지역본부 공동대표 사조노프(Дмитрий Сазонов(페름 변강)), 케메로프 주 지역본부 공동대표 알렉세예바(Татьяна Алексеева(케메로프 주)). "Кандидату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НФ выдвинуты от «Единой России» на выборы в Госдуму" *РИА Новости* (2016.07.27.).

15) Алена Сивкова, "Почти 90 выдвиженцев от ОНФ прошло в Госдуму 7-го созыва," *LIFE.RU* (2016.09.22.); Федор Лопырев, "Активисты ОНФ возглавили 7 комитетов Госдумы," *ДНИ.РУ* (2016.10.06.); "В Народном фронте подвели итоги участия активистов ОНФ в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ампании депутатов Госдумы" http://onf.ru/2016/09/22/v-narodnom-fronte-podveli-itogi-uchastiya-aktivistov-onf-v-izbiratelnoy-kampanii/

IV. 결론

이번 총선을 통해 구성된 제7기 국가두마의 의석 구성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통합러시아는 이번 총선을 통해 제1당이자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다시금 재확인했고, 기존 주요 4당이 제7기 국가두마 내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제7기 국가두마가 총선 과정과 구성 내용의 측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당장 그 본질적 성격에서 큰 변화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동안 의회가 푸틴체제 내에서 크레믈린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입법 프린터'에 불과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자유로워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제7기 국가두마는 제6기 국가두마의 '계승'과 '연속'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체제는 이번 국가두마 선거를 통해 최소한 단기적 관점에서 그동안 취약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체제의 정당성을 회복하고 안정성을 증명했다. 이는 무엇보다 직전 총선에 비해 이번 선거가 큰 선거부정이나 스캔들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가 진정 '경쟁적' 선거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절차적 투명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되는 분위기다. 결국, 선거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획득과 의회 구성에서의 헌법적 다수 의석 확보는 푸틴 3기 잔여 임기 수행과 푸틴 4기 출범에 적지 않은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적용된 이른바 새로운 '게임의 룰'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 정치과정의 역동성 제고와 정치제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맹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일련의 제도 개혁은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내외적 압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크레믈린이 면밀하게 준비한 목적의식적 정치공학의 산물이다. 실제로 정치행위자의 대폭 증가, 총선 참여 조건 완화, 원내 진입장벽의 완화, 혼합선거제 실시 등의 제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하원 구성에 있어서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즉, 새로운 게임의 룰이 가져올 제도효과는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몹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런 점에서 러시아에서 나타난 일련의 제도적 개혁을 단순한 '조작'으로 폄하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2011년 말의 이른바 '분노한 시민'의 물결이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견인했듯, 새롭게 형성된 게임의 룰이 따분한 러시아 정치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지 모를 일이다.

예컨대,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금 러시아 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역구'와 '지역구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정당민주화 등에 분명 긍정적 씨앗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의 재도입은 추후 당원과 의원들에 대한 당 지도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정당명부에 의해 당선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후보명부 작성 권한을 보유한 당 지도부에 구조

적으로 종속되는 반면, 소속 선거구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들은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파렐 2012; Макаренко, Колесников 2016).

사실 지역구 의원의 광범한 자율성 향유 문제는 러시아에서 낯선 것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른바 지역구 의원들의 통제 문제는 러시아 집권세력에게 매우 심각한 과제였다.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 제도를 재도입은 한편, 통합러시아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구조적으로 대정당에 유리한 다수대표제(특히, 1위대표제)가 통합러시아의 과반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러시아의 집권세력이 이른바 지역 엘리트와 지역구 의원에 대한 충분한 통제 메커니즘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uter 2016, 3). 하지만 만약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통합러시아의 지지도가 하락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의 원심력은 점차 강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을 통해 러시아 집권세력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첫째, 큰 틀에서 선거의 투명성은 확보했지만 이것이 선거 자체의 가치를 제고시키지는 못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저런 선거부정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여당 지지율과 지역 엘리트 및 지역 선관위의 충성심·능력을 결부시켜온 관성이 여전히 선거과정에서 관성처럼 되풀이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러시아 시민들은 여전히 선거를 통해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다는 점이다. 민주체제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러시아 정치체제의 약한 고리로 남게 될 것이다.

둘째, 비록 두드러지지는 않겠지만 크레믈린의 선거과정 개입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된다면 잠재해 있던 '변화'에 대한 수요를 분출시키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번 총선을 사실상 관장해온 대통령행정실 국내정책국이 주요 3개 야당의 지역구 분배 문제(이른바 지역구 신사협정)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군소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문제(РПП С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논란), 볼로딘의 총선 참여 정당 수 언급에 이르기까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징후가 적지 않다.

셋째, 크레믈린과 주요 3야당 간의 비정상적 밀월관계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주요 야당 간의 사안에 따른 협력과 공조는 일반적 현상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3야당은 2007년 이후 수권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채 체제 내부로 편입되어 할당된 지분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됐다. 러시아 정치세력 간 이견은 오직 사회·경제 영역의 일부 문제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한 정치학자는 수르코프 시기의 '주권민주주의'(Суверенная демократия)가 현재 '네오코포라티즘'(Неокорпоративизм) 또는 '계약민주주의'(Договорная демократия)에 자리를 내주었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Становая 2016).

넷째, 현 집권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 했다. 비록 선거의 투명성 확보나 선거제도의 변경을 통해 안정적 하원구성을 달성했지만 경제위기의 극복과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 전망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이는 가깝게는 2018년 대선을 전후로, 보다 멀게는 푸틴 4기 동안 푸틴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것이다. 영원토록 “훌륭한 차르, 무능력한 귀족들”이라는 테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 영화에 나타난 북극 신화

라승도(한국외대)

The current research will focus on the imagery of the Arctic in Soviet and post-Soviet Russian cinema. There have been a number of films about the Far North of Russia. Some of them are well known, others are known less. One part of these films is documentary, the other one is fiction. The present study will take a quick look at some of well-known fiction films about the Arctic region of Russia, which show various views on this territory from the Soviet times up to the present.

In the Soviet times, the Arctic was used as a backdrop for a adventure, propaganda, and romance in a variety of films. For example, the most famous Soviet film showing the Arctic adventure is *The Seven Brave Ones* (*Semero smelykh*, 1936),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lms made by Sergei Gerasimov. The film tells the tale of seven explorers sent on a Soviet geological expedition to the Arctic lands full of perilous forces of nature. It concentrates its focus on the lively image and limitless potential of the fearless and selfless members of the expedition and their devotion to duty for the greater good of the collective. They extend Soviet advanced civilization to its most remote and unfavorable places, using scientific principles. For example, young explorers struggle with the stormy, inclement weather and save the life a Chukchi wounded by a bear, assist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s. In other words, the film demonstrates how young explorers and scientists civilize the Arctic landscape by imposing socialist modernity in the northern periphery of the Soviet Union.

The Seven Brave Ones develops the conception of the North as a mythic landscape in which the explorers and scientists as positive heroes overcome all kinds of difficulties and fulfill lots of different tasks with super-human powers and abilities. Just like in the Arctic culture of the Stalinist 1930s, so in the film the polar settlement is displayed as an ideal living environments where the explorers can take part in a diversity of activities. Here Gerasimov presents the Arctic as unique and proper place where the socialist heroes are provided with a huge opportunity, unleashing of new potential for self-realization.

Like Gerasimov's *The Seven Brave Ones*, Aleksei Simonov's *Ordinary Arctic* (*Obyknovennaia Arktika*, 1974) focuses on the theme of heroic lives and efforts on the Arctic frontier. The film depicts the Arctic as a

land of great construction project in which the explorers realize their creative ideas for the bright future of Soviet socialism. Thus, the heroic struggle to build gleaming cities of the new socialist world is associated with the desire to transform the Arctic into an ideal space of Soviet civilization.

Aleksei Popogrebskii's film *How I Ended This Summer* (*Kak ia provel etim letom*, 2010) tells the story of an uneasy and unstable cohabitation of the two characters at an isolated meteorological station on a remote Arctic island in Chukotka province. One of them is a younger man, Pavel Danilov, who is spending the summer as an intern at the station, the other is an older man, Sergei Gulybin, who performs his everyday duty to collect and report the weather data to the state meteorology center. As the conflict between Sergei and Pavel erupts, Popogrebskii subverts the so-called Arctic myth in which the explorers and scientists were often portrayed as positive heroes and depicted as members of an extended family. Eventually, they fail to create a positive human relationship in the mythic landscape of the Arctic.

Aleksandr Mel'nik's *The Territory* (*Territoriia*, 2015) tells the adventure tale of the explorers sent on a geological survey and gold prospect team to the Soviet Union's far northeast, a vast region called the Territory. The film creates a mythic landscape of heroism where every man and woman can become a hero. Indeed, the explorers show heroic effort in overcoming all kinds of hardships. They endure extreme conditions with a tenacious spirit and unusual passion in the northeastern wilderness. One of such characters is young Sergei Baklakov who sets out on a long heroic journey. He goes through beautiful but barren lands, ice, and rapids. He undergoes a profound transformation in the mythic landscape of heroism which is a vital part of the Arctic culture from the Stalinist 1930s up to the present. Triumphs in the North are translated into victories of almost cosmic significance. Interestingly enough, the survey team learns and celebrates Gagarin's flight into space.

205호

XII 세션 (러시아 외국인 교수 세션 2)

사회: Баллод Ж.О.(서경대)

≫ 발표 1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ащим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Баллод Ж.О.(서경대)

≫ 발표 2

Из опыта редакторской работы

Депонян К.А.(수원대) & Кулькова Р.А.(상명대)

≫ 발표 3

ОБЩИЙ СЛОВАРНЫЙ ФОНД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СТАНСТВАХ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Виноградова Н.В.(부산대)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ащим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Janna Ballod, Ph.D(Seokyeong University, South Korea)

1. Введение

Стремительн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Южной Кореи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20-го века повлекло за собой крупные социальные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ключ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ю этнически однородного общества в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Еще в 2005 году браки между корейцами и иностранцами составляли 14% от всех браков (260, 000 браков). Спустя десять лет, в 2016 году, дети из семей с иностранным родителем и владеющие вторым родным языком, помимо корейского, составили 2,2% всех учащихся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в Корее. Обще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Корее увеличилось в три раз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ь лет и приблизилась в 2016 году к 1,9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1)]..

По мере того как число двуязычных детей из смешанных ил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в Корее растет[2)], мы можем говорить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й языковой ситуации в стране. Безусловно,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дает преимущество в продвижении по социальной лестнице, поэт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по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еподавание второго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е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и детям мигрантов. Однако программы и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языков детям с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Корее требуют изучения и доработки.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я попытаюсь осветить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многоязычия как нового явлен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и связанные с ним вопросы преподавания языка как второго

1)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05/116_203843.html

2) Под иностранными семьями мы,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дразумеваем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семьи трудовых мигрантов, в число которых входят и этнические корейцы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Часто в таких семьях оба родителя владею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недостаточной мере, а основным языком внутрисемейного общения является русский.

родного на пример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е.

2.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фактор: учащие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Russian heritage learners) в Корее – кто они?

Во-первых, важно выяснить, кого мы подразумеваем под термином «учащий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Russian language heritage learners) в Южной Корее. [3)]

Так, Джейсон Ротман различает два подхода к определению языкового наследия: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и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Согласно первому,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у подходу, упор делается на владение языком , которое преобретается в естесственных условиях (например, при общении с членами семьи). Согласно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носителя языкового наследия важно «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которое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и язык, даже если носитель его никогда не слышал». (Rothman 2009)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ость трактовок понятия о человеке с определенны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оба определения подразумевают, что 1) язык приобретается 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в семье; 2) уровень языков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зависит от лич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носителя языка (согласно социо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у подходу, он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нулевы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тепень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семье может различ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языковой компетенции родителей и других личн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число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проживающих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ущественно увеличилось с 10,547 человек в 2011 году до 16 248 человек в 2015 году (на 5 701 человек в 4-х лет!).[4)]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носи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ого наследия в Корее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они представляют не только семьи с «русско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но и семьи, которые ассоциируют себя с Русским миром - сообществом лице граждан бывших

---

3) В данном докладе устоявшийся в англ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термин «heritage language learners /heritage language speakers» мы переводим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учащий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и «нос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ого наследия». Подобная терминология была использована в работе российских лингвистов, например Благонравовой и Ипполитовой (Благонравова, Ипполитова 2011)

4) Source: Korean Immigration Service http://immigration.go.kr/doc_html/attach/imm/f2015//20150526226261_1_1.hwp. files/Sections1.html Accessed on June, 17, 2015.

совет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данным за 2015 год, русскоговорящая диаспора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считывала 78 675 человек,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из пяти стран СНГ: России, Украины, Казахстана, Киргизии и Узбекистана, включая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5)]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имеют мультиэтническое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апример, отец - кореец, а мать – этническая кореянка из Узбекистана, у которой русский является родным). Уровень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омпетенции у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арьируется от нулевого до высокой степени билингвизма, а уровень воздействия культуры страны родителя -иностранца довольно низок (как правило,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нечасто посещают родину матери – страны СНГ).

3. Обзор ключевых методологий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данном докладе мы выделяем четыре основные методолог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е на разный контингент учащихся : 1)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первого) родного; 2)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неродного (второго родного)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3)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взрослым (РКИ); 4)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детям-билингвам (детям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Далее хотелось бы кратко обрисовать историю развития основных методов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рассмотреть их применение в корейском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 отношении учащих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Истор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как родного восходит к 1757 году, когда основатель перв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Академии наук Михайло Ломоносов сформулировал и описал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правил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Русской грамматике». В введении к учебнику, ставшему на сто лет основным пособием по родному языку в российских школах, М.Ломоносов воспел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отором есть « великолепие ишпанского, живость французского, крепость немецкого, нежность итальянского, сверьх того богатство и сильную в изображениях краткость греческого и латинского языков» (Ломоносов 1755).

Посл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доступ к бесплатному общему образованию стал важ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политики большевик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был

5) Число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граждан из таких стран СНГ, как Белоруссия, Литва, Эстония, Туркменистан весьма незначительно.

эквивалентен символу совет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и политика ликвидации неграмотности (Ликбез)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е только на русское этническое население, но и на национальные меньшинства, проживающи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ет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гласно декрету о ликвидации неграмотности, принятому 26 декабря 1919 года, в стране были открыты сотни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 где можно было получить бесплатно образование как на русском, так и на родном язы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второго родного языка для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 (RSL)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еще в 1938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этой методологией, русский язык преподавался в школах, где большинство учащихся слабо владели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роживали в иноязычном окружении и мало соприкосались с российской / совет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пример, в Якутии и регионов Арктики и Сибири). Методолог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лась вплоть до 1990х годов, когда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Дрофа» были выпущены учебники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начальных школ с регионально-националь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Например, в этой серии вышли учебники для школ тюркской, финно-угорской, и других языковых групп.

Современная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РКИ) начала формироваться в 1960-е годы во время Хрущевской оттепели на основе последних достижений в области лингвистики . В середине 1960-х годов Е. Пассов (Passov1985) представил коммуникативную методику преподавания для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которая стала основой для развития отдельной дисциплин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на филолгических факультетах советских ВУЗов.

Хотя многие элементы РКИ были заимствованы из наработок советской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 две методики в корне отличаются а) по целям и б) целевой аудитории – учащимся.

В то время как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РКИ)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взрослых и нацелена,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етодология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как неродного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готовку детей младшей и средней школы к усвоениею школьной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конец, в начале нулевых годов, в ответ на растущий спрос российской диаспоры за рубежом, стала активно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методика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двуязычных де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Она сочетает в себе предыдущие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е достижения в област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второго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национальной школе,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РКИ), а также постулаты теории о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в детстве (chil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 Иллюстрацией такого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го подхода стали учебники И.Кляйн-Никитенко и М. Юблайс «Я хочу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И.Кляйн-Никитенко, М. Юблайс 2014), адресованные двуязычным детям 6-8 лет в немецкоговорящих странах.

Основные методик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едставлены в таблице 1.

Таблица 1. Методологи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Methodology for teaching Russian language	**Targeted learners**	**Goal**
A	**Russian as a native language /a first language**	Non-adult speakers language	Russian language program of Russian secondary education
B	**Russian as a second native language (RSL)**	Non-adult speakers of other than-Russian languages in Russia/CIS countries/USSR	Acquiring native-level proficiency in Russian to comprehend a program of a secondary education in Russian language.
C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RFL)**	Adult non-speakers of the Russian	Acquiring proficiency in Russi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with a focus on communication skills (A1-C1)
D	**Russian for bilingual children abroad (heritage speakers).**	Non-adult speakers of Russian language residing abroad	Acquiring native-level proficiency in language and improving cultural competence
E	**Certified Testing in Russian language for Bilingual Children**	Non-adult speakers of Russian language residing abroad	Organization of the learning process

4. Ситуация с преподавани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учащим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Южной Корее.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до сих пор в Южной Корее учащимся с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эту категорию мы включаем и детей из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семей) не представлены достаточ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вышения языковой компетенции во втором родном языке.

Так, в стран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поддержива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двуязыч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с программами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русский язык не преподается ни в начальной, ни в средней школе. В формальн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е в Корее русский язык в качестве иностранного можно изучать только в нескольких элитных гимназиях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Тем не менее, 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принимает некоторые шаги по раз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 2013 года корейские центры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Korean multicultural centers) осуществляют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форме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занятий с репетитором или на факультативах 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ах. Однако эффективность этих программ находится под вопросом, поскольку существует недостато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ителей и методических пособий.

Образование в неформальных (част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является еще одним способом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для учащих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в Корее. В 2016 году 11 частных российск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функционируют в Корее, но, к сожалению, эти школы до сих пор не получили юридического признания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и, следовательно, не получают финансовой или метод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и от государства.

Таблица 3. Преподавани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истеме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К

	Educational setting			
Age group	**Korean educational system track**		**Russian educational system in Korea track**	
	Institution	**Russian language Program**	**Institution**	**Russian language Program**
Preschool age	Multicultural center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Kindergarten (monolingual)	Russian as a native language
Primary school age	Multicultural center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Russian School (monolingual)	Russian as a native language
Middle school age	Multicultural center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Russian School (monolingual)	Russian as a native language
High school age	Multicultural center and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Russian School (monolingual)	Russian as a native language

В докладе мы остановимся на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х подходах к преподаванию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рамках корейской системы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ак показано в таблице 3, и в корейских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ах, и в корейских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центрах используется методику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РКИ).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этот методологический подход не является эффективным для обучения учащихся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Например, На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разработал комплект учебников "Изучаем русский язык с мамой и папой" (엄마 아빠 와 함께 배우는 러시아어)[6], которые адресованы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и которые,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авторов учебника, имеют « нулевую» языковую компетенцию. Учебник начинается с объяснения принципов фонетики, ударений, имеет ограниченный словарный запас. В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 до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словарь ребенка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например, с русской мамой) составляет,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500-800 слов.

Учебники из этой же серии для учащихся продвинутого уровня основаны на методике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не являющимся носителям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EFL). Этот метод не подходит для детей – носителей русского языкового наследия, поскольку у таких учащихся **категоризация существительных и понимания пола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го будет отличаться от подхода учащихся, не являющегося носителем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линский 2008).**

Студент РКИ : Стол – сущ. с нулевым окончанием – муж. род
Книга лежит – на чем? – Тв. Падеж. Муж. Род – на столЕ
Учащийся с РЯН : Стол – это ОН, значит муж. Род.
Книга лежит на столе – на чем? – значит, Тв. падеж

5. Вывод

Каган и Диллон (Kagan and Dillon 2001) отмечают, что дети- носители языкового наследия обладают потенциалом для овладения вторым языком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а потому являются для страны ценным человеским ресурсом. При этом самым продуктивным

6) http://www.edunet.net/redu/contsvc/viewMultiCulture.

периодом для приобретения языковых навыков и формирования двуязычия является дошкольный и школьный возраст. К сожалению, в Южной Корее дети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из эти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 не имеют достаточ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изучения их родного языка в рамках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втор доклада рекомендует корейским педагогам обратиться к богатому советскому и российскому опыту в области преподава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второго родного языка (RSL), а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ть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для двуязычных детей, прожив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Библиография

Благонравова, Н. В., Л. В. Ипполитова.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студентов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вым наследием: опыт преподавания на факультете по обу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МГЛУ."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630 (2011).

Буслаев, Федор Иванович. *О преподавани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Directmedia, 2013.

Буслаев, Федор Иванович. *Опыт исторической граммати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Vol. 490. Унив. тип., 1858.

Кляйн-Никитенко, И, Юблайс М. «Хочу говорить по-русски», Русский язык-курсы, М. 2014.

Ломоносов, Михаил Васильевич. "Российская v грамматика". (1755).

Aidman, Marina A. "Biliteracy development through early and mid-primary years: A longitudinal case study of bilingual writing." (1999).

De Houwer, Annick. "By way of introduction: Methods in studies of bilingual first langua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2.3 (1998): 249-263.

Kagan, Olga, and Kathleen Dillon. "A new perspective on teaching Russian: Focus on the heritage learner." *The Slavic and East European Journal* 45.3 (2001): 507-518.

Leopold, Werner F. *Speech Development of a Bilingual Child: Sound-learning in the first two years*. Vol. 2. Ams Press, 1970.

Passov, E. I. "Communicative method of teaching foreign language speaking."*A guide for teachers of foreign languages* (1985): 208Polinsky, Maria. "Gender under incomplete acquisition: Heritage speakers' knowledge of noun categorization." *Heritage Language Journal* 6.1 (2008): 40-71.

Polinsky, Maria. "Gender under incomplete acquisition: Heritage speakers' knowledge of noun categorization." *Heritage Language Journal* 6.1 (2008): 40-71.

Rothman, Jason.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outcomes of early bilingualism: Romance languages as heritage langu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3.2 (2009): 155-163.

Saunders, George. *Bilingual Children: From Birth to Teens*. Multilingual Matters Inc., 242 Cherry St., Philadelphia, PA 19106-1906 (paperback: ISBN-1-85359-009-6; hardback; ISBN-1-85359-010-X), 1988.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issues in teaching Russian language to learn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who are heritage speakers of the Russian language. In this paper the challenge in teaching Russian language to these heritage speakers in Korea will be analyzed regarding particular language situation including demographic, linguistic and other factors. The author overviews the contemporary methodological approaches to teaching Russian language and describes methodologies of teaching Russian language to heritage speakers in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in South Korea. It is concluded that in South Korea, the Russian language is taught to heritage speakers either as a foreign or as a native language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the learners are enrolled in the Korean or in the Russian school. Neither of these methods is efficient for heritage-speakers learners of Russian. It is recommended that for the educators in Korea to consider vast Soviet and Russian experience in teaching Russian as a second native language (RSL) and also to utilize contemporary programs of teaching Russian language to children living abroad

Из опыта редакторской работы

К. А. Депонян (Университет Сувон) · Р.А. Кулькова (Университет Сангмёнг)

Профессионалы,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фере,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занимаются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должны заниматься) написанием разного рода текст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научных, официально-деловых. И с тех пор, наверно, как появились книги, авторы начали задумываться о качестве своих текстов. Ведь ошибаются все, кто работает. Ошибки возможны не тольк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одержащейся в тексте информации, но 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качества текста как такового: его композиции, связности, внятности и так далее. Со временем возникла профессия редактора.

Литература, посвященная тексту и его редактированию, весьма обширна и размыта. Поэтому в данном содокладе мы будем опирать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опыт своей прак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как редакторов. Этот опыт убеждает в том, что с любым текстом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как минимум – двое. Ес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тафору, работая вместе, соредакторы отражаются друг в друге, как в зеркале.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повышает не только качество текста, но и квалификацию каждого. За счет чег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За счет обмена идеями –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Но не тольк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работы над текстом, когда он уже почти готов, наступает этап «потери терпения», «усталости от текста» (в научной терминологии –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усталости»), кто-то из соредакторов находит-таки терпение прочитать текст еще и еще раз. Потому что текст очищается от недостатков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как бы слоями: сначала снимается слой самых грубых ошибок (стилистическ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и пунктуационных), затем исправляются логические ошибки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ются недостающие в тексте связи, на последнем этап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наиболее существенные для читателя вещи: соответствие названия содержанию, и – ч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 внятность реалий текста и внятность авторской позиции. Каждый из соредакторов видит текст по-своему и вносит в редактуру особый вклад.

Перейдем к ошибкам, которые делают авторы текстов в самом тексте и в обращении с этим текстом как своим продуктом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шибки можно свести к следующему.

Первая категория ошибок –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недооценка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амого редактирования, включая корректуру текста. Это может быть связано либо с излишней самоуверенностью автора («мы сами все знаем»), либо с недостатком информации (они не догадываются, что хорошие редакторы могут сделать текст на порядок лучше), либо со стеснительностью («мой труд скромный, как я его понесу суровому редактору?»). Роковую роль играет также излишняя надежда на автоматическую проверку текста. Однако такого рода программы не способны расставить запятые, решить вопрос о правописании в тех случаях, когда есть варианты: НЕ или НИ, НН или Н, слитное или раздельное написание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не говоря уже о стиле, логике, связности текста.

Вторая категория ошибок –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Авторы ведут себя с редактором по-разному. Замечено (не только нами), что чем выш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й уровень автора текста, тем с большим вниманием он относится к замечаниям. Авторы же начинающие часто настаивают на своем варианте, используя псевдо-аргумент «А разве так нельзя оставить?»

Третья ошибка – это незнание ключевых принципов построения текста. Есл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часто встречающиеся ошибки, 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следующий перечень авторских «провалов».

1. Непонимание того, насколько потенциальный читатель может быть информирован в теме. А именно: если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 читателей преувеличена, то в тексте появятся логические лакуны, непонятные читателю и потому раздражающие его (мало кто из читателей настолько энергичен, что обратится к источникам, которые могут эти лакуны заполнить, скорее всего, он просто текст отложит, не станет читать). Если же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 читателя недооценивается, то в тексте будет много банальной и потому скучной для читателя информации.
2. Несоответствие названия содержанию текста (название более узко или более широко, чем та информация, что реально содержится в тексте).
3. Отсутствие связей между смысловыми блоками текста. Обычно редактору приходится добавлять в текст такие средства связи: И, ТАК КАК, ПОЭТОМУ, НО, ОДНАКО, ХОТЯ, ПЕРЕЙДЕМ К…, ПОДВОДЯ ИТОГ РАССУЖДЕНИЯМ…,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ВЕРНЕМСЯ К …, ДОБАВИМ К ЭТОМУ... и др.
4. Игнорирование (или незнание) того, что в отличие от устной речи, в которой тему и рему можно выделять с помощью интонации и потому мож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любой порядок слов, в письменной речи рема располагается только в конце предложения и порядок слов в письменном тексте менее свободный, чем в звучащей речи. Постановка ремы в середине или начале предложения затрудняет чтение текста, затемняет его смысл.
5. Наличие неоправданных повторов информации в разных частях текста.

6. Стремление к сложным синтаксическим конструкциям и замысловатым терминам, не проясняющим, а затемняющим смысл текста.
7. Лож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значени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слова.
8. Незнание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и, физики и других наук, которое приводит к ложным утверждениям.

Бывают и другие ошибки в текстах.

Далее – о редактировании переводных текстов.

С редактированием текстов, которые предназначены иностранному читателю, связаны особые трудности. Кроме перечисленных выше типичных ошибок пр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и переводных текстов появляются некотор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трудности.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мы расскажем о редакторской работе над переводом книги Пак Хвана «Листая памяти ст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фотографиях (사진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Сеул, 2015)[1] и трудностях, с которыми мы столкнулись в процессе редактирования.

1.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работы мы должны были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названием книги: дословный перевод названия «Фотографии о жизни рус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амять о них» получил литературную обработку, что позволило озаглавить книгу как «Листая памяти ст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фотографиях». Так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была обусловлена следующим.

Во-первых, слово «русские» в сочетании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было изменено нами на «российские». Известно, что в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спользуются разные словосочетния: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посвящённые этому вопросу источники и учитывая то, что в книге Пак Хвана речь идёт не только о корейцах, которые переселя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начиная с 1860 года, но и о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ах,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в наши дни,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такие понятия, как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Переводчик не подозревал, что у редакторов возникнут трудности с выбором прилагательного для названия, ведь «русский» и «российский»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ередаются только одним словом – 러시아. Выбрать нуж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мы смогли после анализа ряда работ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1).

Возвращаясь к полному названию,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нами – «Листая памяти ст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фотографиях», следует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нами был предложен такой вариант: «Русские корейцы в фотографиях: листая памяти страницы». Однако в ходе анализа содержания текста мы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автор книги Пак Хван поставил цель

[1] Профессор Пак Хван – ведущий специалист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и бывш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 В своей работе он воссоздаёт историю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основе материалов и фотографий, которые собирались им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20 лет во время научных экспедиций и командировок по России и странам Средней Азии.

помочь современному поколению, живущему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корей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ах, поскольку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сыграли важную роль в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м движении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2, 5).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вторая часть названия «листая памяти страницы» была нами перенесена в начало заголовка книги. Таким образом, это позволило наиболее точно передать главный замысел автора да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2. Следующая проблема была связана с передачей буквами русского алфавита корейских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Здесь мы столкнулись с рядом задач.

Прежде всего нам предстояло решить вопрос о транскрипции корейских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В ходе работы мы пытались выяснить, существует ли единообразие в написании общеиз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в русской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пришли к выводу, что в силу того, что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тсутствует единая система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российские авторы передают одни и те же имена и названия по-разному: так, например, имя известного патриота 안중근 в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ах пишется как *Ан Джунгын* или *Ан Чунгын*. Для сравнения отметим, что такая вольность в написании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немыслима в написании, скажем,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иных регионов, например, европейских, например: *Уинстон Черчилль*, *Джордж Вашингтон* и др.

Работая с названиями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обществ и фондов Южной Кореи, названий организаций национально-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их газет 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которыми изобилует книга, мы также столкнулись с больш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Нам предстояло решить, переводить ли эти названи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или передавать их при помощи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Поскольку в переводе одних и тех же названий такж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однообразия, мы, сравнивая разные источники, использовали а) транслитерацию, б) перевод, в) перевод и транслитерацию. Так, например:

• в написании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нами использована только транслитерация, поскольку названия школ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 являются значимой информацией, например: «Квансон хаккё», «Кедон хаккё» и др.;

• в написании названий корей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техникумов и училищ, которые располага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спользовался перевод, поскольку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эти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имеют официальные названия.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он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и и потому входи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истему образования, наприме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орей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Никольск-Уссурий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корейский техникум и др.;

• при переводе общеизвестных названий, которые имеют однообразное написание в рус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мы оставляли только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например: Времен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ременный парламент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р.;

• названия, которые допускают вариативность в переводе и написании кириллицей,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перевод и транслитерацию, например: Все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Совет («Тэхан гунминыйхве»); в случаях, когда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те или иные названия встречаются

транслитерированными, мы использовали обратную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ь подачи перевода и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например: «Сонмёнхве» (Общество провозглашения), журнал «Вондон»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др.

Кроме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было важно добиться единого написания одних и тех же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текста.

Учитывая сказанное, мы с разрешения автора составили и включили в содержание книги указатель названий и имён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что, на наш взгляд, позволяет не только простым читателя, но и специалистам по истории, переводу, редактированию – как русским, так и корейским – глубже понять и оценить содержание данной книги,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путаницы в понимании корейских имён и фамилий.

3. В ходе редактирования также следует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на точность отдельных имен,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названий, принятых именований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и др. Например, такие языковые единицы как Октябрьская революция, Народно-революционная арм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Республики, Панорама «Волочаевская битва»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евой музей им. Н.И. Гродекова), А.П. Ким-Станкевич и др. не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ведены свободно, например, как Российская революция, революционные войска, Панорама Волочаевки, Александра Ким. Они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ведены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их официальным названием. К тому же, ес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е или ины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азвания (топонимы) называются иначе, это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о специально оговорить, например: станция Им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ст. Дальнереченск) (там же, 237). Это позволит читателю, не являющемуся специалистом в области новой и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легче воспринимать текст.

4. В случае переводных текстов крайнюю остроту приобретает вопрос о степени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читателя. Как правило, иностранный (корейский) автор, работая над книгой, не ставит перед собой задачу выяснить степень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и по теме рядового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и. Поэтому он пишет «для своих» читателей, даже тогда, когда знает, что произведение будет переводиться на другой язык.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величивается роль редактора. Он должен постараться увидеть текст глазами иностранного читателя и попросить автор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лакуны устранить или, с разрешения автора, сделать это самому. Так, например, в комментарии к фотографии, на которой изображена А.П. Ким-Станкевич,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написать инициалы и фамилию, но и добавить след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А.П. Ким-Станкевич – организатор Корейск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первая кореянка – член партии большевиков» (там же, 194). Без этой информации неподготовленному читателю будет трудно понять, какого масштаба личностью была А.П. Ким-Станкевич. Также российскому читателю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 имя Элеоноры Прэй, если переводчик или редактор не снабдит его следующим комментарием: «Американка Элеонора Прэй (1868 – 1954) жил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с 1894 года. Она была женой одного из членов семьи Чарльза и Сары Смит, владевших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мериканским магазином».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которые делала Элеонора Прей в течение тридцати шести лет, запечатлены различные события, которые повествуют об истории и жизни города» (там же, 100).

5. Одна из самых часто встречающихся проблем – ненатуральность переводного текста, граничащая с невнятностью или многозначностью. Это связано с тем, что структура фразы и структура всего текста не может быть в разных языках идентична. При редактировании переводных текстов важны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знания, чтобы не идти «на поводу у автора», то есть не копировать слепо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оригинала. Переводчик или редактор должен перефразировать предложения с целью придания тексту натуральность и естественность. Например, в любом языке много синтаксически частотных структур, которые в языке оригинала или отсутствуют, или употребляются реже. Так, вместо «Он был арестован» в большинстве контекстов (если речь не идет о юрид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ах) более естественно употребление обобщенно-личной структуры «Его арестовали». В области проблем изучения натуральности текста еще предстоят серьезные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изыскания.

Что касается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группы редакторов с автором исходного текста и переводчиком – они те же, что при работе соредакторов с авторами русских текстов. Если автор иностранного текста и переводчик – люди высокообразованные 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е, то общение не будет ничем затруднен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ши выводы заключаются в следующем:

1. Редактирование – дело коллективное.
2. Ошибки авторов повторяются от текста к тексту. Знакомство авторов с их перечнем может быть им очень полезно.
3. При переводе названия книги следует стремиться не столько дословно передать его содержание, сколько отразить в нём основную идею автора.
4. При переводе того или иного слова, термина, названия и пр. редактор должен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со словарями и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ой, чтобы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образить современные реалии (например, при выборе слов *русский* или *российский*).
5. Для передачи корейских имён и названий следует стремиться к однообразию транслитерации и перевод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текста.
6. Имена и названия, имеющие отношение к российско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даны в точн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официальными источниками: словарями, учебниками,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ой и пр.
7. Отредактированный текст должен быть натуральным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усской речи.
8. Текст должен учитывать информированность зарубежного (в нашем случае – российского) читателя, особенно если текст посвящён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ям.
9. В ходе работы над переводом специальной литературы (в нашем случае –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и России, а именно истории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редактор должен

работать не только с текстом перевода, но и обращаться к тексту оригинал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были описаны выше.

Литература

Пак Б.Д., Бугай Н.Ф. 140 лет в России. Очерк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М., 2004.
Пак Хван Листая памяти страниц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фотографиях. Сеул, 2015.

ОБЩИЙ СЛОВАРНЫЙ ФОНД РУССКОГО 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ОВ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СТАНСТВАХ «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Виноградова Н.В. (Пус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Введение

В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м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ом словаре» дано следующее определен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ие – элемент чужого языка (слово, морфема, синтаксическая конструкция и т.п.), перенесённый из одн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ой в результате языковых контактов, а также сам процесс перехода элементов одного языка в другой». [1]

На Земле не существует ни одного естественного языка, среди слов которого не было бы заимствований. Доля заимствованной лексики может колебаться в очень широких пределах: примерно от 10% до 80-90%. Например,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ось так, чт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олее 70% слов являются китайскими заимствованиями. Неравномерное развитие научн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дисциплин 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ах,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оминации новых понятий,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вязей и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актов делают заимствование иноязычных слов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источников пополнения лекс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любого языка.

Проблема заимствований постоянно привлекает внимание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лингвистов. Языки не существуют в полной изоляции, поэтому процесс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ноязычной лексики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тепени свойствен любому языку. Изучение языков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меет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ую традицию и в зарубежном, и в отечественном языкознании, так как невозможно найти какой-либо язык, который не пополнял бы своего лексического состава за счет иноязычных слов: «нет и не может быть ни одного чистого, не смешанного языкового целого. Смешение есть начало всякой жизни…».[2]

Общеизвестно, что наиболее проницаема по своему существу лекс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что связано с самой природой слова, его способностью отражать внеязыковые реалии. Факты материальных и

[1]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 2002. С.158
[2]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А. Языкознание. М., 1980. С.362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актов, т. е. факты внеязыковые, играют решающую роль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заимствования на лексическом уровне.

Ещё И. 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в работе «Языкознание» писал, что «с помощью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ных слов мы можем с большею точностью делать выводы о взаимном культурном влиянии одного народа на другой».[3] Многолетняя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ориентация Южной Кореи на Америку и открыт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о многим глобальным процессам, в частности, к американ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ансии, являются главными причинами расширения общего словарного фонда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явление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иноязычных слов англи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в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их быстрое закрепление в обоих языках объясняется по-разному.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евозможно понять, не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длительное и мощное политическое и культурное влияние США, которое началось в 50-ых годах 20-го века. Об этом наглядн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как письменный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ак и устная речь: уже давно учёные-лингвисты говорят о такой разновид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ак Koglish, (Konglish) (слова образованы от слов Korean и English)[4].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заимствовал из американского варианта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ую лексику, обслуживающую такие сферы, как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порт, мода, одежда, шоубизнес и под. Русский язык, уже имеющий в своём состав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нних, полностью «обрусевш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из европейских языков, именно в этом смысле «догоняет» корейский, идёт по его стопам. Многие российские лингвисты говорят о Руглише (Ruglish – слово образовано от Russian и English), как о специфическом явлении последних лет, которое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употреблением американизмов-дублетов вместо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х русских или давно обрусевших слов: *пати* (вечеринка), *лук* (внешний вид, образ*), пай* (пирожок)*, чекиниться/зачекиниться* (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рамках Руглиша учёные рассматривают также такие явления, как переосмысление, «новую жизнь» стары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особый вид квартиры» теперь стали называть *апартаментами* (раньше это слово

---

[3]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А. Языкознание. М., 1980. С.97

[4] См. например: 1) Прямо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слова – слова заимствованные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с тем же значением, что и в языке-оригинале, т.е. они обозначают то же явление.
바이 바이 Bye-bye, 스태미너 Stamina, 타이밍 Timing, 커피 Coffee, 머플러 Muffler, 팬츠 Pants, 체크 Check, 소파 Sofa, 다이어트 Diet.
2) Слова, потерявшие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новой заимствующей культуры своё исходное значение и обретшие новый смысл, не существующий в языке-оригинале, и образованые самими носителями заимствующего языка.
애프터서비스 Free of charge Service, 아메리칸 스타일 커피 Black coffee, 오토바이 Motorcycle
백 미러 Rear-view mirror, 아이 쇼핑 Window shopping, 게임 룸 (video) arcade, 핸드폰 Mobile phone, cellular phone, 라이트 콜라 Diet coke
3) Сокращенны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т.е. такие слова, которые под влиянием внешних факторов сокращены для удобства произношения.
에이에스 After service, 에이컨 Air conditioner, 아파트 Apartment building, 백 뮤직 Background music
백 싱거 Backup singer, 볼펜 Ball Point Pen, 밴드 Bandage, 센치 Centimeter, 시피 Commercial film
디카 Digital camera

употреблялось в значении «роскошное жилище»); «обед» называют *ланчем* (раньше – «второй завтрак в англоязычных странах»); и замену стары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на новые: бутерброд – *сэндвич*, манекенщица – *модель,* макияж - *мэйкап*. По словам Е.В. Марининой, такие слова « уже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не как частица «чужого» мира, а как «показатель» причастности к современной цивилизации» [5] . Существование такого явления обусловлено стремительными переменами в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в последние 30 лет, тем, что в эти годы Россия вошла в число стран, для которых Америка является культурным донором.

Уси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отоков, появление глобальной компьютерной системы Интернета, расшир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азвитие мирового рынка, экономик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се эти процессы, происходящие в основном на базе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е могли не привести к вхождению в русский язык многих английских лексем, которы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своил несколько раньше. Однако судьба эт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а также сама возможность вхождения какого-либо английского слова в коре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не одинаковы.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работы находятся слова-заимствования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относятся к тематическим пространствам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и, казалось бы, должны одинаково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в и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а также особенности устройства данных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в обоих языках, что создаёт или не создаёт условия для заимствования той или иной лексемы. Интересно проследить, как английское слово входит в русский 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попытаться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 почему язык-реципиент не всегда осваивает его, а приспосабливает для этой цели уже имеющееся в языке слово.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Говоря о заимствовании иноязычных слов, Л. П. Крысин выделяет следующие основные причины: а) потребность в наименовании новой вещи, нового явления и т. п. , б)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граничить содержательно близкие, но все же различающиеся понятия, 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пециализации понятий – в той или иной сфере, для тех или иных целей (тенденция, заключающаяся в том, что цельный, не расчленённый на отдельные составляющие объект и обозначаться должен "цельно", нерасчленённо, а не сочетанием слов); г)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причины и факторы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осприятие всем коллективом говорящих или его частью – иноязычного слова как более престижного, "учёного", "красиво звучащего", а такж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актуальность обозначаемого понятия[6] .

В силу новизны самих явлений, обозначаемых словами, которые входят в тематические группы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естествен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5] См. Маринова Е.В. «Вечный вопрос» о заимствованиях»// Русская речь, 2014-3, с. 58
[6] Крысин Л. П. Иноязычные сло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1968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рассматриваемых нами случаях является первая. Именно потребность в наименовании новых вещей и явлений обусловливает преобладающее количество параллельны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типа: *computer, компьютер, 컴퓨터.*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их заимствований много, особенно в тематической группе «Компьютер» (см. Таблицу 1).

Таблица 1

	Русски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нтернет (инет)	Internet	인터넷
1	сайт	site	사이트
2	файл	file	파일
3	мышь	mouse	마우스
4	монитор	monitor	머니터
5	плейер	player	플레이어
6	вирус	virus	바이러스
7	кликать	to click	클릭하다
8	Фэйсбук, ФБ	Facebook, FB	페이스북
9	он-лайн сервис[7] (он-лайн услуги)	online service	온라인 서비스
10	программист (компьютерщик)	programmer	컴퓨터 프로그래머
11	смартфо́н	smart-phone	스마트폰
12	айфо́н	i-Phone	아이폰
13	ро́уминг	roaming	로밍
14	рингто́н	ringtone	벨소리

Рус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варианты слов в примере 7 различаются только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показателями глагольности, что не влияет на эквивалентность самой лексемы.

Однако так бывает не всегда. Судьба заимствований, а также сама возможность вхождения какого-либо английского слова в корейский и русский языки не одинаковы. Здесь мы имеем в виду следующее. Беглый взгляд на проблему (мы сейчас не обсужд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тени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го слова не из английского, а из французского или немецкого, важен общий индоевропейский корень) позволяет рассужд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целом, кроме рассмо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когда слово заимствовано в том же значении как в русском, так и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лампа (русск.) – lamp (англ.) – 램프 (кор.)*, возможно сужение лексического значения слова, употребление его только в одном из значений в одном из языков-реципиентов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многозначности в другом: *парад (русск.)* военное шествие – *parade (англ.)* шествие *퍼레이트(кор.)* шествие.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наблюдаются случаи, когда слово заимствуется только одним из языков, в другом же остаётся исконное: застёжка *молния (русск.) - zipper (англ.) -지퍼* ; *футбол (русск.) - football (англ.) – 축구 (кор.).*

[7]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примерах 9,10 оба варианта: сервис – услуги, программист – компьютерщик -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равноправными.

Приведём примеры (см. Таблицы 2, 3).

Таблица 2[8]

	Русски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мышь (координатное устройство ввода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курсором и отдачи различных команд компьютеру)	mouse	마우스
2	флешка (USB-флеш-накопитель)	USB	USB
3	железо (внутренняя начинка компьютера, хадвер)	hard wire	hard wire
4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О, (софтвер)	soft wire	soft wire
5	домашняя страница, (хоумпэйдж, хомяк)	homepage	홈페이지
6	загружать контент (файл, программу)	to download	다운로드하다
7	Обновлять ПО, (апгрейдить ПО, делать апгрейд)	to upgrade a soft wire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다
8	симка (SIM –карта, сим-карта, модуль идентификации абонента)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USIM 카드(유심카드)

В первом случае, в отличие от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лово *мышь* было заимствовано путем калькирования (похожий пример: *социальная сеть - social web - 소셜 웹*); примеры 2,3,8 демонстрируют «победу» жаргонных номинаций, очевидно, в силу их простоты и образности, в примерах 4 -7 более приемлемыми, более «жизнестойкими» оказались литературные и поэтому исконно русские номинации. Почему в случае 7-Табл.1 язык выбирает заимствованный корень *кликать/кликнуть*, а в случае 6-Табл.2 предпочитает исконно-русский *загружать/загрузить*, остается открытым.

В таблице три находятся примеры на заимствование английского слова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ри отсутствии такового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см. Таблицу 3).

Таблица 3

	Русски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1	аккаунт	account	계정
2	копировать	to copy	복사하다
3	рингто́н	ringtone	벨소리
4	SMS , СМС-сообще́ние СМС-ка	SMS	문자 메시지

[8] В таблице в скобках даны не общеупотребительные, но возможные, существующие как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ариант, номинации данных реалий.

В заключение покажем, что разница в картине мира может провоцировать полное несовпадение языкового отражения ситуации: русские в Интернете сидят, американцы пребывают, а корейцы его делают.

Таблица 4

Русский язык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сидеть в Интернете	to be (to spend time) online	인터넷을 하다

Заключение

В силу глобализации и других различных факторов, которые так или иначе оказывают влияние на любой язык,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русский, и на корейский, лексическое заимствование американизмов становится неизбежным и закономерным явлением. Такие заимствования призваны дополнять лекс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языка и вносить в него недостающие обозначения каких-либо явлений, если таковых обозначений в языке-реципиенте не было изначально.

В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каждое конкретное заимствование обусловлено тем, что с новым словом в русский 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и пришли новые внеязыковые реалии, чем и объясняется «адекватность» использования заимствования. Тем не менее, закономерности развития языка иногда диктуют, казалось бы, «нелогичное»,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е, как, например, предпочтение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окказионализма Велемира Хлебникова *лётчик* иноязычным словам *пилот* или *авиатор,* хотя по правилам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иначе. Анализ языкового материала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Компьютер» и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и в корейском, 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озможность закрепления американизма зависит от многих факторов и не всегда заранее предрешена.

Литература

Бодуэн де Куртенэ И.А. Языкознание. М., 1980

Крысин Л. П. Иноязычные слова в современ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М., 1968

Е.В. Маринова «Вечный вопрос» о заимствованиях»// Русская речь, 2014-3, с. 58

Маринова Е. В. Иноязычные слова в русской речи конца XX — начала XXI в.: проблемы освоения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М., 2008

Маринова Е. В. Теория заимствования в основных понятиях и терминах: словарь-справочник. М., 2013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 2002

Jeffrey Miller. A Word by Any Other Meaning: Konglish (the version from the monthly webzine of the Macmillan English Dictionary Magazine). Issue 5, March 2003.

www.kangmi.org – What is Konglish